

서울문화재단 전략보고서

**유희시설을 활용한  
서울시예술창작공간조성**



## [ 창작공간조성추진단 ]

단 장 이선철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전문위원 김윤환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대표)

전문위원 조재원 (0\_1STUDIO 대표)



본 전략보고서는

문화예술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 컬처노믹스 정책 구현을 위해 유희시설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사업 추진방향 제안 및 구체적인 실행 전략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본 전략보고서의 내용은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정기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 창작공간조성 추진단에서 별도 시행한 두 건의 세부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전략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담당자들에게 제출되어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사업을 위탁 운영할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수행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본 전략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컬처노믹스 전략에 의한 유희시설의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사업을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으로 통칭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목 차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 1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정의 및 추진배경

- 1.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의 개념 정의 / 7
- 2. 정책적 배경 / 10
- 3. 전략보고서 발간목적 및 추진경과 / 13

## 2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지 선정 현황과 특징

- 1.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지 사업 개요 / 17
- 2. 사이트별 세부 현황 / 18
  - 1)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 18
  - 2)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20
  - 3) 신당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 23
  - 4)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 25
  - 5)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 27
  - 6) 남산동량예술센터창작공간 / 30

## 3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전략

- 1.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의 비전 및 전략목표 제안 / 35
- 2. 조성 전략 / 35
  - 1) 조성 방향 설정 / 35
  - 2)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건축 제안 / 41
- 3. 운영 전략 / 42
  - 1) 단계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 유형화 / 42
  - 2) 조직체계 / 43
  - 3) 프로그래밍 원칙 / 47
  - 4) 입주단체 및 공간 대관 / 50
  - 5) 사업 홍보와 마케팅 전략 / 52



4. 개별 사이트 운영 개요	/ 54
1)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 54
2)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56
3) 신당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 58
4)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 60
5)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 62
6)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 64
5.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 66

## 부 록

1. [세미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아트팩토리 - 어떻게 할 것인가	/ 71
2. [회의록]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1, 2차 자문회의 의견 종합	/ 107
3. 창작공간조성 전략 개발을 위한 문화생태계적 관점의 접근 : 홍대지역 및 문래 창작촌을 중심으로	/ 112
4. 상세현장조사결과 : 공간맥락적 조사 및 공간조성전략연구	/ 179

참고문헌	/ 265
------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 참가자 명단	/ 2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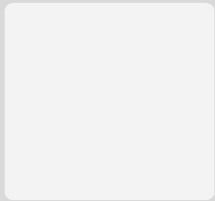




# 1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정의 및 추진배경





## 1 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의 개념 정의

- 보편적으로 예술 창작공간은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며, 작업실, 스튜디오, 아틀리에, 공방, 화실, 연습실 등 다양하게 표현됨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은 유희공간청사, 공장 이적지,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국내외 예술인의 창작 및 교류공간과 함께 각 공간의 독특한 이미지에 예술성이 접목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화명소를 만들어 지역재생의 거점이 되도록 함
  - 유희공간의 재생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은 ‘창의성의 원동력’, ‘지역 매력도 향상’, ‘지역 브랜드 상승’, ‘창조산업으로의 전환에 기반’이라는 지역 재생의 기초적 틀을 마련해 줌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은 기존의 창작공간조성사업과 달리, 쇠락한 유희공간을 재활용 하고 이를 통해 예술창작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조성될 시설이 예술과 문화 향유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 본 전략보고서에서는 아트 팩토리, 아트 스튜디오, 아트 아케이드의 개념을 포괄하는 유희 시설의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 사업을 기존의 창작공간조성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으로 통칭하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 따라 개념을 정립하고자 함

## 1 유희공간을 재활용한 창작공간이 생산하는 가치

창작공간이 가질 수 있는 효과와 연계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권을, 지역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를, 낙후된 지역에는 문화적 재생을 제공

## 1 창의적 예술 활동의 플랫폼

- 예술가의 사회화를 위한 실험 및 역할 부각의 공간, 새로운 예술탄생의 인큐베이터 및 글로벌 미학과 로컬 지역성 실험의 공간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정의 및 추진배경

- 예술의 새로운 가치-도시 경제적, 도시 사회적, 도시공동체적-를 창출
- 예술의 일상성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향상
- 사회적 권리로서의 창작권 실현을 위해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

### 2 시민문화향수 공간

- 다양한 예술장르를 입주시켜 장르 간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시민문화 여가 복지를 한 번에 해결
- 각 지역별 예술가, 전문가, 주민이 협업하는 신 개념의 문화 거버넌스를 창출
-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삶을 가꿀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 기반, 사회적 자유 등의 제공 및 보장

### 3 재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의 거점

- 오래된 시설 및 버려진 공간에 예술가들이 밀집됨으로써 자생적인 창작촌 구성으로 도시 재생의 주체로 활용 가능
- 지역 문화관광 명소로서의 가치
- 폐 산업시설이나 폐교, 주거 등 제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현재는 유휴 공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발견하여, 시민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지역에 관한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장소로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 환기 및 도시 역사를 이어가는 공간

## 2 |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매개하는 공간 유형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은 아래 범주의 창작 공간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문화 향유, 창작, 매개, 교류 공간의 특징 모두를 포함한 복합적 성격으로써 포지셔닝 하고자 함

## 1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의 창작 공간 (국제문화교류시설 포함)

- 일정기간 동안 예술가를 초청하여 창작공간에 머물게 하면서 창작비를 지원하거나 전시를 열게 하는 형태로 운영
- 창작 활동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취사, 숙식이 가능한 구조
-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창동, 고양), 독일의 하우스 베타니엔, 프랑스의 쉐로베르가 이 범주에 해당
- 현재 국내 창작공간의 경우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짧은 입주기간(대부분 1년 이내)으로 창작환경 제공을 위한 기능 및 작가 간 교류나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기능 부족
- 입주자들이 국내 혹은 국외의 국, 공립 기관 초청으로 생활비와 창작비를 보조 받으며 체류하는 공간
- 우리나라 창작 공간의 개념이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 공간의 안정적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외국의 경우는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및 전파에 역점을 두고 있음<sup>1)</sup>

## 2 일상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 공간

-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가 이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일상적인 사용에 한계를 보이며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

## 3 일시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 공간

- 본래 창작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공간의 사용 맥락에 따라 가변적으로 창작실의 성격을 수행하는 공간
- 일반적으로 카페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대지역에서 활발함

## 4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창작 공간

-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개념과 기량을 발전시키고, 미술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 미술담론의 생산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됨은 물론 출판물을 통한 지역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담당

1) 양건열 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2004, pp. 14-17.

- 지역사회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다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제공, 입주 작가들이 학생들에게 예술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튜디오 개방하여 예술가와 교류하거나 온라인으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 2 정책적 배경<sup>2)</sup>

### 1 도시 공간 재정비 통한 문화도시 조성

#### 1 국내외 유휴 공간 활용 배경

- 1980년대 들어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개념들이 널리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산업 구조의 전 세계적인 변화와 함께 도시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음
- 그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더 이상 1차,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 도시의 공업시설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막대한 면적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기 시작
- 유휴공간들은 주로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 오던 공장, 부대시설, 항구 등의 산업 중심지로 한때는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점차 진행된 도시의 확대와 함께 도시 안에 합류된 지역들임. 이들은 오염된 대지, 낙후된 지역 등 도시 환경의 악조건을 지닌 반면, 전략적인 위치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점을 동시에 지님
- 유휴공간의 처리 방법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도시의 산업 잔해들로 남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공공사업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과정을 거쳐 산업 잔해에서 공간 자원으로 재해석 됨
- 오늘날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의 문화적 풍요를 표현할 필요를 느끼고 많은 예술가들의 활동이 필요해지기 시작, 이러한 도시적 욕구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

2) 본 장은 2008년 4월 서울시 문화국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2 유희시설 재활용의 당위성

- 유희시설의 재활용은 새로운 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 시설 철거와 새로운 개발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부담과 그것을 방치함에서 오는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함
- 용도 폐기된 건물들에 관한 도시 미관 정비 필요
-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탄탄한 예술창작기반 조성 요구에 부응
- 예술적인 창의를 기반으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탈바꿈하여 도시재생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관심 증가

## 2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세계적 트렌드 반영

- 세계의 도시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도시 내 낙후지역의 산업유산, 근대화 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발견하여 ‘창작’ 혹은 ‘창의’ 라는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
- 물리적 성장의 도시개발이 한계에 달하여 순환적 가치성장을 추구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맥상통함
- 세계수준의 창의인구를 창출하여 세계도시 이미지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 도시 곳곳을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여 문화종사 일자리 창출 증대
-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매개로 도시매력 창출 증대, 관광경쟁력으로 연계
-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폐 산업시설 철거에 따른 산업쓰레기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프로젝트

**참 고** | 국내외 관련사례

■ 광주 대인시장 “창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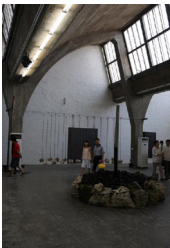
- 창작실을 통해 재래시장활성화 시도
- 작가들이 빈 점포들을 임대, 기존공간을 창조적으로 재구성 후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한 오픈스튜디오 행사 개최
- 주변 상인들과 협의 하에 예술티셔츠를 위탁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산 “오픈스페이스 배”



- 2006년 배밭 부지 농가를 리모델링하여 레지던스 시범운영
- 부산 비엔날레와 연계한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 국내외 예술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 중국 베이징 “다산쯔 798” 예술특구



- 1995년 군수물자 생산 공장이 이전하면서 예술가들이 입주를 통한 문화촌 형성
- 디자인 스튜디오 180여 곳 등이 포함된 중국최대의 예술단지 (베이징에는 다산쯔 같은 예술특구가 9개 존재)

■ 프랑스의 “프리고”



- 1921년에 지어진 프랑스 국유철도회사 냉동 창고였던 곳을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로 사용
- 250여명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 (오래된 기차터널을 살려 만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예술행사 개최)

### 3 전략보고서 발간목적 및 추진경과

- 본 전략보고서는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에 관한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소요 자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도출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을 위해 '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이선철, 김윤환, 조재원)과 재단의 수차례 유관기관 답사, 세부 현장조사, 추진단 정기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정책 세미나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전략보고서 작성
  - ※ 위의 자료들은 본 전략보고서 부록 참조
- 본 전략보고서는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담당자들에게 제출되어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을 위탁 운영할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수행 계획에 반영될 것임
  - ※ 단, 조성 예정지별 세부 사업 계획을 위한 매뉴얼은 현실에 맞게 재단에서 수립할 예정임
- 본 전략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더 나은 운영 정책, 콘텐츠 등이 제출되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등을 통해 더 알찬 내용들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함

#### ■ 추진경과

-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구성 : '08.9월
    - 단장 이선철, 전문위원 김윤환, 조재원
    - 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 내 창작공간조성 TFT와 연계 운영
  - '08년 조성 대상지 6개소 설계검토 및 자문 : '08.12월 완료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조사연구를 통해 창작공간조성 전략 개발
    - 분야별 전문가 및 조성 지역 이해당사자 간담회 개최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간담회 개최 : 1차 '08.10.6, 2차 '08.12.16
      -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간담회 개최 : '08.10.21
      -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회의 개최 : 1차 '08.12.10, 2차 '08.12.30
    - 정책 세미나 개최 : '08.12.18, 문래예술공단 출공장
    - 전략보고서 발간을 위한 세부과제 조사연구 2건 시행 : '08.10-12월
      - ：창작공간조성 전략 개발을 위한 문화생태계적 관점의 접근(연구책임:김윤환)
      - ：공간맥락적조사 및 공간조성전략연구(연구책임:조재원)
- (※ 2009년 1월 현재 전략보고서 제안을 반영하여 각 사이트별 실행 계획 수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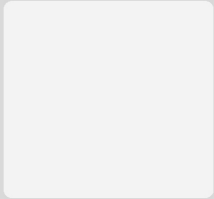




# 2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지 선정 현황과 특징





# 1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지 사업 개요

- 서울시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공장 이적지 등의 도심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
- 2008년 예산으로 6개소 조성, 2009년 예산으로 1개소 조성 예정

<2008-2009 대상 시설물 (총 7개)>

회계 년도	조성 시설	대상지 현황	개관 (예정)	기존시설형태	조성방향
2008	홍대지역 복합문화 예술공간	·대지: 416.9㎡ ·연면적: 551.5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위치: 마포구 서교동 369-8	2009.4	주민 지원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교동사무소	홍대 앞 밀집 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기획활동 지원 서비스 공간
	금천 아트팩토리 (가칭)	·대지: 2,358㎡ ·연면적: 3,07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부속창고 ·위치: 금천구 독산동 333-7	2009.7	대규모 인쇄공장	장기 레지던스형 스튜디오와 통합장르형 프로젝트 스페이스
	신당 지하상가 창작 아케이드	·연면적: 5,057㎡ ·규모: 지하상가 점포 99개 ·위치: 중구 황학동 119번지	2009.7	재래시장 지하상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 가능한 소형 스튜디오
	연희동 창작 스튜디오	·대지: 7,242.30㎡ ·연면적: 1,674.07㎡ ·규모: 지하1층,지상1층(1-4동), 지상2층(5동)5개동 ·위치: 서대문구 연희동 200-140	2009.7	서울의 역사 등을 연구 및 집필하는 시사편찬위원회	도심 속 전원형 문학 창작촌
	영등포 아트 팩토리 (가칭)	·대지: 1,017㎡ ·연면적: 2,82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 ·위치: 영등포구 문래동1가 29-1 외 2필지	2009.12	제철공장	자생적 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공동창작을 지원하는 창작인프라
	남산 동량 예술센터 창작공간	·대지: 3,079.37㎡ ·규모: 본관 지하1층, 지상2층, 신관 지상 5층 ·위치: 중구 예장동 8-19호	2009.4	서울예술 대학교의 교육 공간 및 공연장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발표 공간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센터
2009	성북 아트팩토리 (가칭)	·연면적: 1,997.84㎡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위치: 성북구 종암동 28-358	2009.9 공사 발주	주민 지원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성북 보건소	미정

## 2 사이트별 세부 현황

### 1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 ● 조성 지역 (마포구 서교동 369-8번지)



#### ● 시설 및 공간 구성(안) : 홍대 앞 밀집 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기획활동 지원 서비스 공간

구분	개 요	세부 시설구성
옥상	휴게 및 이벤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외 이벤트가 가능한 옥상 정원 및 나무 데크 바닥</li> <li>야외 이벤트에 맞는 조경 및 가변식 어닝 설치</li> <li>※동사무소 스피커 존치</li> </ul>
2F	운영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사무 공간</li> </ul>
	소그룹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6개 독립 공간 (약 8평)</li> <li>공동 사무실 1실</li> </ul>
1F	카페형 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페 분위기의 개별 미팅, 회의, 세미나, 전시 가능 공간</li> <li>리셉션형 이벤트시 서비스 공간 및 안내 데스크를 겸한 바</li> <li>전시 가능한 벽면, 천정구조 및 조명설치</li> </ul>
지하	다목적 발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 및 연습 가능한 다용도 블랙박스 공간</li> </ul>

#### ● 지역공간분석

- 홍대 지역에는 예술, 공연 관련 기존의 활성화된 지역 공동체가 존재
- 61개의 음악관련 업체와 200여개의 클럽, 카페, 30여개의 영상 관련 업체와 14여개의 화랑 등 문화의 창작이 문화의 교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문화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지님

## ● 홍대 지역문화 형성과정

- 1980년대까지 홍익대 앞을 중심으로 미술학원, 갤러리, 각종 작업실 등 예술 공간이 형성되면서 홍대 미대와 미술문화지역으로 지역의 장소성 형성
-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가 ‘홍대앞’ 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음
- 1990년대 말부터는 비영리 전시공간인 대안 공간 루프가 오픈하였고, 미술과 음악활동 뿐 아니라 디자인, 만화, 영상 등 문화기획과 문화산업관련 전문 직종의 사무실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복합문화지역으로 주목
- 2000년대 홍대지역문화 보호와 육성의 취지로 ‘걷고 싶은 거리’, ‘문화지구 지정’ 등 홍대 앞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킴

##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의 도시적 기능

- 무엇보다도 산재해 있는 지역 공동체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문화 복합체로서의 지역 아이덴티티를 발전시키는 것
- 이를 통해 지역 문화 창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홍대 지역의 네트워크와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창구 역할

음악관련 61개소  
영상관련 31개소  
회관 14개소  
연극관련 2개소  
무용관련 10개소  
클럽/카페 약200개소  
문화관련협회 16개소



[홍대문화지구의 주요 거점들과 확장된 모습]

## 2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조성 지역 (금천구 독산동 333번지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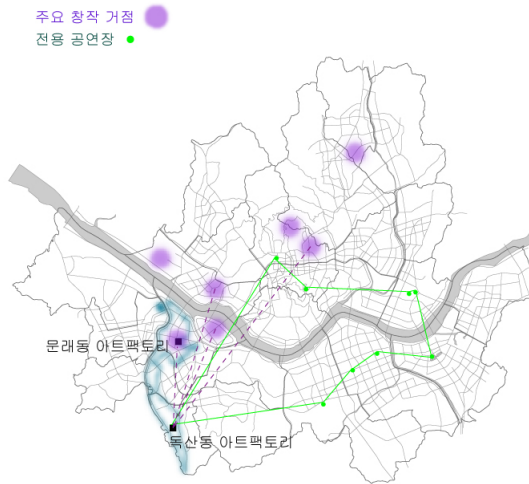


● 시설 및 공간 구성(안) : 장기 레지던스형 스튜디오와 통합 장르형 프로젝트 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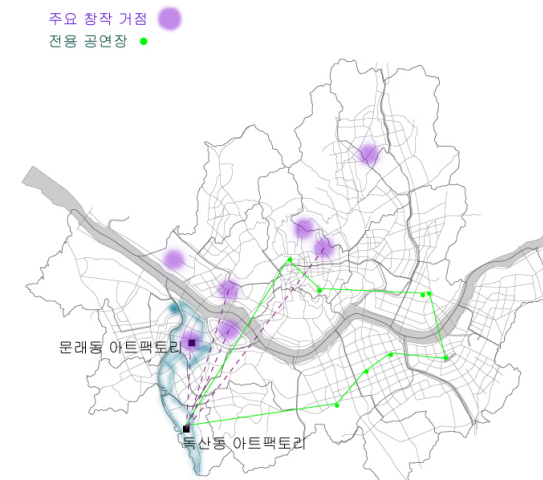
구분	공간구분	개요	세부 시설구성
3층	본관	프로젝트 스페이스 공연, 전시 등 다목적 발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전시 조명 설치 가능한 천정 구조</li> <li>• 공연형 이벤트시 방음가능 벽 구조</li> </ul>
	기숙사	예술가 호스텔 5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호스텔 1실(약 6평)</li> <li>• 소형 호스텔 4실(약 3.5평)</li> <li>• 남녀 구분 기숙사형 공간</li> <li>• 공동 휴게실</li> </ul>
2층	본관	창작스튜디오 12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스튜디오 4실 (약 17평)</li> <li>• 소형 스튜디오 8실 (약 6평)</li> </ul>
	기숙사	창작스튜디오 3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형 스튜디오 3실 (약 8-9평)</li> </ul>
1층	본관	운영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팀 사무 공간</li> <li>• 일반 사무실 공간 구성, 방문자 로비</li> </ul>
		창작스튜디오 8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li> <li>• 대형 스튜디오 4개 (약 15평)</li> <li>• 소형 스튜디오 4개 (약 5평)</li> </ul>
	기숙사	프로젝트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 회의공간으로 가변 이용</li> <li>• 일반 사무 공간, 공동라운지, 주방</li> </ul>
	창고동	시각예술 프로젝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예술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 팀의 창작 및 발표 공간</li> <li>• 크레인, 조명 설치 가능한 천정 구조</li> </ul>
지하	본관	다목적 발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연습, 이벤트를 위한 천정, 방음 구조</li> </ul>

## ● 지역 공간분석

- 주변은 근생 건물과 주거의 복합된 용도 지역으로 지역 자체가 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지역(문래)과 근접함
- 문래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적, 도시적 조건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이 주변 활성화의 진행이 가능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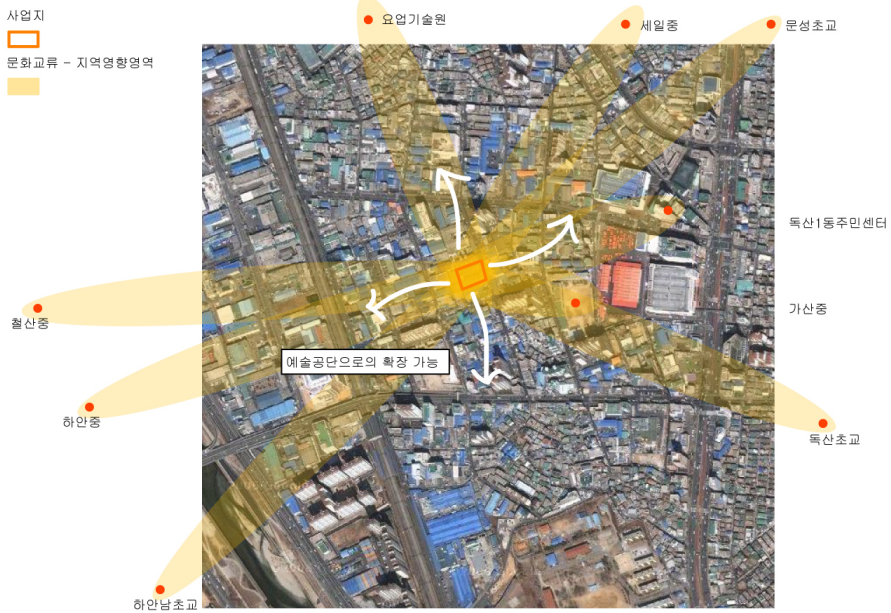
<주요 창작거점, 전문 교류 네트워크상의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지역 문화, 창작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 금천 아트팩토리(가칭)의 도시적 기능

- 금천구 주변 지역을 문화의 체류와 교류 중심의 구역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우선 도시 전체의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설의 특화를 통해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
- 주변 지역이 문화적으로 비활성 지역인 점을 감안, 지역사회의 창작,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의 소통과 문화 확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금천 아트팩토리(가칭)-지역문화공동체의 교류거점>

### 3 신당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 ● 조성 지역 (중구 황학동 119번지)



#### ● 시설 및 공간 구성(안) :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 가능한 소형 스튜디오

공간구분	시설 구성
작업실	35실(기존의 상점 칸막이 구획과 유사)
공동작업장	2개(약 37평, 약 32평)
전시장	1개(약 50평)
발표장	1개(약 7평)
카페	1개(약 7평)
운영사무실	1개
관리사무실	1개
기타	휴게 공간, 공용 공간 외

#### ● 지역 공간분석

- 신당동 지하상가는 서울 시설 공단이 관리하는 27개의 지하상가 중 하나로, 도심의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들로 이루어진 종로, 중구권 지하공간의 네트워크상에 위치
- 공간의 성격상, 길, 연결, 네트워크의 성향이 강하고,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 또한 사용 공간에서 비롯된 '머뭇'과 함께 '통행'이 주로 이루어짐, 즉, 공간 자체가 인프라



#### 4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 ● 조성 지역(서대문구 연희동 200-140 외 3필지)

조성 전



##### ● 시설 및 공간 구성(안) : 도심 속 전원형 문학 창작촌

구분	개요	세부 시설구성
집필 스튜디오 1,2동	개별 집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동 집필실 8개</li> <li>• 2동 집필실 8개</li> <li>• 공동 주방</li> </ul>
레지던스 스튜디오 3,4동	국제 교류용 레지던스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실 8개를 겸한 게스트 하우스, 회의 공간</li> </ul>
사무동 5동	1층 집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실 3개, 공동주방</li> </ul>
	2층 운영사무실	
산책로	야외 이벤트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로, 소규모 데크</li> </ul>

##### ● 연희동 창작스튜디오의 도시적 기능

- 단일 건축물로서 주변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주변 활성화의 어려움을 가진 대표적 주변 비활성화의 경우
- 문학 장르에 특화된 집중 창작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되, 개별적 완결보다는 전체 도시의 유사 프로그램,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네트워크상에서의 이해가 필요함
- 다른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통해 자체가 갖는 프로그램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장르 복합의 교류를 기획할 수 있음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선정 현황과 특징

- 총 5개 동의 건물 중 외부에 위치한 1동을 지역 사회와의 교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시 네트워크상 뿐 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문화 영향도 도모할 수 있음



### > 사업지

지역사회로부터 독립된  
창작스튜디오와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문화시설 병행



### > 창작의 '체류' 네트워크 안의 연희 창작스튜디오



### <연희동 창작스튜디오의 지역단위교류>

## 5 영등포 아트팩토리 (가칭)

● 조성 지역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9-1외 2필지)



● 시설 및 공간구성(안) : 자생적 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공동창작을 지원하는 창작인프라

구분	공간구분	개요	세부 시설구성
4F	운영사무실	운영팀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사무실 공간 구성</li> <li>옥외 휴게 공간, 루프 테라스, 라운지</li> </ul>
	예술가 호스텔	협업을 위한 중, 단기 체류 작가용 게스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호스텔 9실(약 4평), 세미나실</li> </ul>
3F	카페형 갤러리	전시, 회의 및 이벤트용 다용도 카페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갤러리, 창고, 홀, 주방(바)</li> </ul>
2-3F	다목적 발표장 (복층 사용)	전시 및 공연 리허설, 발표가능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 공연장 대기실, 창고 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 전시, 공연 가능한 바닥설비, 조명 설치 가능한 천정구조 (약 66평)</li> </ul>
1F	대형 작업실	외부와 연결되는 작업 현장 및 전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레스기, 크레인 등 공동 중장비 설비</li> </ul>
	로비	공간 안내 및 회합의 장소	
지하	부속 설비 공간	부속 지원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고, 주차장 외</li> </ul>

### ● 지역 공간 분석

- 문래 예술 공단 지역은 예술창작, 교류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예술창작, 체류의 지역으로 발전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선정 현황과 특징

- 주변 지역의 대부분은 준공업지로, 유흥산업지역에서 다른 용도로의 전이가 진행 중이며 주변의 사회적, 공간적 맥락이 불확정적이고 지역 사회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

### ● 문래동 지역문화 형성과정

- 1930년대 일제 시대 군수공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어 기계, 제련, 염색 등 중화학계열의 공장이 증가
- 1942년 당시 서울시 80%를 점할 정도에 이르러 공히 서울의 대표 중심공업단지로 조성
- 1960년대 초 경인로를 중심으로 철재상들이 형성, 1976-9년 철재상가건물이 건립되어 수가 급격히 증가
- 1980년대 중반 특히 1985년 세운상가 서편의 공장철거로 인해 문래동으로 이주
-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수도권 공장 이전정책에 의해 대형공장이 빠져나가고 아파트 들어서면서 남는 공간에 소규모 제조업체 침투
-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영등포의 대형공장들이 이전, 소규모 기계금속 관련 업종은 문래동의 장소성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
- 2002-2003년부터 서울시내의 높은 공간임대료, 전통공업지역의 쇠퇴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문래동의 저렴한 임대료, 홍익대 및 대학로 지역의 상업적 변질과 이로 인한 예술가들의 이주, 삶의 활동과 예술창조활동의 일상적 접촉, 장인정신과 예술창조정신의 만남, 예술가 개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5년 사이 문래 창작촌이 빠르게 형성됨

### ●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도시적 의미

- 영등포 아트팩토리가 기존 예술 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래를 서울 창작공간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킴
- 문래 예술 공단과 지역 사회와의 공생,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작업을 통하여 문래 예술 공단의 지속을 도모
- 문래지역을 서울 창작공간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과 더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한편, 문래 예술 공단의 지속,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향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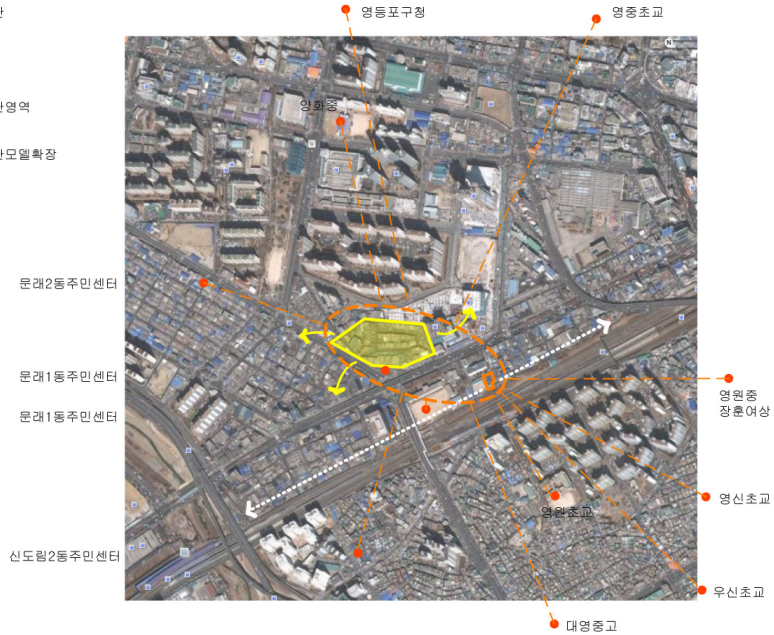


<주변 준공업 지역의 창작거점으로서의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지역 문화, 창작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 문래예술공단
- 사업지
- 문래예술공단영역
- 문래예술공단모텔확장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와 지역사회간의 문화협동체>

**6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 조성 지역 (중구 예장동 8-19)

조성 전



● 시설 및 공간구성(안) :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발표 공간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센터

구분	공간구분	세부 시설구성
본관 (극장동)	지하1층	분장실, 대기실, 공연연습실
	1층	공연장 로비, 공연장
	2층	공연장 관람석 및 조정실
신관 (교육센터)	1층	대형 세미나, 연구실, 체험교육실
	2층	소규모 세미나 및 연구실, 사무 공간
	3층	정보자료실, 자유열람실
	4층	창작 연습실, 체험 교육실
	5층	대형 워크숍, 홀, 소규모 실험공연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의 도시적 기능

- 단일 건축물로서 기존 도시상의 전문 시설 교류, 창작 네트워크와 연결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에 유치되는 고급 사양의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 기존의 네트워크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은 남산 및 남산 순환 도로주변에 분포하는 남산 문화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 지역 단위의 남산 문화군 안에서도, 전체 도시의 네트워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문화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남산 문화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임

> 남산드라마센터



> 남산 문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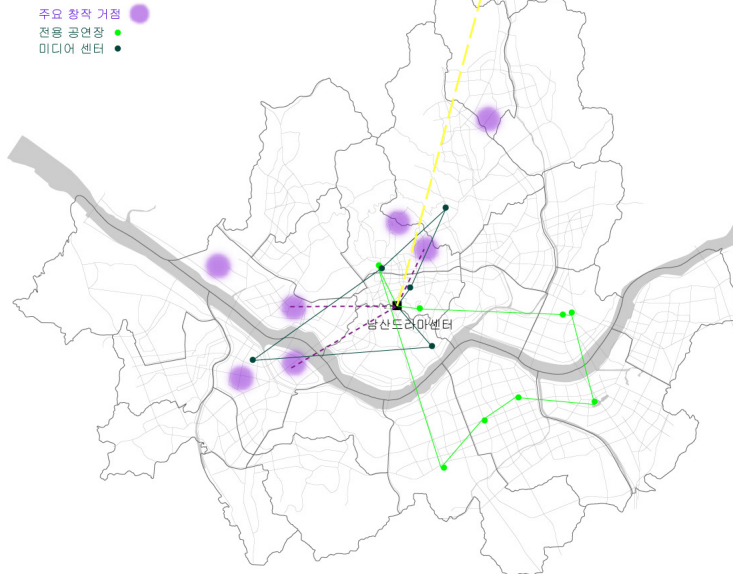
남산드라마센터  
동량예술센터대극장  
남산음악당 / 도서관  
독일문화관



남산한옥마을  
국립극장  
자유회관/자동치극장  
표화랑

> 주요 창작 거점, 전문 교류 시설 네트워크 상의 남산 드라마 센터

주요 창작 거점 ●  
전문 공연장 ●  
미디어 센터 ●



<주요 창작거점, 전문 교류시설 네트워크상의 남산동량예술센터창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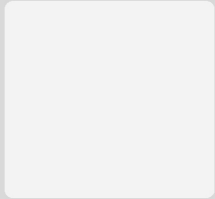




# 3장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 1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비전 및 전략목표 제안

## 1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비전

- 컬처노믹스 전략 구현을 통한 창의문화도시 실현
- 도심 유휴시설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창의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과 도시, 시민이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
- 예술가(단체)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창의적 예술 활동의 플랫폼 구축
- 단순한 창작공간이 아닌 예술가,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예술 생태계 구성
- 예술가와 지역민의 자발적 운영 통한 문화 공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및 더 나아가 서울을 브랜딩 하는 사업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 창출에 기여

## 2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의 단계별 전략목표

- 창의적 예술 활동의 플랫폼, 시민문화향수 공간,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이라는 단계별 목표 달성 후, 차후 단계로 저절로 전이되도록 사업의 선택 집중 필요

### 1 1단계:

-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예술가들의 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과 관련된 제반 지원을 단기 목표로 함

### 2 2단계:

- 국내외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프로젝트 기획을 통한 다양한 창작 실험활동 지원
-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제반 프로그램 마련

### 3 단계:

- 예술가들의 활발한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추구

창작인프라 구축	• 창작 인프라 조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 달성	단기 목표
지역의 자생적 예술생태계 구축	• 수요자 맞춤형으로 최소한의 공공개입을 통한 창작자의 자생력 배양 • 창작자 간 교류 및 협업 증진을 통한 예술생태계 활성화 • 지역연계 예술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중기 목표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산업 퇴락지역 활용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유휴 공간 활용도 제고	장기 목표

## 2 조성 전략

### 1 조성 방향 설정

#### 1 사이트별 문화생태계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향

- 조성 대상지의 예술 생태계 존재 여부와 공공정책 개입의 중점방향(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① 하드웨어 지원 + 예술생태계 부재

-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창작환경을 장기 지원
- 창작스튜디오 장기 임대 등

##### ② 하드웨어 지원 + 예술생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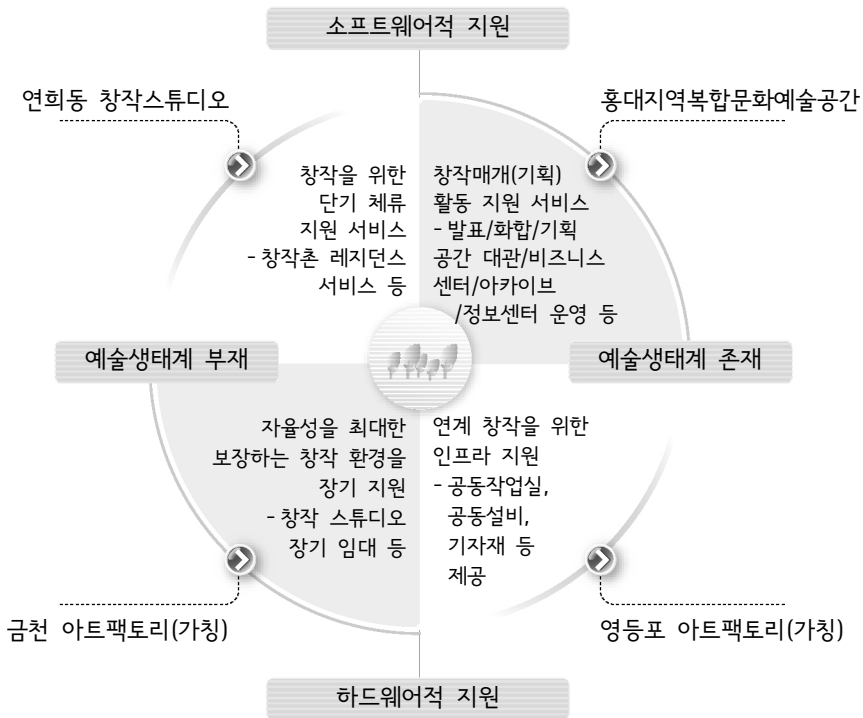
- 연계 창작을 위한 인프라 지원
- 공동작업실, 공동설비, 기자재 등 제공

### ● 소프트웨어 지원 + 예술생태계 부재

- 창작을 위한 단기 체류 지원 서비스
- 창작촌 레지던스 서비스 등

### ● 소프트웨어 지원 + 예술생태계 존재

- 창작매개 활동 지원 서비스
- 발표 및 아카이브 정보센터 등 운영



## 2 시설별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공간구성의 중점방향

### ● 예술가들을 위한 순수 창작공간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에 따른 세부 공간들을 살펴보기 위해, 각 공간의 독립성 확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 예술가들의 순수 창작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개인 창작스튜디오 및 예술가 호스텔과 같은 시설조성이 적절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 예술가 및 지역민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공간이라면 공연 발표장 및 전시장과 같은 극장 개념의 시설조성이 필요
- 지역과 연계된 창작 공간 조성 시 예술가 프로젝트팀의 공동작업장이나 예술가들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와 같은 매개 및 교류공간의 시설조성이 적합

개별 공간의 독립성 확보	(고) 독립창작공간	(중) 연계형 창작공간	(저) 개방형 참여공간
공간구성 중점방향 세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창작스튜디오</li> <li>• 예술가 호스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스페이스</li> <li>• 다목적실</li> <li>• 공동작업장</li> <li>• 세미나실</li> <li>•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발표장</li> <li>• 전시실</li> <li>• 갤러리 카페</li> </ul>

### 참 고 | 국내 창작 공간 분석

#### ■ 예술 장르 및 공간기능에 따른 분류

		창작					창작지원	교류 및 공용시설
		작가전용		공동작업장(연습/제작/발표)				
		작업실형	레지던스형	미디어형	공방형	공연		
주요실 구성	구상공간 작업공간	구상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	프린트 /스캔실mac실 영상제작 / 편집실 Shooting Studio	목공실 응접실 판화실 도자실 염색/건조실 야외작업장	공연 연습장	프로젝트 기획공간 교육실 사무실 아카이브 /자료실 /도서관 창고 개방형주방 /라운지	창고 다목적홀 (컨퍼런스/ 공연, 발표) 전시장	
프로 그램	전문 창작	●	●	●	●	●	●	●
	시민 참여 창작	-	-	-	●	●	●	●
	향유	○	○	-	○	○	○	●

※ 위의 도표의 기준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운영을 통해 업데이트 및 보완 필요

-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각 분야의 전문예술가 및 단체를 통한 창작공간에 관한 공간수요를 바탕으로 구성 기준 마련
-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
- 각 분야는 ‘창작-창작 지원-교류 및 공용시설’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 실 구성의 예, 각 실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른 프로그램 개입의 적극성여부를 기입  
(예를 들면, 창작 공간-공동작업장-공공실의 경우 전문예술가와 시민의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향유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시사점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지 특성상 각 지역별 공간 조성의 목적과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을 구성하는 각 실의 종류 및 규모는 위 도표에 기입된 내용 중 일부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구성의 기준 또한 다양할 수 있겠으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비중에 따라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음

#### ■ 창작 활동 단계에 따른 장르별 시설설비 특징

- 아래의 도표는 창작 공간을 각 분야별 전문예술가의 공간 수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함
- 예술창작활동을 ‘기획-연습 및 제작-발표-발표 후 작업’의 단계로 나누어 특성을 기입

	시각예술				공예				건축 /디자인	문학	공연예술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도자	금속	목공	섬유			음악	연극	무용
기획	구성공간(에스키스, 스케치단계) 및 회의공간: 개인 및 단체 등 규모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 + 책상/의자+ 인터넷+전기+간단한 주방설비+오디오/비디오장비												
연습/ 제작	충고 /넓이가 확보 되며 장기간 작업 가능한 제작 공간	암실 및 라이트 젯 등의 전문 장비	시물 레이션 가능한 어두운 공간 및 제작 관련 기기, 독자적 LAB	물레, 가마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	방음이 확실 하고 개인 별로 제작 공간 나눔	전문 장비, 장비 관리 가능한 전문 테크 니션	염색, 건조 등의 장비와 공간	적정 사양의 컴퓨터 환경과 mock -up 가능한 공간 및 장비	자유로운 발상과 회의가 가능한 모임공간, 주방 등 장기회의 위한 설비	방음이 확실 하고 제작 물에 대한 리뷰가 가능한 장비 구비	방음이 확실 하고 제작 물에 대한 리뷰가 가능한 장비 구비	고무판 바닥, 유리벽 1명, 기둥의 최소화, 공연 규모 별로 다양한 실규모 조성 가능	
	작업자 편화실, 프린트 /스캔실, mac실	영상 전문 lab실 shoo- ting studio	가마실	캐스팅 /용접실	목공실	염색 /건조실	lab실 모델 링실 프린트/ 스캔실	컴퓨터 프린트 /스캔실	실제 무대에서의 리허설이 가능한 공간 (오디오/영상/조명가능)				
	환기가 잘될 것										방음이 잘될 것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시각예술				공연				건축 /디자인	문학	공연예술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도자	금속	목공	섬유			음악	연극	무용
발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교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갤러리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하게 연계되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 +설치에 소요되는 기기 및 도구의 대여 가능한 시스템								복합장르 예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성격의 프로젝트 발표공간+ 기본적 조명/음향/ 무대시설+ 자유로운 객석시스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일반인 리뷰가 이루어지는 운영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장치 있으면 좋음(레일, 가변벽)			
post- produ- ction	결과물의 사진 촬영이 가능한 규모가 확보된 스튜디오 (자연광을 차단하고 조명시설 구비) 결과물을 일정기간 보관가능한 임대형 창고								결과물의 post-production가능한 영상편집실 의상·무대소품 일정기간 보관가능한 임대형 창고				
결과물의 유통공간(아트숍,북/DVD 스토어)													

※ 위 도표는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서 기타  
 제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적용해야 함

- 시각예술분야의 동일한 창작활동이라도 평면, 입체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  
 축작업의 경우 공간의 크기는 물론이고 작업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의 양 및 시간대 등이 사진, 영상  
 작업과 확연히 차이가 남으로써 요구되는 환경의 특징이 있음
- 문학 분야 창작결과물의 경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복합장르(음악공연, 연극, 전시, 세미나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발표공간이 필요
-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창작 전후에 소요되는 재료, 도구에서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물건의 보관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창고의 운영을 요구
- 시사점 : 전문예술가의 창작공간은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재료, 도구, 설비 및 장비 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협업 형태, 주요 창작시간대 및 실제 창작시간의 양 등 다양  
 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되었을 때 공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2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건축 제안

- 유휴공간의 재사용, 도시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창의적 주체들을 결집시키는 동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는 전략이 필요
- 이는 통합과 소통, 재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상징성을 지역 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임
- 이때 건축계획 및 장소구축에 있어 건축가, 예술가 등 창의적인 주체의 개입, 통합아이덴티티의 개발 계획은 필수적임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지 건축 시 제안사항

- 기존 건물의 보존 혹은 전략적 개조라는 측면에서 장소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 개조 시, 초기 건축비에서 나아가 건물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외장마감계획, 단열계획에 있어 에너지절감 및 녹색빌딩을 지향하는 친환경계획 수립
- 전문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의 설비는 마감재, 조명계획, 공조계획, 음향계획 등을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
- 추후 사용자의 자유로운 공간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공간계획 수립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수용할 수 있는 내, 외부 공간계획 수립
- 장소 조성의 과정, 아이덴티티 수립의 과정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관 프로젝트의 기획을 건축과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로고 및 사인 등의 건축그래픽과 연계하여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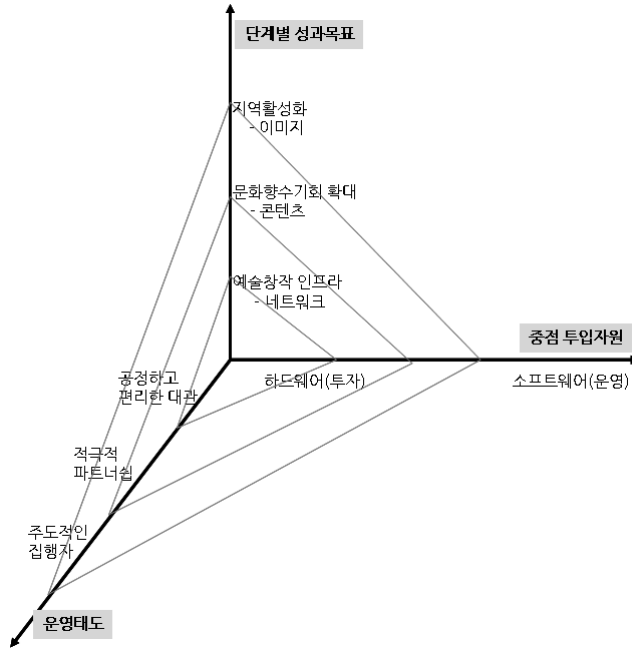
### 3 운영 전략

#### 1 단계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 유형화

- 창의적 예술의 플랫폼, 시민문화향수 공간,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의 단계별 성과 목표에 맞는 지원 중점 및 개입 방식 선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방식을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발전지향 목표에 따라 대관자형, 지원자형, 매개자형, 기획자형으로 나누어 구분하며, 향후 운영 방식을 유형화 할 수 있음
  - 창의적 예술의 플랫폼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에 하드웨어적 투자를 할 경우, 관리자의 역할은 입주자 혹은 일반인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대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 예술창작인프라와 같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 시민문화향수 공간의 중간 단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단계의 경우, 관리자는 입주자 혹은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고, 시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와 같은 콘텐츠 부분에 집중함
  - 마지막으로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거점 단계에서, 중점적인 소프트웨어 투자가 이뤄질 때, 관리자는 주도적인 집행자가 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 조성이 전략 목표가 됨

분석항목	특 성			
유형구분	대관자형	지원자형	매개자형	기획자형
성과목표	창작공간조성(네트워크)->시민 문화향수 기회확대(콘텐츠)->지역 활성화(이미지)			
투입중점	하드웨어적 투자 -> 소프트웨어적 운영			
운영방식	편리하고 공정한 대관->지역 예술가와 적극적 파트너십->주도적인 집행자			
관련사례 (재단)	대학로연습실	청계창작 스튜디오	서울연극센터	열린 극장 창동
대상사례	연희	신당, 독산	문래, 홍대	남산

- 위의 구분 의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 성과목표, 운영태도, 중점투입자원 설정 가능함



## 2 | 조직 체계 |

### 1 조직 구성 원칙

- 서울시 창작공간을 위탁운영하게 될 서울문화재단이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전체로 보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칙이 필요함

#### ● 통합 관리

- 통일성 있는 사업전략 적용,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교류, 통합 BI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사업성과 달성이 가능하므로, 향후 조성될 개별 창작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하나의 정책사업 구현장소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작은 조직

- 개별 창작공간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행정지원,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각 사이트별로 중복 배치하지 말고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기능은 최소한으로 한 작은 조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거버넌스

- 창작공간 조성부터 지역 재생까지 지향하는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부터 지역주민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유연한 운영체계가 필요함
- 특히 각 사이트별 문화생태계와의 세심한 관계 설정과 자치구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일방적인 사업집행 보다는 사업대상 고객들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구조가 필요함
- 전체 창작공간들을 통일된 전략으로 통합관리 하되 각 사이트별 특징을 살린 독립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통합 정책기획 능력과 사이트별 전담 매니저의 우수한 역량 확보가 필요함

2 통합 지원 및 사이트별 소요 기능

- 조직 구성에 필요한 소요 인력 산출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 영역을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함
- 통합지원 담당 기능과 사이트별 전담 기능은 소요항목 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다르게 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해야 함
- 각 사이트별 총괄 매니저는 네 가지 기능 항목을 두루 갖추어 기획자적 기질과 행정가적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예술의 창작부터 향유까지 아우르는 창작공간으로서 활력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특히 각 사이트별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네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기능 구분	업무 차별성	
	통합지원 담당	사이트별 전담
관리자	<(가칭)창작공간팀 팀장> -위탁사업 통합 관리	<사이트 총괄 매니저> -사이트 운영 총괄 감독
기획 담당	-창작공간 조성사업 전략 수립 -통합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사이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술단체 섭외 등

기능 구분	업무 차별성	
	통합지원 담당	사이트별 전담
행정 담당	-위탁사업 예산 및 회계 관리 -인력관리, 총무 -총괄 행정 지원	-사이트별 서무, 구매 등 -대관, 민원관리
홍보마케팅 담당	-통합 BI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통합 정책 홍보 마케팅 -국제 교류	-사이트별 사업 홍보 -지역 유관 단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기술 담당	-각 사이트 대상 기술 지원 -시설관리 용역 통합 감독 -조성 공사 설계 검토 등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대관단체 기술 지원 -사이트별 보안, 미화

- ‘작은 조직’ 원칙에 따라 각 사이트별 홍보마케팅, 행정, 기술 담당 기능은 연차적으로 해당 기능의 분화 정도에 따라 (통합지원 활용) => (통합지원 활용 + 임시 보조인력 활용) => (해당 기능 담당 정규인력 채용) 순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토록 함
- 특히 2009년도에는 각 사이트들이 4월(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통합지원 담당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조직운영 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함.

#### <홍대지역 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 인력 구성 예시>

구 분		인원	비 고
홍대 사이트 전담	사이트 총괄매니저	1	홍대 사이트 전담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기획 담당	1	
통합 지원 담당	행정 담당	1	2009.4월까지의 홍대 전담 지원하고 이후에는 독산동 등에 대한 통합지원 업무로 전환. 이에 따라, 홍대 사이트 지원업무는 보충 필요시 임시직(전문스텝, 업무보조) 활용
	홍보마케팅 담당	1	
	기술 담당	1	
홍대 사이트 담당 인력 총계		5	미화, 보안 등 단순 시설관리는 아웃소싱

### 3 (가칭)창작공간운영위원회 구성

- 창작공간 조성사업 전략 수립과 사이트별 프로그램 기획 자문,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및 협의의 위해 (가칭)창작공간운영위원회를 운영함

### ● 구 성

- 예술창작, 문화기획, 건축, 도시계획 등 유관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위촉
- 서울시(주무 부서장), 재단(주무 부서장 등), 자치구 등 관계기관 담당자 사안별 참여
- 회의별로 필요시 건축, 인테리어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 ● 기 능 (※ 기존 창작공간조성추진단 기능을 흡수하여 확대)

#### ■ 조성단계 자문

- : 공사 시 설계변경, 인테리어, 설비 등 공간 조성에 대한 자문
- : 2009년 조성 예정지의 조성방향 설정 및 설계 자문

#### ■ 운영단계 자문

-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단체 섭외 관련 자문, 협조
- : 운영성과 평가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자문

#### ■ 관계기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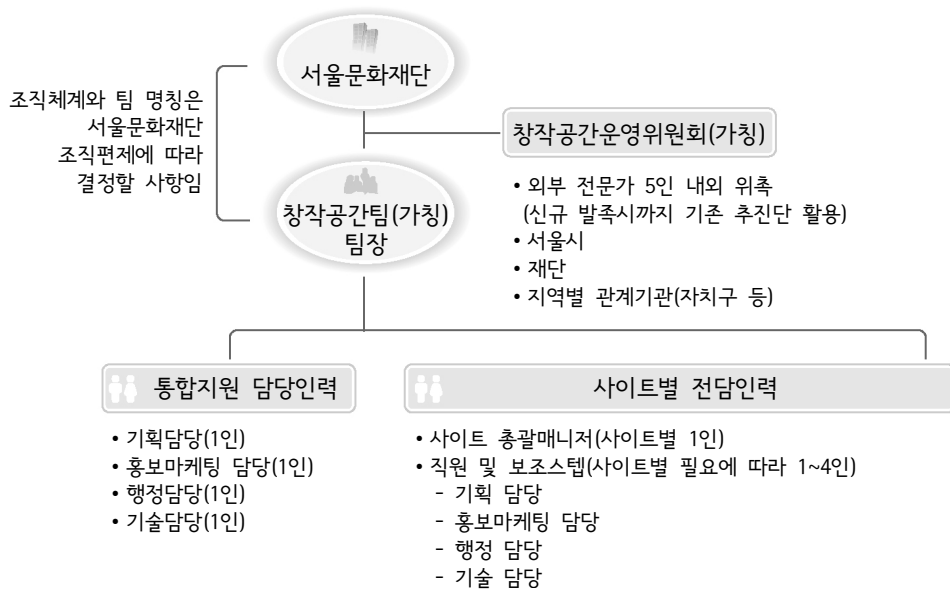
- : 년도별 운영계획 확정
- : 기타 현안별 유관기관 간 협의 채널

### ● 운영방식

- 위촉 위원 및 외부초청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설계 검토 등의 안건별로 차등하여 회의수당 지급
- 2009년도는 운영경비를 각 사이트별 위탁 예산에서 각출하고, 추후 통합지원 담당 인력 운영과 창작공간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합하여 별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함이 바람직함.
- 서울문화재단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위원회 신규 구성 완료 시까지는 기존 창작공간조성추진단 3인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설계 변경 등 검토 회의 개최

## 4 조직 구성안

-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창작공간조성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업무를 통합하여 전담할 (가칭)창작공간팀의 소속 편제와 팀 명칭은 서울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3 | 프로그래밍 원칙

#### 1 공통적인 프로그램 방향 및 구성

##### ● 입주자(예술가) 창작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공간 제공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모색
- 예술가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조성 (강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술가 프로모션을 위한 여건 마련
-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연구모임 제공
- 국내외 예술가 및 기획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이슈메이커 섭외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작가 경쟁력 개발

##### ●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 ■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포지셔닝

- 일상과 떨어져있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기능 강화
-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의 필요성 인식 조성

### ■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입주 작가들의 지역특색에 맞는 거리극, 오픈스튜디오, 정기전 등 축제 기획
-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혹은 행사 등의 지원을 통한 연계
-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창작 공간 및 발표 기회 제공  
사례) 미국 시카고 “갤러리 47”의 경우, 정서불안, 장애인, 정신장애인 24명이 작업하는 40평 정도의 스튜디오 제공, 5-15년 동안 매주 3-5번씩 자신의 작업을 진행함. 그 옆에서 예술가들도 작업을 하면서 삶 속의 예술이 되는 창작 공간을 조성
- 인근의 주변 학교 등과 연계한 연령층에 따른 예술체험교육 기회제공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술 공부방

### ■ 개관 전 파일럿 프로젝트

- 개관 전 홍보 마케팅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테리어 및 공간 분위기 조성 시, 입주할 예술가(단체)들 혹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식  
(※ 각 사이트별 상황에 따라,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역 주민, 예술가들의 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서 받기

### ■ 지역 문화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콘테스트 및 공모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를 개발 및 지원하고, 스스로 문화향유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세미나 및 포럼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술 행사 개최
-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민, 예술가, 입주 예술가들 간의 사전워크숍, 공동기획, 공동작업의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기회, 예술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확장)

### ● 산재한 시설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6개 사이트의 동시다발적 축제 및 행사 프로그램 기획
- 각 사이트별 입주 작가들을 연계한 서울시 공공 프로젝트 개최

## 2 사이트별 프로그램 방향

- 각 사이트별 차별화 전략 : 유휴공간의 전환이 사업의 핵심이므로 이전의 공간 용도를 기억하고, 그 공간의 역사성, 공간성, 시간성 등을 고려한 사이트별 특성 강조

사이트	이전용도	프로그램 중점 방향	활용 사례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서교동사무소	유통 - 매개, 서비스	기획자 컨퍼런스, 거리 실험예술제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인쇄공장	생산 - 창작, 교류	창작오픈스튜디오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시사편찬위원회	생산 - 창작, 교류	문학 포럼 개최, 시낭송회
신당지하상가창작아케이드	재래시장	생산,유통(소비) -창작, 교류	축제, 재래시장 아트페어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철공소	생산 - 창작, 매개	축제, 창작오픈스튜디오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서울예술대학	소비 - 문화예술교육, 발표	교육 박람회

## ● 지역의 문화자원 현황을 반영한 프로그램

###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 기 문화 생태계를 지원 및 매개하는 홍보마케팅 전략
- 입주자 혹은 입주 단체의 참여 및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모색  
사례) 주변 대학 문화예술동아리를 활용한 이벤트, 설치미술, 마임 등의 거리 실험예술제를 통한 홍보

### ■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창작스튜디오별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예술가들의 순수 창작 활동의 발표 기회 제공 (오픈스튜디오, 정기전 등)
- 국내, 외 레지던스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심포지엄 개최 및 작가, 작품 등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인 이슈메이커 섭외 및 공동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활동 및 교류 기반 마련
- 국내외 큐레이터 및 이론가들의 입주를 통해 셀프 매니지먼트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 해외 도시 연계, 문화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사례) 문래동 - 중국 다산쯔798 지역과 교류

### ■ 영등포아트팩토리(가칭)

- 예술가들을 위한 순수 창작 활동 및 발표 기회 제공
-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예술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축제, 이벤트 개최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 입주 작가(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 예술과 산업의 결합 : 서울시와 입주 작가(단체) 및 중소기업인과 상호 지원 및 아이디어 제공
- 신당지하상가 창작아케이드
  - 재래시장이라는 다양한 상점의 집합소, 즉 아트몰(mall) 개념의 프로그램 계획
  - 집단 예술가들의 창작 공방을 이용한 미니 아트 페어 등 정기전을 열어 주변 상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 유도
  - 수익 사업으로서 입주자 아티스트들 소품제작 및 상설마켓을 통한 판매 (신청자에 한함)  
사례) 입주 작가(단체)와 시장상인이 함께하는 작업실 꾸미기 (공중파 방영)
- 연희동창작스튜디오
  - 문학가들의 순수 창작 활동 및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포지셔닝
  - 국내 및 해외 문학가들의 학술적 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사례) 가곡과 문학의 만남, 시낭송회, 백일장 등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 서울예술대학과 연계한 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모색 (초등, 중등 대상 교육)
  - 서울시내 주요 박물관, 미술관, 예술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는 사전 기획 공연 프로그램과 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 사업(NART)의 공연으로 기획  
사례) 공연장(500석)을 활용한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한 연극페스티벌

## 4 | 입주단체 및 공간 대관 |

아래의 사항은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 대상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각 사이트별 공간운영규정 원칙에 따라 상정함

### 1 입 주

- 입주 공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함
- 입주기간은 각 공간별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함

- 조성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되, 장르 구분하지 않음
- 입주자(단체) 선정 시,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함
- 입주자(단체) 조건 (※ 사이트별 공간 특성상 바뀔 수 있음)
  - 매월 15일 이상 공간 실제 사용 (해외 행사 등 특수 사유 사전 협의)
  - 보안, 방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한 사용규칙(추후 확정) 준수  
(※ 고용량 전기제품, 특수기자재 등은 사전 승인 후 반입)
  - “창작공간운영위원회”에 “입주단체 활동성과보고” 1회 제출
  - 6개월 이상 입주단체는 계약기간의 1/2 이전 시점에 중간실적보고 제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불성실한 공간 사용>, 또는 <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판정될 경우 퇴실 조치
  - 활동성과 심의결과에 따라 익년도 재 입주 자격 부여
  - 공간사용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소정의 공간 사용료 납부  
(※ 세부 금액, 기준, 납입방법은 사이트별 추후 확정)
- : 사용 공간 규모에 따른 월정액 매월 초 납입
- : 고용량 전기 제품, 특수 장비 이용 시에는 전기료 등 추가경비 발생 소요 피약하여 추가 징수

## 참 고 | 국내 창작 공간 공간사용 현황

운영주체	시설명	공간사용료	비고	
공공기관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창동, 고양)	없음	숙식가능	
	서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없음	숙식가능	
	광주미술 창작스튜디오	팔각정	겨울 난방비	숙식 불가
		양산	월 임대료, 일반 관리비	주거형 아파트
민간재단 /기업	경안미술창작스튜디오	월 관리비, 전기료 실비	숙식가능	
	달링스튜디오	보증금, 월세, 재세공과금	숙식가능	

- 입주자(단체) 제출 서류
  - 입주 신청서
    - : 활동 실적 또는 입주기간 중 활동계획과 관련한 실적 위주로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입주 기간 중 활동계획
    - : 센터 입주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취지와와의 연관성 및 공간 필요성 중심으로 서술하고,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
- 입주자(단체)에게 공간 지원 외, 재단과의 연계 프로젝트 비용 지원 가능

## 2 대 관

- 공간 대관은 크게 입주, 기획, 일반 대관으로 구분
- 공간 사용자의 책임감 부여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실비만 징수
  - 센터 운영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기획대관 및 재단 또는 서울시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관심의를 통해 대관료 면제
- 징수 근거와 대관요율 등 세부 기준은 재단 규정으로 추후 확정

대관 방식	대관료 징수
입주 대관	사용 면적 기준 책정 월정액을 사전 납부
기획 대관	대관료 면제
일반 대관	사용 면적 및 설비 기준 대관료 사전 납부

- 대관심의
  - 년초 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공간대관 및 기획대관의 경우는 “창작공간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
  - 일반 대관은 담당 팀장 검토 및 대표이사 결재 후 승인
- 입주 대관심사
  - 서류심사(3배수 선정) 후 인터뷰 심사
  - 심사위원 : “창작공간운영위원회” 외부 위촉 전문가 5인, 재단 본부장
  - 심사기준 (상세 심사계획 추후 확정)
    - : 센터 운영 취지와외 부합성 및 입주 기간 중 활동계획의 적절성

## 5 사업 홍보와 마케팅 전략

### 1 홍보 방안

#### ▶ 프로모션의 조성과정

-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략수립: 당위성, 취지, 의미, 계몽성
- 전문가 수행그룹의 구성: 마케터, 카피라이터, 이미지창출, 커뮤니티전문가
- 세부시행 프로그램의 기획과 점검: 특별 수행 프로그램과 효과성 점검
- PR계획의 수립: 장소별 어플리케이션
- 관리와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 단계별 포지셔닝 전략

- 활용 전: 캠페인 매니지먼트에 의한 이용과 방문의 동기형성
- 활용 중: 각종 MOT단계에서의 포지셔닝 강화방안과 고객만족요소 결정
- 활용 후: 고객관리와 사후 통보

## ● 매체별 홍보방안

- 온라인 미디어 연계 홍보강화
- 대상별 매체의 특성화 전략: 예술가, 시민, 공무원
- 언론매체 : 공익성 강화와 자료제공
- 방송: 솔루션 프로그램이나 탐방체험, 다큐제작
- 이벤트: 축제와 주말 프로그램의 기획, 방문객
- 메세나의 부각: 지역기업과의 협력, 지원체계
- 시기별 홍보 프로그램의 매트릭스화
- 사이트의 유형화에 따른 개별사이트의 2차 뉴스밸류 창출

## 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 ● 서울시의 '유희 공간 활용 창작 공간 조성'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살리며 창의적인 정책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립(Policy Identity)을 위한 핵심가치의 설정

- 장소(site) 활성화의 핵심가치와 정책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주제 및 슬로건 선정
- 각 장소의 물리적 특성, 예술가들의 활동 속성, 도시테두리 안에서의 프로젝트 의미(역사성과 미래성) 등을 포함한 부제 마련

###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이라는 단일 사업으로서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창출(Business Identity) 및 사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합이미지 창출(Cooperated Identity)

- 타 사업과의 '아트팩토리' 용어 문제 및 본 전략보고서에서 '아트 팩토리' 외에 '아트 아케이드'와 '아트 스튜디오' 등의 공간을 포괄한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 조성 대상지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사업 명칭과 조성 대상지별 지역 명칭을 합쳐 부를 수 있는 용어가 개발되어야 함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 ※ 단, 통합사업명칭은 본 사업의 기본이 되는 유희 공간, 지역재생, 예술창작 등의 기본 개념을 포함한 명칭 개발이 필요 ㉠ 서울시 예술창작발전소, 서울시 Arts-eco 센터
- 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타입페이스, 컬러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을 대표하는 핵심이미지 개발 ㉡ 예술가, 지역, 도시의 리사이클 
- 공간의 건물 외벽 사인물, 아카이브센터 공간 및 운영 매뉴얼, 색채 지정 등을 통한 Environmentant System 적용개발 → 지정된 색채를 적용하여 조명과 사인의 역할 및 시그니처로서의 역할을 통한 사인시스템으로 적용
- 사운드, 영상, 상영물 개발 및 지도, 디자인 상품 개발, 프레스킷 등에 적용
- 응용, 사용 가능한 공간별 디자인 매뉴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발

### ● 인력구성

- 마케팅 디렉터: 전반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 기획, 관리
  - 카피라이터: 스토리텔링에 기반 한 마케팅 카피라이터 작업
  - 이미지메이커: 프로젝트 이미지 창출을 위한 아트디렉터
  -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내 네트워킹과 대외 소통의 채널 디자인
-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의 통합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하므로, 재단 통합운영조직의 홍보마케팅 담당 인력 배치와 함께 외부 전문 업체 선정할 것이며, 추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이트별 전문 인력 총원 예정임

## 4 개별 사이트 운영 개요<sup>3)</sup>

### 1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4) |

#### 1 기본 운영 방향

- 유희시설에 홍대지역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

3) 본 장에서는 사이트별 개관시기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함

(※사이트별 프로그램은 앞서 논의되었던 '개별 사이트 프로그램 방향'을 참조)

4)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김윤환 작가는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명칭으로 2005년 서울문화재단 '홍대앞 문화예술협동조합' 지원 프로젝트명을 재생시키고, 이전 동사무소의 역사와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예술동사무소 호호호' 을 제안하였음

- 기존의 독립문화 및 다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간의 교류와 협력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실험함
- 장기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모델을 창출하고 문화적 공공성 확대
- 지역위원회 구성 : 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구의원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명칭은 추후 변경 가능)

## 2 공간별 활용 방안

- 다목적 발표장 : 다양한 예술 장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발표 및 연습 가능한 문화 실험의 장
- 카페형 갤러리 : 지역 예술가와 기획자, 일반인에게 정보 및 교류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 소그룹 사무실 : 문화예술 기획 및 활동가(단체)들을 위한 4-6개 사무 공간 조성,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젝트 협력 공간
- 휴게 및 이벤트 공간 : 열린 시민 참여 공간

## 3 프로그램 방향

-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콘텐츠 개발
- 지역 예술가 및 단체들과의 매개 및 교류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모색
- 지역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축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오픈 행사 마련
- 지역주민, 시민과의 공식 파트너십
- 매체 발간 : 소식지, 뉴스레터 등
- 후원회 조직

## 4 업무 구성 및 추진일정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추진 일정	
개관 전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기본방향 설정 :운영방식, 중점사업 등	- 연간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조직운영, 예산 수립	1월
		행정	- 예산운영	- 행정, 인력배치	1-2월
		제 규정 제정	- 필요 규정, 절차 확정	- 공간별 운영원칙 설정 - 입주자, 입주조건, 비용 등 선정 기준 마련 - 1층 바(bar) 조성(수익성 사업의 유치 여부)	2월
		시설관리	- 추가설비구성	※ 파일럿 프로젝트 연계	3월
		인테리어 공사	- 설비, 기자재 구비 - 시설 분위기 설정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추진 일정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홍대지역 문화자원 초대 준비 : 쇼케이스와 유통 매개	2월
	전문가 그룹 섭외	- 입주 작가 공모, 국내외 예술단체 섭외 - 이슈메이커 섭외	- 자문회의, 간담회 개최 - 홍대지역 인력풀 맵핑 - 입주자 공모 및 심사	2-3월
프로모션	홍보	- BI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협력, 기업 후원, 콘텐츠 제공자 - 매체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운영 등 - 개관 이벤트 : 의사결정자 초청, 지역참여 이벤트 등	- 웹사이트 개설	1-2월
			<파일럿 프로젝트> - “예술동 반상회” 공연, 워크숍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지역민참여 유도 - “DIY 동사무소” 예술가, 지역민들 참여하는 건물 월(wall), 인테리어, 간판제작 프로젝트 - “정책세미나” 기자간담회 병행 - 매체발간 (브로셔, 책자, 봉투, 엽서, 가림품 등)	3-4월
시스템	시설 운영	- 일반 시설관리 및 이용원칙 : 대관료 등 - 보안, 소방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 도어락 장치 통한 입주 공간 보완	3-4월
	자원운영	- 인력구성 : 자체 조직구성, 현장 인력 참여구조 - 예산운영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개관 후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세부 구성 : 상설 프로그램, 계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식 : 지역네트워킹 등 - 수익성 사업 운영 여부	- 개관 페스티벌 “상상거대소 :홍대 앞 예술활동단체들의 쇼케이스” “거리실험예술제 :마임, 인디음악 콘서트” “100일간의 기록 : 사진전” “동사무소에서 알립니다 : 공동체라디오” - 입주 기획자 및 단체들의 정기적인 교류 및 발표 공간 제공 - 인디문화 아카이브 - 홍대지역 타 기관과의 연계 기획행사	4월-
		입주단체 운영	- 지원 및 관리 체계	
	프로모션	홍보 및 교류	- 매체 홍보 - 국내외 교류	- 홍대 문화자원 유통 및 매개 (프로그램 쇼케이스, 판매) - 문화예술 인포메이션 공간

## 2 |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

### 1 기본 운영 방향

- 예술가들의 창의적 예술 활동 및 다양한 장르 간 교류와 협력 작업 지원
- 중장기 레지던스형 스튜디오와 예술가 호스텔 등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지원

- 국내외 예술가 및 이론가, 기획자들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모델 창출
- 장기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적 공공성 확대

## 2 공간별 활용 방안

- 창작스튜디오 : 예술가들의 순수 창작 및 오픈스튜디오를 통한 일반인들과의 소통과 매개의 공간
- 예술가 호스텔 : 국내외 예술가 혹은 프로젝트 작업을 위한 체류 작가들의 숙박지원
- 프로젝트 스페이스 : 대형 프로젝트 팀의 창작, 발표 및 일반인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의 장
- 다목적 발표장 : 다양한 예술 장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문화실험의 장

## 3 프로그램 방향

-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발
- 지역민 및 일반인들의 공연, 워크숍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 유도
- 공간 조성 전, 입주 작가 및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공장 재생 프로젝트
- 매체 발간 (소식지, 뉴스레터 등)
- 지역주민, 시민 대상 공식 파트너십

## 4 업무구성 및 추진일정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추진 일정
개관 전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기본방향 설정 :운영방식, 중점사업 등	- 연간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조직운영, 예산 수립	3월
	행정	- 예산운영	- 행정, 인력배치	3월
	제 규정 제정	- 필요 규정, 절차 확정	- 공간별 운영원칙 설정 -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비용 및 조건 등 기준 마련 - 수익성 사업의 유치 여부 결정	4월
	시설관리	- 추가설비구성	- 입주 공간 시설 보완 방식 결정	6월
	인테리어 공사	- 설비, 기자재 구비 - 시설 분위기 설정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공간 분위기 조성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워크숍 - 국내, 외 심포지엄 개최	6월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금천 아트팩토리(가칭)	추진 일정	
개관 전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워크숍 - 국내, 외 심포지엄 개최	6월
	콘텐츠	전문가 그룹 섭외	- 입주 작가 공모, 국내외 예술단체 섭외 - 이슈메이커 섭외	- 자문회의, 간담회 개최 - 입주자 공모 및 심사 - 해외 아티스트 초청 및 이벤트 개최	
	프로모션	홍보	- BI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협력, 기업 후원, 콘텐츠 제공자 - 매체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운영 등 - 개관 이벤트 : 의사결정자 초청, 지역참여 이벤트 등	- 웹사이트 개설  <파일럿 프로젝트> - 입주 작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 지역주민 공청회 - 공연, 워크숍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지역민참여 유도 - 지역주민, 시민대상 공식 파트너십 - 매체발간 (브로셔, 책자, 엽서 등)	2월  6월
개관 후	시스템	시설운영	- 일반 시설관리 및 이용원칙 : 대관료 등 - 보안, 소방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7월
	시스템	자원운영	- 인력구성 : 자체 조직구성, 현장 인력 참여구조 - 예산운영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세부 구성 : 상설 프로그램, 계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식 : 지역네트워킹 등 - 수익성 사업 운영 여부	- 개관 페스티벌 - 입주 작가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 해외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 프로그램 - 예술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강좌, 워크숍 프로그램	7월-
		입주단체 운영	- 지원 및 관리 체계	- 순수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 - 국내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한 학술 교류 지원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프로모션	홍보 및 교류	- 매체 홍보 - 국내외 교류	- 입주자들의 창작물 쇼케이스 - 해외에 국내 작가 홍보		

### 3 | 신당지하상사 창작아케이드 |

#### 1 기본 운영 방향

- 재래시장 지하상가에 집단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간 재생 및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
- 창의적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예술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서의 역할

-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모델을 창출하고 문화적 공공성 확대

## 2 공간 활용 방안 및 프로그램 방향

-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집단 창작촌 개념형성
- 주기적으로 시장 및 지역과의 연계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예술가, 상인,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입주 예술가 및 단체 지원을 위한 프로모션 기능
- 매체발간 (소식지, 뉴스레터 등)

## 3 업무구성 및 추진일정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신당지하상가창작아케이드	추진 일정	
개관 전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기본방향 설정 :운영방식, 중점사업 등	- 연간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조직운영, 예산수립	3월
		행정	- 예산운영	- 행정, 인력배치	3월
		제 규정 제정	- 필요 규정, 절차 확정	- 입주자 선정 기준 - 수익성 사업의 유치 여부 - 시장이라는 특성 고려한 운영원칙 설정	4월
		시설관리	- 추가설비구성	- 지하상가와 미술 재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기, 배기 시설 고려	6월
		인테리어 공사	- 설비, 기자재 구비 - 시설 분위기 설정	- 파일럿 프로젝트로 공간 분위기 조성 (주변 시장과의 관계)	
개관 전	콘텐츠	지역 커뮤니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신당 및 지하상가 조사 - 상인과의 네트워크 프로젝트 - 광주 대인시장 등 다른 지역의 시장 프로젝트와 네트워킹 ※ 홍보 파일럿 프로그램과 연계	6월
		전문가그룹 섭외	- 입주 작가 공모, 국내외 예술단체 섭외 - 이슈메이커 섭외	- 자문회의, 간담회 개최 - 시각예술중심의 장르지원 - 개별 입주자 외에 프로젝트팀 선발	
	프로모션	홍보	- BI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협력, 기업 후원, 콘텐츠 제공자 - 매체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운영 등 - 개관 이벤트 : 의사결정자 초청, 지역참여 이벤트 등	- 웹사이트 개설  <파일럿 프로젝트> - 지역주민 공청회 - 공연, 워크숍 등 사전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주변 상인 및 지역민참여유도 - 지역주민, 시민대상으로 한 파트너십 - 매체발간 (브로셔, 엽서, 봉투 등)	4월  6-7월
개관 후	시스템	시설 운영	- 일반 시설관리 및 이용원칙 : 대관료 등 - 보안, 소방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7월-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신당지하상가창작아케이드	추진 일정
개관 후	시스템	자원운영	- 인력구성 : 자체 조직구성, 현장 인력 참여구조 - 예산운영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세부 구성 : 상설 프로그램, 계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식 : 지역네트워킹 등 - 수익성 사업 운영 여부	- 입주 작가들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 주변 상인, 예술가 및 지역 일반인을 위한 교육, 워크숍 및 기타 프로그램 - 창작발표 관련 프로젝트
		입주단체 운영	- 지원 및 관리 체계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프로모션	홍보 및 교류	- 매체 홍보 - 국내외 교류	- 시장의 장소 특정성을 살린 제반 행사 전략적 홍보 (신당 중앙시장 홍보 연계) - 프로그램 행사를 통한 예술가 및 작업의 전략적 노출

### 4 |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 1 기본 운영 방향

- 순수 문학 장르의 창작 지원 및 다양한 장르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거점
- 국내외 작가들의 네트워크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모델을 창출하고 문화적 공공성 확대

#### 2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방향

- 집필 스튜디오 : 문학인들의 순수 창작을 위한 개별 지원 공간
- 레지던스 스튜디오 : 국내외 문학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연계프로그램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공간
- 국제 문학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발표회 개최
- 입주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젝트 (어린이 도서관 건립)
- 매체 발간: 소식지, 뉴스레터 등
- 파트너십 : 지역주민, 시민 대상

### 3 운영구성 및 추진일정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연희동창작스튜디오	추진 일정	
개관 전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기본방향 설정 :운영방식, 중점사업 등	- 연간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조직운영, 예산수립	3월
		행정	- 예산운영	- 행정, 인력조직	3월
		제 규정 제정	- 필요 규정, 절차 확정	-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간 사용 수칙	4월
		시설관리	- 추가설비구성	- 입주 공간 보안 관리	6월
		인테리어 공사	- 설비, 기자재 구비 - 시설 분위기 설정	- 파일럿 프로젝트	
	콘텐츠	지역 커뮤니티 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개관 전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	6월
		전문가 그룹 섭외	- 입주 작가 공모, 국내외 예술단체 섭외 - 이슈메이커 섭외	- 자문회의,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중심의 장르지원 - 국내외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및 교류, 매개공간으로서의 지원 - 국내외 이슈메이커 섭외	
	프로모션	홍보	- BI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협력, 기업 후원, 콘텐츠 제공자 - 매체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운영 등 - 개관 이벤트 : 의사결정자 초청, 지역참여 이벤트 등	- 웹사이트 개설 - 파일럿 프로젝트 - 지역주민 공청회 - 공연, 워크숍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지역민 참여유도 - 파트너십: 지역주민, 시민대상 - 매체발간	2월- 6월
			시설 운영	- 일반 시설관리 및 이용원칙 : 대관료 등 - 보안, 소방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개관 후	시스템	자원운영	- 인력구성 : 자체 조직구성, 현장 인력 참여구조 - 예산운영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콘텐츠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세부 구성 : 상설 프로그램, 계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식 : 지역네트워킹 등 - 수익성 사업 운영 여부	- 국내외 문학가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해외작가교환 및 초청 프로그램 - 국제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 문학가들과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젝트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 타 지역 문학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 예술가 및 일반인을 위한 문학관련 교육 강좌, 워크숍 프로그램 - 문학과 관련된 타 장르(연극, 영화, 무용, 음악)와의 공연 이벤트 개최	7월-
프로모션		입주단체 운영	- 지원 및 관리 체계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홍보 및 교류	- 매체 홍보 - 국내외 교류	- 개관 페스티벌 - 국내외 입주 작가 및 프로그램 제반 행사 홍보 - 지역주민(주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역 홍보 - 입주 문학가들의 단행본 등 결과물 전략적 노출	

## 5 |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5 |

### 1 기본 운영 방향

- 준공업 낙후지역에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창작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의 허브로 활용
- 창의적 예술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예술의 사회화, 예술가 인큐베이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자생적인 창작촌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간의 교류와 협력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실험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

### 2 공간 활용

- 예술가 호스텔 : 국내외 예술가 혹은 프로젝트 작업을 위한 숙박지원
- 카페형 갤러리 : 지역 예술가와 기획자 및 일반인에게 정보 및 교류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이션 공간
- 다목적 발표장: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실험의 장, 공연예술의 공동작업 및 프로젝트 활동 수용
- 대형 작업실 : 큰 규모의 작품제작과 협업이 요구되는 다양한 시각매체 예술가들의 공동작업 및 프로젝트 활동 수용

### 3 프로그램 방향

- 입주 작가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공연, 워크숍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지역주민 혹은 유관 기관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매체발간 : 소식지 발간

5) 추진단 전문위원 김윤환 작가는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의 명칭을 “깡깡이치는 고철소리 단절음”으로 가득 찼던 문래동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이름을 활용하여 “예술공장 깡깡이”라고 제안하였는데, 깡깡이 치는 행위는 철공소 고유의 노동형태이지만 예술창작공장의 관점에서 재래철공소의 장인정신과 예술창작에너지가 만나는 대표적 예술행위로 정의하면서, 망치로 쇠를 내리치는 행위는 공연예술을 암시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작품은 시각예술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4 업무구성 및 추진일정

단계	필요 과제	세부 항목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	추진 일정	
개관 전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기본방향 설정 :운영방식, 중점사업 등	- 연간 전략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조직운영수립	6월
		행정	- 예산운영	- 행정, 인력선정	7-8월
		제 규정 제정	- 필요 규정, 절차 확정	- 입주자, 입주조건, 비용 등의 선정 기준, 공간 사용 수칙 외	
		시설관리	- 추가설비구성	- 입주 공간 보완 관리	
	콘텐츠	인테리어 공사	- 설비, 기자재 구비 - 시설 분위기 설정	- 파일럿 프로젝트 준비단계	9월
		지역 커뮤니티 케이션	- 주민 및 예술가 참여 - 개관 홍보 - 개관 준비 프로그램	※ 개관 전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	
개관 전	프로모션	지역 전문가 그룹 섭외	- 입주 작가 공모, 국내외 예술단체 섭외 - 이슈메이커 섭외	-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및 교류, 매개공간으로서의 지원 - 국내외 이슈메이커 섭외 관련 사전조사 - 지역 인력풀 맵핑	10-11월
		홍보	- BI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협력, 기업 후원, 콘텐츠 제공자 - 매체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운영 등 - 개관 이벤트 : 의사결정자 초청, 지역참여 이벤트 등	<파일럿 프로젝트> - 지역주민 공청회 - 시각예술, 공연예술, 디자인, 건축 전문가 참여 - 공연, 워크숍 등 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지역민참여유도 - 지역주민, 시민대상 파트너십 프로그램 - 매체발간 (브로셔, 엽서, 봉투 등)	11월
개관 후	시스템	시설 운영	- 일반 시설관리 및 이용원칙 : 대관료 등 - 보안, 소방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12월
		자원운영	- 인력구성 : 자체 조직구성, 현장 인력 참여구조 - 예산운영	-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세부 구성 : 상설 프로그램, 계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식 : 지역네트워킹 등 - 수익성 사업 운영 여부	- 개관 페스티벌 - 입주작가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 예술 활동 지원 및 매개 프로그램 - 예술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워크숍 - 일반인을 위한 발표 및 교류의 장 마련	12월-
		입주단체 운영	- 지원 및 관리 체계	- 공간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시행	
프로모션	홍보 및 교류	- 각종 매체 홍보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입주자 및 공간의 다양한 행사 등 전략적 홍보 - 지역 예술 행사 및 축제 연계 홍보마케팅		

## 6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

### 1 기본 운영 방향

- 전문 예술가의 실험적 창작 작업 공간으로서의 창작 전문 공간화
- 시민의 창의성 계발 및 증진을 위한 미적체험교육 전용 공간화
- 예술가, 예술 전공자 재교육을 위한 예술인 전문 교육의 장
- 서울시민을 위한 예술교육 체험의 장

### 2 공간 별 활용방안

#### ● 유치진극장

- 창작 작업 공간으로서의 미래지향적 실험극장  
: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 작업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연의 장
- 전문공연과 교육이 연계된 교육 전문 극장  
: 최고의 공연과 공연을 통해 가능한 예술교육이 연계되어 있는 체험 교육의 장
-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기부형 극장  
: 입장료(대관료) 대신 예술가와 시민 등 참여자의 기부를 유도, 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희망 예술기금을 모금, 예술창작을 위한 재투자 기금으로 활용

#### ● 예술관

- 새로운 예술창작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작 및 실험 작업의 장
- 예술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술가 재교육의 장
- 서울시민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미적체험 교육의 장
- 예술 창작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콘텐츠 연구, 개발의 장

### 3 프로그램 방향

#### ● 유치진극장

사용주체	사용 내용	비고
동랑센터, 서울예대	• 서울예대 및 동문회 관련 사용	• 청소년 종합예술축제 및 기획공연 시리즈

사용주체	사용 내용	비고
시즌별 교육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을 위한 시즌별 전문 교육 공연 작품</li> <li>대상별 교육공연 시즌제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운영</li> </ul>
젊은 실험 창작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실험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문화재단 (NArT) 젊은 예술가 지원 사업 작품</li> </ul>
기획 외부 공모 공연 - 실험 및 교육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우수 창작실험 공연 공모 대관</li> <li>외부 우수 교육공연 공모 대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공모 기획대관 공연</li> </ul>
예술가 재교육 공연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를 위한 재교육 공연 및 워크숍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예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리모델링 및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정비 및 셋업</li> </ul>

### ● 예술관(신관 1-4층)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비고	
젊은 창작 예술인을 위한 창작 실험 공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창작 공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제작 등 공연 전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문화재단 직접 기획 및 제작 운영</li> </ul>	
예술가 재교육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공연, 워크숍 등) 운영</li> <li>해외 우수 프로그램 유치 및 예술가 재교육을 위한 해외 연수 지원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우수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추진</li> </ul>	
창의문화 예술교육 "Arts-Echo Project" 미적체험 교육 사업 -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예술교육전문가 (TA)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교육 전문가 (TA:Teaching Artist)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 위주의 예술교육 전문가 전환 과정 (예술가 재교육 과정)</li> </ul>
	문화매개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의 효과적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교사, 복지사 대상의 체험 예술교육 과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 위주의 문화매개자 양성 교육과정</li> </ul>
	아동 대상 교육과정 - "어린이 창의 Arts-T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학교 보육교실 아동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내 초등학교 보육교실 재학생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약체결 및 공동추진</li> </ul>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 - "청소년 비전 Arts-TR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등학교 문화예술 동아리 중심의 저명예술가 사회(예술) 공헌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내 15개 중, 고등학교 선정 -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 -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추진</li> </ul>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주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시민,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서울시 위탁사업 등)</li> </ul>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전략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비고
창의문화 예술교육 "Arts-Echo Project" 미적체험 교육 사업 -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전문 콘텐츠 개발 및 연구	• 교육대상 및 계층별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등 전문 콘텐츠 연구 및 개발 사업 운영	• 교육대상별 전문 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파일럿(시범)프 로그램 운영
	미적체험을 위한 시즌별 전문교육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별로 구분하여 문화 예술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공연 및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봄시즌 : 아동대상 교육공연 운영 • 여름시즌 : 청소년 대상 교육공연 운영 • 가을시즌 : 주부 및 일반 시민(어른) 대상 교육공연 • 겨울시즌 : 전문예술가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교육공연

### 4 운영방식

- 예술관 내 자체 운영(IN) / 외부 현장 추진(OUT Program)

구분	IN	OUT
Teaching Artist (핵심그룹)	• 프로그래머 연구모임 • Pre-Teaching Artist 교육	• 링컨센터 파견 교육 (Teaching Artist 파견)
아동	• 극장 및 외부 연계 프로그램	• 방과 후 교실 운영
청소년	• 극장 및 외부 연계 프로그램	• 저명예술가
일반시민	• cross-curricula 교사연수 • 매개자 교육(공무원, 복지사)	• 사회취약계층(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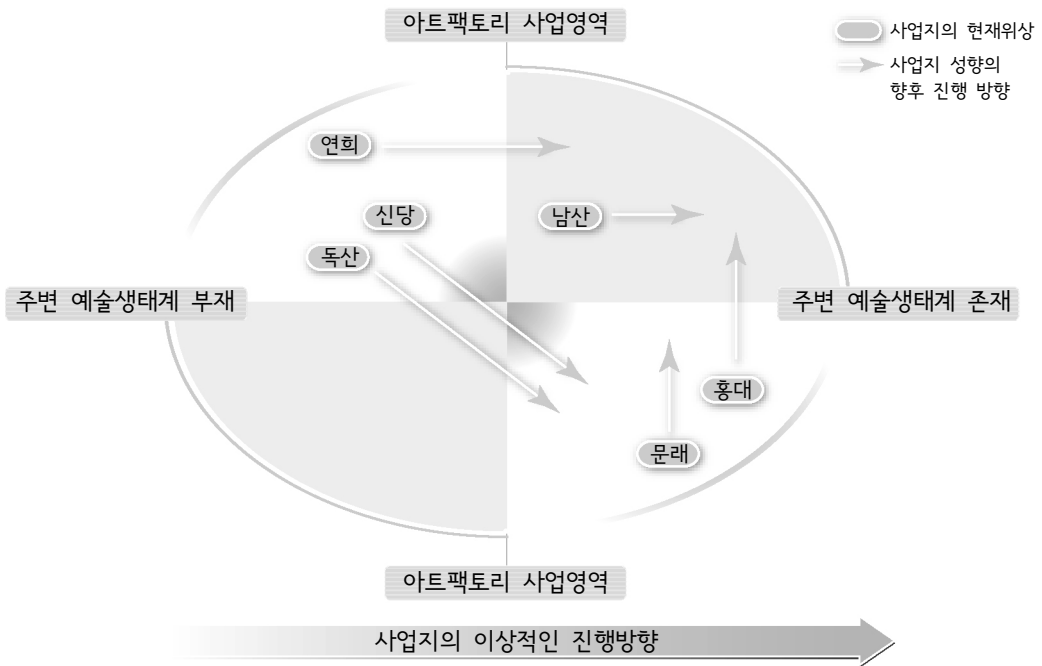
## 5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 1 하나의 정책 사업 단위로 통합 운영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 및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추구하되, 유휴공간을 자원화 하는 상징성과 부합하는 예술-도시-삶 사이의 소통의 예술, 재생의 예술을 지향해야 함

- 전체 도시 단위에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을 각 지역에 물리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 안에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의 개별사업지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도시적인 임팩트를 갖게 됨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들의 입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과의 교류 형태-지역의 전문 창작 주체를 대상으로, 혹은 지역 문화 공동체를 대상으로, 혹은 서울 전체의 문화 창작 네트워크를 대상으로-를 모색해 나가야 함

#### 아트팩토리 사업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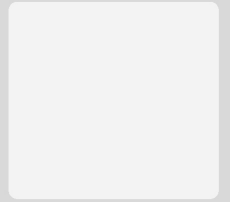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 다양한 쉼, 위계의 창작공간과 그들 간의 네트워크>

## 2 | 예술 생태계의 특성 반영한 운영방식 도출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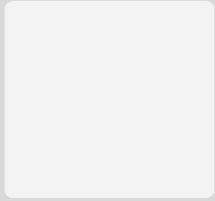
- 예산 편성에 따라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의 프로그램 생산과 수혜자 층이 달라지므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의 탄력적 편성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전문 인력 구성 및 성과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 창작환경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치구와 연계한 유관기관의 제도적 지원 필요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존 문화생태계와 함께 하는 전략 요구

## 3 | 예술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제시 |

- 지역과의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주민참여라는 사회적 역할 부여
- 개별 사이트마다 사이트가 위치한 지역특성을 고려, 기존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모델 마련
- 예술가들에 대한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전략필요



부 록





# 부록 1.

## [세미나]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아트팩토리-어떻게 할 것인가”

### 세션 1 | 발제문

#### 아트팩토리 사업의 도시정책적 의미 : 세계적 추세와 서울의 대응

발제자 :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 들어가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트팩토리(art+factory)’라는 개념은? 멀지 않은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아주 자주 문화예술계로부터 들려온다. 아주 생소하고 낯선 단어이지만 이상하게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영어단어 조합으로 만든 복합어가 다들 그러하듯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듯하면서 또 와 닿는 느낌은 아주 직선적으로 이해되는 단어이다. 예술+공장? 양말 공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예술을 생산하는 공장은 또 무엇인가? 예술창작공간을 뜻한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트팩토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파주 헤이리에 있는 아트팩토리는 ‘예술과 감성의 무한 충전소’라는 개념으로 어린이를 위한 아트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미술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이벤트 및 파티 플래너 등으로 구성된 전문예술기획집단을 통해 미술과 어린이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예술행사들을 기획·개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시, 어린이 미술프로그램, 미술전시·출판 컨설팅뿐만 아니라 아트샵과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sup>6)</sup> 있어 아트팩토리가 단순히 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매개공간으로서 헤이리 아트팩토리는 예술창작을 유도하는 간접창작공간으로서 의미를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6) www.artfactory4u.com



<자료 : www.artfactory4u.com 인용>

또 다른 의미의 아트팩토리를 찾아보면, 문화소통단체 ‘숨’ 등에 의해 진행된 신평공단 아트팩토리 프로젝트(휴게실 조성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단어의 조합 그대로 공장과 예술의 결합을 보여주는 작업으로써,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인 공장을 예술작품으로 채워나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예술작품이 있는 공장이 되었고, 근로자들의 생산 작업과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물론 생산라인과 별개의 공간에서 예술 창작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두 개의 작업이 두 개의 상이한 집단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나아가 공장이라는 가장 물질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에서 예술·창의라는 가장 비물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무엇이라 정의하기 어려운)의 공간이 창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문화소통단체 ‘숨’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통해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와 부산자연예술인협회의 협력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실험으로 가치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단체 간의 협력으로 인해 다원문화를 근거로 한 복합적인 공공적 접근 기대됨

자료: <http://blog.naver.com/sima4747/20054821535>

반대로, 아트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제 기능을 잃은 공장에서 제품이 아닌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예도 있다. 이는 근대 산업시대의 유산인 공장이 떠난 자리에 창작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과 교류공간을 지원하고, 공장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미지에 예술성을 접목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빈 공장의 저렴한 임대료에 매료된 작가들이 한 둘 모여들면서 시작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작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작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 퇴락한 공장이 가지는 우중충한 회색빛 이미지에 반하는 이미지를 가진 예술의 접목은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선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다대포 무지개 공단 내에 위치한 ‘아트팩토리 in 다대포’<sup>7)</sup>, 서울 문래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트팩토리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왜 현재에 와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던 예술가들의 창작공간(매개공간을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아트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조성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아마도 도시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도시재생이라는 과제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눈부신 성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도시재생을 꿈꾸는 도시들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많은 예술가들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도시경쟁 체제에 있다고 하는 오늘의 도시 상황에서는 꼭 도시재생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적 풍요를 표현할 필요를 느낀다. 이러한 도시적 요구에 의해 도시는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작가들의 창작부담(창작비용 등과 같은 외부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창작공간 지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은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를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새로이 조성하여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폐교나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일까? 그것 또한 도시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시설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둘째는 폐시설의 철거와 새로운 개발에서 유발되는 경제적 부담과 그것을 방치함에서 오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폐(유휴시설)시설과 예술인의 접목으로 야기되는 기이함에서 출발하는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경우, 테이트모던미술관이나 다산쓰798 등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폐시설, 폐 공간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얻어진 성과는 높은 빌딩만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고층의 아파트단지과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이 재개발 수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장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가 된 셈이다.

7) 내년 6, 7월 공장 이전이 이루어지면 보다 확장된 아트팩토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폐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창작 또는 매개공간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많다. 한 예가 서울의 아트팩토리 프로젝트이다. 도시 곳곳의 유휴시설 및 빈 공간으로 남은 공장, 창고, 폐교 등의 공간을 예술 창작공간으로 재생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예술을,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 계획은 도시에 새로운 명소를 제공받는 것 외에도 많은 도시 경제적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컬처노믹스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마스트플랜’의 하나로 기획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서울시가 의도하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시민과 도시가 즐거운 프로젝트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하는 아트팩토리의 도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응하여 서울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 것이다.

### ● 세계의 곳곳에서는<sup>8)</sup>

먼저 현재 수백 개의 아트팩토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담 배공사(SEITA)의 담배제조공장이 1990년 문을 닫게 되면서 라 벨 드 메(la Belle de Mai)서 민구역에서 시작된 ‘도시프로젝트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그 기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이 프로젝트는 ‘도시 만들기’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술가, 지식인, 시민들이 계획하거나 경직되지 않고도 앞서가는 새로운 도시 만들기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파트릭 부쟁)‘는데 의의가 있다. 그것을 12헥타르에 달하는 공장 부지에서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지역사회 및 경제활동과 통합된 하나의 문화영역을 창출하면서 도시를 움직이는 메카니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의 전 분야의 창작유도 및 제작을 지원하고, 그 다양한 형태의 특정 장치를 통해 기획에서 작품의 사회화에 이르는 창작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이론과 실재를 통한 예술과 문화의 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예술 및 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예술교육문화, 문화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단체, 교육 및 행사조직에서 활동하는 체육단체, 문화 활동을 보완하는 상업활동을 벌이는 단체, 지역 내에 미진한 공급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진 대인 서비스 운영 단체, 문화 공간 내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지역과의 상호작용 증진을 가능케 하는 주거임대 단체, 경제적인 숙박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 관련 단체 등이 상호 통합되고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도시 안에서 또 다른 도시 만들기를 제안하는 셈인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이 영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8) 2007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한 ‘진행된 산업시설에서 예술공간으로-예술공간의 재창출과 문화행동’에서 발표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헬싱키의 예를 근거로 작성함.

담배공장이라는 장소의 선택, 셋째, 문 단은 담배공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최근 사회 내에서 예술에 대한 다른 영역을 요구하며, 새로운 문화적 갈망을 보이는 단체가 많으며, 실제 예술의 새로운 영역에서 예술과 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분열된 사회에서 통합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실험적인 예술의 시도는 전통적인 장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예술을 매개로 시간, 장소, 다른 사람들 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예술작업의 실험적 시도는 그것과 맞는 특성과 상황을 가진 실험적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침,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위기를 맞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하는 폐 산업시설 및 공간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시 안에서 산업과 경제, 생산공간으로 존재했던 시간과 그것이 도시 공간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의미,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부를 도시에서 발산하였던 어쩌면 도시가 가동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이력을 가진 이곳이야말로 새로게 시작되는 예술과 문화의 혁명에 적합한 장소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구하는 예술혁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드디어 예술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도시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만의 창작과정이었다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즉 예술소비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시도를 통해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 도시와 사회는 이러한 예술적 반란을 통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통합과 소통의 기능을 감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도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가스 단지를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산업시설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알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웨스터가스패브릭 문화공원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의 것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과 2004년에 레인베르 드 르위 지휘의 오페라 “마르코 폴로의 꿈” 공연에 대한 기사- 굴착기로 황폐해진 볼모지와 낡고 낡은 옛 공장 위로 구름이 낮게 흘러간다.....중략... 1902년에 벽돌과 엄청난 양의 쇠로 지어진 이 가스탱크 건물은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녹슨 천정을 보여주는 안젤름 키퍼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 가스탱크는 클로드 비비에의 ”마르코폴로의 꿈“을 공연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배경이다-에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공간을 임대료가 비싼 암스테르담에 조성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의에 대해서 “관중은 암스테르담에 있지 로테르담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중을 끌어 모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공간 입주자의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서 작업하기를 특히 원하는 사람인가? 모험과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확실한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곳을 다채롭게 해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는 문화축제 기획자인 JANSEN의 말에서 이 공간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883년에 시작하여 1903년에 완공된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대형 가스 단지의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은 새로움과 이채로운 경험에 대한 요구에 극적으로 대응한 예이며, 이것은 대도시에 있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면에서는 문화계, 정부, 지역주민, 토지개발업자들이 계획에 동의를 해야만 하였으며, 특히 건물소유주가 창의적인 사업체만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는데 서약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쓸모없이 버려진 도시의 산업자산들이 호화주택 단지로 바꾸는 것 외에도 예술과 결합될 때 이채로움을 더하면서 도시발전의 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헬싱키에서는 또 다른 시도가 진행되었다. 건축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동물원의 빌라 14 (Elaintarhan huvila14)이다. 1850년대 지어진 낭만적 스위스 양식과 영국 별장 스타일이 절충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 이 주택의 활용방안으로 예술가들을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하였다. 역사적인 건축물의 문화공간화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 대중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으로 사용되었지 문화창작자인 예술인을 위해 사용된 경우는 드물어 예술인 지원공간으로서 좋은 사례가 된다.

많지 않은 예지만 몇 나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아트팩토리의 의미는 첫째, 말 그대로 공장과 예술의 접목 시도, 즉 공장의 예술적 변모를 뜻하고 둘째, 어떤 장소에서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로 인해 아트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 의미는 첫째,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생성되었지만 지금은 기능을 다한 공간이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골칫거리(환경적, 사회적, 시각적, 경제적 수많은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환경문제로 보면 도시쓰레기, 특히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폐수, 기름 등으로 발생한 장기적 장소의 오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복원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도시의 시각적 오염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사회적 문제 역시 심각할 것이다. 이곳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을 경우 버려진 장소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공간생성 과정에서 협의와 합의라는 또 다른 사회 의사소통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시민-행정-전문가가 협업하는 신 개념의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특이함과 이채로움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이 있다. 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이 늘면서 도시수입이 증가하기도 한다. 넷째, 시민들이 즐기는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문화 '여가' 복지를 한 번에 해결가능하다. 이 공간을 통해 도시민들은 새로운 놀 거리와 놀 장소가 생기는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효과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돈 먹는 하마로 치부되기도 하는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은 도시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속시켜나간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된다.

그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는 첫째, 새로운 예술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개척한다. 둘째,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킨다. 셋째, 예술의 새로운 가치-도시 경제적, 도시 사회적, 도시공동체적 의미-를 창출한다. 넷째, 예술의 일상성을 제공하여-창작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하여 예술가와 일반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성을 향상시킨다. 즉 창의시민, 창조성이 풍부한 표정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변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 웨스터가스페브릭의 전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소비자가 있는 많은 곳에 즉 필요로 하는 곳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적합한 퇴락한 장소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목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에서 아트팩토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추세에 따른 적절한 행보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략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 서울시의 대응

먼저 서울시의 아트팩토리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을 ‘창의문화도시 마스트플랜’을 통해 살펴보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활공간에 문화예술이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예술도시,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의 품격을 입히는 디자인 도시,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도시, 창의인구가 몰려들고 관광객과 글로벌기업이 늘어나는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전략으로 유희시설의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 도시 곳곳을 문화 오아시스로 조성,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하는 유비쿼터스 문화, 한강 등 대표적인 자연과 역사유산의 문화관광자원화, 상징과 브랜드 개발로 세계적 디자인 도시, 문화의 창의를 바탕으로 도시가치 창출을 들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비전과 목표를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곳곳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장소는 대부분 폐 산업시설이나 단지 등 유희시설,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둘째, 조성의 결과로 일상적인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도심의 문화 오아시스 역할과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동시에 함으로써 셋째, 도시의 브랜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넷째, 특이하고 혁명적인 공간창출은 문화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가치와 도시경관을 창출하는데 손색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서울시의 문화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능성의 의미는 다음의 전제가 고려되었음을 뜻한다.

첫째, 유희시설 또는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개발에 대한 요구를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넓은 공장 부지나 특정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타당성이 개발의지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재개발은 21세기를 사는 서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응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도심에 있는 공장이나 유희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재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상쇄할 만한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이런 이해 당사자와 협의과정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설득과정은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처음 시작은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매입하여 서울시가 운영하는 형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주변개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예술 공간은 개발을 저해하는 장소로 인식될 경우에 대응한 주변과의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러 사례에서와 같이 이 장소와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것은 그 특이함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장소와 프로그램의 특이성을 도출할 것인가 역시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퇴락한 공장 등에서 분출되는 회색 배경으로 덧 씌어진 예술적 감성에서 오는 기묘함이라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건축적 장치이건 예술작품으로서의 장치이던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이성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 예술가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네덜란드의 고민이었던 것처럼 특히 참여하고 싶은 예술인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새로움과 혁신을 탐구하는 예술가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등 사업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예술적 장소를 통해 사회 통합과 도시적 편익을 기대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이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을 추구하는 이들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기만의 예술창작을 원하는 이는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장소에서 지금처럼 작업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의 예술에서 이탈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작가들이 창작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예술과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편의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각기 다른 공간에서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재 6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대상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요에 대한 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전제에서처럼 현대의 도시가 비록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도시적 필요에 의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도시 디자인적 관점에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강력한 느낌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 우리가 굳이 공장이나 폐 시설을 활용하는 배경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사업의 무대장치는 의도적으로 과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과도한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극적으로 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테이트모던이 주목받는 것은 공간적으로만 보자면 첫째, 발전소의 변신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발전소가 가지는 높고 장대한 공간이 거침없이 박물관으로 변신하게 한 건축적 장치에서 오는 감동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장소가 가지는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의 장소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시 행정이 도시와 시민들로 향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한 공간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외에도 지역민의 여가·문화공간이자 복지공간으로써, 교육공간으로써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층·지역 간의 갈등, 실업 등으로 인한 유희시간에 대한 고민, 범죄 등)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조성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 과정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의 주체인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창작과정에서 시민이라는 또 다른 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품의 성격과 달리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가의 성향과 작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예술적 차원에서서가 아닌 사회참여 차원에서 끊임없는 제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도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미리 계산하여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지금 세계의 도시들이 요구하는 도시재생, 도시경쟁력, 도시디자인, 도시관광 등 모든 도시 흐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무엇'이다.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다. 그렇다고 단지 새로운 것만으로는 어렵다. 그것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업의 추진에 있어 도시적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분명히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독자성을 갖도록 유도하여, 그것을 세계로 향하여 발산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적으로는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적으로 세계적 작가를 배출하거나 아트시장을 형성하며, 지역적으로는 도시의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도시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를 아트팩토리라는 대안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끊임없이 장소가 응집하기 시작한 힘과 성과를 발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 프로젝트가 이러한 준비과정과 추진절차를 거친다면 시민에게는 문화공간을, 예술가에게는 자유로운 창작공간을, 도시에게는 새로운 명소와 명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나오면서

아트팩토리가 갖는 여러 가지 도시적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가 얻는 경제적·예술적 가치보다 도시의 환경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것이다. 도시재생의 의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에서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아트팩토리 사업의 심층에서 도시가 가지는 도시 역사적 맥락이 흐르고 있다. 폐 산업시설이든 폐교, 주거 등 모든 과거 언젠가 제 기능을 발휘하던 시절에서는 도시에서 그 기능을 대접받는 곳이 없기에 기능이 없어졌다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생존에 일조한 공을 인정하고 새롭게 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재충전하는 것은 도시의 역사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같은 용도의 같은 공간을 수천년 존속시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제 기능을 부여하면서 변화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 역시 도시 역사를 작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건물에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읽을 수 있다는 그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로마나 유럽의 역사도시에서 우리가 감탄하는 요소를 우리의 서울에서 읽고 느낀다면 그 아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전통적인 관념에서 바라보던 예술적·문화적 감성의 켜가 아닌 땀과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삶의 흔적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느낄 수 있다면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다는 시대의 나를 만나는 감동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인 도시 환경적 차원에서 본 사업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지금 지구는 환경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쓰레기 수출과 수입이라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는 작금을 생각한다면 환경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것이 기후변화와 연관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폐시설의 활용은 쓰레기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 폐 자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 공장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 양은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의 처리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작업이기에(오염도가 높고, 소재가 특수소재인 경우가 많음) 도시생명 나아가 지구생명을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환경 프로젝트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의 역사와 건강유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역사도시로서의 의미, 건강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개발과 재생이라는 갈등 논리 속에 있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트팩토리 사업의 의미가 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오늘과 같은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아트팩토리에 대한 사업의 실체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문래동) 아트팩토리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

토론자 :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아트팩토리,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였나?

- 1-1.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작센터로 만들자는 개념은 오늘날 많은 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점을 드러낸다. 아트팩토리의 개념을 처음 제공했던 게이츠 헤드는 공장을 미술관으로 만들었고, 가나자와는 시민들의 창작 센터인 '시민 예술촌'을 만들었다. 중국의 다산쓰는 예술가들의 밀집촌-군락지-형태로 발전하였고, 요코하마는 곳곳에 예술을 접근하는 쉼터로 접근하였다. 영국의 런던 또한 「세계문화수도 런던」란 계획을 통해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폐시설을 활용한 문화전략을 구상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개념에서 아트팩토리에 접근했을까?
- 1-2. 문화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기획한 것은 두 가지 개념이다. 그 하나는 '오아시스'고, 다른 하나는 '아트팩토리'다. '오아시스'는, 이는 김윤환 선생님이 추진한 스콧운동에서 발상을 잡은 것인데, 2003년 혹은 2004년 사이 김윤환 선생님은 스콧운동을 추진하면서 '오아시스'란 개념을 제안하였고, 2005년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기획하면서 내가 제안한 개념으로써 '문화 오아시스'란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 때 '오아시스'란 개념은 도시라는 '사막'(삭막함)에 문화라는 요소를 놓는 것으로,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설들은 흔히 쉽게 말하는 '문화향수'의 공간이 된다. 물론, 가나자와나 요코하마의 사례를 보자면, 굳이 그런 시설이 될 필요가 없지만 말이다.
- 1-3. 다른 한편, 아트팩토리는 '예술가 중심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트팩토리는 말 그대로 예술공장이다. 그리고 이 공장이란 표현에는 모두가 말하듯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예술이 형성되는 생산(창작)의 공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의 배경, 즉 공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서울 컬처노믹스'를 기획할

당시 서울시는 이미 문래동의 공장을 사 놓고 있었고, 그 공장을 예술공장으로 전환하자는 점에서 우린 이 공장을 ‘아트팩토리’로 명명했다.

- 1-4. ‘아트팩토리’를 상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예술가 창작공장을 만들어 보자는 점이다. 우리에게 다양한 창작공장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공장’을 활용, 보다 손쉽게 창작공장을 만들자는 점이 ‘아트팩토리’의 배경이다. 그러나 우린 ‘아트팩토리’를 형성하면서 ‘창작스튜디오’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 컬처노믹스’를 보아도 ‘아트팩토리’와 ‘장르별 스튜디오’는 따로 나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1-5. 우린 ‘아트팩토리’를 구성함에 있어 창작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창작스튜디오가 말 그대로 작가들의 전업 공간이라면, ‘아트팩토리’는 △프로젝트의 창구이거나 △지역 개발·발전의 창구라는 점에서 접근했다. 또한 창작스튜디오가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는 작가들을 도와주는 ‘지원공간’이라면, ‘아트팩토리’는 사업을 위한 공간, 즉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란 차원에서 접근했다. 때문에 운영의 원리는 다르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 1-6. ‘기획력’이 매우 높게 요구되는 점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창작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목표를 위해 결집된 ‘일시적’ 공간이라는 점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트팩토리’는 매우 전문화 된 운영집단이 기획력 하에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서울시의 프로젝트와 지역적 여건, 예술적 상태, 아트팩토리 자체의 발전전략 및 비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1-7. 다른 한편,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팩토리’가 구성되고 있는 만큼, 각 스튜디오별 차별화와 다양화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한 고민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어떤 스튜디오는 분명,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관여하거나 창발하는 스튜디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스튜디오는 또 지역의 발전 및 변화의 동력으로서 스튜디오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스튜디오는 서울시의 공동의 활동을 창출하는 바탕으로서 스튜디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공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의 미션과 현재적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각 스튜디오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운영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문래동 아트팩토리,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

- 2-1. 문래동 아트팩토리는 탄생과 더불어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트팩토리는 만들어 지는 데 지역은 재개발될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는 현실! 자칫 ‘아파트 한가운데’ 아트팩토리가 만들어지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
- 2-2. 첫 번째 전략은 현재 문래동 지역에 산포되어 있는 예술군락지를 옮겨 놓은 형태의 ‘아트팩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흔히 ‘낙원상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인근에 분포되어 있던 악기상가를 한 건물로 수용한 사례로,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문래동 지역의 생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독립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된다. 또 기껏 문래동에 있는 작가들을 수용하려는 공간으로 ‘아트팩토리’를 만들었나는 비판과 문래동이란 ‘아우라’는 사라진 시설 수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같이 남게 된다. 아트팩토리가 아닌 것이다.
- 2-3. 다른 방법은 문래동의 지역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과 호흡하는 생태의 창구로서 ‘아트팩토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아트팩토리는 작가들의 발표공간이자 프로젝트의 거점이며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역할모델 상 가장 좋은, 이상적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과연 개발의 논리를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전의 다른 모델, 예컨대 홍대 앞의 『상상공장』등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문제에 접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문래동의 정체성을 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트팩토리’가 과연 어떻게 문래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아트팩토리의 운명, 문래동 작가들과의 호흡,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등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 2-4. 그것이 어떤 형태든,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나 ‘시’에 어떤 성과를 드러내지 않는 한 ‘아트팩토리’는 존재감이 없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존재감의 상실은 곧 아트팩토리를 왜 하였나 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래동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문래동을 어떤 식으로 정체화하고 상징화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아트팩토리 운영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해결 문제 중 하나다.
- 2-5. 아트팩토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분명한 것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란 점이다. 달리 말해 그 운영 목표는 작가들의 원활한 작업 수행이 아니라, 서울을 예술적·문화적 장소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기반·시스템적 시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아트팩토리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적 기반(여건)과 서울시의 여건에 맞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떤 작가들을 불러들일 것이고, 그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시민들 사이에,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에 기존의 창작스튜디오와 다른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아트팩토리는 그저 외국 사례에 미쳐 따라가는 한낱 유행병(passion of fashion)에 지나지 않는다. 공장을 뭐 할 데가 없어 예술 공장으로 바꾸겠는가? 예술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공장이 그렇듯, 시민-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생산하고 그들의 라이프사이클과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일상과 지역,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창구와 거점으로서 ‘아트팩토리’. 우리 이 새로운 역할을 ‘아트팩토리’에 기대해 본다.

## 열린 도시네트워크, 아트팩토리에 대한 소고

토론자 : 조재원 (01STUDIO 대표,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유휴시설이 문화예술의 창의 발신지로 바뀝니다’ 내에는 다섯가지 세부사업(아트팩토리, 장르별 창작스튜디오, 창작아케이드, 남산문화예술창작클러스터, 재개발지역내 레지던스형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현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조성사업’이라는 다소 건조한 이름아래 올해 공사발주까지 완료되어 진행 중인 6개 사업대상지와 내년 사업대상지로 예정된 성북동의 대상지 중 대부분은 비교적 위의 세부사업 분류에 고루 해당되나, 홍대와 성북동의 대상지는 행정구역의 통합 등으로 남겨진 동사무소건물의 활용으로, 위의 분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아트팩토리’는 문래와 독산 두 곳의 사업에만 해당이 되지만, 추진단에서는 마치 아이의 태명을 부르듯 모든 사업을 ‘아트팩토리-개별사업지’로 부르고 있던 중이었으니, 이는 ‘아트팩토리’가 우리 의식속에 어렴풋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 중인 혹은 진행예정인 모든 개별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며, 전체 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하는 즐거운 상상의 단초가 되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을 핵심내용으로 새로운 양식의 ‘생산’- 발제문의 사례를 통해 언급되었듯, 통합과 소통의 생산, 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서의 상상, 도시의 폐허가 생생한 예술을 통해 발견(found)되고 살아나는 상상, 예술이 일상의 축제가 되고, 낡은 건물에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아트팩토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전체로 자라나는 상상..

따라서, 발제의 서두를 통해 다양한 양상의 ‘아트팩토리’와 그 이름에 실린 포괄적인 의미와 그로부터 본 사업을 짚어주신 것은 논의를 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발제를 통해 언급된 산업유산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사례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이지만, 사례를 통해 각기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성된 프로젝트의 단면들을 나열하기보다,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지는 중요한 절점들을 찾아 논점을 끌어 내 주었다. 특히, 도시적 의미와 문화예술적인 측면의 의미의 두 축으로 아트팩토리의 잠재적인 순기능들을 짚어주신 바에 공감한다.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적의미의 축과 문화예술적인 의미의 축이

역동적인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야 함에 틀림이 없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수의 아트팩토리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활성화되자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랐던 예들이라는 사실이다.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오랜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정책을 통해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 문화예술생태계의 현실적 수요와 역학에 근거하여 아트팩토리가 열린구조로 자리잡아 주체들의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성과목표를 동시에 이루려하기 보다 단계별로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이 발견되는 변수들을 수용하여 탄력있게 모델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도시적 문맥에서, 문화예술생태의 측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도시적 문맥에서, 사업대상지 6개소는 주로 강북지역과 준공업지역인 문래, 독산동에 널리 분포하여, 위치적으로 근접성으로 묶일 수 없는 개별적인 지점들이다. 규모로는 가장적은 흥대의 동사무소 리모델링 면적 550m<sup>2</sup>에서 가장 큰 신당동 지하상가 5000m<sup>2</sup> 등으로 자주 언급되는 해외의 사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개별사업지는 작지만 전체 사업연면적은 16000m<sup>2</sup>에 이른다. 이는 곧 개별사업지가 모여 전체를 이루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적, 프로그램적 교류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브랜딩전략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서울의 도시역사의 단면의 재발견으로서 각각의 사이트는 고유하며( 70년대 개발된 연희동 단독주택지유형, 도심내 산업시설-문래,독산, 역시 70년대 지하개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당동지하상가, 남산 근대건축물군의 하나인 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등등) 함께 모여 흥미로운 지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화예술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작은 도시 내 점으로서 장소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에 문화예술생태계가 있는 경우와 그런 문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주변의 도시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흥대와 문래의 경우, 근접하여 이미 활성화 되있는 커뮤니티의 수요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장르에 특화하거나, 복합장르의 프로젝트공간, 양질의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방향 등으로 그 장소적 입지에 특정하게 유형을 설정하되 지역과의 교류를 염두에 둔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때로 도시네트워크로서의 아트팩토리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도시적인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개별의 아트팩토리로 존재하며 근접한 지역과 문화예술커뮤니티 활성화의 인프라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운영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아트(문화예술적의미)와 팩토리(도시적의미)로 이원화하기 보다, 본 사업을 통해서 통합과 소통지향의 예술이 유희공간과 그것이 기반한 도시맥락을 재발견하는데 기여하고, 문화적 상징가치생산, 소통의 생산을 이뤄내도록 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 동력이 되는 것으로 발제를 통해 언급된 고유한 장소적 매력의 극대화, 공간적 이슈화의 필요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발제문의 마무리에서 아트팩토리의 환경적, 역사적가치를 강조했는데 이야 말로 도시적의미에서 아트팩토리가 시민,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이자, 문화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일관되게 소통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활용'의 건축의 원칙- 미학적으로도 , 기술적으로도 드러나는, 이 사업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쉽고 폭넓게 쓰이는 '아트팩토리'의 이름아래서 열린 논의를 통해 새로운 상상을 펼치고, 중국에는 다른 어떤 아트팩토리가 아닌 '그' 아트팩토리가 되고, 그리하여 딱 맞는 이름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바란다.

세션 1

발제문

## 창작공간조성을 통한 예술지원정책-정책과 현장 사이

발제자 : 이광준(서울시 도시갤러리추진단 책임큐레이터)

*예술커뮤니티가 과학자 커뮤니티, IT커뮤니티, 미디어영상커뮤니티, 생활창작 커뮤니티, 인디밴드커뮤니티.....와 비교해서 열려 있다면 열린 작품이 가능하고, 그 생성장소로서 <창작공간>의 가능성 또한 풍부할 것이다. 예술가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계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바로 여기서 섬세한 기획과 상상에 대한 다듬기가 없다면 미래는 현재와 같거나 더 퇴보할 것이다. 지금의 좋은 구상은 2년, 5년, 10년 후 좋은 결과로 보여질 것이다. 좋은 당위가 아니라 섬세하고 열정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 1 국내 창작공간 간략사<sup>9)</sup>

팔각정 창작공방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13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지자체 별로 시대에 따라, 요구에 따라 몇몇의 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

- 1995년 중의공원내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팔각정 창작공방>, 1997년부터 본격 운영.
- 1997년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팔각정 창작스튜디오<sup>10)</sup>

9) 시각예술에서 미술영역 중심으로 정리

10) 변길현(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6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참고

- 199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논산 창작스튜디오(교육부의 폐교임대+마사회지원+예술계의 강력 요구) 이후로 각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한<sup>11)</sup> 예술가 작업실 공간 29개소 생성<sup>12)</sup>
- 1998년 문화관광부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sup>13)</sup>
- 1998년 (주)쌈지에서 쌈지스튜디오(암사동에 설립)
- 2000년 대림그룹에서 출현한 대유문화재단은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에 경안창작스튜디오를 오픈. 작가는 월 10만원을 내고 25평의 작업실과 주거공간을 제공받는 방식
- 2000년 쌈지스튜디오 마포구 창전동 홍대근처로 이전
- 2000년 태광그룹이 새운 일주문화재단의 일주아트하우스. ACS운영. 일주아트하우스는 영상작가나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요구에 주목하여 1시간에 3000원만 내면 누구나 편집장비 이용하는 기기/장치/장비 지원 프로그램, 1층 로비 전시공간을 갖춤.
- 2002년 도심형 창작 스튜디오 2001년에 개관한 '가나아뜰리에'는 30~40대 중견작가를 지원하는 도심형 창작 스튜디오로 하나은행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가나아트센터가 운영(2006년 장흥아뜰리에)<sup>14)</sup>
-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립창동 창작스튜디오(30억 예산, 15명 입주작가) (사)현대미술관회 스튜디오 14실
- 2002년 제1회 일산 구산동 오픈스튜디오
- 2004년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 2004년 경기도 고양에 국립고양 창작스튜디오를 설립. (사)현대미술관회.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원. (사)현대미술관회의 관리팀장 1인, 프로그래머 1인이 고양/창동 스튜디오 기획/관리, 시설관리는 용역직으로 5인
- 2004년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 지역 studio\_UNIT(8인의 젊은 예술가)<sup>15)</sup> 모임 시작. 열린작업실 전시 및 프로젝트(노네임노숍)

11) 폐교를 창작 스튜디오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는 미국의 'P.S.1'이다. 'Public School Number 1'의 약자를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삼은 것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건물은 1893년에 만들어진 뉴욕 최초의 공립학교였다. 1976년에 시작된 P.S.1은 국내 프로그램과 국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매년 19명의 작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시 및 교육사업도 병행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P.S.1의 교육 프로그램은 작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양현미, 「창작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2)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참고

13)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참고

14) 양현미, 「창작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15) <http://studiounit.cyworld.com>

## 부 록

- 2004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 2004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방안연구> 발간
- 2005년 서울시립 난지창작스튜디오(서울시립미술관 운영, 20명 작가 입주)
- 2005년 금호창작스튜디오(170평에 9명)
- 2006년 미술인회의의 제1회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프로젝트
- 2006년 AFI(Artist Froum International)의 Public Moment 워크숍 1 : Intra Asia Network Workshop-Artist's Mobility and Arist in Residencies
- 2007년 미술인회의의 제2회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프로젝트
- 2007년 서울 청계창작스튜디오<sup>16)</sup>
- 2007년 대구가창작스튜디오(대구현대미술가협회 운영, 7명 입주),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sup>17)</sup>
- 2008년 대전창작스튜디오<sup>18)</sup> 2008.10월 오픈
  
- 2008년 서울시 Art Factory 사업, 경기도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 설립 추진
- 2008년 문화관광부 산업시설 및 유희공간 문화공간화 사업 추진

처음에는 공간만이라도 만들자는 논의에서 창작스튜디오로, 지금은 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 공간으로 4년마다 창작공간에 대한 틀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점은 순수한 예술가들만의 공간을 얘기하지 않는다. 예술이 도시와 지역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술가들은 주민들과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지역의 역사, 공간문화, 시각문화, 생활양식에 대해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이 예술가에게 숙제가 아닌 경험과 에너지가 되고, 스스로 예술가를 선택하여 창조적 작업을 만드는 선택일까?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

16)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청계천 3가에 있는 센츨럴관광호텔의 1층 60평규모의 전시장, 3층에 3실규모의 스튜디오 설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17) <http://www.cjartstudio.com/> 청주시내에 위치한 연초제조창 공간을 리노베이션. 작가초청프로그램에서는 작업실(스튜디오)을 제공하고 월 체재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스튜디오 운영방향은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진취적인 작품을 우선하고, 작가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에서 벗어나서 작가와 평론가, 큐레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나누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 방식이다.

18)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을 리노베이션

## 2 창작공간 조성의 실패담

창작공간은 회화/도예/조각의 전원형 아틀리에 수준, 도시에 위치한 작은 작업실 수준, 국제 교류를 겨냥한 넓은 공간 등 다양한 크기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작업실,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반 창작스튜디오, 미디어lab, 복합문화예술교류 공간 등으로 성격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국립창작스튜디오=(재원)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공립창작스튜디오=(재원)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체/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사립창작스튜디오=(재원)기업 +문화재단 등으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재원 구성도 다양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역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에게 환영받거나, 예술가들을 촉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시립 창작스튜디오가 작가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간은 있지만 적은 재원과 부족한 인력, 목표의 모호함,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력 부족에 원인이 있다. 몇몇 기업이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 + [적절한 인력] +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다. 기업설립 창작스튜디오가 작가의 호응이 있는 이유는 서비스 측면에서 작가 프로모션 구조(성장하는 디렉터, 갤러리 연계)가 있는 경우이거나 작가들에게 필요한 넓은 공간과 경관 또는 예술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창작공간은 창작스튜디오에 머물러있다. 오로지 모든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어쩌면 이러한 이상적 창작(온실)스튜디오는 바늘 구멍이 될 수 밖에 없다. 극소수의 작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온실형 창작공간은 창작의 열정이 모여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확률이 많다.

<창작공간>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전체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류생태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자체가 한계였다. 그래서 어떤 장르가 들어가느냐? 어떤 작가를 선택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기에 창조적 에너지의 배경을 만들지 못했다. 창작공간에 입주하는 작가를 뽑는 과정만 존재한다. 둘째, 예술가들이 자기 스스로 생성하는 에너지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속적인 재원과 지원정책이 동반되지 않았다. 식물에게 태양이 없고, 소에게 풀이 없다. 공간만이 존재한다. 생태학이 분류생태학에서 에너지생태학으로 변화해간 것처럼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결과를 예술대상으로 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예술가의 움직임이나 활동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정서적 효과와 도시 맥락에서 공간적/장소적/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도시와 공간과 인간의 결절점을 읽거나, 새로운 문화적 향유방식을 창조하거나, 예술과 삶을 연결하는 다음 세대의 예술을 제시한 작가가 많다. 넷째, <창작공간>을 공장으로 생각했다. 완결된 공정을 만들면 완제품이 나온다는 생각이다. 청주 창작스튜디오에서 보듯, 도시의 구조와 완전히 떨어진 창작공간은 농장과 같아야 한다. 기계상가, 전자

제품골목, 지역경관, 텃밭, 산책길과 이어져야 한다. 아트팩토리는 근대의 공장을 넘어서서,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농장을 만드는 일이다. 공장이 아니라 풍부한 자연을 갖고 있는 농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다섯째, 초기 설립 당시 전략과 미션이 불분명해서 방향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항상 옳을 수는 없다.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또한 예술가들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미션이 있어야 한다. 0의 발명이 수학에서 갖는 의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 3 창작공간의 다수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시하게 될 인프라의 운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기금의 수준도 막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보면, 정확한 교류를 위한 목표와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작가의 안정적인 작업실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또 수많은 미술 인구를 모두 수용할 작업실 건립도 어려운 가운데, 결국 단기적인 체류를 통해 그나마 작가들에게 얼마간의 수혈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 창작스튜디오 정책을 논할 때 개념 자체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여 건립할 경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분명히 나뉘게 된다. 레지던스를 목표로 하는 스튜디오와 작가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서 스튜디오가 그것인데, 이제부터는 둘을 혼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후자의 목표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sup>19)</sup>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레지던스 스튜디오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기본 방침은 유망작가 발굴지원과 작업실이 필요한 젊은 작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수행하자는 것이나 작품위주, 경력위주 작가선정의 문제가 도출되며 작가 경력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20)</sup>는 지적처럼 어떤 작가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난맥상이 발생한다. 또한, 창작 역량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다면, 창작스튜디오에 들어갔다고 플랭카드를 거는 해프닝처럼 경력 쌓기가 될 수도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기반 창작(촉진)스튜디오=[일정 공간 + 숙식가능 + 전시 기능 + 레지던스 프로그램]로 가려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자원 확보와 체계적인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떻게 구상하느냐, 설계하느냐,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예술적 지역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비용이기에 적합한 준비와 구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타이베이

19) 박신의, 「작업실 지원정책의 유형과 접근의 다양성」(오픈 2007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미술인회의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7

20) 이태현, 「대구지역의 작업실 현황 및 쟁점」(오픈 2007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미술인회의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7

아티스트 빌리지(TAV)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인 Artivisit 프로젝트나 스톤앤워터의 프로그램들이 삶과 만나게 하는 레지던스처럼 각각의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창작공간>을 작가의 창작공간(창작스튜디오)에 무게를 둔다면 단기간 공간 지원이 아니라, 예술가의 기본 활동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 개인작업실, 공동사용 작업실 차원이다. ‘안정적인 주거 +작업실(스튜디오) 형태로 ①임대아파트 구조, ②재건축 대상 건물이나 폐공장을 개조한 작업실, ③일정 대지가 있는 단독형 작업실, ④대형아파트 내에 작업실, 주거 +작업실(집세의 35~50%지급)’<sup>21)</sup> 등의 다양한 형태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설계해야 한다. 작가의 창작공간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창작공간은 창작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작가 작업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오픈이 아니라, 작가 작업실이 주변 세계와 주변 사람과 만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일본 동경예술대학이 있는 토리데에서 일어나는 Toride Art Project(TAP)의 경우에는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토리데의 예술 프로젝트 <Open studio>를 통해서 격년제로 작업실을 열어놓고, 지역사회와 만나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예술창작공간(아트스페이스)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 문화예술교육과 공공공간 및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포틀랜드의 커뮤니티 센터나 아시아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많은 예술창작공간은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역 속에 공간 결정하고, 유휴 건물을 짓거나 리노베이션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볼로냐2000 창조공간 프로젝트(볼로냐 인구37만, 도서관 200개, 박물관 43개)의 로베르토 그란디(볼로냐대 경제학교수)가 얘기한 “집은 지붕부터 짓지 않습니다”는 구절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티스트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가?이다. 없다면, 어떤 예술이 흘러가야 하는가이다. 다음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와 시뮬레이션 이고, 마지막이 하드웨어(건축/공간)를 만드는 것이다. 창작 공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운영방식 + 프로그램운영자/매개자 + 건축물 + 공간/경관 + 장소성 +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4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합의

부동산이 토지공개념으로 되고,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와 공공 공간 이용의 합리적 분배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또한 예술=가치재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인 기획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예술가가 근대미학에서 벗

21) 박신의, 「작업실 지원정책의 유형과 접근의 다양성」(오픈 2007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미술인화와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7

어나 스스로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공적인 지원의 탄탄한 바탕을 만들기는 힘들 수도 있다. 아도르노나 수지개블릭의 지적대로, 예술가가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자기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예배적 기능 및 그 잔재들을 떨쳐 버린 후에 획득한 자율성은 인도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런데 사회가 비인도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그 자율성은 흔들리게 되었다. 인도주의라는 이상에 근거하여 예술 속에서 형성된 예술의 본질적 구성 요인들은 예술 자체의 운동 법칙으로 인해 퇴색하였다. (역사적으로) 예술의 자율성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예술은 그러한 자율성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자율성을 사회적 기능으로 보상하려는 생각은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술의 자율성은 맹목성의 계기를 유발하기 시작했다. 이 맹목성은 예로부터 예술을 따라다녔다... 예술의 해빙기에는 그 맹목성의 계기가 다른 어느 계기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제 예술의 자율성은 미적 목적의 불확실성과 결합한다. 도대체 예술이라는 것이 아직 가능한가?”<sup>22)</sup>처럼 혼란한 상황에서 혼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큰 도움이 안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 영역, 창조성의 경험에서 창작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창작공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창작공간>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확장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창조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그림을 감상할 줄 아는 관객을 위해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미적 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만 그러한 일이 시작되고 끝이 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자신이 예술가도 아니고 미술관도 찾지 않아서 미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가 만약 경제, 의약, 과학과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그 생각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미적인 것이란 온 인류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경제적 경험이나 인식적(지적) 경험을 하듯이 매일 미적 경험을 한다”<sup>23)</sup>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예술가를 자신의 삶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어야 한다.

“문화의 민주화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탈차별적인 효과도 계속될 것이다. 라비레트 공원과 그 공원의 ‘거대한 바사회’적 프로그램은 조르쥬 퐁피두 센터보다 미래를 더 잘 대변한다. 사회집단의 다양성은 문화적이고 예술적 다양성 속에서 더욱 잘 읽혀지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창조의 본질적인 두 요소인 활력과 욕망을 기대할 수 있다. 예술가를 탄생케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공식화된 사회적 요구가 아니다: 그러한 것은 기껏해야 아카데미즘이나 만들어낸다. 요구되는 것은 필요와 욕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과 집단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표시를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베키트 같은 사

22) 테오도르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2002, p.10~20

23) 멜빈레이더 버트람 제프, 김광명 옮김, 『예술과 미적가치』, 이론과 실천, 1987, p.21

람처럼, 그들이 ‘그것만을 잘하는’ 것이다. 활력과 욕망은 고급이나 저급의 문화에, 어떤 사회 집단들에게만 예정된 것이 아니다.”<sup>24)</sup>는 이브 미쇼의 지적처럼 <창작공간>은 배경을 갖고, 공간과 장소를 갖고, 구체적인 삶과 예술이 만나는 활동 그 자체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집적체로서 수많은 예술가를 탄생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어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예술가들이 시민과 만나는 과정은 너무나 멀다. 개념을 구현하는 현실의 재료들이 너무 험겁고, 개념의 틀에 예술대상을 통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끊임없이 오독하고 있다. 근대 데카르트적 자아에 빠진 예술과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창의력없는 생산에 빠진 예술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이러한 예술을 누가 구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라 할 때, 예술가에 어떤 결론에 맞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아트팩토리 창작공간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술의 새로운 활력의 공간이 되려면 공간을 읽고, 장소를 상상하고, 관계를 꿈꾸는 예술 내적 변화와 도시정책적 요구 두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한다. 18세기에 발명된 ‘예술’처럼 모든 것을 제거해서 공간과 사람과 생활과 떨어진 예술을 만들거나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술품을 위해 예술가들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과 생활과 결합하는 예술가의 탐구와 고뇌와 상상이 희망과 표현의 관계를 원하는 주민/시민과 접점을 만들 때 새로운 예술이 나올 수 있다. 그곳에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예술가가 창조적 예술가로 떠오를 것이다.

## 5 창작 공간을 통한 예술지원정책과 효과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 또는 예술가의 창조적 에너지가 뿔어나오는 방향에 대한 100가지 다른 생각 = 100가지 다른 창작 환경 = 창작환경의 기반으로서 창작공간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100가지 생각을 분명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 창작공간 인근 예술가들의 작업도구와 장비의 공유센터로서 아트팩토리

홍대에서 20년 정도 예술가를 만나면서 느낀 것은, 가난한 삶에 비해, 현대예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작업도구와 장비가 필요하나, 근거리에서 만족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다. 일주아트하우스가 5년간 영상/미디어 작가에게 주었던 활력은 작은 장비 공유센터가 갖고 있는 활력점이다. 각각의 <창작공간>은 인근의 예술가의 작업을 고려하되, 10년 후의 예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장비와 장치에 대한 공유센터로 기능을 할 수

24) 이브 미쇼, 『예술의 위기』, 동문선, 1999. p.241~242

있다. 인문예술아카이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문명을 깊숙이 생각하지 않는 예술가에게서 어떤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창작공간>은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주변 요소를 도와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창작공간>은 예술가의 거점이자, 교환공간이자, 지식의 공유공간이다.

### ● 예술가의 창작공간이자 주민의 창작공간으로서 아트팩토리

시카고 갤러리 47의 경우에는 정서불안 청소년, 장애인, 정신장애인이 24명이 작업하는 40평 정도의 스튜디오가 있다. 5년~15년 동안 매주 3~5번씩 오면서 자신의 작업을 한다. 미술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한다. 그 옆에서는 예술가들도 작업을 한다. 예술가의 창작공간이자 주민의 창작공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 속의 예술이 되는 <창작공간>이 되는 구조이다. 기존의 프로그램형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삶과 예술을 잇는 다리로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욕구가 분출하는 공간이 된다. 거기에 생활디자인, 문화디자인, 버내클러디자인, 생활창작, 아웃사 이더아트, Art in Context가 있다.

### ● 도시 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아트팩토리

도시 공간 정책이나 커뮤니티 기반 예술은 도시갤러리 사례를 볼 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네예술가 프로젝트, 불광천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듯, 도시 공간, 커뮤니티 장소 모든 곳이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재료가 되고, 대상이 된다. 예술 대상으로서 자신을 한정하지 않고, 도시와 지역 속에서 예술이 실현된다. <창작공간>은 이러한 작업의 바탕으로서 창작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도시와 공간, 생활세계와 연관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 제안을 문화재단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이다. 2년, 3년, 5년...의 예술적 작업이 제안되고 실현되는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 ● 국제적인 예술교류의 매개 공간으로서 아트팩토리

'내가 최근 가장 좋아하는 비유는 레지던시를 예술세계의 슬로우푸드 운동에 비유하는 것이다. 관심과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경험하는데 들이고, 새로운 친구들과 긴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즐기고 음미하며... 마침내... 식사는 끝난다. 레지던시는 영원하지 않으며 이것은 소중한 덧없는 본질의 일부이다.'<sup>25)</sup> 레지던스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술적 태도이다. 이러한 레지던TM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서로의 지역에 대한 경험이자, 상호작용

25) 페넬로피 옌킨, 「문화관광주의와 문화교류: 여행자가되는 이유」, 2006 Intra Asia Network Workshop:New Ways of Engaging Asia hosted by AFI 자료집, 2006, p.62

의 장이다. 레지던스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창작공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타지역의 예술가들이 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작공간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거류 장소가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책이 ‘도시 내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갖는 아트팩토리 창작공간’과 연결될 수 있다. 호주의 Art Link는 멜버른 대학교에서 문화예술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공연예술의 공동 워크숍, 시각예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원하는 작가를 사전에 모아서, 해외에서 조건이 맞을 경우 일부 지원(초청국가가 있을 경우 예산을 모아서 지원)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 문학, 공연, 미술 분야에서 35명 이상의 호주 예술가, 기획자들이 다녀갔다. 주요 초청 기관으로는 국민대학교와 쌤스페이스(미술),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및 무용원(공연), 하자 센터, 국제공연예술제 등이다. 2007년도에는 Visual Art 12, Art management(Curator, Festival Director..etc) 12, Performing Art 10, Literature 8명 등 파견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예술가를 보내는 것과 보낸 예술가가 들어왔을 때 모두를 고려한 국제적인 교류의 장소로서 열린 작업실이 가능하다. Intra Asia Network(IAN)<sup>26</sup>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 ● 지역사회 문화의 활력소로서 아트팩토리

미국 포틀랜드 커뮤니티 센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제/유희공간 +문화예술교육/지역공공예술프로젝트 +창작Energy의 센터를 거점으로 두고 예술가들이 작업공간과 활동공간을 갖는다. 수집과 전시 중심의 미술관이나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고, 다양한 문제에 반응하는 <창작공간>이 가능하다. 정치와 경제가 만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치유로서 예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지평을 제시하는 예술의 <창작공간>이 된다. 국제적 좌표에서 예술적 접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색깔과 문화적 원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예술가가 딛고 서있는 한국과 서울의 현실이 예술의 원천이고 창작의 재료이다. 예술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순환이 가능하다.

## 6 정책과 현장 사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문화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 미디어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실패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창작공간>에서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창작공간>이 사회와 고립되는 경우, <창작공간>이 기존의 자생성을 침식하는 경우, <창작공간>이 주민들과 무관한 경우, <창작공

26) <http://www.simcasting.com/ian/>

간>이 예술시장 만을 생각하는 경우 등등. 실패에는 그 이유가 있다. 정교하지 않은 예술행정은 순식간에 <창작공간>을 시설관리와 행정관리만 되는 과정이 되게 할 수 있다. 현시점 서울에서 <창작공간>은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 매개자(큐레이터, 기획자...), 문화/인문연구자의 공동공간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생태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자기 모델을 가졌을 때 에너지의 생성소가 될 있다. 창조적 공간을 만드는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새로운 장소, 삶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멜빈레이더 버트람 제섭, 김광명 옮김, 『예술과 미적가치』, 이론과 실천, 1987, p.21  
이브 미쇼, 『예술의 위기』, 동문선, 1999. p.241~242  
테오도르 아도르노, 홍승용 옮김, 『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2002, p.10~20  
박신의, 「작업실 지원정책의 유형과 접근의 다양성」(오픈 2007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미술인회의·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7  
변길현(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6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양현미, 「창작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이태현, 「대구지역의 작업실 현황 및 쟁점」(오픈 2007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미술인회의·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7  
페넬로피 앳킨, 「문화관광주의와 문화교류: 여행자가되는 이유」, 2006 Intra Asia Network Workshop: New Ways of Engaging Asia hosted by AFI 자료집, 2006, p.62

## 창작공간의 조성을 통한 예술지원정책 - 정책과 현장사이를 위한 토론

토론자 : 심규환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매니저)

‘창작공간’, ‘창작스튜디오’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행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작업실 또는 화실이라 부르던 미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창작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다양한 운영기관들의 목적과 설립취지 등을 통해 자연스레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일상의 작업공간’ 두가지의 개념으로 나뉘게 되었다.

예술가 입장에서 볼 때, 레지던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작업공간’일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인 및 소그룹에게 정부가 작업실을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상향”과 같은 이를 표현하며 쟁점화 하는 것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다. 하여 개념과 의미가 아닌 코앞에 직면한 현실적인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젊은 작가들이 동시대 미술의 주류를 이루는 전 세계적 상황과 국내 상황이 우연히 맞물려 2000년대 중반이후로 해외육선과 각종 비엔날레에 젊은 이름들이 링크되고 젊은작가들의 작품이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업 갤러리에서도 거둬 초대전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어느덧 젊은 작가들의 전시환경은 개선의 극점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창작환경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다. 창작기금마련과 레지던스프로그램(창작스튜디오)이 바로 그것 이다. 국제교환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무장한 체 작가들의 창작에 지원사격을 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등과의 징검다리 역할과 기능을 한다.

앞서 발제한 이광준님의 발제문을 살펴보면 “창작공간 조성 실패담”을 서두로 국/시립 창작스튜디오가 작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는 너무나 성급

한 판단이지 않나 싶다. 각 국/시립창작스튜디오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최소나마 포진하고 각 기관의 운영목적과 예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며 입주 작가들의 프로모션과 각종 편의를 도모하며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예산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국립스튜디오의 경우 ‘창구적 역할과 징검다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년 동안 2억 3천만의 예산으로 입주작가 45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아시아 퍼시픽, 국제교환, 유네스코 등), 각종 전시 사업(오픈스튜디오, 내,외부전시, 교류전시 등), 지역연계프로그램(공공미술프로젝트, 소외계층 등), 학술행사(어드바이징, 공동워크숍 등)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해당된다. 매년 높은 경쟁률(평균10:1이상)을 보이며, 작가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가장먼저 문을 연 광주스튜디오(팔각정)의 경우는 위치가 광주시립미술관내에 위치하며 비엔날레 기간에 특별전 및 스튜디오를 개방하여, 행사를 찾는 국,내외인 들에게 실시간으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특수성 있다. 다른 시립스튜디오의 경우는 설립기간이 불과 2년 안팎의 시간을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성급한 판단이지 않나 싶다. 유희공간(침수처리장) 이용의 대표적 사례인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스튜디오는 설립취지에 걸맞게 ‘제2스튜디오동’과 ‘원형 전시실’ 등의 하드웨어 확장과 관련전시 및 행사들로 입주작가들을 프로모션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시립미술관이 없는 청주와 경북 영천의 스튜디오는 작가 지원과 함께 지역 내의 대표적인 문화 향수시설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이 있다. 지역성, 전문성, 특화성, 등등을 내포하여 관점을 달리하면 ‘창작공간’이 예술가들을 위한공간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향수 시설인가? 라는 물음이 생긴다. 각각의 스튜디오 운영기관의 목적과 비전을 살펴본다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스튜디오에 입주한 혹은 스튜디오를 이용하고자하는 예술가들의 기대치가 큰 탓에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각각 비교하게 되고, 해외사례와도 비교하기 일쑤다. 이를 통해, 국내 창작공간 조성사업들이 평가 절하 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우리 모두의 문화의식과 인식 그리고 현실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정책관련자들과 진행하는 실무자 그리고 수혜 대상자들 사이에서 ‘창작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견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일상적인 작업공간 지원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전략으로 기존의 창작스튜디오나 아트팩토리 등 단기체류용 공간조성이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주위를 살펴보면 어떨까? 나무를 보는 것 말고, 산을 보는 심정으로 말이다. <정책과 현장사이>는 “A는 B이다”라고 명쾌하게 규정짓기가 참으로 어렵다. 현재 토론자인 본인의 일터에서 바라본바, 정책관련자들과 진행하는 실무자들 모두가 대상에 맞춘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현실은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건축 등 하드웨어가 구성되고 이어서 하드웨어 관리 인력 투입이후 소프트웨어가 구성된다. 이유는 “단계적 예산책정의 모호함”과 “비효율적인 항목별 예산집행” 일 수 있다. 국립, 난지, 청주스튜디오 등 개관당시 시설 유지비는 있었으나 개관전시를 제외한 프로그램비용은 시설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었다. 개관한 해에는 프로그램 준비만 하고, 실행은 그 이듬해에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겼다.

흔히 일어나는 예를 한 가지 더 든다. 요즘 미디어 설치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다보니, 전시에 자연스레 ‘빔프로젝터’를 대량 사용하곤 한다. 구입비용이 보통 일,이백만원을 웃도는 가격이라 임대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전시기간에 따라 기기구입 비용보다 임대비용이 이를 상회할 때도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기기구입이 예산 절감과 향후 재사용 등 많은 이로운 점을 이유로 구입하면 좋으나 예산 항목별 집행상의 근거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구입이 아닌 임대를 한다. 예산부분을 서술하였더니 한 가지 물음이 생긴다. 2009년에 단계적으로 오픈할 아트팩토리 관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을까? 이다.

기존의 창작스튜디오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도심의 유휴공간을 이용, ‘예술가 중심시설’로 출발한 아트팩토리 사업. 시행착오와 접근방법은 달랐으나 과거 논산, 강화의 경험과 예를 토대로 한층 진화된 지금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지금의 당금질 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장점과 과정을 살펴보면 어제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된 창작공간인 <아트팩토리>가 구성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단계별 전략 목표 등, 조성전략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예술지원 정책 : 정책과 현장사이

토론자 : 김윤환(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대표, 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성공적인 아트팩토리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으나 저는 아트팩토리 사업추진에서 주목해야할 창작생태계 문제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예술가의 창작공간은 창조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 똑같지 않고, 창작공간마다 독특한 공간구성방식과 공간사용방식이 있게 마련이다. 또 창작의 유형이나 장르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일뿐더러 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운 '다원'적 혹은 '인디'적 성격의 창작활동공간도 많다. 심지어 여러 장르를 아우르고 타 전문분야를 넘나들며 창작과 기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작가기획자도 많은데 이들의 공간활용방식도 다양하다. 또 개인의 창작만을 위한 공간도 있지만 소그룹의 창작기획을 위한 아지트도 있고 독자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공연단체의 공간도 있다. 대표, 기획담당, 코디네이터, 홍보, 배우, 안무, 무대제작, 예산 등 극단 혹은 무용단 내에 다양한 역할이 있다. 한 사람이 둘 혹은 셋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규모 있는 단체일수록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말이지만 이 모든 공간들은 각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구성과 운영의 시스템에 맞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인테리어 기술자에게 맡기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예술가의 창작실을 기술자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예술창작공간은 독창적인 생산 활동을 펼치는 일종의 공장으로서 공간조성에서도 독창성을 추구한다. 그 공간의 최고의 전문가이자 최고의 기술자인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직접 공간을 만든다. 이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담당 기술자를 부르는 것과 같다. 창작공간은 한번에 설비공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공간을 가변적으로 설정해놓고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창작의 스타일상 그럴 수 있다.

이러한 개인 혹은 집단의 창작공간들이 모여 있는 경우를 창작촌, 예술촌 등으로 부르지만 내용에 따라 문화지구, 예술거리 등으로도 불린다. 명칭이야 어떻게 불리든 이들은 각각 나름대

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생태계와는 달리 예술생태계 내에서는 고도의 예술실험, 예술생산, 교류, 소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놀랍도록 질서를 가진다. 그것은 마치 수백수천개의 리좀이 입체적으로 겹쳐있는 구조와 흡사하다고 본다. 예술지역에서는 작품을 소비하면 할수록 더 많이 더 새롭게 생산된다. 소비되는 순간 생산된다. 놀라운 이 사이트에서는 기초예술컨텐츠부터 다양한 응용예술까지 끊임없이 생성되고 교환된다. 여기서 생산된 파장들은 각각 파문을 일으키며 다른 산업분야로, 사회로 점점 넓게 퍼져 나간다. 보통 이러한 곳들은 자생적으로 생성된 경우다. 자생적인 예술생태계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창작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해본 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창작촌은 정부나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쉽사리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트팩토리 사업은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한 개의 지역도 아닌 서울의 곳곳에 이러한 창작생태계 형성을 겨냥한 시도들을 벌이고 있다는 면에서 말이다. 그 내용에는 기존 창작인프라가 있는 곳은 더욱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인프라가 미비한 곳에는 새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아트팩토리 혹은 창작공간조성 사업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창작군락지 혹은 창작의 서식처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토론을 제안하는 부분은 자생적인 창작촌이 있는 지역과 예술인프라가 없는 지역, 이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또 창작공간을 조성할 때 어떻게 공간을 조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와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시오.

두 번째 공간 사용자의 측면에서, 아트팩토리의 명칭처럼 1차적인 사용자는 예술가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 그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통해 어떤 창작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술가들의 최근 경향은 우선 개인 및 그룹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개별창작에 집중하는 경우와 이와 달리 처음부터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두 경향은 서로 유기적이다.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는 전통적 예술가 상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문광부의 아트 인 시티나, 서울시의 도시갤러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개인 및 그룹에서 그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90년대 말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시작되고 2002년부터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작레지던스 지원정책은 작가발굴과 교류 및 발표를 촉진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아트팩토리 사업은 안정적인 창작공간 제공과 예술가 인큐베이터, 장르 간 균형발전과 협업도모, 구도심 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이전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 밀착

## 부 록

형 예술활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대두시켰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소비의 다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라진 창작환경은 예술가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와 예술작품의 제작방식, 그리고 작품의 소통방식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아트팩토리는 예술가의 사회화를 실험하는 공간, 새로운 예술탄생의 인큐베이터, 글로벌 미학과 로컬의 지역성을 융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녹취록 (주요내용만 요약정리)

- Q. 구로문화재단:** 지금까지 조성지의 시설개요, 공간 구성, 성격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구체적인 것들로 이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A. 조재원(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이하 조재원) :** 6개 조성 지역의 공간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시설이나 공간의 성격 등을 생각했습니다. 각 공간들의 성격이 다르지만, 각 공간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어떤 사회적 생산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등에 관해 고민해 보아야할 듯합니다.
- Q. 구로문화재단:** 누가 위탁운영하나요?
- A. 조재원:**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 Q. 이화원(경계 없는 예술센터) :** 아트팩토리 6개 사이트가 너무 시각예술 중심으로 조성되는 것인가요? 아트팩토리 공간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문래동 그 지역의 예술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공간을 통한 지원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궁금합니다.
- A. 이광준(서울시도시갤러리추진단) :** 현실적으로 문래동의 아트팩토리 공간이 현재 작업 중인 약 250명의 문래동 지역 작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공간이 특정 장르에만 해당되는 구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 A. 김윤희(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이하 김윤희) :** 지역의 합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술가들은 건물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에게 창작촌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있습니다. 뜻있는 예술가들이 단순히 창작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의 발전까지를 염두 해 두시고, 관, 민, 예술가들의 뜻있는 합심이 필요합니다.

- Q. 김지연(교육연구소 프락시스 이하 김지연) :** 현재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대학로 연극센터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위탁하게 될 재단에서 운영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
- A. 이선철(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이하 이선철):** 고립된 창작 공간 조성이 아닌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변화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미나나 기타 다양한 의견의 창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Q. 윤기훈(경계 없는 예술센터):** 문래동 자체 예술가들도 충분히 자체 기획과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트팩토리가 들어오면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기획전이 열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의 정책이 지역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조성 부탁드립니다.
- A. 김해보:** 문래동에 자체 기획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역에 새로운 공공재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부분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 Q. 김지연:** 이야기를 들어보니 6개 공간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서울문화재단이 문래동에 와서 사업을 벌인다면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공간으로서가 아닌 재단의 사업에 작가로서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래동 지역을 예로 든다면, 재단의 직원이 아닌 문래동의 어떠한 단체 등이 조성될 공간의 위탁 운영을 맡는 것은 가능한가요?
- A. 김해보:** 공공재원을 연락처 시키는 것은 재단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재 위탁은 안 됩니다.
- A. 이선철:** 재단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체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적절한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변순영(인천문화재단) :** 작년 말부터 아트플랫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공연장,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창작 발표 및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김윤환:** 약 10년 동안 인천 아트플랫폼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간.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어떻게 공간 활용 및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 추진단에서 현장답사 할 예정입니다.

# 부록 2.

## [회의록]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1,2차 자문회의 의견 종합

### 1차 자문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8.12.10 (수) 10:00~14:00, 서울문화재단 1층 책사랑

#### ● 회의 목적

창작공간조성 사업을 위한 전략보고서 수립에 있어,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연구 진행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세미나를 위한 발제 및 토론에 관한 방향 설정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 ● 참석자

- 이선철(창작공간조성 추진단 단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조재원(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01studio 대표)  
김윤환(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심규환(고양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매니저)  
이광준(서울시도시갤러리추진단 책임큐레이터)
- 전략보고서 현장조사연구진 김강, 손민아, 송수연, 한지인
- 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창작공간조성TFT 팀장 외 팀원 3인

#### ● 회의록 (주요내용만 요약정리)

##### ■ 김효정

현 추진 중인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사업의 뚜렷하고 전문적인 정책 목표가 요구된다. 먼저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인천, 대구 등) 사업과의 차별성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예술창작공장조성 사업이 대구나 인천 지역에서 행해지는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시 사업만의 차별성이 두드러져야 한다. 두 번째로 수혜자 범위 설정해야한다. 이 사업의 수혜자가

예술가, 지역 주민, 서울시 등 누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특정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생산자(예술가)를 위한 사업이라면, 세계적인 예술가를 만들기 위한 성공사례 조사를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 한다. 수요자(지역 주민)를 위한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 세 번째는 건물 재생을 통한 문화 공간 조성의 의미 분석 필요하다. 공간 자체의 독특함 혹은 효과적인 운영 콘텐츠 등 하나의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밀집군으로 묶기 어려운 6개 사이트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 ■ 이광준

개별 사이트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필요하다.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조성되는 6개 사이트를 모두 엮어내기 힘들기에, 개별 사이트 공간이 위치한 그 지역의 문화 활력 제공 혹은 지역 재생과 같은 지역 특정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효과 창출 요구된다. 두 번째는 공간 운영의 문제이다. 전략보고서 국내 사례조사를 통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운영 모델 도출 후,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개별 사이트에 맞는 운영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식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발제문 내용 및 방향성의 문제이다. 세미나 때, 정책과 효과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과 운영 가이드라인 및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점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 심규환

먼저 이 사업의 수혜자가 예술가인지 지역주민 혹은 기타 다른 누군가인지에 관한 설정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창작스튜디오와 지역 연계의 문제이다. 고양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술가들의 사적 작업 공간 공개 등 문제가 발생한다. 공간 운영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 구성 준비, 성과 측정의 문제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적 측면 고려해야 한다.

### ■ 이선철

지역 사회 연계의 필요성하다. 라도삼 박사님께서 “아트팩토리 사업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공간의 재활용, 예술가 지원, 지역 사회라는 3 가지 요소를 재단에서 잘 풀어내어 성공적인 공간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타 기관 및 사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표본이 될 것이다.

### ■ 김윤환

예술가 인큐베이터 공간이 필요하다. 국내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 및 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 작가 성장 및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문제는 창작인프라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국내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및 해외 사례의 답습이 아닌 지역 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 재원을 지원 받은 예술가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 목적, 공공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차 자문회의

### ● 일시 및 장소

2008.12.30 (화) 14:00-17:00, 서울문화재단 1층 책사랑

### ● 회의 목적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조성 사업을 위해 집필중인 전략보고서 관련, 재단 내, 외부 전문위원들에게 중간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 ● 참석자

- 이선철(창작공간조성 추진단 단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조재원(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01studio 대표)  
김윤희(창작공간조성 추진단 전문위원,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심규환(고양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매니저)
- 전략보고서 현장조사연구진 권범철, 김강, 손민아, 송수연, 정소익, 한지인
- 서울시 문화개발팀 김경용, 현진숙 주임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창작공간조성TFT 팀장 외 팀원 3인

### ● 회의록 (주요내용만 요약정리)

#### ■ 재단 대표이사

세계적으로 창작공간조성사업이 전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조성중인 공간의 규모는 작지만 6개 공간 외에도 앞으로 서울 지역 전체에서 생겨날 많은 공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6개의 공간을 특성화시켜 가는 것 필요하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사업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복합적 기능 또한 필요하다. 전략보고서의 소결 부분이 너무 일반적이므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추후 공간의 인력문제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이트가 독립된 운영 조직을 갖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본부를 가지고 그 아래 여러 사이트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 김효정

전략보고서의 소결 및 종합분석 부분의 보완 및 자체분석이 필요하다.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전체 사업의 제목 설정 및 그에 따른 개념 정립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트크러스트’ 혹은 ‘O O 그룹’ 등의 제목을 정해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개념에 관한 모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각 6개 공간의 장소성을 되살려야 한다. 유희전환 프로젝트가 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공간의 변화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그 공간의 역사성, 장소성, 시간성 등을 고려할 필요 있다. 예를 들면, 문래동과 독산동 경우, 이전 철공소, 인쇄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프로젝트 같은 것이다. 세 번째로 장르 콘텐츠에 따라 각 공간의 성격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철공소, 인쇄소로 사용되었던 문래동과 독산동은 층고가 높은 공간임을 이용하여 연극 등의 장르지원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네 번째로 각 공간 기능설정 관련하여 ‘주제’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래동은 철공소였던 공간을 활용하여 철재, 조형 등을 활용한 특정 장르, 독산동은 인쇄소였던 것을 활용하여 활자, 인쇄 등을 연관시킨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각 조성 공간을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영등포 아트팩토리(가칭)는 생산 공간,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은 소비 공간,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매니지먼트(유통)공간, 금천 아트팩토리(가칭)는 홍보 및 교류 공간, 기타 기획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지역에 경제적 혜택 관련, 수익모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해야 한다.

■ 심규환

이 사업이 기존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략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전략보고서가 해외 사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형 좋은 사례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작스튜디오를 경험한 작가 인터뷰 필요하다. 2009년도 프로그램과 운영인력 예산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은 프로그램 생산의 문제다. 예산은 사업의 수혜자가 작가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 줄 수 있으므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 ■ 서울시 담당자

전략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 즉 운영 인력, 예산과 같은 세부 항목들이 있어야 시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후원할 수 있다. 공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전략보고서에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6개 공간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 되는 것인가, 혹은 불가능한가의 여부가 도출되어야 한다.

#### ■ 김해보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에 관한 재단의 인식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 같다. BI, CI 개발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방향성 설정을 위한 추후 논의가 서울시와 필요한 듯하다.

#### ■ 이선철

전체 서울시 예술창작공장 사업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개별 사이트의 운영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 예산 등을 제시하여 서울시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다.

#### ■ 김윤환

현장연구를 열심히 연구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연구진과 서울시의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웠다.

## 창작공간조성 전략 개발을 위한 문화생태계적 관점의 접근

-홍대지역 및 문래 창작촌을 중심으로-

### 1 |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추진된 창작공간 지원정책이 건립 대상 지역의 문화 생태적 흐름은 외면한 채 결과물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이나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성공적인 아트팩토리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공간과의 관계설정, 즉 문화생태계적 관점에서 지역과의 접속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작공간들의 국내외 사례조사, 문화 활동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홍대 지역, 그리고 문래동 창작촌에 대한 지역연구를 통해 앞으로 추진될 서울시 아트팩토리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은 국내외 일반, 그리고 아트팩토리 대상 지역인 문래동, 홍대 지역의 창작공간<sup>27)</sup>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예술을 매개로 한 활동이다.

##### ● 국내외 사례 연구 대상

- 국내사례: 공공기관, 민간 등 운영주체별 연구
- 해외사례: 유희 산업 시설 재활용 사례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는 기존 창작 공간의 조성 및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아트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참고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창작공간은 개인 및 집단이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 곳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창작공간은 일반적으로 작업실, 아틀리에(atelier), 스튜디오(studio), 연습실 등으로 불리는 공간뿐 아니라, 카페, 클럽, 소극장 등 창작행위의 기획, 표현, 매개와 관련된 공간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 ● 아트팩토리 대상지역 현지 조사

- 문래 창작촌: 개인/그룹의 창작실
- 홍대지역: 여러 유형의 창작공간 / 예술가 / 기획자 / 문화예술단체

아트팩토리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는 기존 문화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 될 아트팩토리 사업의 조성 및 운영의 전략, 즉 창작공간 조성의 수혜자 범주 및 주 기능 설정, 지역 네트워크 구성 전략, 시민참여 방안, 중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제안한다.

## 2 | 창작공간의 개념 및 현황 |

### 1 | 창작공간의 개념 및 가치

#### ● 창작공간의 개념

창작공간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창작(創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한다. ‘창작’이란 ‘방 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또는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또는 그 예술 작품을 의미<sup>28)</sup>하므로, 창작공간이란 무언가-예술 작품을 포함한 모든 것-를 생산해 내는 장소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실, 창작실, 스튜디오(studio), 아틀리에(atelier), 공방(工房), 화실(畫室), 연습실 등 다양한 어휘로 불리며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의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한다. 이처럼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어휘는 다양하며 장르별로 조금씩 다른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창작행위를 위한 공간을 가리키는 다양한 어휘들은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 명칭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sup>29)</sup>의 예처럼 기존의 아틀리에, 작업실이 가지는 개인적 공간의 뉘앙스를 벗어나 조금 더 공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창작공간은 상당히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운영 주체와 설립 목적에 따라 그것의 실제

28) ‘창작’은 이처럼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의 창작공간이 창작행위의 기획, 표현, 매개와 관련된 공간’도 일부 포함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창작’이 의미하는 바는 창작행위의 전, 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획, 표현, 매개 등을 아우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29)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설립취지를 참고하면, 창작스튜디오는 ‘(미술)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과 편리한 작업여건 제공하고 국내외 미술작가 및 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창작의 계기를 모색하고 서로 연계 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일반 대중과 현대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 정의된다(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www.artstudio.or.kr>).

양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불리는 어휘도 매우 다양하다. 요컨대 창작공간은 장르별 구분을 넘어서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전반을 아우르는 집합적 의미이며, 최근에는 조금 더 공공적인 의미(여러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의미로)의 구현을 요청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 ● 창작공간의 가치

창작공간의 가치는 우선 문화적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거나 삶의 모습을 바꾸는 사회적 권리이며, 이에 따라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가꿀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 기반, 사회적 자유 등이 제공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창작공간이 가질 수 있는 효과와 연계해 생각해 보면, 크게는 공간을 사용하는 작가에게는 창작권을, 사회적으로는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 그리고 낙후된 지역/장소의 문화적 재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스스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주거공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 창작공간 역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창작권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창작공간은 예술가가 지나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창작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창작공간의 가치는 사회적 의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작성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조성목적을 살펴보면, 창작공간은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창작공간이 군(群)을 이루어 밀집하게 되면, 예술계를 넘어선 지역/장소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오래된 시설, 혹은 버려진 공간에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창작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창작촌을 통해 예술가들은 그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존의 공간에 개입하여 장소성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된다. 낙후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예술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흔히 이야기하듯, 도시재생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빈 공간 혹은 버려진 공간에 개입하여 공간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는 도시 공간의 새로운 건설자들이다. 이들이 새롭게 창조해 낸 창작공간들은 그 자체로 도심재생의 훌륭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국한되던 창작실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부여 받게끔 한다<sup>30)</sup>.

30) 창작공간의 가치는 그곳을 매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기능과 연계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예술가의 사회적 순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창조적 역할수행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또한 예술가들이 모인 창작촌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북경의 한 공장지대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작가들이 모이기 시작한 따산즈는 이제는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하는 문화지구로, 중국 미술이 상한가를 치면서 정부의 투자와 문화특구 지정과 함께 오늘날에는 그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케이블 제조공장을 활용한 핀란드의 케이블팩토리도 그 내부에 무용, 갤러리, 레스토랑, 미술관 등이 모든 문화 및 예술 장르에 걸쳐 비영리 단체부터 기업까지 60종류의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9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sup>31)</sup>.

## 2 창작공간의 종류

### ●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의 창작공간

창동 및 고양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하여 국립, 공립, 사립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와 퀸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독일), 쉐 로베르(프랑스) 등 외국의 유명한 창작스튜디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의 창작공간 범주에 속한다. 이 공간들은 일정기간 동안 미술가를 초청하여 창작스튜디오에 머물게 하면서 창작비를 지원하거나 전시를 열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작업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취사 및 숙식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기도 한다.

### ● 일상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심의 창작공간이 단기간의 체류 공간 제공에 국한되어 있다면, 일상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은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가 본래 이러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일상적인 사용에 한계를 보이며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공립 혹은 사립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레지던스 제공에 머무르고 있어 일상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은 대부분 예술가 개인의 창작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sup>32)</sup>은 도심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예술가 개인의 창작실은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33)</sup>.

- 국가 문화정책발전정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평가에 참여
- 시민의 삶의 질 고양에 동참
- 시민교육 특히 청소년의 미적 감수성과 세계관 수립 및 인식향상에 기여

31) 김규원, 『당인리 화력발전소 문화공간조성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32) 2006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관련 종사자들 중 과반수 이상의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며,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27%에 달한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6 참고).

● 일시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

일시적 작업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은 본래 창작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사용 맥락에 따라 가변적으로 창작실의 성격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대표적인 공간의 예로 카페<sup>34)</sup>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현장 조사 대상지역이기도 한 홍대지역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홍대지역은 그 곳이 가진 다양한 문화활동/인프라로 인해 안정적인 작업실을 마련하지 못한 많은 1인 작업자/기획자들이 홍대지역의 카페를 자신의 작업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곳의 카페들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커피-소비자로만 활용되는 공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홍대 지역의 카페들은 문화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입지한 연유로 인해 창작-창작공간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창작공간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정부가 '예술창작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충남 논산과 인천 강화 2곳에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이다<sup>35)</sup>. 이후 1998년 문화관광부의 <미술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계획><sup>36)</sup> 수립,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폐교를 활용한 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한 작업실 29개소가 조성되었다<sup>37)</sup>.

하지만 이러한 폐교를 활용한 창작실 지원정책은 주민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폐교재산 및 운영관계의 복잡함, 임대계약조건의 불안정성,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도시 주변에 입지한 몇몇 공간만 전문창작공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8)</sup>.

이처럼 폐교활용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국내에서는 사립 창작스튜디오-쌈지스튜디오 등-의 활

33)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예술가 개인이 창작실을 계속해서 이주하게 하는 현상을 낳는다. 저렴한 임대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구하게 되는 공간은 낡고 오래된 건물인 경우가 많고, 한편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탓에, 창작실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이는 국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역시 세입자들인 예술가들도 도시 재개발에 있어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찾도록 강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문래 창작촌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 탄생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4) 이처럼 카페 등을 일시적 창작실로 사용하는 작가들은 이러한 공간을 '이동형 작업실'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35) 국내에서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된 사례는 1995년에 4명의 작가들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창작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청원마동창작마을이다(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1.).

36)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조성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모두 30개의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전국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상계서, p.8.).

37) 상계서.

38)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폐교활용공간들은 마산아트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어촌 밀착형 문화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성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창작공간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창작공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이다. 국립창동 스튜디오, 고양스튜디오 등으로 시작된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국제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일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창작환경 지원에 있어 창작공간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 즉,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 짧은 입주기간(3개월~1년 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창작스튜디오는 소수의 작가들에게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일시적 창작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호흡을 함께하지 못한 탓에, '일반 대중과 현대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이란 소기의 목적 또한 한낱 수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4년 문화관광부는 '새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2008년까지 전국에 2,000개의 창작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도 구체적 계획도 없는 이 계획은 2008년이 끝나가는 현재, 이미 그 실패가 검증되었고, 이와 더불어 '안정적 창작환경'의 꿈은 여전히 미완의 계획으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의 담론과 더불어 등장한 유희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사업이다.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시대와 더불어 글로벌 도시경쟁 체제 하의 각 지역이 스스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코드를 필요로 하는 과정 속에,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명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제 도시의 창작공간은 단순히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작업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생겨나는 도시의 창작공간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받고 있고, 그 속의 예술가들 역시 사회와 만나는 지점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만나고 있다. 창작공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 국내외 창작공간의 현황 및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창작공간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아트팩토리 사업을 위한 참고지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먼저 국내사례는 기존 창작공간들의 운영 주체별 분석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에서는 유희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전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각 공간들의 일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다.

1 창작공간의 국내사례분석\_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 연구대상 시설

아래의 표는 본 장에서 살펴볼 국내의 대표적인 창작공간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기관/민간재단·사립미술관/민간기업/개인 및 단체로 분류한 것이다.

<운영주체에 따른 국내 창작공간 분류>

운영주체	창작공간 사례
공공기관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창동, 고양) 광주미술창작스튜디오(팔각정, 양산동) 서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민간 재단· 사립미술관 운영	경안미술창작스튜디오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
민간 기업	쌈지스페이스 가나아틀리에 장흥아트파크(장흥아틀리에, 양주조각아틀리에) 달링스튜디오
개인 / 단체	파주하제마을 후용공연예술센터 창문아트센터

<국내 창작공간 운영 현황 비교표>

운영주체	시설명	주요 시설	입주 기간	입주 대상	전문 인력	지원항목	공간 사용료	
공공기관	광주미술창작스튜디오	판각정	스튜디오 6실(50㎡)	장기 1년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국내외 미술작가 중 주 4일 이상 스튜디오 이용 가능한 자	공간상주 전문인력 없음 (광주시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관리)	개별 스튜디오 (숙식 불가)	겨울 난방비는 작가가 부담
		양산동	아파트형 스튜디오 16실(46㎡), 갤러리(82㎡)	장기 1년 단기 3개월 *스튜디오 이용 실적이 양호한 장기입주자는 1년 연장 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40세 이하의 전문직업실용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국내외 미술작가	개별 스튜디오 (숙식 가능)	월 24,000원의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직접 부담	
	서울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스튜디오 28실(12명 규모), 전시장(준비 중), 야외환경조각공원, 옥외작업장	1년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2세 이상의 국내외 신진, 중견, 원로 작가	공간상주 전문인력 없음 (서울시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관리)	개별 스튜디오 (숙식 가능)	없음	
	경인미술창작스튜디오 (영은미술관)	평면스튜디오 7실 (1실-42평형, 6실-24평형), 입체스튜디오, 판화공방, 도예공방	장기 2년 단기 3~6개월	만 40세 이하의 미술 전 분야, 창작스튜디오 입주 경쟁이 없고 전용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	큐레이터 1인 (영은미술관 소속)	개별 스튜디오, 숙소동 제공	관리비 월 10만원, 전기료 실비 부담	
민간채널 / 시립미술관 운영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 (금호미술관)	스튜디오 9실(14평형)	1년 일정기준 적격자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만 40세 이하의 미술 전 분야, 창작스튜디오 입주 경쟁이 없고 전용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	큐레이터 1인 (금호미술관 소속)	개별 스튜디오	없음	

운영주체	시절 명	주요 시절	입주 기간	입주 대상	전문 인력	지원항목	공간 사용료
개인 /단체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10실(10~12평) 전시실	장기 1년 단기 3개월	장르 구분 없이 시각미술 전 분야의 작가	큐레이터 2인	개별 스튜디오	없음 *입주 기간 만료 시 작품 기증
	가나아트리에	스튜디오 8실(30평 규모)	2년	국내외 신진, 중견 미술작가	가나아트 기획마케팅팀의 1인 담당	개별 스튜디오	“
	장흥 아트 리에	스튜디오 23실(20평 규모)	2년	국내외 신진, 중견 미술작가	가나아트 기획마케팅팀의 1인 담당	개별 스튜디오	없음 *체제공과금을 대신하여 작품을 기증하도록 규정
	장흥 아트 리에 1,2	스튜디오 7실(20평 규모)		조각, 설치,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하는 일체 작가가	강홍아트파크 기획마케팅팀의 1인 담당	개별 스튜디오	
민간 기업	아트리에	전시장각 공동작업실, 스튜디오 6-7개	규정 없음	시각예술분야 신진 작가 (AB구단이 아닌 작가군 무주로 제안)과 인터뷰를 통해 선발)	없음	없음 *개별 스튜디오를 적당하게 임대하는 방식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25만원 (체제공과금 약30,000원 개별 부담)
개인 /단체	파주하체마을	스튜디오 10개 (20~30평 규모)	규정 없음	미술 전 분야의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미술가로 결원이 생겼을 시에만 출원 인문, 배우, 음악, 미술, 무용, 극작 등 전 예술분야의 작가	없음	개별 스튜디오	체제공과금, 공간운영비 작가부담
개인 /단체	후용공연 예술센터	개인스튜디오 3실, 1개의 블랙박스 극장(90석), 가변형 야외극장	3주~3개월	시각 예술 전 분야의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미술가	없음	작업 공간	없음
개인 /단체	칭문아트센터	스튜디오(교실) 9개, 전시실, 조각공원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교실 1칸 기준 월 15~20만원, 전기료 약 2만원

## ● 국내사례 분석 및 아트팩토리를 위한 제언

### ■ 종합 분석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단기간 체류 형식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각 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공모 방식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지만 그 공급에 비해 입주자를 원하는 작가들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극소수의 작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 자체 시설 내에서 입주 작가의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오픈 스튜디오, 학술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공간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은 미흡한 편이다. 그나마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2005년부터 국제교환입주프로그램과 아시아작가 초청 등 점차로 국제 교류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간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 인력 확보,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 재단에서 설립하고 재단 소유의 사립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역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과 마찬가지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경안미술창작스튜디오는 다양한 연령대의 신진, 중견, 원로 작가들을 선발하고,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는 20~30대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지만 오픈스튜디오, 전시, 워크숍 등의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는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공간의 위치 또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 인력의 경우에도 미술관에 소속된 큐레이터 1인이 창작공간 전반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민간 재단에서 설립한 창작공간은 전반적으로 공간 조성 및 운영의 목적이 모호하여 타 공간과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정확한 공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이 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쌈지 스튜디오는 기업의 문화 마케팅 전략이 미술과 만났을 때의 성과를 미술계에 즉각적으로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쌈지 스튜디오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작가 지원 시스템과 전문 기획자와의 유동적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있다. 또한 안정된 예산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공간 운영으로 타 공간과 비교해 볼 때 개선된 형태의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타 공간에 비해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의 경우, 운영 주체의 차별적인 성향을 특화시킨 창작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적 성향을 특화시킨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및 각 지자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단기적이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형식이라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공간의 특화된 지역 연계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 등의 안정적인 지원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창작공간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기간의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시각 예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신진 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소수의 예술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두 번째는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으로 도시에서의 접근성 부족과 함께 창작 전문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창작공간의 성향 분류와 장단점>

분류	운영 주체	장점	단점
레지던시 운영 중심의 창작공간	공공기관 및 민간재단, 기업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원	- 시각예술분야 편중 - 단기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주 - 소수 예술가에게만 기회가 주어짐
폐교활용 창작공간	개인/단체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정착	- 도시에서의 접근성 부족 - 창작 전문 공간으로서의 한계

■아트팩토리를 위한 제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주의 공간과 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아트팩토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종합하는 형태로 도심 내 지역 밀착형 종합 예술 공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예술의 생산자(작가)와 소비자(주민, 고객)의 구분 없이 프로젝트를 매개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문화 생산의 새로운 주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팩토리의 발전 방향>

공간 구성의 면에서는 종합 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개인 및 그룹을 위한 개별 스튜디오와 카페형 휴식 공간, 게스트 하우스, 공동 장비실,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전문 자료실, 공동작업장, 프로젝트 기획 및 회의를 위한 다양한 규모/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도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형해 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의 탄력적 편성/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 별 기획자, 프로그래머, 전시 및 공연 공간 큐레이터, 아카이빙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획자 등 분야 별 전문 인력의 확보 또한 아트팩토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입주 작가 선정에 있어서는 아트팩토리에 적합한 프로젝트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 기간의 경우 기존 창작공간과 같이 장기 1-2년, 단기 3-6개월 등의 일률적 운영이 아닌 프로젝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인력과 단계적 네트워킹을 통해 결과물만 내뱉는 공간이 아닌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이나 학생과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예술가를 위한 인문학 및 매체 교육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기획이 요구된다.

## 2 창작공간의 해외사례분석

### ● 연구대상 시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해외 창작공간은 서울시 아트팩토리 사업의 경우와 같이 유휴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전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해외 창작공간 연구 대상시설>

공간명	과거 유휴공간 형태	현재 공간성격	위치
케이블 팩토리	케이블공장	종합예술공간	헬싱키, 핀란드
쉐 로베르	은행 빈 건물	종합예술공간	파리, 프랑스
퀸스틀러하우스 벤티니엔	고성(1847)-병원(1968)	시각예술 국제레지던스	베를린, 독일
쿤스트하우스 타헬레스	쇼핑몰	현대예술센터	베를린, 독일
탄츠하우스	전차역	현대무용센터	뒤셀도르프, 독일

## 부 록

공간명	과거 유희공간 형태	현재 공간성격	위치
따산즈798	군수공장	현대예술창작촌	베이징, 중국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맥주공장	생활친화형 문화지구	베를린, 독일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담배제조창 및 주변 낙후지역	문화도시프로젝트진행	마르세이유, 프랑스
우파 파브릭	영화제작소	마을단위 복합문화공간	베를린, 독일
웨스트가스 패브릭	가스 공장	생활친화 문화산업공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M50 창작정원	방적공장촌	예술창작촌	상하이, 중국

## &lt;해외창작공간의 조성 및 운영실태 비교&gt;

공간명	조성과정	조성	조성주체	공간영역	규모
케이بل 팩토리	구 케이بل공장 →임대종합예술공간	1991	입주예술가 +헬싱키시	복합창작 발표	350여개 창작/발표/박물관/복합기능카페 등
		1999	예술가	복합창작발표 및 레지던시	7층 / 1,500㎡ / 창작실(30)
쉐 로베르	빈 은행건물 →squat →파리시 관할 예술공간	2003	파리시	현대예술 사이트	미정
		1974	예술가	다강르복합 문화 공간	창작실(25),대전시장(1), 소전시장(3), 비디오 사운드 편집실, 워크샵룸
퀸스틀러 하우스 베르니엔	구 병원 →시각예술레지던스	2000	예술가	시각예술레지던스(국채)	
		1990	예술가	예술가공동체+실험예술공간	창작실(30),전시장(3),공연장(2), 복합기능카페(2)
콘스트 하우스 터헬레스	구 배화점 건물 →현대예술센터	2000	예술가+시	국채 현대예술센터	
		1995	예술가+시	국채 종합무용센터	매주 3,000명 이상이 워크샵 참여
탄초하우스	구 전차역 →종합무용센터	2002	예술가+시	미술발표 및 미술시장	창작실(200),갤러리(400),패션샵(50) 및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산업시설임주
		1990	예술가	복합문화공간 생활문화시설	전체면적 4만㎡ 건물 20동 1만3천㎡-문화예술공간(25~30%) / 2만 5천㎡ / 6개의 작은 정원
클투어 브리우어 라이	구 맥주공장지역 →복합문화공간	1998	부동산회사		
		1992	예술가+시	복합문화도시	①35,000㎡:도시산업,문화유산 아카이브 ②27,000㎡:미디어제작발표 ③45,000㎡ 창작발표스튜디오(총 107,000㎡ )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구 영화제작소 →마을단위 복합 문화공간	1979	예술가 +문화활동가	생태, 문화, 대안경제 등 복합문화마을	18,000㎡ 극장(2), 야외무대(1), 복합 스튜디오, 카 페, 빵집, 게스트 하우스 등 마을
		1993	시 의회		문화산업체, 카페, 디자인회사 등 임대 입주
웨스트가스팩토리	가스 공장 지역-생활친화형 문화산업 공원	2000	MAB 부동산 개발 회사	생활친화형문화산업공원	건물 21동 / 창작실(140) /공예샵, 의상, 건축사무 소, 서점, 음악스튜디오, 상해미술학원 전시장 등
		1998	예술가	창작/발표/문화산업복합지역	
M50창작 공원	방직공장촌-현대예술창작촌	2005	상허이시		

공간명	운영주체	특성프로그램	정책개념	비고
케이ابل 팩토리	이사회 부동산 관리회사	임대 공간 지원적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기타로그 연 2회 제작	이사회선임/부동산회사설립 /임대료 100%공간유지보수제사용 /청소, 자물단 조작	전문창작/발표시설 확충
쉐 로베르	예술가저울조직 <Rivoli 59>	월-토 상시 오픈 스튜디오 (PM1:30~7:30)	불법점거 / 사용 무인	2008년 3월 오픈예정 (현재 미 개관)
퀸스틀러 하우스 베티니엔	미정	미정(2005년 이후 폐쇄)	공간매입 및 보수, 총 예산 852만유로(매입457만 유로, 보수 :395만 유로)	
쿤스트 하우스 타헬레스	운영위+사무국	각국 예술가관과의 협약 - 해외작가초청 탄조하우스	공간무로 임대	국제 네트워크 및 해외작가 교류비용 절감 유네스코, 유럽연합 등 스폰서 그룹
		독립기획자 국제 행사 개최	공간무로 임대, 프로젝트 선별 지원	
피산쵸798	위원회(주, 도선정)	콜투어 브라운어 라이	프로젝트 선별 시예산지원 공간보수 시 예산 지원	외부지원이후자물성, 창작열기최퇴,관광지회됨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TLG 부동산 회사사(98년 이후)	시민 무용 워크샵 / 국제 무용축제 등 / 해외 무용가 레지던스 +독일작가 협업	무상임대,공간보수비용지원, 프로젝트 선별 지원	독일지역무용센터건립 및 네트워킹 추진
우파 파브릭	사회적기업(시)예술가, 2007년 이후) /거버넌스 방식	798 아트 페스티벌 국제미술품경매(160여 개 연 간 매출 2조원 )	문화 창의산업특구 선정 5억 위인(약600억원)예산지원	현대미술 창작촌에서 고급소비지역으로 급속도로 변화 중 / 2003년 세계 3대 도시로 베이징 선정

공간명	운영주체	특성프로그램	정책개입	비고
웨스트가스페 보릭	마을 대표자들의 운영회(독립 NGO/NPO 단체 ufa-Fabrik)	임대 공간 자율적 프로그램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창작/발표 공간(임바침바)	공연시설 시 보조/ 임바침바 - 연간 45만 유로 (임대로 + 프로그램 제작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일자리1인당 1,000유로)	상근직 20명, 파트타임 직원 150명 등 총 170명 일자리 창출
M50창작 공원	소웨스타가스페보릭BV( 건물관리) 웨스타가스페보릭 재단(행사기획)	①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②문화행사 (연간 500개 이상) ③전문문화예술교육(연간3만 시간 이상) ④국제협력프로젝트(40개국 이상의 국가 와 연간 180여 개 이상 프로젝트 진행)	부지매입 및 다수의 프로젝트 적극추진 및 지원	예술가운영조직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도시재생추진 연간 120만 명 이상 방문 30명(127가구) 거주 / 연간 25만~30만 명 이상방문/ 2004년 UN에서 선정된 세계적인 프로젝트 40위 선정
	방적공장사무국	자립센터 NUSZ, 프리스쿨, 서커스교실, 생태연구, 멘토링 등	자립센터 NUSZ 지원  96년부터 본격화한 문화공원지원정책과 입주자의 활동에 동의하는 업체선정하여 소유권 이전	조성과정소설집편, 모든 서류서면작성(훈민비합)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와, 130여 명의 중국예술인이 입주 공간별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출명 예술산업 공원 지정 (2004년)	베이징 이후 상하이에 창의 산업단지 조성사례

## ● 해외사례 분석 및 아트팩토리를 위한 제언

### ■ 종합분석

서구 선진 공업국의 공업도시들은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제조업 쇠퇴로 인한 산업 공동화, 도시성장 동력의 상실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주요 도시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간접자본의 재개발, 서비스 산업 유치, 각종 문화산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글라스고우, 디트로이트, 토르트문트, 토리노 등 주요 도시들은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입안하고 거버넌스적 맥락에서 접근해 갔다. 그 중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유희산업시설의 문화적 재활용 방안은 도시의 슬럼화 방지와 도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문화를 통한 도시의 주요 산업재편으로까지 시도되고 있다. 오르세 미술관, 게이츠 헤드, 닥스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 사례로 분석된 기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한 경우로써 그 효과들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검증되고 있는 공간들이다. 대부분의 공간은 민간기구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되었고, 공공기관은 자신의 역할을 행정적 지원과 프로젝트 별 비용에 한정함으로써, 해당 창작공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연관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희산업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전용한 사례는 68혁명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68혁명 이후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찾아 실험적이고 문화적인 도시 공동체를 유희산업공간에 직접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유희산업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한 공간의 철거를 막는 일도 위와 같은 공간의 운영자들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

각각의 특별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성된 창작공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정도 사회·문화적 효과를 남고 있기에, 공공기관은 해당 공간 운영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공간이 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간 구성에 있어 공공기관 지원의 첫 번째 단계는 유희공간이 철거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 및 유희공간의 매입, 공간의 무료임대, 혹은 저렴한 임대 등 부지 전체에 대한 정책지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 소유 공간일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사용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창작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한다. 운영면에 있어 공공기관은 민간위원회나 사용자들의 자율조직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간의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한다. 즉 공공기관의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은 전체 범주에서 진행되나,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은 자율적 운영에 맡겨 둔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행정적 뒷받침으로 자리 매김하는 경우 여러 다양한 성과적 측면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쉐 로베르의 경우처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쉐 로베르>는 파리시가 공간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현대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음에도, 예정된 기간에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 창작공간이자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기능했던 <쉐 로베르>의 기능성은 상실되었으며, 예술가들은 다른 창작시설을 찾아 떠나갔고 <쉐 로베르>는 일종의 도시 흉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즉 제도의 지원과 개입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의 확보와 행정 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케이블 팩토리>는 시의 도시개발계획이 예술가들이 제출한 '임대창작공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국제적 위상을 가진 창작공간으로 성장한 사례이다. <케이블 팩토리>에서 시의 개입은 임대료를 관리하는 부동산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자원봉사자 구성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전체 공간의 유지/보수/관리는 개별 공간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100%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위한 시의 별도 예산은 지출하고 있지 않는 등 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 팩토리>는 지역 재개발 사업을 저렴한 임대 창작공간으로 전용한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헬싱키 시를 국제적인 예술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베타니엔>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작가를 독일로 초청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해외 예술기관과의 협력은 <베타니엔> 창작공간의 월 임대료와 예술가의 체류비를 해당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고, <베타니엔>은 창작공간과 전시,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현대 미술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물론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은 전시회 개최 이외에는 없지만 초청 작가나 협력 국가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사례 공간 중에 <탄츠하우스>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개인의 열정이 지속성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보여 주는 지를 증명해 준다. 현재 <탄츠 하우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무용전문센터로서 현대 무용의 새로운 경향이 실험되고 발표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도 <탄츠하우스>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지방자치 단체에 그와 유사한 공간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탄츠하우스>는 발레나 왈츠 같은 고급 무용



### 케이블팩토리

자료: Photo by KIM Kang, 2005

혹은 고급 소비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는 정책의 개입이 오히려 문화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희산업시설물과 그 주변지역들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간들은 전문적인 창작공간이라기 보다 일상 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 주를 이룬다.

프랑스의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연극집단에 의해 담배제조공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뒤, 이어 마르세이유시의 부지 매입 및 프랑스 전역의 기획자, 건축가, 예술가, 정책가 등이 토론하고 협의하여 현재와 같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이곳은 처음부터 공간을 운영하고 있던 연극집단의 예술가/기획자들과 시 당국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창작공간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독일의 <쿨투어 브라우어라이>와 네덜란드의 <웨스트가스패브릭문화공원>은 생활친화적 문화시설이 중심을 이루며, 저려한 임대를 통해 기본적인 운영비를 해결한다.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새로운 창작의 활기보다는 '문화소비'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나 쿨투어의 장애인전용극장 운영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도 창작공간을 조성할 때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시설 이용 측면에서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국은 비교적 늦게 창작공간, 예술 공간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M50는 90년대 말, 파산즈798은 2000년대 초반에 활성화되었는데, 주로 서구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관계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관계 당국에 의해 성급한 도시 활성화가 추진될 경우 발 빠르게 상업적인 시설이 입주하여 고급 소비 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예술가의 위치는 창작자이기 보다는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종의 '고급문화상품의 생산자'로써 기능하게 된다.

한국은 서구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유희산업시설의 창작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기

보다는 소셜 댄스 즉, 뽀리, 힙합, 중국 춤 등 몸을 움직여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장르의 춤을 지역 주민들이 워크숍을 통해 직접 배우고 공연도 하게 함으로써, 시민무용가를 양산하였으며 이는 지역 활성화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적인 예술 공간이었다가 제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측면으로 성격이 전환된 베를린의 <타헬레스>나 <파산즈798>의 경우 창작의 열정 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

시작하였지만, 2004년 오아시스 프로젝트 예술가들의 빈 공간 점거 행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담론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아트팩토리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희산업시설물을 도시재개발을 위해 철거하지 않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정책 단계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의 긍정적 변화이지만, 한국적 사례의 적절한 모델과 장기간의 조성 과정 없이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만 진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우려의 지점들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각 공간들을 지역의 창작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조성된 창작촌(문래동)이나 문화활동의 분위기(홍대지역)를 이룬 지역 예술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아트팩토리를 위한 제언

창작공간 조성 및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 유희산업시설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건물의 외형이나 내부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간의 기억을 잇는 작업으로, 지역민들과 입주 예술가들에게 도시와 공간의 역사성을 고취시켜 그 공간 자체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조성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지역 주민을 창작공간 조성과정에서부터 주체로 설정하여 공간 조성 이후 그들의 중심적인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애초에 독립적인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활성화시켜 놓은 곳을 정책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접근할 때 어려움이 없는 공간으로 건축되거나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

#### 1) 운영적 측면

예술가와 기획자들의 자율적인 운영회의 안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운영구조는 정책 당국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공간 관리 문제도 운영회의안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간 관리를 젊은 예술가들이 얼마간의 임금을 받고 진행한다다면 보다 문화적인 색채가 흐르는 창작공간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운영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전문 인력 확보 :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독립 기획자들을 아트팩토리에서 흡수하여 지원하되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전문 인력을 위한 예산 확보 : 해외 창작공간의 전문 인력 숫자를 살펴보면 <베타니언> 14명, <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450명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인원들이 창작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탄력적 운영은 시설 조성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해외 창작공간의 운영 현황>

분 류	내 용	예 시
공간조성 및 구성	- 역사성과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기존건물 보존 -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확보	- 케이블 팩토리 - 베타니언
운영적 측면	- 관의 최소한의 개입 - 민간 자율 운영시스템 확보	- 민간운영조합-우파 파브릭 - 사회적 기업-라 프리쉬 라 벨 드 메
지역 연계 전략	- 지역주민을 문화생산주체로 개념도입 -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 프리쉬 라 벨 드 메의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탄츠하우스의 시민무용워크숍

2) 지역 연계 전략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워크숍이나 창작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지원하여, 지역민들이 예술창작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게끔 한다. 지역주민을 문화향유자나 문화소비자로 위치지우지 않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생산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생산자 발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문화센터와 같은 도제식‘실기’위주의 교육 보다는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팀이 필요하며, 해외 및 지역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례와 예술가, 기획자들의 아카이브를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교육사업보다 입주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공유하는 양질의 교육과 문화교육프로그램의 독특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업의 진행이 아트팩토리를 더욱 특징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우파 파브릭>의 어린이 서커스 교육, <탄츠하우스>의 무용전문교육과 같이 나름의 특징적인 교육이 장기적 전망 하에 진행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지역연계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획되어, 소비 지향적 삶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 홍대지역의 문화생태계 현황 및 분석 |

1 지역현황

일반적으로 홍대지역이라 불리는 공간의 범위는 행정구역으로 볼 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326~411번지 일대), 창전동(5,6,436번지 일대), 상수동(64~318번지 일대), 동교동(162~189번지 일대), 연남동, 망원동 일부 지역<sup>39)</sup>에 해당되는 곳으로 면적은 약 1.81km<sup>2</sup>(약 54만 8천평)가량이다.



<서울시 내 홍대지역의 위치>



<마포구 내 홍대지역 일대>

일반적으로는 홍익대학교 주변 일대로 주로 홍대입구역에서 홍대 정문에 이르는 길과 주변의 주차장일대를 지칭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홍대지역의 원주민이었던 작업자들이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연남동과 망원동 일대로 작업실을 이주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홍대지역의 공간 범위를 위와 같이 좀 더 확장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지역인 ‘홍대 앞’ 또는 ‘홍대지역’의 공식지명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일대로 ‘홍대 앞(홍대지역)’이라는 명칭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대지역 항공사진>

39) 과거 홍대관련 보고서에서 정의되는 홍대지역의 행정구역에는 연남동과 망원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들 지역을 홍대지역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홍대지역의 최근 이들 지역으로의 작업실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 2 홍대 지역문화의 형성과정

### ● 홍대 지역문화의 형성과정

홍대지역은 1960년대 이전까지 주거지역이었다. 1955년 홍익대학교가 마포구 상수동 현 위치로 이전 후 1980년대까지 홍익대 정문을 중심으로 미술학원, 갤러리, 각종 작업실 등 예술 공간이 형성되면서 홍대 미대와 미술문화지역으로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홍대 지역의 상권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1990년 초반 홍대 앞은 대중소비, 신세대 문화의 등장과 함께 오랜지족의 소비문화와 접목하면서 고급카페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홍대지역의 장소성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가 '홍대 앞'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비영리 전시공간인 대안공간 루프가 오픈하였고, 미술과 음악활동 뿐만 아니라 디자인, 만화, 영상 등 문화기획과 문화산업관련 전문 직종의 사무실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복합문화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후 홍대 앞 문화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활동의 생산지, 청년문화, 인디문화, 독립문화의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홍대지역 문화 고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 받게 된다. 이는 홍대 앞 문화 관련 전문가와 기획자들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홍대지역문화 보호와 육성의 취지를 명분으로 한 제도와 정책이 개입하게 되면서 문화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월드컵 개최이후 지역문화활성화와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클럽문화가 관광상품으로 논의되었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문화지구 지정' 등 홍대 앞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려 했던 정책적 개입이나 계획은 홍대 지역 일대의 지가 및 임대료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2005년 후반 이후 홍대지역의 거리 풍경과 장소성은 다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소규모 작업실과 사무실은 상수동과 망원동 일대로 이전하게 되고 걷고 싶은 거리 일대 주택들은 공간 개조를 통해 카페와 상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살롱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카페들이 생성되어 홍대의 문화 자본들이 소비 및 유통되고 있다.

홍대 지역 주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던 지역의 문화생산자들은 주변으로 작업실과 거주지를 이전하고, 홍대 거리와 카페문화를 중심으로 타지에서 온 유동인구들의 활동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홍대지역은 본격적인 상업화의 물결을 겪고 있다.

종합해 보면, 홍대지역으로 지칭되는 홍대 문화 활동의 중심에는 미술과 음악을 매개로 한 자유로운 창작과 실험들이 임의적 공간을 만들어내며 창작자와 기획자들을 모이게 하고 콘텐츠를 생산해 내며, 또한 사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홍대 문화를 평가하는 과잉 담론과 제도, 정책의 개입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은 자본화되었고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여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문화로 보여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대지역 곳곳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의 쉼을 통해 형성된 홍대 앞 문화, 홍대지역 문화 자원들이 잠재되고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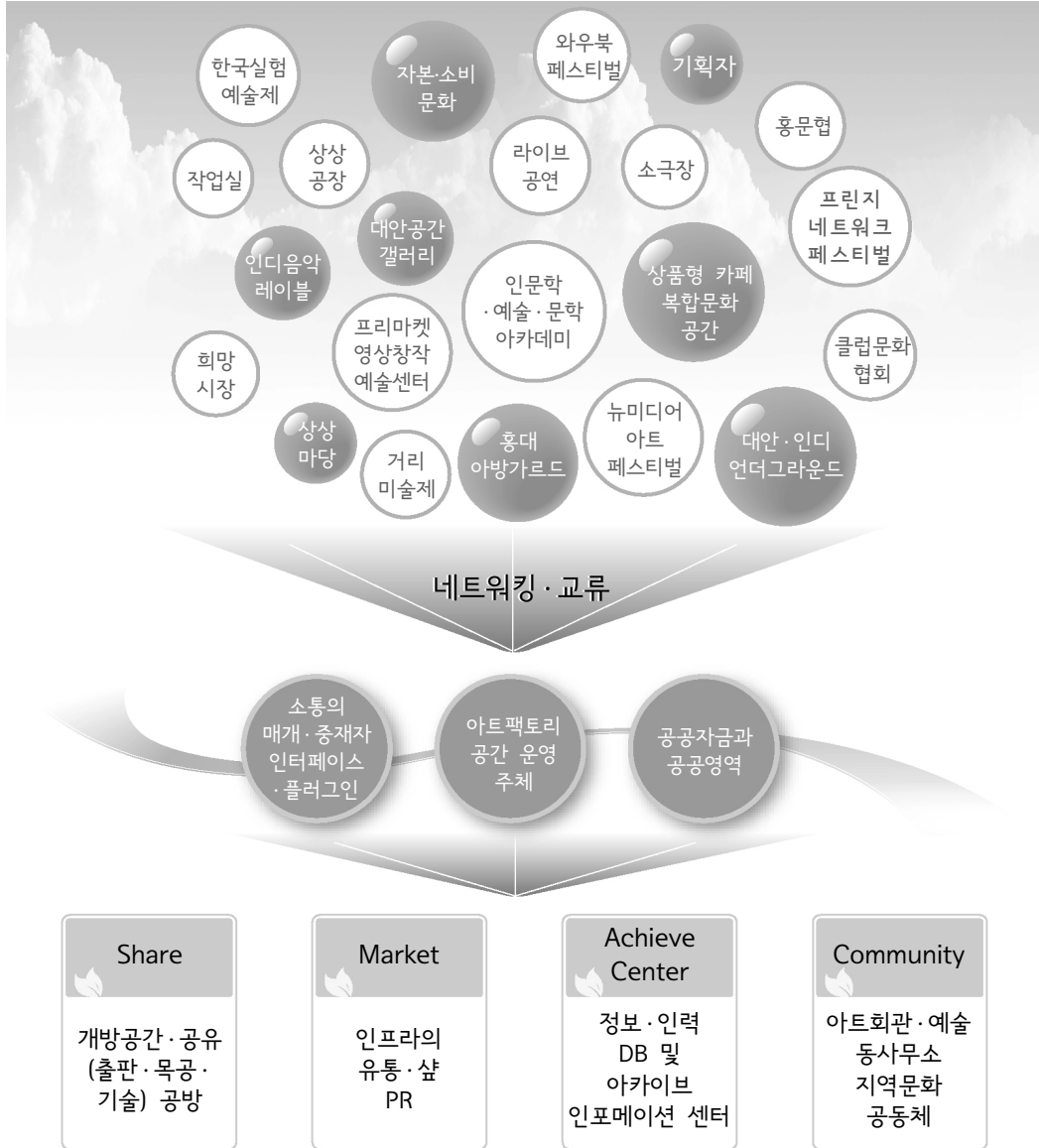
## ● 홍대지역 연대기

### ■ 홍대지역문화의 역사

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해외유학생 급증 해외교포들의 회귀	98년 일본 대중 문화 1차 개방	2002년 월드컵 개최 지역의 문화들을 관광 컨텐츠로 개발하는 논의.	홍대 산울림 소극장 주변의 카페를 배경으로 드라마 커피 프린스 방영.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대중소비 및 신세대 문화의 등장	일렉트로닉 음악의 확산		
	만화,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 대한 담론 증대	인터넷의 대중화		
1990이전	1990	1995	2000	2005
일반대학가 · 미술문화	고급카페문화	인디 · 라이브클럽 문화	클럽문화	복합문화
80년 홍익대 미술 특성화 대학지정 - 상권 형성 시작	압구정 오렌지족들의 이동에 따른 고급 카페 밀집 구역인 피카스거리 형성.	각 장르에서 자생적 행사 시작. 장르별 문화 기획자들 출현. 인디문화의 네트워크 가시화. 언론에서 홍대 문화에 주목 시작 하면서 인디 담론이 외부에 개방 되기 시작.	라이브 클럽들의 고전. 2002년 월드컵 개최로 홍대 지역의 문화들을 관광 컨텐츠로 개발하는 논의 및 문화 지구 지정 검토 - 홍대 지구의 상업화 시작. 대안 갤러리 급증.	홍대 산울림 소극장 주변 카페를 배경으로 드라마 커피 프린스 방영.
86년 산울림 소극장 개관	92년 발전소 오픈 클럽의 원형이 된 작업실 형태의 '바'문화	댄스 클럽을 중심으로 레이브 파티 및 프로모션 시작.	01년 1회 클럽 데이 시작	급속한 상업화와 임대료 인상으로 문제, 망원동 주변으로 작업자 이동 가속. 건고 싶은 거리 2차 조성자인 서교동 365번지 건물이 홍대의 급등한 임대료 보류 중이나 작업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서교 365 건물은 현재 비와 옷가게가 차지. 1차 건고 싶은 거리 사업 구간은 홍대에서 가장 혼잡한 유흥가 거리로 변모.
	93년 거미미술전 시작	96년 드럭 our nation 음반 발매	01년 홍대문화벤처집적시설 조성방안 정책연구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는 카페 중심의 문화 지형으로 변모 중.
	94년 드럭 오픈 아티스트들에 의한 라이브/ 댄스/퍼포먼스 클럽 등장 (곰팡이, 황금투구, 상수도, 아이스자이트, 언더그라운드)	97년 홍대 인디음악 잡지 팬진 공 창간	02년 젊은 기획자들 중심의 홍대신촌문화포럼 결성.	05년 이리키베 오픈
		97년 심만원 비디오 영화제 클럽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	02년 프리마켓 및 희망시장 시작	05년 외우복 페스티벌 시작
		98년 독립예술제가 트자! 놀자! 비밀자!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 (현 프린지 페스티벌)	02년 한국실협예술제 시작	06년 건고 싶은 거리 2차 조성자인 서교동 365번지를 지키기 위한 '서교 365전'
		98년 실험예술극장 씨어터세로 오픈	02년 홍대 신촌 지역 라이브클럽 대표들의 모임 라이브클럽연대 창립.	05년 서울문화재단 홍대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계획 (홍대지역문화아카데미 개최)
		99년 대안공간 루프 오픈	02년 1차 건고 싶은 거리 조성	06년 아트스페이스 유 개관
		99년 라이브 클럽 협의회	03년 댄스클럽 연대 단체인 클럽문화협회 창립.	07년 상상마당 개관
			04년 씨어터세로 살리기 운동을 기기로 홍대앞 문화예술협동조합 (홍문협) 결성	07년 프린지 페스티벌 10주년
			04년 사운드데이 시작	07년 다원예술매개공간 오픈
			05년 비주류문화네트워크	경의 · 공항선 건설 진행중 2009년 완공, 2010년 개통 예정.

■ 홍대지역문화를 바라보는 현재 시선들

<홍대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현재 시선들>은 홍대지역 리서치 과정에서 만난 인터뷰이들의 홍대지역문화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생각,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인 (가칭)홍대복합문화 센터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키워드별로 정리한 것이다.



<홍대지역문화를 바라보는 현재 시선들>

키워드	시선들
홍대 아방가르드	<p>이곳은 충동을 일으키기 보다는 무엇을 해도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곳이다. ... 하지만 홍대가 다양성이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프도시 디렉터 석성석-</p> <p>환상과 소비가 많은 거 같다. 평당 3,4천이면 강남보다 비싸다. 하지만 홍대에는 인프라가 있다. 그리고 상업 갤러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 -갤러리 킹 바이홍-</p> <p>홍대 앞의 열려 있는 성격과 유연함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율주의와 잘 소통될 수 있다고 봤다. -다중지성의 정원 알마-</p>
대안. 인디. 언더그라운드	<p>자가, 독립 등의 말을 붙이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없어서 자가출판, 독립출판 등으로 스스로를 설명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대안,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여러 성격을 가진 출판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디어 버스 구정연-</p> <p>(홍대에서) 밀려나가도 어떤 대항성, 목적성을 가지는 것 - 오히려 자각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밀려나가면서 홍대의 정신성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 씨앗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아직은 홍대가 가능성이 많고 유연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홍대 같은 곳이 없지 않은가? -다중지성의 정원 알마-</p>
자본/소비문화	<p>현상적으로는 상업적인 것들이 파고들고 외부로 사람들이 밀려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자본적 확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중지성의 정원 알마-</p> <p>홍대에는 옛날부터 책방이 없었다. 아티누스도 없어지고 소비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느낌이 든다. 다 돈을 중심으로 간다. ... 소비문화유입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떠나면서 바뀐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지형연구소 CTR-</p>
살롱형 카페 . 복합문화 공간	<p>이 공간을 살롱(CTR의 공간 레몬 썰롱) 이라고 부르는 건. 17, 18세기 살롱문화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음악 듣고, 그림 보여주는.. 여기서 함께 영화도 보고, 음악연습도 하고, 세미나 공간으로 대역도 한다. -문화지형연구소 CTR 오창훈-</p> <p>지금은 홍대 카페는 대부분 복합문화공간이어서 카페 중심의 유통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zine이 카페에서 소비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카페도 상업문화고 그런 곳에서 트렌드나 스타일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디어버스 구정연-</p>
대안공간 . 갤러리	<p>홍대의 대안공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업 공간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다. 전시가 없을 때 3-4일 대관도 어렵다. 소모적인 것이 있다. -미디어아티스트 최태운-</p>

키워드	시선들
	<p>다른 갤러리와 가장 다른 특징이라면 사람들이 갤러리란 인식이 없이 '그냥' 올라온다는 것이다.</p> <p>-상상마당 큐레이터 박소현-</p>
인디음악 . 레이블	<p>밴드지원보다는 레이블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레이블도 마케팅이나 피알 전문성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p> <p>-PR연구소 인디랩 조수정-</p> <p>컨텐츠 진흥원에서 5년 정도 레이블 지원사업을 하였지만 그것은 캐릭터(밴드)에 지원하는 것에 가까웠다. 레이블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탄탄해 질 수가 없었다...</p> <p>-카바레 사운드 이성문-</p>
상상마당	<p>특별히 흥대를 염두에 둔 적극적인 네트워크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자문하는 분들도 흥대 분들이 많이 있고. 흥대 카페, 갤러리와 함께 전시를 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깥쪽의 컨텐츠도 많이 들어온다.</p> <p>-상상마당 큐레이터 박소현-</p> <p>상상마당이 처음에는 흥대를 망친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마당 안에서는 편하게,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다. 상상마당은 어떤 방향을 만들지 않는다(상상마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p> <p>-문화지형연구소 CTR-</p>
기획자	<p>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코어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만가기가 쉽지 않다. ... 작가들도 중요하지만, 기획매개자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열에 하나 정도죠.</p> <p>-독립큐레이터 채은영-</p> <p>젊은 기획자들이 유입되고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흥대지역의 주요 활동주체는 기획자 분야이다. 창작자들이 흥대 앞이 싫다고 떠났지만, 기획자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다.</p> <p>-프린지 네트워크 최순화-</p>
네트워킹/교류	<p>흥대지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작업자와 연계할 계획으로 이전했다. 민들레는 도시형대안학교로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흥대지역으로 이전 후 흥대 커뮤니티 속의 콘텐츠를 교육 내용에 활용해 왔다. 프리마켓 참여 작업자와 워크숍을 한다든지, 프린지 축제에 청소년이 인디스트로 참여한다든지,</p> <p>-공간 민들레 임철민-</p> <p>대안공간에서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로써 흥대지역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안에서 여러 결합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p> <p>-독립큐레이터 채은영-</p>
소통의 매개 . 중재자	<p>(흥대에 부족한 것은)지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다</p> <p>-공간민들레 임철민-</p>

키워드	시선들
	<p>홍대지역에는 소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 ..서로의 논리, 가치관들이 충돌할 기회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협의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p> <p>-제너럴 닥터 김성범-</p>
아트팩토리 공간 운영 주체	<p>준비과정에서는 주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가 있으면 좋겠다. 준비과정에서의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 ... 단체 대표 중심의 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간과 기획을 오픈하고 구상하는 얘기를 함께 들으면 좋겠다. 공간을 보면서 생기는 아이디어를 공유해 가면 어떨까?</p> <p>-문화로 놀이짱 안연정-</p> <p>운영주체가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갈수 있어야 한다.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조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3의 모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단체가 모이기보다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PR연구소 인디랩 조수정-</p>
공공자금과 공공영역	<p>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늘 구체적 실행과 방법이 문제다. 지역과 어떻게 관계 맺고 실행하는 가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지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 출발점에 대한 질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p> <p>-오포도시 디렉터 석성석-</p> <p>공공적 기획은 의도를 가져야 한다. 공공 섹터의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 공공자금이 문화적 활동을 하는 사람과 어떤 연관을 가져야 하는가(공적 자금이 문화적 활동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적 자금이 자생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등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p> <p>-문지문화원 사이 주은우-</p>
개방공간/공유 (출판 . 목공 . 기술)공방	<p>자료들이 충분히 아카이빙 될 수 있는 참고형의 공간, 퍼블리싱 된 자료와 수집된 자료가 판매 될 수 있는 유통과 배급 기능도 있으면 좋겠지.</p> <p>-미디어버스 구정연-</p> <p>콘텐츠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공동활용 하면 좋겠다. 공간 계약이 만료되는 단체, 기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생존과 지속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p> <p>-공간 민들레 임철민-</p>
인터페이스. 플러그인	<p>기획자와 예술가들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 기획된 프로그램의 기능보다는,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주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면 좋겠다.</p> <p>-문화로 놀이짱 안연정-</p> <p>팩토리 같은 공간, 디자이너와 영상. PR전문가, 기획자들이 모여서 분업하는 시스템 같은 것.</p> <p>-카바레 사운드 이성문-</p> <p>즉흥적으로 공간의 콘텐츠가 바뀔 수 있는 비워진 공간. 고정되고 설정된 역할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상상해 보면 좋겠다.</p> <p>-미디어 아티스트 최태운-</p>

키워드	시선들
인프라의 유통 . 샵 . PR	<p>우리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홍대지역에 있다는 막연한 추측이 있다....그렇다고 상상마당 1층의 아트숍에서 책이 팔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기로 가면 상품화가 되어버린다. 보여 지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다. 결국 시스템을 갖춘 마켓이 홍대에는 없다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미디어버스 구정연-</p> <p>홍대진 전체를 PR하고, 마케팅해서 홍대의 콘텐츠 들이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카바레 사운드 이성문-</p>
인포메이션 센터 - 정보 . 인력 DB 및 아카이브	<p>새로운 유통을 매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 인력과 프로젝트가 결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PR연구소 인디랩 조수정-</p>
예술동사무소 . 마을회관 _지역문화공동체	<p>홍대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실험적이고 에너지틱한 것이 필요하다. 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할거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문지문화원 사이 주은우-</p> <p>홍대지역 아트팩토리도 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프린지 네트워크 최순화-</p> <p>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마을회관 같은 곳이면 좋겠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회관이 아니라, 예전에 홍대에 있던 사람들이 마실 올 수 있는 곳.</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지형연구소 CTR 오창훈-</p> <p>홍대를 떠난 예술적 행위들을 다시 불러오는 공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right;">-다중지성의 정원 알마-</p>

### ● 홍대지역 장소성

홍대지역의 현시점은 자본과 소비의 순환과정 속에서 홍대 문화의 장소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상업화, 소비중심의 홍대 풍경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적 활동을 어떻게 자극하고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홍대 지역문화에 공격적자금과 공공성이 개입되는 과정은 구체적인 실행과 방법이 중요하다. 결국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홍대 지역문화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홍대문화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의 장소성을 만들어 왔는지를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홍대 앞 문화지구 지정 논의>의 사례를 들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서울시 환경개선 정책사업 일환으로 계획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ASEM과 2002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적인’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건고 싶은 거리’ 사업 대상지로 지금의 ‘건고 싶은 거리’를 선정하고 2002년 홍대입구 전철역 부근에 1차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고 싶은 거리’ 사업은 홍대지역의 거리풍경을 변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건고 싶은 길’이 아닌 ‘굽고 싶은 길’이 되었다는 어느 신문기사<sup>40)</sup>의 글은 홍대 문화풍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차 ‘건고 싶은 길’ 조성과정에서 조성지역에 있던 작업실들은 합정동, 서교동 일대로 이주를 했으며, 2차 대상지인 365번지 일대 작업실들은 365번지를 지키기 위한 ‘서교365전’을 열기도 했다. 현재 서교동 365번지는 건물 보상비의 문제로 마포 구청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작업실의 공존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 ■ 홍대 앞 문화 지구 지정

‘문화지구’란 지역문화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과 문화활동, 예술인을 보호 및 육성하는 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입안 초기에 인사동, 대학로, 홍대 지역이 대표적인 문화지구 대상지역으로 검토되었다. 인사동과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홍대 지역은 추진과정에서 보류되었다.

하지만 2002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은 초기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유흥가로 변해 버렸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 또한 대학로만의 극단과 소극장 중심의 장소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비싼 임대료가 문제였다. 2003년 홍대 지역 역시 문화지구 지정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 여부를 두고 지역 활동 주체들의 논란이 거듭되었다. 홍대 앞 실험예술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씨어터제로>가 홍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물 재건축을 위한 일방적 퇴거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실제 문화지구 지정 계획 발표 이후 홍대 인근의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거나 건물 증축을 위한 재건축을 고려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결국 2004년 마포구 중심으로 추진되던 ‘홍대 앞 문화 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정에서 문화지구 지정 계획은 무산되었다. 연구진은 1차 타당성 검토 결과, 홍대 지역은 문화

40) “홍대 앞이 인디의 보금자리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상업화의 길로 들어선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로 석탄을 나르던 철길이 있던 주차장 골목, 건고 싶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을 두고 신촌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높다. ... 용산~수색으로 가는 철로가 인접한 서교동쪽 주차장 골목은 한 블록전체가 삼겹살, 통돼지, 갈비 등의 간판으로 뒤덮였다. 5~6년 전부터 신촌 일대 몰려있던 고깃집 등이 차츰 옮겨오는가 싶더니, 지난해 건고 싶은 거리 사업을 시작하며 길정비가 시작되자 기존 상인들에 더해 새로 들어온 업주가 잇따라 개업했다. 본격적인 돼지마을로 둔갑한 것이다. ‘건고 싶은 길’이 본의 아니게 ‘굽고 싶은 길’이 돼버렸다. 건고 싶은 길 사업을 환경이 정비되자 주변가게 권리금도 많게는 1억원씩 올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가게의 개업을 부채질 한다. 상업화가 급물살을 탄다는 증거는 최근 2년간 서교동 일대에 들어선 가게 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 문을 연 식당·술집·카페 등은 215곳이나 되는 반면 구청에 폐업신고를 낸 곳은 34곳밖에 안된다. 최정환 공간문화센터 대표는 홍대 입구 지하철 역세권 고층건물 근략으로부터 비롯된 개발 바람이 그 이면도로를 넘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겨레21, 2002년 11월 7일, “홍대 앞, 이태원을 따라가다”, 제433호.)

지구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준비과정에서 홍대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형 파악이나 활동하는 주체들과의 의견 수렴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홍대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누어졌다.

상업화 되고 있는 홍대지역을 특화해서 보호하고 활성화하려고 했던 제도적 전략은 자생적인 문화활동이나 공간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문화지구 지정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홍대지역의 상업화만 확대된 것이다.

### ● 홍대 지역문화 공간에 대한 논의 과정

2000년부터 독립문화, 인디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생산되었다.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내용 중, 독립문화센터의 건립 논의가 홍대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공간 지원에 대한 논의의 성과로 독립영화 영역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설립이 추진되었고, 2007년에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개관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홍대지역 활동 주체인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몇 차례의 프린지 학술포럼을 중심으로 홍대지역에서의 대안 문화센터, 독립문화 인큐베이팅 공간의 가능성을 토론해 왔다. 결국 홍대지역에 공적기금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1기의 기획사업으로 2007년 서교동 지역에 다원예술매개공간이 오픈되었다. 다원예술 매개공간은 예술현장에서의 '대안문화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다원예술 실험 전용공간으로 기획되었다. 개관이후 카페공간을 겸한 다원예술 포럼, 워크숍, 아카이브 기능으로 활용되었다<sup>41)</sup>.

공적기금의 접촉을 통해 개관한 다원예술매개공간과는 다른 흐름으로 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상상마당 역시 2007년 문을 열었다. KT&G의 문화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상상마당은 2005년 온라인에 상상마당 사이트를 오픈한 뒤, 2007년 9월, 200여 평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 생산·소비·교류의 온-오프라인 문화 플랫폼"을 지향하는 상상마당은 홍대지역의 지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본이 홍대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개관되었다. 홍대지역 인프라와의 접촉을 통해 시작된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은 이제 홍대지역을 찾는 유동인구들에게는 홍대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을 전후로 홍대지역에는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는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창립 30주년을 넘어서 문학·과학·지성사가 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설립한 문지문화원 사이는 문학·예술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인문학과 다장르 예술의 접점을 모색하는 실험적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41) 다원예술매개공간은 홍대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대지역이라는 로컬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기 보다는 다원예술의 현장과 네트워크 활동을 기획해 오고 있다.

2005년 중반 이후부터는 홍대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이 극장시설을 겸한 공간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홍대지역에서 문화활동을 기획해 온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프리마켓은 연남동 주택가에 공동의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 주로 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지만, 비주류 문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 워크숍 공간, 연습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등을 필요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 홍대지역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특성 비교

홍대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다원예술매개공간, 문지문화원 사이, 상상마당의 운영특성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홍대지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특성 비교>

구 분	다원예술매개공간	문지문화원 사이	상상마당
설립 년도	2007	2007	2007. 9
운영 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	문학과지성사	기업 KT&G
	운영위원회 +디렉터	(주) 사이	이투엑스포
공간 구성	건물내 3층 임대	건물내 2층/ 3층 임대	지하 4층, 지상7층 (단독건물)
	운영사무실, 다목적 공간(전시·공연 세미나, 아카이브)	운영사무실 아카데미, 세미나 갤러리	스튜디오, 아트마켓, 갤러리, 갤러리, 음악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성격	공적운영(공적자본)	민간운영(문화적자본)	민간운영(경제적자본)
운영 프로그램	<매개 기능> 중심 현장 중심의 다원예술 비평 새로운예술에대한실험과교육 다원예술의제발굴및공론화	아카데미 및 세미나 이벤트(토요문화기획, 심포지움, 문화예술 행사 등) 전시 등	전시·공연기획 및 갤러리·공연장·극장운영 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시간	오후 1시 ~ 7시	오후 10시 ~ 9시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기본 오후 1시 ~ 10시)
전문인력	디렉터 1인 / 공간매니저1인 비상근 기술 스태프	<운영실무> 상근 스태프 4명/비상근 4명	40명 이상

■ 홍대지역 복합문화공간의 공간 구성과 기능

이미 홍대지역문화의 자원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이 한 기업에 의해 생성되었고, 홍대문화의 다원적 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원예술매개공간이라는 공간적 실험은 예상과는 다르게 홍대지역 보다는 다원예술 전반적 현장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생성되는 공간들도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홍대지역 복합문화공간의 공간 구성과 기능>

구분	다원예술매개공간	문지문화원 사이	상상마당	
인프라 지원	작업·창작공간제공 (레지던시, 스튜디오)	×	×	○
	제작시설·발표 제공	○	○	○
교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
아카이브	아카이브 (정보와 자료제공)	○	△	○
교류 네트워크	카페, 살롱 기능	○	△	○ (대중적)
	지역 네트워크 활동 (홍대 지역문화 자원 연계 공동기획)	△	△	○
	지역 네트워크 활동 (지역주민 연계)	×	×	×

(기호 : ○있음, × 없음, △ 불완전)

이처럼 홍대지역에서 공간과 활동을 매개로한 문화적 실험은 아직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기금이나 큰 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은 활동주체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계획 중인 (가칭)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또한 비제도적인 홍대 지역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들의 활동에 제도적인 공적기금이나 자원이 투입될 때 발생하는 충돌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충돌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대지역문화에 대한 운영 주체의 명확한 태도와 지향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창작과 기획을 하는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과정과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을 매개로 홍대지역에 접속하는 문화적 공공성은 홍대문화의 자율공간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과한 포장이나 모두를 포섭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또한 홍대의 문화적 취향과 스타일에 일반적인 공공성의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특이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공공성, 문화적 실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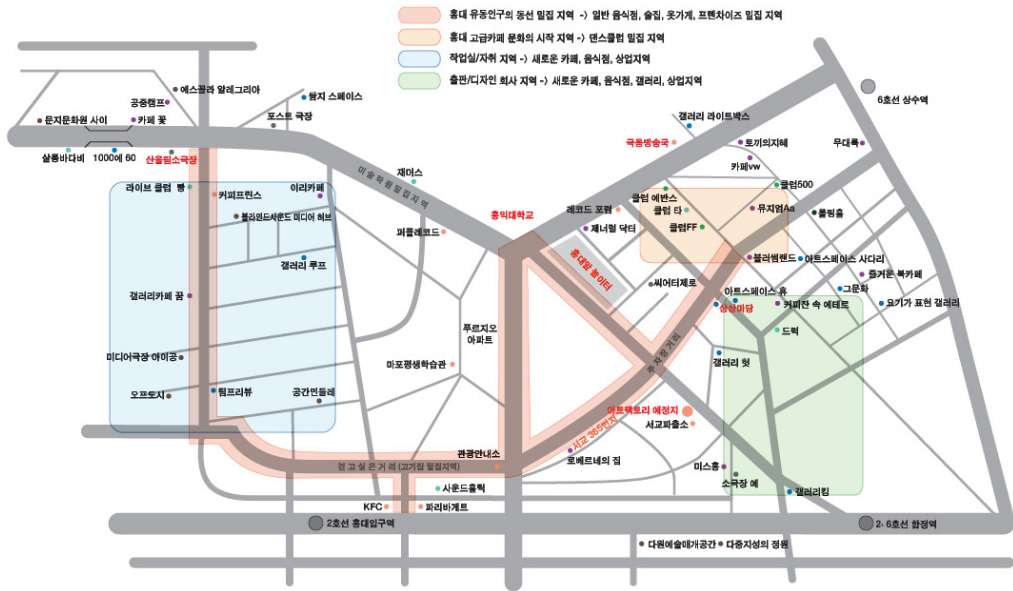
### 3 홍대 지역문화 현황과 특징

#### ● 홍대지역 문화공간의 현황과 특징

<홍대 앞에 위치한 시설/공간 현황(2008년 현재)>

분류	시설/공간
대안공간, 갤러리	그문화, 갤러리꽃, 아우재, 갤러리 잔다리, 더 갤러리, 디아트갤러리, 대안공간 팀 프리뷰, 루프, 갤러리 상상마당, 쌈지스페이스, 아트스페이스 휴, 요기가 표현 갤러리, 예술공간 헛, 갤러리 라이트박스, 소굴, 천에육십, 달링스튜디오갤러리
라이브 클럽	DGBD(드릭), 깃라이브하우스, 롤링스톤즈, 스카이 하이, 라이브클럽 빵, 재머스, 사운드 홀릭, 라이브홀ZOO, 스킵크헬, 롤링 홀, 클럽 타, 라이브클럽 쌤, 클럽 프리버드, FF
댄스 클럽	M2, 명월관, 올드락, 캐치라이트, SPOT, 클럽 NB, SAAB, HOOPER, CARGO, TOOL
복합문화카페	아트스페이스 사다리, 바닥, 커피잔 속 에테르, 블록, VW, 갤러리카페 꿈(사진), 카페 연두, 살롱 드 팩토리, 무대륙, 미스홍, 가하하, 시연, 아트카페 삼, 이리카페, 로베르네 집, 부엉이버스, 쏘울언더그라운드, 캐러플, 수카라, 클럽 500, 제너럴닥터, 텔레비전12, 그림책상상, 즐거운복카페, 토끼의 지혜, LE-A
복합문화공간① (영상)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오프도시
복합문화공간② (아카데미)	문지문화원 사이, 공간민들레, 플로엠훈집, 다중지성의 정원, 에스콜라 알레그리아
복합문화공간③ (예술, 미디어)	다원예술매개공간, 상상마당, 블라인드사운드 미디어 허브
소극장 (연극, 무용)	소극장 예, 포스트 극장, 산울림 소극장, 떼아프르추, 상상마당_씨어터제로, 우리 소리 소극장, 비보이 전용극장
기타	일상예술창작센터 '새끼', 프린지스튜디오 건교싶은거리, 홍대앞 놀이터(홍익어린이놀이터), 디자인 클러스터, 마포평생학습관, 관광안내소, 전파 광장 등

※ 이 표는 이스트 브리지 발간 <쓸모있는 종이>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홍대지역 문화지도>

※ 본 지도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지도와 <쓸모있는종이>를 원 데이터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 대안공간, 갤러리 공간현황 및 특징

홍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홍대지역 갤러리는 총18개로 조사되었다. 90년대 말 <쌈지스페이스>와 <대안공간 루프>로 시작된 갤러리문화는 젊은 작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했고 몇 년 사이 주류미술에 대항하는 대안문화공간, 미술공간으로 확대되었다<sup>42)</sup>.

<갤러리 킹>은 산울림 소극장 인근에서 <상상마당>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12월 이전하였으며, <아트스페이스 휴> 역시 <상상마당> 건너편 쪽으로 지난 9월에 이전 하는 등 이 지역에 대안갤러리들이 모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접한 동선은 현재 7개 갤러리와 복합문화카페에서 열리고 있는 서교난장 NG아트페어의 성사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갤러리의 밀집이 관람객의 동선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상마당 일대 지역이 대안 공간, 복합카페들이 연계된 갤러리 밀집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된다.

“홍대는 상업갤러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갤러리 킹 바이홍)의 말을 상기해

42) <쌈지스페이스>는 내년 3월 문을 닫을 예정이고, <루프>는 아시아교류를 중심으로 대안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봤을 때 이 지역이 인사동과 같은 화이트큐브형 갤러리 밀집 지역이 되기보다는 복합문화카페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연합해서 밀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안공간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와는 별개로 제대로 된 시각예술문화를 큐레이팅 할 수 있는 기획자는 드물어 수준 높은 전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운영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 라이브 클럽 공간현황 및 특징

홍대지역에서 과거 영업을 했거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라이브 클럽은 30여개에 이른다. 아직도 홍대문화의 성장동력에 있어 인디밴드와 라이브 클럽, 레이블 등은 빠질 수 없는 자원들이며 홍대의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분야이다.

90년대 이후 신촌의 상업화로 홍대로 옮겨온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라이브 클럽<sup>43)</sup>은 댄스 클럽과 달리 특정 지역에 밀집된 양상 없이 홍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 각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의 음악적 성향과 이들을 찾는 팬덤이 뚜렷한 편이라 특별히 주변 시설과 연계되거나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라이브 클럽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레이블, 녹음 스튜디오, 밴드 연습실 등도 홍대 지역 곳곳에 있었으나 임대료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연남동, 망원동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다.

홍대신촌 라이브클럽들의 연합체였던 <개방적 클럽 연대(이후 <라이브클럽연대)>는 불법이었던 라이브 클럽의 합법화를 위한 ‘땅 밭 달리기’공연 등의 노력으로 99년 라이브 클럽 합법화라는 성과를 얻어 내었고, 이후 7개 라이브 클럽이 연합한 <라이브 데이>를 개최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각자의 클럽에 맞는 밴드의 발굴로 보다 팬덤화 되어가는 흐름과 단순한 라이브 홀로만 기능하는 클럽, 그리고 라이브와 댄스 클럽의 역할을 모두 갖춘 클럽 등 내용, 규모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는 중이다. 현재 홍대를 찾는 일반인에게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는 가장 연합적인 행사로 각인되어 있는 <사운드데이>는 홍대 테크노댄스 클럽의 연합체인 <클럽문화협회>에서 개최하며 댄스 클럽과 동선이 인접한 지역의 라이브 클럽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 댄스 클럽 공간현황 및 특징

99년 라이브 클럽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2인 이상의 공연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라이브 클럽 합법화’라는 성과를 얻어 내었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없다’는 조항은 남아있어 댄스 클럽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댄스 클럽 합법화와 클럽 문화 활성화의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홍대 클럽 하나 되는 날- clubber's harmony’란 타이틀로 첫 번째 클럽데이가 시작되었다. 이후 월드컵을 거치며 폭발적인 관심과 성장을 거듭

43) 홍대 라이브 클럽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드력은 1994년에 오픈하였다.

하면서 매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라이브 데이와 클럽데이가 합쳐져 홍대 지역 22개 클럽에서 라이브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댄스 클럽들이 클럽데이라는 행사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는 피카소 거리를 중심으로 밀집된 클럽들의 연계된 동선, 주변의 고급 카페, 음식점, 술집, 옷가게들의 연계된 소비가 가능한 점 등 공간적인 이점도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댄스클럽의 대중화, 하향 평준화 속에서 각 클럽들의 음악적 색깔을 고유하게 드러내던 역량 있던 DJ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고 홍대의 독특한 느낌을 찾아오던 일반인들도 식상해 하는 가운데 예전의 상업적 활력마저도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2003년 홍대문화지구 지정 계획, 클럽데이의 상업적 성공, 월드컵과 연계된 홍대 문화콘텐츠의 관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여러 공간적, 내용적 요인이 맞물리며 홍대 지역은 '놀이 좋고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외지인에게 각인되면서 유동인구의 비율이 커지는 유흥가의 성격이 강해졌고, 초기 클럽들이 가졌던 문화적 생산기지로서의 기능과 그 안에서 창조적인 놀이를 해온 예술적 동력은 거의 사라졌다.

#### ■ 복합문화카페 공간현황 및 특징

홍대지역 풍경의 중심에는 카페가 있다. 주택의 지하공간이나 주차장을 카페들이 메울 정도로 홍대지역의 공간 창출과 소비 중심에 카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오픈하고 있는 카페들의 인테리어를 보면 매우 획일적이지만, 동시에 홍대지역에는 다양한 카페 문화가 공존한다. 90년대 고급카페문화로 홍대가 알려졌다면 지금은 다양한 취향과 스타일로 구성된 카페들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카페는 1인 작업자와 기획자들에게는 일시적 작업실이기도 하고, 다양한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을 발표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또한 홍대의 문화활동이 유통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홍대지역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공연, 행사 리플렛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싱글음반이나 홍대지역에서 기획되는 잡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상점 역할도 한다. 현재는 별다른 지향점 없이 형태만을 쫓아 복합문화카페, 갤러리 카페 등을 표방하는 공간도 많아졌으며, 몇 년 사이 작업실과 주택가들을 파고 든 급성장한 카페들은 임대료와 관리금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 키고 있다.

독특함을 소비하는 카페 투어족을 수용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생산적인 회의와 미팅, 공연, 유통이 이루어지는 카페에 대해 '그래도 소비문화'라는 시선과 '새로운 문화기지'로서 카페를 보는 시선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홍대 지역의 카페는 초기의 클럽이 담당했던 문화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 패션, 미술, 음악, 건축 등의 배경을 가진 카페 주인들의 취향과 안목이 반영된 카페 인테리어는 그것 자체로 홍대미감을 이루고 있다.

### ■ 복합문화공간(영상) 공간현황 및 특징

홍대지역에서 영상 분야는 두드러진 흐름이나 공간적 확보를 이루고 있지 않다. 몇몇 시설로는 상업 극장이 없던 홍대지역에 올해 들어 롯데시네마 홍대점(홍대역 1번 출구 스타피카소 건물)이 오픈했으며, 상상마당에서도 독립/인디영화, 저예산영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안공간으로는 아이공, 오프도시 정도이다.

1998년, 홈비디오로 찍은 영화들을 모아 홍대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상영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된 <십만원 비디오 페스티벌>이 2002년 말 까지 홍대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십만원 비디오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가 네트워크인 비디오작가연대,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이 홍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인디비디오페스티벌>등을 개최하였다<sup>44)</sup>.

이후 2007년 4월 <아이공>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예술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미디어극장 <아이공>을 열었으며, <아이공>은 매년 홍대지역에서 <서울뉴미디어페스티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어 페스티벌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작가, 공간들이 네트워크하고 있다<sup>45)</sup>. 또한 6월 오픈한 <오프도시>는 온라인 기반의 비디오아트 방송국 언더그라운드 아트채널이 오프라인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이다. 언더그라운드 아트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비디오아트, 실험영상 분야의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 보다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에 '새빨간 비디오'라는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은 것이 이 공간을 열게 된 계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낙선작들을 모은 영상제 추락천사 페스티벌, OFF등 자체 기획전을 꾸준히 열고 있으며 외부 대관, 작가 프레젠테이션 공간, 작가영상작품을 볼 수 있는 비디오방, 카페 및 바로도 기능하고 있다.

### ■ 복합문화공간(아카데미) 공간현황 및 특징

최근 홍대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공간으로 아카데미 운영과 문화활동을 겸한 복합 문화공간을 들 수 있다. 2004년 <폴로 엮은 집>을 시작으로 2007년에 <문지문화원 사이>, <공간민들레>, <다중지성의 정원>이 홍대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문학 강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폴로 엮은 집>은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이며, 합정동 공간을 거점으로 홍대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의 음반발매 지원, 클럽 '타'와 북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대지역 문화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가 활동의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공간인 <문지문화원 사이>는 문학과 예

44) 십만원 비디오 페스티벌, 인디비디오페스티벌의 경우 활동 근거지는 홍대였으나 영화제 자체는 대부분 제대로 된 영사시설을 갖춘 극장을 찾아 외부에서 진행되었다.

45) 미디어 극장 아이공은 '걸 프렌즈 미디어 싸워' 등의 워크숍을 통해 여성주의, 사회소수자운동, 미디어 액티비스트, 독립영화 진영과의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술, 인문사회학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아카데미와 세미나, 전시와 공연, 기획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청소년들의 대안교육을 실험하는 <공간민들레>,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학문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음악 워크숍을 진행하는 <에스콜라 알레그리아> 등 여러 공간은 홍대 지역에 자리를 잡은 배경은 다르지만 홍대지역에서 새로운 아카데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들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홍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문화기획자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진행,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 복합문화공간(예술, 미디어) 공간현황 및 특징

복합문화공간의 다른 유형으로 다원예술매개공간과 상상마당, 블라인드사운드 미디어 허브가 있다. 홍대지역에서의 문화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 그 성과 중의 하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영하는 다원예술매개공간과 기업 KT&G가 지원하는 상상마당이 2007년 개관했다.

다원예술매개공간은 홍대지역에서의 독립-대안문화센터의 필요성으로 기획되었지만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다원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상상마당은 몇 년 동안 홍대지역의 문화활동(클럽데이,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 후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에 자리를 잡은 사례이다. “문화예술 생산-소비-교류의 온-오프라인 문화 플랫폼 ‘을 지향하는 상상마당의 지역 안착에는 홍대지역의 문화콘텐츠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소극장 공간현황 및 특징

홍대 지역의 소극장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탄탄한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산울림 소극장>이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밖에 문화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홍대 지역의 급격한 상업화에 희생당한 상징적 공간으로, 한때 폐관되었다 상상마당 씨어터제로로 재개관한 <씨어터 제로>가 있으며, 꾸준히 한국/현대 무용 관련 공연을 보여주는 창무 무용단 소속의 <포스트 극장>, 현대 실험 예술극장 <예>, 삼진제약 건물에 위치한 <비보이전용극장> 등이 있다.

이들 극장의 존재가 홍대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각기 다른 공연예술 분야를 지향하고 있어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대 지역이 음악관련 공연예술 분야 외의 다른 장르의 공연예술 분야는 특별한 강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이러한 장르들이 대학로 등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홍대의 지역적 성격과 특별한 연관 없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거나 (산울림 소극장),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장들이 존재(떼아트르 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홍대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의 실험들이 이러한 소극장을 통하기 보다는 클럽이나 카페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경향이 강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sup>46)</sup>.

## ● 홍대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특징

<홍대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특징>

구분	주체	명칭	개최시기	거점지역	활동(프로그램)
축제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1998년 시작 8월 개최	건고싶은거리 갤러리, 카페 등	공연예술축제 아시아네트워크
	한국실험예술정신 KoPAS	한국실험예술제	2002년 시작 9월 개최	홍대일대 클럽, 카페	실험예술축제
	(사)와우북 페스티벌조직위원회	와우북페스티벌	2005년 시작 9월 개최	홍대주자창거리 갤러리, 카페 클럽 등	책과 문화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
	아이공	뉴미디어페스티벌	2001년 시작 8월 개최	미디어극장 아이공 전파광장	영상/미디어아트 상영
	홍익대학교 미대	거리미술제	9월-10월 개최	홍대 일대 홍익어린이놀이터	거리 전시 /거리 벽화 참여 워크숍
기획	일상예술창작센터	프리마켓	매주 토요일	홍익어린이놀이터	생활창작 작품 판매
	희망시장	희망시장	매주 일요일	홍익어린이놀이터	생활창작 작품 판매
	문화로놀이장/ 노네임노샵	oo마켓	격주 일요일	건고싶은거리→ 월드컵평화의공원	움직이는 가게 운영 시민참여공방 진행
	문화로놀이장 카바레사운드	데모마켓	2008년 시작 산발적	건고싶은거리 및 홍익어린이놀이터 일대	음악 데모CD 유통 및 공연 (단발성 기획)
	클럽문화협회	클럽데이	2001년 시작 매월셋째금요일	클럽	클럽연계 / 월 1회
사운드데이		매월둘째금요일	클럽	클럽연계 / 월 1회	
매체	이스트브릿지	쓸모있는종이	2008	매월 1회 발간	아트맵(지역전시행사 소개)
	CTR문화지형연구소	원피스 매거진	2008	3호 발간	비주얼아트 잡지
	칠진	칠진	2006	4호 발간	언더그라운드 아트&컬처 독립잡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인디언발 (온라인)	2007	온라인 매체	인디문화네트워크, 담론
기타	사운드아트 코리아	국제사운드아트 페스티벌	2007년 시작	예술공간 헛	라디오아트 /사운드아트 설치작업

46) 한국 실험 예술제의 경우 이러한 소극장 보다는 클럽과 대안공간, 카페 등에서 열리고 있다.

홍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꼽을 수 있다. 매년 8월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축제기간 동안 연극/무용/마임/음악/퍼포먼스/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300여회의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는 규모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4년차를 맞은 와우북페스티벌은 홍대지역 인근의 출판자원을 연계한 책의 축제로 가족단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축제이다. 그리고 매주 주말에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과 희망시장 또한 홍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이다.

이밖에도 홍대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단발성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의 자본과 연계한 프로모션 축제의 수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 홍대지역 활동 주체 현황과 특징

홍대지역에서 문화활동 주체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데이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이고 드러나는 주체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1인 기획자나 소그룹들의 활동이 아직까지도 홍대 문화의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활동 주체들은 홍대지역 지가와 임대료 상승, 상업화로 인해 주변지역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0년의 홍대지역 문화자본을 만들어 온 주체임을 주목해야 한다.

#### <홍대지역문화예술그룹>

커뮤니티 현황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홍문협)
기획 단체	문화로 놀이장, 상상공장, 퍼슨랩, 문화지형연구소 CTR
음악관련단체	라이브음악발전협의회(라음협), 클럽문화협회 카바레사운드, 일렉트릭뮤즈, 파스텔뮤직 등 다수의 레이블
축제관련 단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와우북페스티벌 사무국
미술관련 단체	일상예술창작센터 프리마켓, 네오룩닷컴
공연예술 단체	한국실험예술정신 코파스
영상관련 단체	대안영상문화 아이공, 언더그라운드 아트채널, 블라인드사운드 미디어 허브
도서 출판 단체	문학과 지성사, 휴머니스트, 커뮤니케이션북스 등 출판사 밀집
지역주민 / 시민단체	홍대상인연합회, 견고 싶은 거리 상가연합회, 마포주민연대,

※ 이번 보고서에서는 홍대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작업자나 기획자의 데이터는 산출하지 못했다.

## 4 종합 분석

### ● 홍대 지역문화의 가치와 가능성

홍대지역은 문화적 에너지 집적(창의적-실험적 문화 기획과 창작), 인디문화의 인큐베이터 공간, 청년 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목 받는 공간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홍대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작업자들은 망원동, 문래동 일대로 작업실을 이전하고, 그만큼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화적 활동이 집적된 지역으로 문화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징적 지역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어떤 명확한 실체나 내용보다는 이미지와 취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전만큼 홍대지역의 문화적 스타일이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홍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출판사와 디자인 회사, 비주류 축제(프린지페스티벌 등)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특색 있는 카페들이다. 최근 홍대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문화공간들은 특정 장르 중심보다는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다장르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상업화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홍대지역은 기획과 창작, 작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공간/장소이다. 이는 기획/창작자들이 홍대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인프라의 가능성과 비주류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홍대지역을 대표하던 인디문화, 대안문화가 10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10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획과 내용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 홍대문화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기획/매개되어야 한다.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도 이러한 상황을 주요한 시사점으로 삼아 기존의 전형적인 문화센터의 운영모델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미 지역문화가 활성화된 홍대지역 문화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문화적 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홍대 지역문화가 만들어 왔던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홍대 지역문화의 전망과 과제

#### ■ 홍대 지역문화의 향후 전망

당분간 홍대지역의 상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류되긴 했지만, 견고싶은거리 2차사업 또한 대상지인 365번지를 중심으로 홍대지역의 거리 풍경을 또 한번 변화시킬 것이고 프랜차이즈 중심의 상권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홍대지역문화를 대표하는 프린지페스티벌, 프리마켓, 희망시장 등의 문화예술 자원들은 자본이 모방할 수 없는 문화적 기획들을 생산해야 기업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기획을 자유롭게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상암동 지역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조성 또한 문화산업 대상지로서의 홍대지역을 주목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한편 마포구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대안교육, 대안적 생활 공동체 실험 등은 홍대의 문화 자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대안교육의 내용을 홍대 문화 인프라와 접목시킨 <공간 민들레>의 사례처럼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실험에 홍대 지역의 인프라들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씨앗이 될 수 있다.

■ 홍대 지역문화의 과제

홍대 지역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입에 따른 상업화를 견제할 새로운 문화적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기획은 기존의 홍대문화를 숙성시키는 전략과 함께 새로운 기획자들의 활동이 (재)생산되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홍대의 문화자원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와 장을 만들고 홍대문화씬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매체 제작 또한 중요한 과제이며, 무엇보다 젊은 기획자들이 홍대문화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홍대문화의 진화를 위해 개별 약진하고 있는 활동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홍대지역은 다종의 장르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어떤 이슈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공통점을 가진 자발적 소단위 모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러한 소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홍대 지역문화의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실험들이 매개 및 기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의 지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5 소결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에 대한 제언

■ 성격과 역할

오랜 기간 홍대지역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생산된 문화활동은 새로운 흐름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목 받았다. 비주류문화들은 자생적이지만 집중된 관심이나 기업/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생산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홍대지역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접속된 문화지구 추진 계획은 제도화 방식이 홍대문화와 맞지 않아 중단된 사례였다. 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상상마당은 공간 개관 이전에 홍대지역 문화활동의 후원이라는 공세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개관 이후 홍대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 아트팩토리 사업이 홍대지역에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 독립문화나 다원문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관객 및 이용자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홍대발전모델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때 거점공간을 매개로 홍대지역에 접속하는 문화적 공공성은 홍대문화의 자율공간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공공성의 기준보다는 특이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공공성, 문화적 실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홍대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문화적 성과를 어떻게 새로운 모델로 진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찾기, 안정적으로 홍대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복합문화공간들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또한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홍대지역의 원주민이었던 예술가와 기획자들,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꿈꾸는 젊은 문화활동가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우선 센터는 교류의 거점, 정보의 거점을 통해 안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홍대지역 주변의 문화자원을 매개하는 교육과 함께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위한 기획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홍대지역의 지속되는 활동을 연결해 주는 매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홍대지역은 여러 활동은 지속되고 있었으나 개별적이었고 그 안에서 연결을 매개하는 활동은 부족했다. 연결의 매개는 지역의 공간 - 활동 주체(예술가, 기획자) - 콘텐츠 - 지역주민 - 제도 - 공공영역 등 다양한 층위로 볼 수 있다.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다양한 층위에서의 문화적 실험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센터의 안과 밖에서 기획해 가야 한다.

#### ■ 기능과 주요 지원 공간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지역 문화자원의 정보가 모이고 교류되는 공간, 홍대자원을 다양한 시각과 기획으로 매개할 수 있는 공간, 홍대지역의 문화자원들에게 결핍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홍대지역에서의 문화활동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복합문화센터는 이러한 개별적인 활동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효과를 생산해 가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협동 작업을 적극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홍대지역의 문화활동이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의 장이 필요한 만큼, 지역의 아카데미 공간을 연계한 인문/미학 강좌와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실천들을 실험해 가야 한다.

이미 2005년 중반부터 홍대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다원예술의 쇼케이스 장으로 다원예술매개공간,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대중화시키고 있는 상상마당 등의 복합 문화공간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만의 독특한 공간 기능을 창출해야 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이다. 현재 홍대지역의 복합문화공간의 약한

고리는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협력적 기획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문화적 기획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복합문화센터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다른 복합 문화공간과 차이를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의 주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홍대지역 문화활동가 그룹을 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교류의 공간)
- 홍대지역의 새로운 문화활동 주체 및 프로그램 발굴
- 홍대 지역 예술가/기획자들의 인문학/미학 교육의 매개
- 홍대 문화자원 소개 및 유통

둘째, 문화적 실험의 모델을 만드는 공간으로, 독립기획자 및 소그룹에 대한 문화 기획 및 행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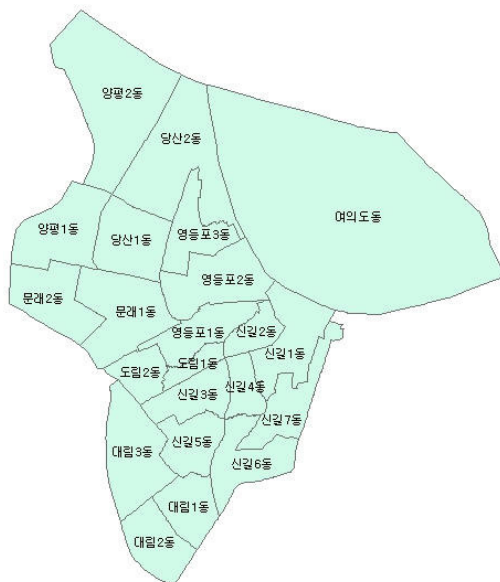
셋째, 마포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예술네트워크 형성

이처럼 홍대복합문화센터는 운영 초기에는 홍대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의 공간이자 문화실험을 다양하게 매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마포지역 중심으로 확장해 가야할 것이다.

## 5 | 문래 창작촌의 문화생태계 현황 및 분석 |

### 1 지역현황

문래 창작촌이 위치하고 있는 문래동은 서울의 서남쪽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으로, 북으로는 당산동, 양평동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경인선이 지나며 도림동과 신도림동의 주거지역과 만난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 동쪽으로는 각종 시장과 백화점 등이 소재하는 영등포동과 연결된다.



<영등포구 행정구역 현황>

<문래동 행정구역 현황(2008년 5월말 기준)>

구 분	전체	문래1동	문래2동
면 적(km <sup>2</sup> )	1.49	0.96	0.53
인 구(명)	31,248	15,870	15,378
인구밀도(인/km <sup>2</sup> )	20,972	16,531	29,015

자료: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http://www.ydp.go.kr/jumin>

문래동(文來洞)이라는 명칭은 1930년대 종연(鐘淵)·동양(東洋) 등 군소방직공장이 들어서자 일본인들에 의하여 사옥동(絲屋洞)이라 불리어지면서, 광복 후 우리 식으로 이름을 고칠 때 ‘물레(紡車)’라는 방적기계의 발음을 살려 문래동으로 이름 지어졌다는 설이 있고, 또 학교와 관공서 등이 들어서자 글이 온다는 뜻에서 동명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으나 전자의 설이 일반적이다<sup>47)</sup>.

47) 문익점의 목화 전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설도 있음.

## 2 문래 창작촌 형성과정

점차 쇠락해가는 문래동 철재상가단지에 5~6년 전부터 예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극소수의 예술가들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등지를 튼 후, 개인 작업에만 몰두했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외활동은 없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008년 12월 현재, 1층 철재상가를 제외한 2, 3층에는 빈 공간이 매우 드물 정도로 창작실로 채워졌다. 그 결과 64개의 창작실, 소 공연장 및 연습실, 전시공간이 밀집되어 있고, 활동하는 숫자도 150명에 이르게 되었다.

문래예술공단이 자생적인 창작군락지로 형성되게 된 배경은 첫째, 서울시내의 높은 공간임대료로 인한 예술가들의 잦은 이동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위하여 시내에 작업실을 두기를 원한다. 그 대신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짠 임대작업실을 찾아 잦은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이 이동하게 되는 지역은 대개의 경우 재개발지역이거나 설사 재개발지구가 아니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 상승 압박을 받는 지역이다<sup>48)</sup>.

이에 반해 문래동은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임대료라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통적 공업지역의 쇠퇴와 도시공동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문래동 철재상가는 1980년대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과 외환위기, 철강 수요처 감소,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으로 인해 점차 쇠락해왔고, 빈 공간들이 늘면서 장기간 방치되었다. 예술가들이 입주하기 전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공간의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매우 싼 비용으로 넓은 작업실을 쓸 수 있게 되었다<sup>49)</sup>. 이러한 조건은 예술가들이 문래동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두 번째 이유로, 홍익대 부근과 대학로의 유흥·상권 확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술가들의 이동이다. 문래동으로 이주해온 많은 예술가들 중 상당수는 과거 홍익대 부근과 대학로 일대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한때 홍익대와 대학로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주체였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역생활물가상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더 싼 공간을 찾아 이동하였다<sup>50)</sup>.

세 번째 이유로, 소규모 철공소의 장인적 에너지와 예술창조의 정신이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48) 화가 정정엽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가 개인의 창작실이 실제로 한 장소에서 장기간(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부천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화가 정정엽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총 13번 작업실을 옮겨 다녀야 했다. 한 작업실 당 머문 평균 기간은 1년 8개월인 셈이다. 1985 혜화동, 1986 서대문, 부평 산곡동, 1987 인천 제물포, 1988 인천 부평, 1989 인천 청천동, 1990 동인천, 1992 인천 부개동, 1995 부천 괴안동 아파트 지하상가, 1997 괴안동 세탁소 2층, 2003 괴안동 연립주택 3층 현재의 작업실(기타 2곳은 잘 기억안남)

49) 문래 창작촌의 임대료는 입지조건(대로변, 철재상가 단지 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임대료 평균 3,306 m<sup>2</sup>(1평) 당 1만 원 정도 99.18m<sup>2</sup>(30평)이면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 수준임.

50) 예술가들이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이주해 온 이유는 높아진 임대료 이외에도 공간의 변화에 따른 심미적인 요소에 기인한 면도 있다. 홍대에서 이주해 작년에 문래동에 정착한 한 디자인 그룹은 문래동의 장점으로 공간의 분위기가 주는 심미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홍대 지역은 상권이 발달하면서 너무 빠리는 바뀌는 풍경이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건을 들 수 있다. 월-토까지 매일 영업을 하는 문래동의 소규모 철공소에서는 매일 매일 노동, 활동들이 일어난다. 철공소가 폐쇄되어 있지 않고, 거리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들을 지켜볼 수 있다. 즉, 일상적으로 사람의 활동(철공소)을 접촉할 수 있는 문래동은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도심 안에서 일상적으로 노동과 삶의 현장을 접할 수 있는 문래동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창조적 에너지를 제공하며, 예술가들은 그러한 에너지를 예술창조의 정신으로 승화시킨다.

또한 풍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이테크놀로지한 서울의 풍경 속에서 문래동의 풍경은 근대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퇴색해가는 철공소들은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을 듯하다. 즉, 사라져가는 ‘풍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질 지도 모르는 ‘풍경’은 언제나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따라서 문래동 철공소 지역의 노후 된 건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잊혀 질지 모르는 어떠한 ‘정서’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는 예술가들에게 묘한 창조적 정서를 자극한다.

네 번째로 창작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 면에서 보자면,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소유주의 시설풀리가 까다롭지 않아 예술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전환시킬 수 있다. 서울도심의 건물에서 벽과 천정을 뜯어내고, 복도나 화장실을 채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도 문래동이 유일할 것이다. 또한 예술가들의 작업도 많은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이나 사무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악기 연습이나 철조, 목조 작품들의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이 동반된다. 그러나 문래동에서는 이러한 창작 생산물을 위한 소음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즉,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사용과 창작의 활동이 문래동으로 예술가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철재상가 풍경>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모여든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시 예술가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일상적 마주침은 예술가 개인에게 새로운 장르, 새로운 예술로 자기 확장의 계기를 부여한다. 과거 문래동에 입지한 소규모 업체들이 산업클러스터로서 집적의 효과를 누린 것처럼, 이제는 이곳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창작촌으로서 집적의 효과-예술가 개인 간의 네트워크로 인한 이점, 외부 예술가의 유입-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 공간 현황

■ 위치



<서울시 내 문래동의 위치>



<영등포구 내 문래동의 위치>

문래동은 서울시 서남권, 영등포구에 소재한 지역으로 서울시 문화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홍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문래 창작촌이 밀집한 지역은 소규모 기계금속 관련 업종이 밀집해 있는 문래1동으로 지리상으로는 영등포구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문래동 항공사진>

### <문래 창작촌의 위치 및 면적>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번지, 56번지 일부지역, 58번지 일부지역
면적	약 41,231㎡(12,47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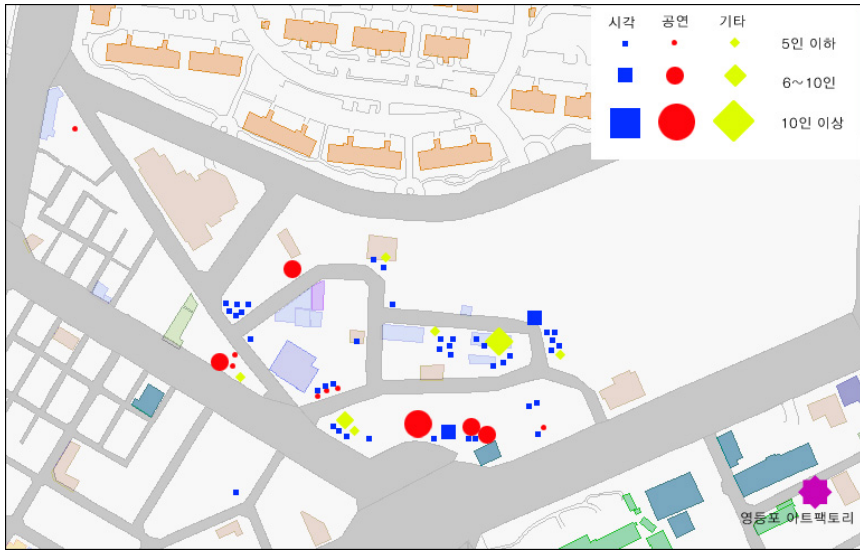
문래 창작촌은 동으로는 아파트형 공장단지, 서남쪽으로는 소규모 제조업 공장지대, 남으로는 초등교육기관, 북으로는 대단위 주거아파트단지와 연결하고 있다. 현재는 빨간선으로 표시된 철재종합상가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문래동 사거리 너머 대로변으로 확장되는 중이다.

#### ■ 창작실 현황

### <문래 창작촌 일반 현황>

항목	내용
작업실 수	64개*
장르	회화, 조각, 설치, 판화, 사진, 영상, 서예, 가구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 실내국악, 현대무용, 전통무용, 연극, 마임, 퍼포먼스, 굿, 거리극, 밴드, 사물놀이, 게임음악, 시나리오, 비평/기획, 연구소 등
입주 시기	대부분 최근 2-3년 이내(2000년경부터 입주 시작, 2007년부터 집중 입주)
용도	작업전용, 주거겸용, 연습실, 사무실, 회의공간, 전시공간, 자료/장비 보관 등
보증금	철재상가 단지 내: 계약금 100-250 / 평당 약1만원 대로변: 계약금 500 / 평당 2-3만원
주변 환경	선반업체/철재상이 영업하는 구간에는 소음(80~90DB 이상)이 심한 편이나, 야간에는 조용하며 인적이 드문 편임. 도로변은 차량소음이 조금 있음
공간 개조 여부	장기간 빈 채로 방치된 곳이 많아 입주 시 청소/수리하여 사용.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음
과거 작업실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이전. 문래동에 처음 작업실을 얻은 경우도 많음

※2008년 12월 현재 확인된 숫자임. 미확인 숫자까지 포함하면 7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문래예술공단 창작실 맵(2008년 12월 현재)>

<문래 창작촌의 건축물 및 시설 현황>

건축년도	1976년 ~ 1979년
건축양식	2~4층 슬라브
공간구성	대부분이 개인 창작실이며, 이외에도 소공연장 및 공연연습실, 소전시장 2곳, 레지던스 공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공간 내부는 작업공간 이외에도 샤워시설,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조건	건물의 내외부 및 옥상이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불결하다.
시설개선현황	예술가들은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청소/수리하여 작업실로 꾸몄고, 자비와 노동을 투여해 화장실, 수도시설, 샤워시설, 공연장, 전시장, 건물통로 등에 시설개선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중 건물주가 시설개선비 일부를 보조하기도 했다.

문래 창작촌의 창작실이 입주한 건축물은 대부분 70년대 지어진 노후한 건물들로서, 1층은 여전히 소규모 기계금속 관련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창작실은 2~3층의 빈 공간에 입주해 있다.



<문래 창작촌의 창작공간들>

<층별 건물활용 상황>

층 별	건물사용현황	활용방안
옥 상	옥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야외 작업장, 파티장, 야외공연장 용도에 적합
3 층	작업실, 공연연습실	작업실과 창작레지던스에 적합
2 층	”	”
1 층	소규모 기계금속 관련업체 (철공소 등)	층고가 높고, 옆 공간과 터기 좋은 구조로 갤러리, 소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용도에 적합
지 하	대부분 비어있고, 습기가 많음	소공연장, 전시장

■ 문래 창작촌의 주요 장단점

<문래 창작촌의 주요 장단점>

장 점	단 점
낮은 임대료 공간 분위기 다양한 장르 간 교류의 가능성 공간 사용에 대한 제약이 적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작업도 가능 편리한 교통	낙후된 시설(화장실, 샤워실, 수도시설 등)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소음 및 나쁜 대기질 공단과 인근 지역의 생활문화권 단절 심각 야간 우범지대화 우려 복합뉴타운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단절 우려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내용과 방식이 무개성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 입주 예술가 및 커뮤니티 현황

■ 입주 예술가 현황

현재(2008. 12) 문래철재상가 단지 일대에는 64개의 창작실, 공연장, 전시공간 등이 입주해 있으며, 활동하는 예술가의 숫자는 150여명에 이른다.

<문래 창작촌의 장르별 인원 및 창작실 현황(2008년 12월 현재)>

분 류	장르	인원	창작실 숫자	비고
시각예술	회화	24	17	
	설치, 조각	30	18	
	판화	1	1	
	사진	6	6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14	9	
	영상, 미디어	2	1	
	서예	1	1	
	무대미술	1	1	
	만화	1	1	
소 계		80	55	
공연예술	연극, 마임	18	4	
	무용	21	4	
	(전통)음악	12	2	
	퍼포먼스	1	1	

분 류	장르	인원	창작실 숫자	비고
	사물놀이			
	굿	2	1	
	음악			
소 계		54	12	
이론/기획	미술비평	1	1	
	문화기획	5	1	
	연구소	5	1	
소 계		11	3	
기 타	미술교육	4	1	
	레지던스		2	
	게임음악	1	1	
	시나리오	1	1	
	레포트	2	1	
	NGO	미확인	1	
	미확인		1	
소 계		8	8	
합 계		총 153명	78개(중복포함)	실제 작업실 수는 54개

## ■ 커뮤니티 현황

### <문래 창작촌 커뮤니티 현황>

명칭	발족시기	참여대상	목적
문래예술공단	2007. 12. 12	문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가	문래동 예술인들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 예술교류를 위한 모임
문래비주얼아티스트 네트워크	2008. 5	문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	시각예술가간의 전문적인 교류와 공동의 예술행사 진행

● 운영 프로그램의 종류

<문래 창작촌의 주요 외부 프로그램>

시기	행사명	주최
2007. 6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문래동	경계없는예술센터
”	몰레아트페스티벌 2007	온앤오프무용단
2008. 6	서울창작환경정책토론회-서울 문래동에서 아트팩토리까지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문래동-유랑극단의 시간여행	경계없는예술센터
2008. 10	몰레아트페스티벌 2008	온앤오프무용단
2008. 10-11	문래 공공미술프로젝트	문래비주얼 아티스트네트워크
200.8-1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문래예술공단

● 지역 사회와의 연계

문래 창작촌에 입주하는 예술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작업에 있어 문래동이란 지역을 중요한 변수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역을 매개로 한 페스티벌이나 거리극, 오픈스튜디오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철재상가 단지의 빈 벽을 대상으로 한 벽화, 설치 작품 등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술공부방을 15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문래동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공간(작업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이들은 영등포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주체들은 기존에 이루어진 어떤 국내의 문화정책도 이루지 못했던, 예술이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는 경험들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또한 새로이 스며든 예술가들의 창작촌은 특유의 예술적 환경(milieu)을 형성하며, 주변 지역과 철재상가 단지 간의 단절을 완화하는 '예술완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래예술공단의 예술행사들>

### 3 종합분석

#### ● 문래 창작촌의 가치와 가능성

문래 창작촌과 같은 자생적 창작촌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존 창작공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문래 창작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시가 창작지원정책을 세우고, 많은 전문가를 움직이고, 많은 재정을 투여해도 달성해내지 못했던 ‘도심 속 창작촌’을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힘만으로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창작실의 면적은 작게는 10평에서 크게는 50평까지다. 창작실 1곳 당 평균 20평으로 친다면 총 1,300여 평에 이르는 창작공간이 확보돼있는 셈이다. 따라서 문래 창작촌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정책상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창작촌이 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래동은 전통적인 준공업지역으로서 한때 활황을 누렸으나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쇠락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장소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은 예술적 방법으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던 문래동 철재상가 단지에 창작촌이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창작촌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존 창작실 지원정책이 미술 분야에만 편중돼있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실 지원정책은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과 창작레지던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창작실은 예술창작의 산실로서 모든 장르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설비에 해당되므로 모든 장르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래예술공단이 지닌 다양한 창작공간의 사례는 종합예술창작공간조성의 방법과 운영방식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술로 지역공동체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문래동지역은 전통적으로 종사해온 철공소 사람들과 최근 이주해 온 사람들로 크게 양분돼있는 지역이다. 이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래예술공단(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철공소와 주택단지 사이에 조성된 사회적 긴장을 풀어주고 이질적인 두 생활문화를 매개하여 조화를 꾀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듯 철공소 문화-신흥이주민-예술가들의 만남은 부서져있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 문래 창작촌의 전망과 과제

### ■ 문래 창작촌의 향후 전망

문래 창작촌은 그간의 확장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그 규모와 활동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문래동에 처음 예술가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창작실의 숫자는 10여개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활동 또한 서로간의 사적인 교류만 조금씩 이루어졌을 뿐 작업실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 초부터 2008년 12월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이상의 작업실이 새로 생겨났고, 장르는 더욱 풍부해졌으며, 예술가들의 활동 또한 내부 커뮤니티를 동력으로 한 대외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장르 간 교류 등의 이점을 지닌 문래 창작촌은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3년 뒤에는 약 100여개 작업실, 300여명의 예술가가 활동하는 대규모 창작촌으로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창작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 또한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창작촌의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문래예술공단, 시각예술가모임 등의 커뮤니티가 생겨난 이래

이들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개인 작업을 넘어 문래동을 '작업'해 온 이들은 지역축제, 공공미술, 예술교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접촉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 통로는 더욱 다변화되고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문래 창작촌 확대 전망>

### ■ 문래 창작촌의 과제

문래 창작촌의 높은 발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주로 창작촌 내부의 문화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창작촌을 둘러싼 사회제반 여건에 의한 것이다. 문래 창작촌이 입지한 문래동 철재상가 일대는 지난 이십여 년 간 재개발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철재상가의 힘든 이전 요건, 철재상가의 복잡한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이 입주한 상황이다. 문래 창작촌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주체들의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철공소와 예술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개발에 찬성하거나, 묵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재개발 의지가 강한 건물주의 경우, 예술가들의 활동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경우 문래 예술가들의 활동을 반기긴 하지만, 재개발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문래 창작촌을 둘러싼 주체들의 재개발에 대한 입장>

주 체	입장 및 상황	재개발에 대한 입장
건물주	예술가들의 유입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 지가상승, 임대료상승 기대	대세가 흐르는 방향 예의주시
건물주이면서 철공소사장	평소 영업 중이므로 건물매각보다는 현 상태 유지희망, 재개발에 비교적 관심 적음	재개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
임대철공소사장	영업수지가 점차 나빠지고 있어 하나둘씩 이전 중	
철공소직원	영업수지 악화는 고용불안	
예술가	저렴한 작업실을 장기적으로 사용희망, 예술행사개최 희망	재개발 반대
지역주민	철재상가단지에는 도심 흉물, 민원대상으로 생각	재개발 찬성
동주민센터	자이아파트단지를 필두로 새로 유입된 주민입장 대변	“
구청	특정 소수 외에는 대부분 재개발 인정	
서울시	아트팩토리 사업 급진전으로 문래동에 대한 새로운 중장기적 발전계획수립 필요해짐	부처 간 조정 필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특별위원회(이하 준공업 특위) 2008년 5월 8일 조례개정	재개발 찬성
유관기관	영등포구청,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 문래동에 예술행사비 지원 중	
민간개발회사	현재 2개회사가 민간재개발을 추진 중, 재개발조합은 없는 상태	재개발 추진

이렇듯 문래 창작촌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문래 창작촌은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창작촌의 자체 확대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도 이미 60개가 넘는 창작실이 입지해 있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래 창작촌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촌 내부의 커뮤니티를 이용한 끊임없는 사회적 개입이 요청된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지역사회를 매개로 한 활동들-페스티벌, 거리극, 오픈스튜디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창작촌이 새로운 지역의 주체로서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할 때, 창작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고, 도심 유희공간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아트팩토리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이는 아트팩토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러한데, 아트팩토리가 기존의 창작공간과 달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지역민들을 위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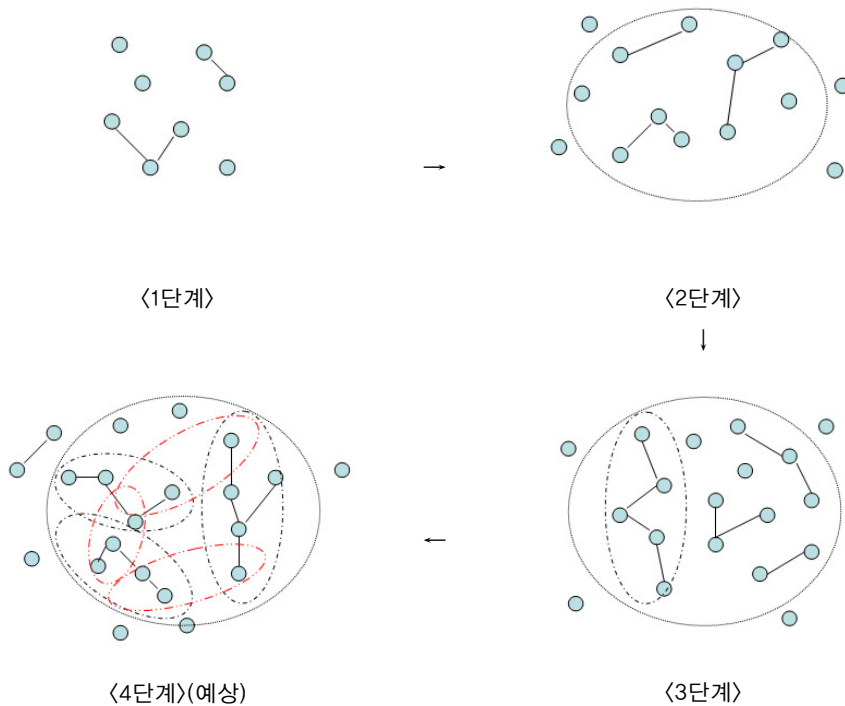
화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의 건립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창작촌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기존 창작촌이 유지되지 않는 아트팩토리는 이전 철재상가 단지처럼 지역의 새로운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래 창작촌의 예술가들 또한 자신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곧 들어서게 될 아트팩토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소결

##### ● 아트팩토리 사업과 문래 창작촌

###### ■ 커뮤니티 활동의 측면

문래 창작촌 커뮤니티의 변화 추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각 단계별 커뮤니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문래 창작촌 커뮤니티의 단계별 발전도>

- 1단계\_ 입주예술가 수 적음. 공식적인 커뮤니티 보다는 사적/소규모 모임만 존재
- 2단계\_ 사적/소규모 모임의 확대. 전체 예술가모임 생성(문래예술공단)
- 3단계\_ 전체 모임의 확대와 더불어, 장르별 모임으로의 분화(시각예술모임 등)
- 4단계(예상)\_ 장르별 모임의 확대와 더불어, 장르 간 협업활동(빨간선), 지역사회 개입의 활성화

현재 문래동 커뮤니티의 활동은 3단계로 파악된다. 그간의 변화추이를 고려해 볼 때, 문래 아트팩토리가 개관할 2009년말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술가들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장르 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 ■ 공간 이용의 측면

형성 초기 철재상가단지 내 건물을 중심으로 입주하던 작업실은 현재 도로변을 넘어선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트팩토리가 입주하게 될 지역 역시 현재의 작업실 밀집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아트팩토리 개관 초기에는 기존의 밀집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창작촌 확대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지역 사회와의 연계 측면

문래 창작촌의 초기 외부 프로그램은 물레아트페스티벌, 오픈스튜디오, 거리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입주예술가의 증가,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외부 활동이 다양해지며 그 숫자 또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이 가진 지역에 대한 고민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려 발생한 효과로, 향후 아트팩토리는 지역사회와 문래동 예술가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로써 지역사회 밀착형이라는 아트팩토리의 본래 조성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

### ● 영등포 아트팩토리 사업에 대한 제언

영등포 아트팩토리에 대한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예술가들의 작업을 지원하며, 예술가 간 혹은 지역사회-예술가 간의 교류가 생성되는 '창작지원/매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할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기존의 문화생태계와 얼마만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끊임없이 제기되는 재개발 압력으

로부터 창작촌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함께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영등포 아트팩토리에 대한 사업 제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영등포 아트팩토리 사업에 대한 지역 예술가들의 여론>

항목	내 용
바라는 공간상 (키워드)	창작촌마을회관, 공용공방, 교류/자극의 공간, 학교 작업실 등
인지 수준	아트팩토리 조성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 운영방향/층별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공개된 수준 정도 인식
기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인 공간(Project Space), 유동적/빈 공간</li> <li>- 다양한 장르 간의 만남이 생성되는 곳</li> <li>- 타 장르로의 자기 확장이 가능한 곳</li> <li>-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수 제공(예술 체험의 공간)</li> <li>-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연계가 가능한 곳</li> <li>- 자신의 작업실에서 불가능한 작업이 가능한 곳</li> <li>- 고가 장비의 사용/대여 가능한 곳</li> <li>- 생활의 불편(빨래, 샤워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곳</li> <li>- 특정 개인/단체에게 전유되지 않는 곳</li> <li>- 아카이브</li> </ul>
우려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의견 수렴</li> <li>- 성급한 추진</li> <li>- 공간 운영의 문제</li> </ul>

#### ■ 창작공간 조성의 수혜자 범주 및 주 기능 설정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기 존재하고 있는 창작촌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풍성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만이 안정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우선 문래 창작촌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을 지역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극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낙후된 공업단지로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예술촌을 인식하게끔 할 것이며, 아트팩토리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영등포 아트팩토리의 수혜자 범주는 ‘문래 창작촌 예술가’→‘지역 주민’→‘지역사회’의 순서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창작촌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되,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를 장기적 안목 하에 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예술가들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장르 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둘째, 새로운 창작촌 확대의 계기가 되는 공간  
 셋째, 지역사회와 문래동 예술가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  
 넷째,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형성, 선도하는 공간  
 이처럼 아트팩토리는 지역과 유리된 기존의 창작공간을 탈피하여, 새롭게 지역을‘창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창작자 및 지역 주민 네트워크 구성 전략

문래 창작촌 예술가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다. 페스티벌, 오픈스튜디오,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등이 그 사례이다. 창작자-지역 주민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이 필요하다.

- 1단계(지역 외부 행사 확대)\_ 친밀함 구성의 단계로, 기존에 진행되어온 문래예술공단의 외부 행사를 지역으로 조금 더 개방·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의 좀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는 단계.
- 2단계(공동프로그램 진행)\_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공동프로그램 진행. 예를 들어, 공공벽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전 워크숍 진행·공동기획·공동작업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문화향수 체험 제공의 기회를, 예술가들에게는 작품 활동 확장의 기회가 됨.
- 3단계(공공기능 수행)\_ 아트팩토리가 매개자가 되어, 문래 창작촌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들(초등학교, 주거 단지 등)과의 공동사업을 진행함.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문래/영등포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해당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진행을 일정부분 담당하는 형태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아트팩토리라는 위치를 부여받고, 영등포구의 새로운 문화예술네트워크의 구성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아트팩토리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많은 예술가(집단)들이 있는 문래 창작촌의 경우에도 지역 외부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사적 모임을 넘어서는 커뮤니티 생성, 이를 통한 지역 활동의 확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문화참여 제고 관점에서의 창작공간 조성 전략 제안

아트팩토리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시설’로 지원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영등포 아트팩토리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의 지원에만 그칠 경우, 창작환경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영등포 아트팩토리 사업은 아트팩토리라는‘점’시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창작촌을 아우르는‘면’적 개념으로 확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면'개념에 의한 창작활동 지원은 바로 기존의 창작촌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기존 창작촌과의 전략적 관계설정을 통해서만이 '창작인프라 구축 → 지역의 예술생태계 구축 →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아트팩토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존 창작촌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면'개념에 의한 창작활동 지원방안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과거 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장을 활용한 핀란드 헬싱키의 '케이블 팩토리(Cable Factory)'의 경우 돈이 없는 예술가들도 짠 요금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돈이 있는 단체는 내부를 현대적으로 리뉴얼 한 공간을 비싼 요금을 내고 점유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인 임대도 포함해서 비즈니스 단체에는 시장가격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빌릴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반값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공간 내에 다양한 문화 및 예술의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sup>51)</sup>. 현재 문래 창작촌 역시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영등포 아트팩토리 사업은 향후 문래 창작촌이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거듭난 뒤에도 현재와 같이 다양한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52)</sup>.

한편 문래예술공단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의 점점 찾기를 통해, 시민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문래예술공단이 지닌 기존의 성과를 흡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등포 아트팩토리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창작촌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예술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영등포 아트팩토리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시민 문화 참여 제고의 형태로 연결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등포 아트팩토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비록 아트팩토리 공간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예술가들,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아트팩토리 홍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1) 김규원, 전계서.

52) 많은 창작촌이 지역 활성화, 도시 재생의 성과를 이룬 뒤, 오히려 본래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베이징의 파산즈 지역의 경우, 초기 예술가들의 집단 창작촌으로 출발하여, 국제적인 문화지구로 태어났지만, 현재 초기의 창작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뒤따라 들어온 소비자본이 오히려 지역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즈 지역은 이제 고급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국제자본의 오피스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아트팩토리 사업 역시 '지역활성화'라는 가치에 매몰될 경우,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제언

### ● 아트팩토리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아트팩토리 사업을 위한 정책 제언은 먼저 창작공간이 새롭게 부여받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짚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 창작공간의 부족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한다. 따라서 아트팩토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첫째, 창작공간<sup>53)</sup>이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둘째, 위 관점에서 기존 창작공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트팩토리의 운영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창작공간이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도시재생의 담론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이다. 오래된 도심의 낙후 지역, 혹은 과거의 산업시설 등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 시기를 맞으면서 문화적 코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훌륭한 방안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유희 시설이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예술가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도시 재생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한 탓에 창작공간은 더 이상 예술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게 되었고, 도시 경쟁력 향상이란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아트팩토리 사업이다. '창작인프라 구축 → 지역의 예술생태계 구축 →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란 아트팩토리의 사업 목적<sup>54)</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작공간이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지역에 대한 개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지역활성화'라는 모호한 어휘가 갖는 위험성이다. 가령 홍대지역과 같이 발달한 상권을 지닌 지역에서 건립되는 아트팩토리가 이룩해야하는 지역활성화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홍대지역은 오히려 지나치게 빠른 소비자본의 유입으로 고유의 문화에너지를 잃어버린 지역이다. 이는 최근 고급카페, 국제 자본 등이 들어서고 있는 중국의 파산즈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지역의 문제는 기존 문화활동의 성과들을 소비자본이 전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트팩토리는 최종 목표지점이 지역활성화라 하더라도 기존의 문화생태계 유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아트팩토리가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주변 지역이 지나친 소비자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술가들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의 정책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공간임대료 보조를 통해 창작공간이 예술

53) 여기서 창작공간은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시설이 보다 더 사회적 역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4)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아트팩토리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2008. 12. 18.

가들에 대한 실질적 창작환경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창작공간 조성을 통한 성급하고 불분명한 목적을 지닌 지역활성화는 오히려 기존의 문화생태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기에, 아트팩토리는 ‘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예술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존 창작공간의 한계, 특히 도시 내 창작공간의 한계는 지역과 유리된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지 못한다는 점과 단기간 레지던시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트팩토리 사업은 예술가들에 대한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아트팩토리는 도심 내 지역 밀착형 종합 예술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트팩토리의 운영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을 위해서는, 아트팩토리가 무한정 창작실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지역단위의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트팩토리 사업은 하나의 시설 제공을 넘어서 아트팩토리와 그 주변지역을 즉 기존의 문화생태계를 함께 끌어안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트팩토리 시설을 건립하고 시설 내의 프로그램을 아무리 고민해도,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기존의 예술가들이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아트팩토리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결국 서울시 당국의 정책의지에 대한 문제이다. 진정 아트팩토리로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체 서울시 발전전략 차원에서 아트팩토리 사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트팩토리 인근 지역에 대한 임대료 문제, 소비자본의 유입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트팩토리의 지역사회 개입은 기존 문화생태계를 끌어안고 가는 전략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기존의 지역프로그램들(오픈 스튜디오, 페스티벌 등)을 계승/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민들에 대한 접근도 수동적인 문화수용자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문화주체로 위치지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기획-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끊임없이 알리고 매개하는 프로그램 및 매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트팩토리가 지역 문화예술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매체 개발을 통한 관계 맺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위‘문화도시’가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많은 창작공간과 문화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통계자료에서 숫자로만 확인될 뿐, 아직 우리네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적 결과물로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문화정책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야기로 풀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의 이야기들이 정책적 담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의 창작공간 또한 이와 같은 연유로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아직은 낮은 공간으로 남아있다. 아트팩토리가 예술가에 대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나아가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창작공간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 1 | 창작 공간 조성과 도시재생 |

### 1 세계적인 흐름과 논점들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도시 내 낙후지역의 산업유산, 근대화 유산 등으로 불리는 '낡고 오래된 건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발견하여 '창작' 혹은 '창의' 라는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물리적성장의 도시개발이 한계에 달하여, 순환적 가치성장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맞추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등의 개념들이 넓게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산업 구조의 전 세계적인 변화는 도시 경제 구조 및 사회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고 그에 따라 많은 도시들이 더 이상 1차,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 공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 도시들의 공업시설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막대한 면적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시설물들은 그 때까지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 오던 공장, 부대 시설, 항구 등의 산업 중심지로, 한때는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점차 진행된 도시의 확대와 함께 도시 안에 합류된 지역들이다. 이들은 또, 대지의 오염, 지역의 낙후 등과 같은 도시작업의 악조건과 도시 안에서의 전략적인 위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등의 이점들을 동시에 지녔다. 이러한 상반된 조건들이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이유가 됨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은 1980년대 이후 각 도시가 안게 된 '뜨거운 감자'로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종종 해결책을 찾지 못해 도시안의 산업 잔해들로 남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유럽에서 나타난 각종 도시 관련 특별법은 이러한 지역개발의 담보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제도적 시도이기도 하다.

많은 지역들이 개발업자들에게 맡겨져 주택, 상업시설, 사무공간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편, 도시 환경이나 공공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의 재해석도 계속 시도되었다. 사실상 도시화가 마무리되어 공공시설,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시설물과 같은 도심의 유휴 공간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산

업 잔해에서 공간 자원으로의 재해석은 기존의 공공사업 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과정으로 런던의 테이트 모던, 카라리 워프(Carary Warf), 로테르담의 항만 재개발 등은 모두 그 과정을 거쳐 조성된 사례들이다.

각종 도시 작업에 사용 가능한 도시의 유휴공간은 비단 산업시설물뿐만이 아니다. 폐교, 재래시장, 유휴공유지 등의 유휴공간을 더하면 도시 환경과 도시 재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뉴욕의 PS1, 서울의 난지도 공원, 이탈리아 리볼리의 고성을 이용한 현대 미술관(Castello di Rivoli Museo D'arte Contemporanea) 등이 산업시설물 외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공공 시설물들이다. 이들 모두 도시의 구조와 생태계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재해석한 예로서 도시 환경의 재생, 공간과 도시 역사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효용성이 두드러지는 예이다.

많은 경우 앞의 예와 같은 유휴 공간의 재생, 유휴 공간의 사용을 위한 공간의 재해석에 ‘문화’ 혹은 ‘창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입혀진다. 그렇다면 ‘문화’ 혹은 ‘창작’의 프로그램과 공간의 재생, 더 나아가 도시의 재생, 발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역할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문화’, ‘창작’, ‘발전’에 관한 정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문화’와 ‘발전’은 모두 변화무쌍하고 한가지로 파악되기 어려운 의미들이다. ‘문화’의 경우 이를 각 인간 단위의 문화적 행위로 보느냐 (협의의 문화) 아니면 더 넓게 전체 사회나 대중의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보느냐 (광의의 문화)에 따라 ‘문화’의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창작’은 협의의 문화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광의의 ‘문화’를 염두에 둘 경우에 ‘문화’와 경제는 당연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 경제도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상황은 애매해 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발전’을 다루고 있는가, ‘문화’는 ‘발전’의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하는 점이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나타난다. 특히 창작공간산업의 당위성, 도시 발전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규정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는 서울의 경우 더 그러하다.

‘발전’의 한 의미는 경제적 성장,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생산성, 그리고 소득의 확대라고 정의된다. 다른 한편으로 UNDP<sup>55)</sup>의 인류발전연보<sup>56)</sup> 및 많은 석학들에 의하면 ‘발전’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강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발전’에 반한 이 인류 ‘발전’의 관점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광의의)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한다. 즉 ‘생활의 빈곤’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더 만족되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기회의 부족이기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삶의 질에 관한 잣대는 물질적 확대뿐만이 아니라 기회의 확대, 표현의 확대, 능력의 확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역할도 ‘발전’에 대한 앞 두 가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는 관

5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56) Annual Human Development Report

점에서 보면, 문화는 주로 협의의 문화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으로서 경제적 성장을 진척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경제 행위가 문화 행위 일반으로 확대되었던 청교도주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화적 행위나 기관들은 거부되기도 했었고,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광의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도구로 여겨졌다. 물론 경제 성장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문화의 수단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과 ‘문화’의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기준<sup>57)</sup>이며, 그러므로 그 연관성에만 기반을 두고 논의되는 ‘문화’의 효용성이 얼마나 위험한 기준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고민은 또, ‘발전’을 이야기할 때 ‘경제성장’과 ‘문화’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를 일컫는지, 경제성장 그 자체가 모든 발전 가치의 끝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문화’적 발전이 궁극적 목적인지 하는 고민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의 두 가지 관점 중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광의의) ‘문화’적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표현되는 경제성장-(협의의) 문화-발전 간 관계의 질서는, 일렬의 주종 관계라기보다 서로 주고받는 순환의 구조<sup>58)</sup>로 인식된다. 1997년 유럽연합의 발주로 진행된 프로젝트 “문화적 혁명과 경제적 발전(Cultural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IED)는 ‘협의의 문화’와 ‘경제성장’의 올바른 역학관계에 대해서, 또 거기서 유추될 수 있는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했다. CIED 프로젝트는 베를린의 피셔 박사(Hatto Fischer)의 주도 아래 5개의 유럽 도시들<sup>59)</sup>을 상대로, 다른 문화 요인, 지역적 상황,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 중, 아일랜드의 갈웨이(갈릭(Gaelic) 문화와 언어를 진흥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지역 주민회와 함께 도시의 유산 정비 계획을 만들어 갔다. 그리스의 볼로스는 과거의 전통만이 아니라 근대 산업과 현재를 표현하는 새로운 도시의 표상을 도시의 산업 유산과 연계시켜 발전시켜 갔고, 영국의 카디프는 구 석탄 거래 건물을 이용, 벤치마킹 및 참여자 연대 등을 통하여 문화 지구(Cultural Quarter)라 불리는 지역안의 멀티미디어 산업을 형성했다. 모든 문화 연계 작

57)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교육 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이라는 문화수단까지 교육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이 ‘발전’ 전체에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문화’의 기반형성, 사회의 기회조성 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문화가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만 여겨질 경우의 폐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공대 기피, 사학 재단 비리, 극도의 이기주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폐해들의 해결책으로서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인성 교육, 전인 교육, 사회 교육 확대와 같은 ‘문화교육’의 모토를 제시한다.

58) 이 같은 순환 구조로의 인식은 비단 ‘문화’와 ‘발전’ 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의 구조 인식에도 필요하다. 창작, 교육, 교류, 전시, 공연 등과 같은 문화의 여러 행태들은 문화의 발생, 성장, 발전이 일어나는 문화 생태계 안에 위치한다. 자연의 생태계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에 의한 재생산을 통해 소모가 아닌 유지, 성장의 체계를 갖는 것처럼, 문화 안에서도 최종 표현 작업인 공연, 전시에 투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근간을 이루는 창작, 그리고 교육에 균형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문화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 생태계의 순환적 구조는 문화의 재생산으로, 더 나아가 문화의 성장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59) 이탈리아의 팔레르모 (Palermo, Italy), 영국의 카디프 (Cardiff, Great Britain (Cardiff Bay Corporation - 기획주체)), 그리스의 볼로스 (Volos, Greece), 아일랜드의 갈웨이 (Galway, Ireland), 독일의 라이프찌히 (Leipzig, Germany (Aufbauwerk Regierungsbezirk Leipzig - 기획주체))

업의 일반적인 목표로는 우선 경제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을 어떻게 남용이 아닌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하면서 경제 발전과 연관된 문화정책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지역의 (광의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의 기본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 도시 계획 안에서 문화의 역할 - 문화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도시 작업 안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와 구체적인 필요를 연결시키며, 문화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 지침을 정리하는 것 등이 그 목표였다. CIED 프로젝트는 문화의 쇠신이 미래의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시작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연구했고, 그 과정 안에서 ‘문화’라는 코드가 지역 사회에, 또 지역 발전의 목표 앞에 어떠한 설득력을 갖는지, 어떻게 공동의 목표, 즉 도시 환경의 향상으로 발전되는 지를 보여 주었다. 동시에, 도시의 재생 및 시 외곽의 도시 환경 재정비를 위한 도시 계획 실행 과정 안에서, 문화로 표현된 도시 정책의 포용력이 어떻게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사회 문화의 발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문화’는 경제성장의 수단일 뿐 아니라 목표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광의의, 또 협의의) 문화와 경제성장이 지역의 발전에 관해 서로 물려서 연관되어 있다.

‘문화’와 ‘발전’의 공생 관계 외에, 테이트 모던, 난지도 공원, 뉴욕의 PS1, 그리고 CIED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우선적으로 엿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시사점은, ‘문화’가 ‘도시 재생’의 과정에 부여하는 공간 재해석, 재활용의 당위성이다. 이 또한 도시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원의 소모를 지양하고 그들의 유지, 성장을 지향하는 ‘순환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시의 생성 단계를 지나 도시 공간의 개발 또는 재생의 단계에 있는 도시의 작업에서는 기존 지역의 정량적 자료 및 정성적 분석이 그 기본이다. 즉, 그 도시의 고유한 지역성인 광의의 문화가 도시 재생 작업의 시작이며 핵심인 것이다. 앞의 예들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산업 형태로 자리 매김한 ‘협의의 문화 (문화 예술 프로그램)’가 도시 안에 남겨져 있던 유휴 공간(도시의 역사적 유산)에 (지역 문화 이해를 시작으로 한) 도시 재생의 프로그램으로 입혀졌다. 기존의 지역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 재생 작업에서 지역 문화를 대변하는 도시의 역사적 유산이 이용되고, 그 안에 도시의 문화 산업이 발전의 매개체로 들어간다는 공식은, 지역성 유지, 지역 문화의 유지 또 지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기존의 유휴 공간이 도시의 문화 공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서울의 경우에 대입해 볼 때, 그 반대공식 즉 유휴 공간을 도시의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틀이 필요하다는 공식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다. 흔히 서울의 도시 작업에서 보이는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사이의 딜레마, 유휴 공간의 개발과 재생 사이의 당위성 문제는 서울 안의 지역성 부족, 즉 지역 문화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계속되는 지역 신축 사업의 결과 끊임없이 변화가는 지역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뉘였지 않고 단

순히 머물고만 있는 지역 주민은, 지역성과 연관된 지역 문화유산의 재해석에 비교적 무관심하기 쉽고 재생보다는 또 다른 개발을 더 반기기 쉽다. 이러한 상황 아래, 환경의 관점에서, 그리고 도시 역사의 관점에서 유휴 공간을 건축 유산으로 재해석하여 도시 재생을 피하고자 한다면, 약해진 ‘문화’ - 지역성 - 도시 재생의 순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문화’라는 요소를 일깨워 지역성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것이다. ‘문화’라는 큰 틀을 만들어 가고, 그 틀을 지역 문화와 연결시키고, 유휴 공간에 문화 프로그램<sup>60)</sup>을 입혀서 지역성의 유지와 같은 맥락 안에 놓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문화’와 ‘도시 재생’이 서로 연관되어 같이 가는 모습일 것이고, ‘문화’가 ‘도시 재생’에 주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당위성이라고 여겨진다.

## 2 사례분석과 시사점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에서 산업유산을 자원화 하여 창작-문화공간화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세 가지 스케일의 공간단위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아트팩토리 사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창작 공간이 분포되어 있는 범위 및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문화 창작 공간이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건물 단위 (베이스 B),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우 - 지역 단위 (조나 토르토나), 그리고 도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 도시 단위 (살로네)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 결과, 도시 단위의 창작 문화 공간의 경우 주로 그 물리적 형태보다는 프로그램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 또 하나의 CI 등으로 묶여진다는 사실과, 지역 단위의 창작 문화 공간의 경우 대부분 그 지역의 물리적 (건축적, 도시적) 상황과 밀접하게 물려 진행된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하나의 특이한 점은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창작 공간들, 지역 단위로 나타난 문화 창작 공간이 차후에 유사 혹은 공동 프로그램 안에 묶여 도시 단위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인데, 베를린의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sup>61)</sup>처럼 단일 건물 단위들이 묶인 경우,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과 푸오리 살로네(Fuori Salone)처럼 도시 단위와 지역 단위가 묶인 경우 들이다. 이들은 대상이 단일 건물이나 지역 단위처럼 서로 다른 건축적 도시적 상황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다른 역할을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특성들이 서울시의 아트팩토리 사업에 비추어 시사하는 점은 우선, 전체 도시 단위에서 각

60) 각주 4)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문화 생태계의 순화, 재생산의 관점으로 볼 때, 협업의 문화와 관련된 문화 산업, 즉 예술 문화 창작 산업은 문화 발전을 위해, 도시 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인다.

61) 베를린은 현재 전 세계의 문화 창작 예술인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동서독 분단 기간 동안 베를린을 살리기 위한 서독의 문화 정책, 독일 통일 이후의 짠 부동산 대거 투입, 저렴한 생활비,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 투자, 지원 정책 등에 의해 문화 예술 창작의 기반이 조성되고 확장되어왔다. 100여개가 족히 넘는 베를린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은 그 수가 많은 만큼 운영하는 방법이나 재정 조달, 아티스트 선정 방법 등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Daad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Bethanien, Glogau Air, LCB (Literarisches Colloquium Berlin), Tacheles 등이 있다.

사업지를 각 지역에 물리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조나 토르토나가 디자인 지역자체로서, 또 동시에 푸오리 살로네를 완성하는 도시안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역할 하듯이, 하나의 통일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트팩토리의 개별사업지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도시적인 임팩트를 갖게 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과의 교류 형태-지역의 전문 창작 주체를 대상으로, 혹은 지역 문화 공동체를 대상으로, 혹은 서울 전체의 문화 창작 네트워크를 대상으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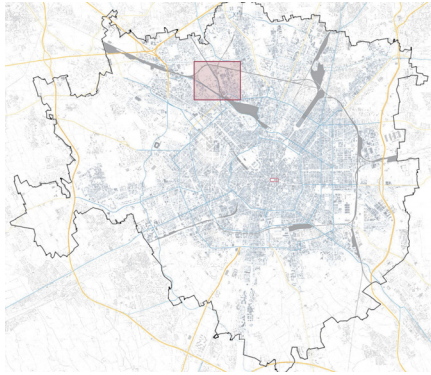
각각의 아트팩토리가 개별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그들의 다른 성격, 역할, 지역성의 '합'이 하나의 유기적, 유동적 구조의 프로그램으로서 전체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이 점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전체의 문화 환경 발전,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이 되는 도시의 발전에도 필요한 접근이라고 보인다.

## ● 건물단위

건물단위의 문화 창작 공간은 주로 특정 기회, 의도, 우연에 의해 도시 안에 생긴 개별적인 대지 혹은 건물로서 공유화 된 부동산, 지역 개발 후에 남겨진 자투리땅 등을 이용해 조성되어진다. 각 대지가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만큼, 주변의 문화 창작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으로의 확대를 유도하는 창작거점이나 전체 도시의 네트워크상에 위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살펴볼 사례인 Base B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 대상 지역 안에 위치한 소규모의 공업 시설물로, 시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이 단계의 유휴 공간 이용, 관련 관청의 문화 사업에 관한 의지, 적절한 운영 기획 등에서 그 주요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는 예이다.

### ■ Base B

Base B는 밀라노 북부의 보비자(Bovisa) 지역 안에 위치한다. 보비자는 1980년대 이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중공업 지역으로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남겨진 유휴 공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석유 산업 계열의 공장이 들어서 있었던 이 지역에는 밀라노 공과대학, 트리에날레 보비자(La Triennale di Milano Bovisa), 네그리 연구소(Negri Research Center) 등이 지역의 재생 작업 후 들어가 있으며, 현재 밀라노에 남겨진 중요 공유지 중 하나인 정유소 시설의 재생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밀라노 공과대학과 각종 연구소들이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밀라노의 첨단 기술 산업 지역으로 자리 잡아 갔고 그와 더불어 도시 환경의 재정비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BASE B가 위치한 보비자,  
밀라노의 대학 연구 지역>



<BASE B>

Base B는 밀라노 공과대학과 도시 재생 작업의 대상인 정유소 부지 사이의 자투리땅에 위치하고 있는 유희지로서 지역 구조 안에서 대지의 면적, 접근성 면으로 볼 때 주변의 대학, 문화 시설, 연구시설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용도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대지이다.

이 유희지의 Base B로서의 이용은 밀라노시청측이 부동산 개발업자 에우로밀라노(Euromilano)에게 정유소 부지를 임대, 개발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부지의 '사회적 기부'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보비자지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던 개발업자 에우로밀라노가 정유지 재생 작업이 시작할 때까지 건물을 그 지역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Base B라고 이름 지었다.

Base B는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 창고 등을 가건축물의 형식으로 보수한 상태로 9㎡ 단위로 나뉘어져 임대되기 시작했다. 임대 대상은 젊은 문화 산업 행위자로, 디자이너, 건축가, 미술가, 음악가 등이고, 신청자들의 이력과 작업의도 및 계획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임대는 기본 4개월 계약 후 매 4개월 마다 재심사 과정을 거쳐 계약 갱신을 하게 되고 입주자는 각 방당 매월 약 300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 임대료에는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난방비를 비롯하여 공동화장실, 공동부엌, 공동회의실, 공동전시장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동시설의 운영은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여기에 쓰이는 마감재, 부엌, 조명 등 부대 시설물들은 관련 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설치, 보수, 유지된다.



<Base B 전경>

밀라노는 젊은 문화 창작 인력에게 있어 살인적인 물가, 낮은 보수로 유럽 안에서도 자립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 300유로로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Base B에 밀라노의 우수한 젊은 예술인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입주자들의 공동체는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마련된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토론한다. 결과적으로 Base B는 밀라노의 문화 창작 행위자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문화 창작 공동체의 형성, 성장, 그리고 교류로 이어졌다. 특히 젊은 문화 창작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문화 생태계 유지, 발전에 근본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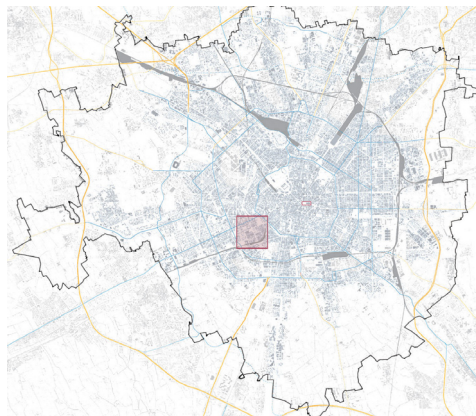
Base B의 문화적 효과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공공 문화 산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청, 기관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의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의도의 적절한 실행, 운영 방식이라고 하겠다. Base B는 관청의 뚜렷한 사업 대상 파악, 유희 공간 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운영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가 같이 어우러져 문화 ‘창작’의 자발적 플랫폼을 만들어 낸 시너지 효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 지역단위

지역단위의 문화 창작 공간은 문화 지역(District)<sup>62</sup>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문화 창작 지역의 형성, 확장에는 사회 문화적 역학관계와 더불어 도시, 건축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 사회 문화적 역학관계로 볼 때 이 지역들은 생성 초기의 강한 인자에 의해 주변 지역이 동화된 경우, 비슷한 문화 행위자가 모임으로써 지역 단위로 확장된 경우들로 크게 나뉘고, 후자의 예로 대학로나 홍대 지역을 들 수 있다. 도시, 건축적으로 볼 때는 기존 건축물이 특정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생성의 인자가 될 때, 혹은 비슷한 조건의 건축물 군이 있어서 초기 발생 후 주변에 유사한 문화의 행위자가 모여들어 주변의 활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문래 예술 공간, 그리고 사례로 살펴 볼 밀라노의 조나 토르토나이다. 특히 준공업 지역, 산업 유휴 시설과 예술 창작 공간과 만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높은 층고, 넓은 면적 등 특정 예술 창작에 필요한 공간의 성격과 기존 산업시설 공간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고, 또 전이 단계의 산업 유휴 시설이 예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창작 공간이 지역 단위로 생성될 경우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문화 창작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 안에서 갖게 되는 아이덴티티와 그로 인한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성장이며, 문화와 지역성이 같이 가는 발전 모델의 성립이라고 하겠다.

### ■ 조나 토르토나(Zona Tortona)



<조나 토르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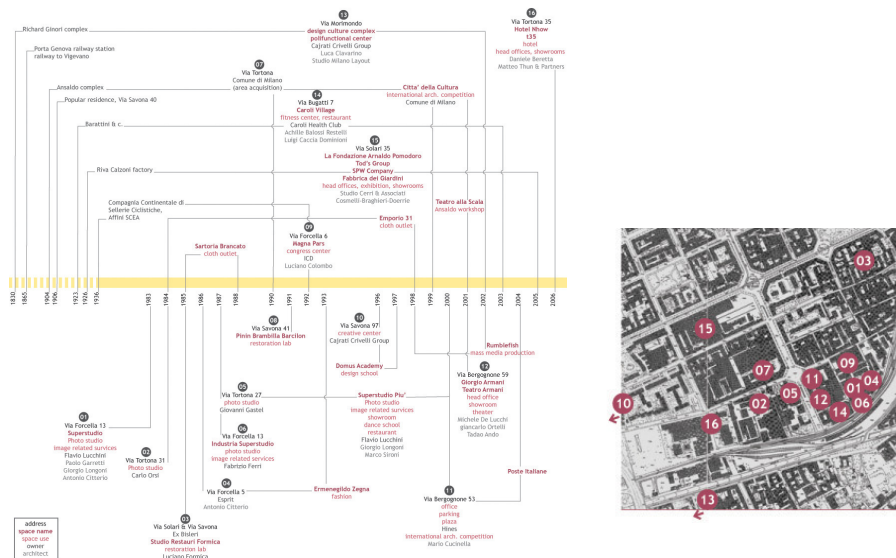
62) 지역(District)이라는 개념은 1890년 발표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저서 『경제학의 원칙 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최근 지역에 관련된 주제들은 중소기업의 지역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규정하는데 자주 인용되어왔다. 근본적으로 지역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발된 특화 산업 생산 체계로서 사회적 관계, 역사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가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데,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나 건축적, 도시적으로 형성된 산업과 지역 간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예가되고 있다.

공업 지역에서 디자인 지역으로의 변환 - 이것이 밀라노 남부의 공장과 부대시설이 있던 조나 토르토나이 최근까지 걸어온 길이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밀라노의 패션 중심지는 몬테나폴레오네 거리 근처의 도심 한복판이었지만, 지금은 조나 토르토나 또한 그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기존의 산업시설물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공장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모델 에이전시, 미술관, 전시장, 호텔 등으로 변화했고, 동시에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나 토르토나이의 변천사>

조나 토르토나이의 역사는 도심과 근접한 공업지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까지 밀라노시 외곽에 위치한 농업 지역으로, 수로를 중심으로 정리된 논, 물길, 담, 전원주택들이 이 지역을 특징짓던 풍경들이었다. 1865년 시작된 철로공사에서 시작된 도시화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수로를 이용한 산업 시설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그 후 짧은 시간 안에 조나 토르토나는 Ansaldo, Bisleri, Riva Calzoni, Richard Ginori, General Electric, Osram, Nestle'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고, 이와 더불어 중소 규모의 수공업 공장들도 자리 잡아 감에 따라 공업 지역으로서 자리 잡아 갔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전성기를 지나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산업 구조의 변화, 에너지 위기 등은 이 지역 산업 구조의 이전, 해체를 불러왔고, 이에 따라 거대한 공장들, 안뜰, 부대 시설물 등이 남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1980년대 말에 들어서 유희지로 남아있게 된다.



### <주요 공업시설물 변천사>

예술가들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면서 도심에서 멀지않은 장소를 필요로 한다. 1980년대에 전성기에 들어선 밀라노 패션계에 관련된 예술가들은 그 수도 많았고, 경제적 능력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3년 두 사진작가 플라비오 루키니(Flavio Lucchini)와 파브리시오 페리(Fabrizio Ferri)는 조나 토르토나의 한 공장에 그들의 사진 작업실(Superstudio)을 열게 된다. 이들의 시작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적 가능성을 보게 된 예술가들은 그 후 사용되지 않는 공장들을 빠르게 변화시켜 갔다. 조나 토르토나에 들어온 예술가들은 비단 제냐(Zegna), 에스피더블유 컴퍼니(SPW Company), 에스프리(Esprit), 겐조(Kenzo), 토즈(TOD'S), 페이(Fay) 등의 패션업계 뿐만이 아니다. 초기부터 패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사진작업실, 전시장, 마케팅관련 업체, 화물수송업체에서부터,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 테아트로 아르마니(Teatro Armani), 아르날도 포모도로 재단(Fondazione Arnaldo Pomodoro)와 같은 연구, 교육에 관련된 시설까지, 지역 전체가 강하고 디자인 중심으로 일관된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 조나 토르토나, 디자인 지역이라는 독특한 지역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게 되었다. 예술가들과 이들을 보조하는 각종 산업체들은 그 안에서 정보 교환, 공동 작업의 편리,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긴밀히 작업한다. 이렇게 조나 토르토나의 아이덴티티는 지역의 디자인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시에 그 산업구조는 지역 아이덴티티로 인해 모이는 자원들, 교류되는 정보들로 인해 더 강화된다.



<디자인 관련 산업의 지역 분포도>

조나 토르토나가 디자인 지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즉 디자인이라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 하면서 보인 도시적인 현상은 지역 환경과 경제의 발전이다. 여느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조나 토르토나에도 거대한 건물들과 거칠게 놓인 도로들이 있다. 다른 공업 지역들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각각의 공장들 내부가 어떻게 재해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지역 또한 준공업 지역으로 신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재건축 작업이 기존의 구조체를 보존하는 내부공사로 이루어졌다. 물론 보존의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테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 ‘문화역사의 인식’, ‘문화역사의 재해석’, 또 그에 따른 경제적 부가치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싶다.

이 지역의 초기 형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역 고유의 건축형태, 도시 형태는 들어오는 디자인 관련 예술가, 업체의 분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이들은 기존의 공간의 형태에서 자신들의 작업과의 공통점을 찾았고, 이는 곧 공간의 유지, 보존 그리고 창조적인 재해석으로 이어졌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대세를 이루는, 다시 말해 지역 사회의 공감대에 근거한 기존 건축형태, 도시형태의 보존과 그 재해석의 모델은 차후에 시작된 작업들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지역 공동체인 조나 토르토나는 이 지역을 디자인 지역으로서 브랜드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내용, 형식, 형태를 이야기한다. 조나 토르토나이라는 지역 브랜드 안에서 디자인, 창작이라는 내용, 푸오리 살로네나 밀라노 패션주간이

라는 형식, 지역의 도시, 건축 보존 및 재해석이라는 형태는 하나로 통한다. 디자인은 푸오리 살로네, 밀라노 패션주간으로 표현되고, 또 지역 고유 건축형태의 적극 활용, 재해석으로 표현되며, 공간의 고부가가치로 환원된다. 예전의 버려진 산업 잔해는 더 이상 폐물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문화 산업체제에 맞게 창조적으로 작업된 자원이 된다. 이렇듯 일관되게 작업되는 지역의 도시환경이 향상되고 지역 사회 안에서 재조명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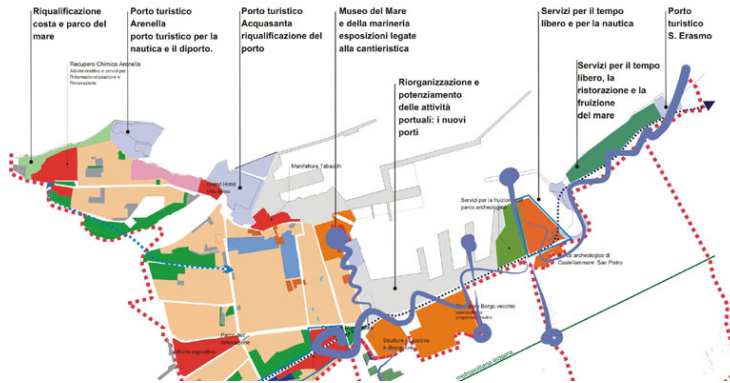
약간은 거친 거리의 안쪽에서 발견되는 공간들, 이 또한 조나 토르토나의 고유한 분위기이고, 조나 토르토나이라는 지역 브랜드의 분위기기도 하다. 유희 시설 지역의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고유성을 현대의 용도에 맞추어 보존, 재해석하는 것, 즉 문화와 지역성이 같이 가는 발전 모델의 성립, 그에 의해 단순 개발로 얻을 수 있는 면적 확대를 보상하고도 남는 공간의 부가가치를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디자인 지역로서 얻는 막대한 경제 효과, 시너지 효과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 ● 도시단위

도시 단위의 문화 창작 공간은 보통 프로그램이나 각 공간들의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주된 형성 방식으로는 인프라 자체가 문화 창작 공간이 되는 형태, 각 개별 문화 창작 거점의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에 분포하는 형태, 그리고 도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 창작 공간화 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창작 공간이 도시 단위에서 네트워크로 작용한다는 뜻은, 각 공간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급 자족해야하는 떨어진 집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들의 전체가 도시에 위치하는 하나의 집으로 인식되고 그 안에서 각 공간은 방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 도시라는 구조 안에서 각 문화 공간들은 서로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공유, 보충하며, 그로 인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의 문화 공간의 기저를 형성하고 키워가게 된다.



<팔레르모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주된 사업지인 항만, 해안 공업 유희 지역>



<항만, 해안지역 재생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앞 장에 언급한 CIED의 대상 도시들도, 다양한 공간을 통일된 문화 프로그램에 맞추어 도시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해 나간다는 점에서 도시 단위의 문화 창작 공간의 예라고 하겠다. CIED의 일환으로 작업된 이탈리아의 팔레르모 (Palermo)시의 경우, 도시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10개의 대규모 지역, 20여개의 중규모 지역, 그리고 30여개의 소규모 지역의 산업 시설 유휴지를 대상으로 팔레르모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을 주제-통일된 프로그램-로 하여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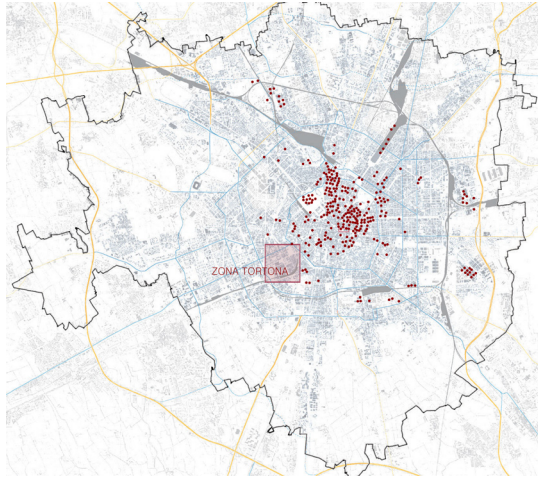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세부 목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한 시민 의식 고취,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경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사업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문화 박물관, 문화 체험장, 도서관, 교육 시설, 항만 재정비, 상업 시설 등으로, 모두 전체 도시를 상대로 세워진 다양하고 일관된 문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문화’라는 요소가 도시 유휴 시설의 재정비와 도시 재생과 발전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 도시의 공간 및 프로그램 네트워크로 구축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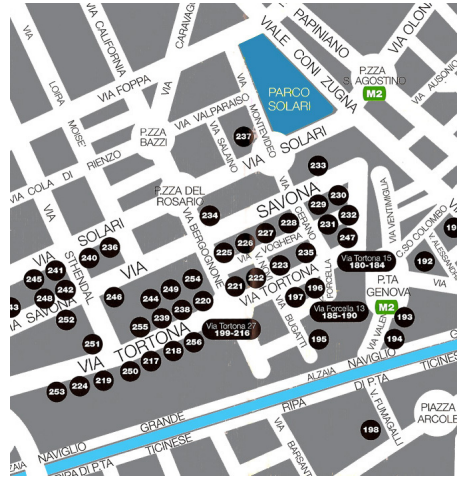
<전 키미카 아르넬라 Ex Chimica Arnella - 산업시설 유휴지>

■ 푸오리 살로네(Fuori Salone, 밀라노, 이탈리아 63)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매년 가구 박람회와 함께 벌어지는 박람회장 밖의 다양한 문화 관련 행사를 일컫는 푸오리 살로네 경우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자체가 문화 창작 공간화 되는 형태이다. 문화 창작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변화하지만, 문화 행위와 도시와의 관계, 지역민과의 관계는 유지된다. 이 사례를 통해 문화 공간 사업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의 보조에 못지않게 문화 공간 사업의 개념, 내용의 정립이 중요하며, 이것이 지역민과의 교류, 도시 환경의 향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푸오리 살로네 관련 행사장 분포도>



<조나 토르토나에 집중분포된문화 창작 관련 행사장>

푸오리 살로네라는 이름은 1990년대 초 인테르니(Interni)라는 디자인 관련 잡지사가,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가구 박람회장 외의 문화 관련 행사들의 가이드를 만들고 그 이름을 푸오리 살로네라고 붙이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가구박람회의 부속 프로그램의 위치를 훨씬 넘어서, 전 도시에 걸쳐 펼쳐지고 독창성과 도발이 추가 되는 밀라노시의 진정한 축제로 발전되었다.

푸오리 살로네, 즉 박람회장외의 전시형태는 기존 박람회장내의 전시에 따르는 전형적인 형식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전시자들에게 틀에 짜이고 엄청난 임대료의 박람회장이 아닌 푸오리 살로네라는 대안은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형식으로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 이들의 새로운 시도는 ‘가구’가 통상적인 ‘상품’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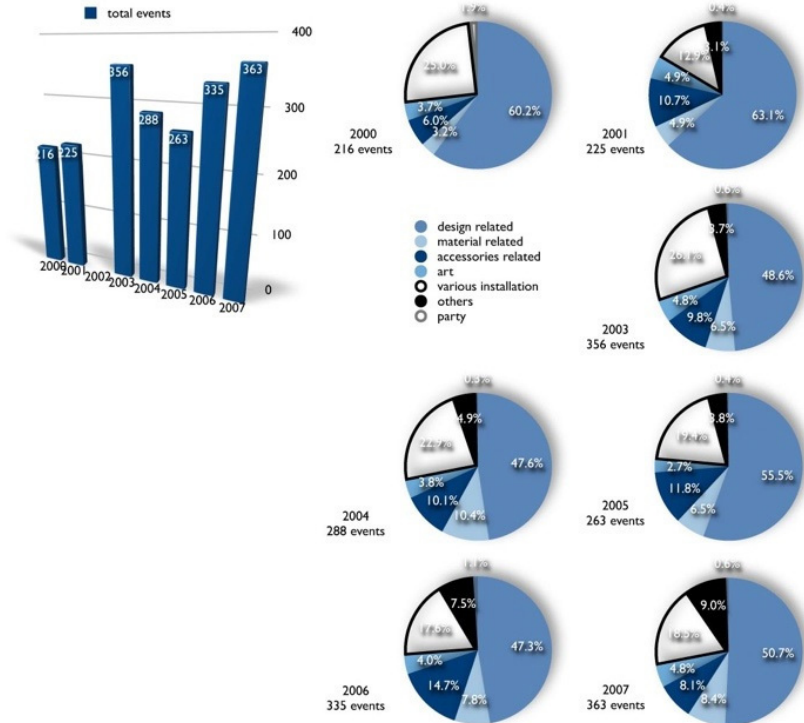
63) 밀라노 가구 박람회의 공식 명칭은 살로네 델 모빌레(II Salone del Mobile)이다. 푸오리 살로네는 ‘박람회장 밖에서(outside of salone)’라고 해석되고 말 그대로 정식 박람회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을 일컫는다.

념을 받고 ‘디자인’ 혹은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시작한 회사는 드리아데(Driade), 카펠리니(Cappellini), 데파도바(de Padova) 등의 3사이다. 그 후 1990년대 초 부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직업들을 전 도시의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나 토르토나는 푸오리 살로네의 메카와 같은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아이덴티티에 푸오리 살로네를 적극 수용, 이용함으로써 조나 토르토나 = 디자인 = 푸오리 살로네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지역전체를 프로그램화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매년 푸오리 살로네는 커지고, 강해지고 다양해진다. 이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미술, 음악, 행위 예술 등 모두 섞인 직업들이 구성되어지고 보여지고 체험된다. 이는 푸오리 살로네의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파악한 다른 분야들의 참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혼합의 형태가 전체 푸오리 살로네 행위자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어날 수 있었다. 푸오리 살로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또, 매년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계속 늘고 있고, 전 도시에 걸쳐 활력과 역동적인 움직임, 디자인이라는 문화의 향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푸오리 살로네의 경우 문화 행위의 장소 선택, 표현 방법, 참여, 교류가 모두 자발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것은 푸오리 살로네라는 기회 - 프로그램,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창조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그 행위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전체의 틀이다. 푸오리 살로네는 디자이너들의 경험이나 영역 확대 뿐 아니라 참여하는 밀라노 시민, 더 나아가 밀라노 방문자의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디자인의 생활화, 달리 말한다면 문화의 생활화가 그 하나의 결과이고, 창작, 공연, 전시, 기획, 마케팅, 출판 등 푸오리 살로네 관련 산업의 발전, 또 그 기간 보이는 도시 환경의 향상이 또 다른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푸오리 살로네의 사례는 문화 산업 육성, 그에 따른 도시 환경과 경제의 발전이 꼭 물질적인 보조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보다는 문화 산업에서 적절히 수립된 프로그램과 틀이 갖는 역할, 또 프로그램이 도시 네트워크와 지역민과 연결되었을 때의 잠재력이 무엇 인지를 시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 서울의 창작공간조성의 전략

아트팩토리 사업은 개별 사업지를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유희공간의 특이성과 도시맥락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성격과 역할, 지역성의 합을 총체적으로 자원화 하여 네트워크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아트팩토리는 '아트팩토리'라는 전체 시스템아래, 각 사업지가 가지는 지리적인 한계, 규모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때로는 기반 지역에 특수한 사업을 펼치며 때로는 도시적인 임팩트를 도모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트팩토리 사업은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서울의 공공 프로젝트이다. 개별사업지의 입지적 특성, 주변의 문화예술생태의 맥락에 따라 지역과의 교류와 성장가능성을 모색을 위해 ‘문화 창작’을 매개로 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아트팩토리는 전문 창작 행위자에게만이 아니라 비전문 창작의 주체인 지역민, 그들의 문화권, 문화 영역에도 열려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에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또 지역을 받아들이는 창작의 기반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아트팩토리 사업을 서울의 문화 생태계, 도시 재생, 지역 사회 발전과 연결 지어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사업 규모의 확대, 양적인 확대가 유일한 성과의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규모의 크고 작음 보다는 유기적으로 기존하는 생태계와 결합하여, 창작의 주체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생산하며 소통의 범위를 확대,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는 가치성장의 지속가능한 과정을 확립하는 데서 그 도시적인 의미와 성과를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지 별로 그 성과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1 아트팩토리 도시적 위상 정의의 두 가지 맥락

### - 유희공간의 도시공간맥락과 문화예술생태적 맥락

서울의 이 두 가지 지도는 아트팩토리가 생기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서울시 유희공간의 범주는 생산기능의 이전에 따른 이용밀도가 떨어진 공장 등 산업시설, 시설낙후로 이용도 저하된 지하도 등 시설물, 구도심의 재래시장, 교통체계변화에 따른 폐기된 교통시설 등등이다. 이중 특징적인 도시맥락을 형성하는 유희공간들은 아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공간자원화에 있어 그 유형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유희공간의 자원화, 재생과 재활용의 메시지는 아트팩토리 사업이 창작주체, 시민과 소통할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한편, 문화예술생태적 맥락은 개별사업지의 입지에 따른 성격의 설정에 있어 중복되는 기능을 피하고, 자생적으로 활성화된 문화예술생태계가 근접하면 이를 지원하여 그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비활성인 지역이라면 아트팩토리를 통하여 새로운 물적, 제도적 창작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창작환경의 활성화 기제를 만드는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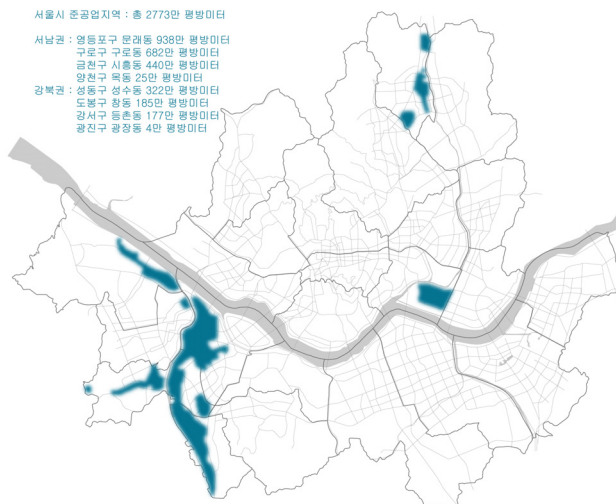
### ● 유희 공간의 도시공간맥락

서울도 세계의 다른 주요 도시들처럼 생성단계를 거쳐 이미 재생 단계에 닿아 있는 도시이다. 6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도시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문화구조들이 변해 왔고, 수 없는 도시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또 아주 빠르게 이루어져 도시 공간의 변화와 균열, 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도시 구조면에서, 도시 행위면에서, 도시 정책면에서 역사적

인 자취와 새로운 틀이 공존하며 대립하고 있다. 도시 '발전'에 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경제 성장 위주에서 지속적인 (문화) 사회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그래서 도시의 개발과 함께 도시의 재생이 논의 되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 대부분 도시의 유휴공간<sup>64)</sup>으로 분리되어 온 서울의 산업유산, 전이 공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은 앞으로 서울이 도시의 재생을 위해 작업해 나가야 할 대상을 드러내는 일이다. 드러난 대상들은 도시 재생의 프로그램 안에서 보존, 재해석을 통해 거듭 나게 될 도시 자원으로 인식된다.

유휴 공간의 구분에 핵심적인 요소는 '현재성'이라고 할 것이다. 즉, 많은 도시 유휴 공간의 범주 중 서울의 유휴 공간, 혹은 산업유산으로 구분되는 공간은 '현재성'이 부족한 지역, 다시 말해서 도시 구조상 남겨진 지역, 또 그 중에서도 재해석의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 대표적인 반례로 동대문 시장이 있다. 재래시장의 범주에 속하지만 새로운 행태의 패션 지역으로 재구성된 동대문 지역을 유휴 공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공간의 '현재성'에 입각해 볼 때 동대문 시장의 대표적인 숙제는 현재 형성되어있는 지역 아이덴티티의 강화라고 보이고, 이는 유휴공간의 재해석이라는 과제를 이미 넘어서 존재하고 있다.

### ■ 준공업지역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2773만㎡ 규모로 영등포구, 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에 약 2060만㎡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근대화 초기부터 형성되어온 도시 산업의 역사적 증거, 유산으로 서울의 산업이 1차, 2차에서 3차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났다. 또

6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시유휴공간의 범주로는 이농과 인구 감소, 행정기관의 이전, 행정지역의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도심공업시설의 이전,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교통시설의 폐기, 대규모 단지 및 군사 시설의 이전, 도심 사회기반시설의 이전, 구도심 공동화, 시설 낙후, 이용도 저하 등으로 인한 빈 공간들이다.

이들은 한때 서울 외곽이었으나 서울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도심화 되어 간 이유로 도시 공업의 유출이 가속화 된 지역이기도 하다. 영등포구 문래동 938만㎡, 구로구 구로동 682만㎡, 금천구 시흥동 440만㎡, 양천구 목동 25만㎡, 성동구 성수동 322만㎡, 도봉구 창동 185만㎡, 강서구 등촌동 177만㎡, 광진구 광장동 4만㎡ 등에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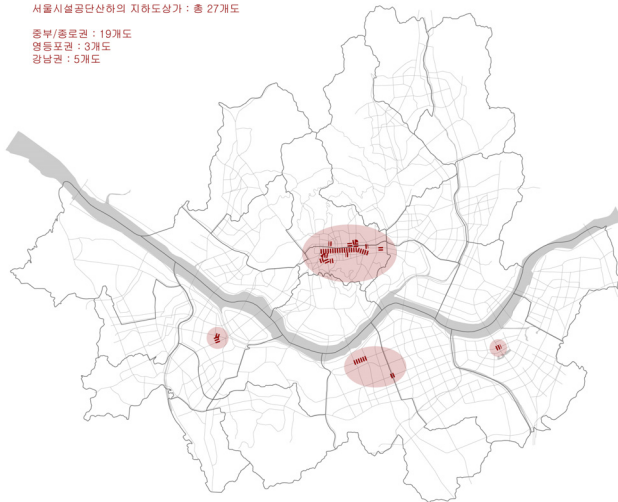
문래 예술 공단 지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준공업 지역의 대부분은 비슷한 건축적, 도시적 공간들이 근접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물리적 상황에 맞는 있어서 새로운 도시 산업이 유입될 경우 지역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의 사례 중 조나 토르토나에 그 예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낙후 지역, 도시의 흉물로 여겨지는 이 지역들이 서울의 도시 산업 역사의 증거로서 획일적인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직업들은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일일 것이고, 그것에 연결되어 지역 도시, 건축 재해석의 모델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작업들의 중심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지역 문화 생태계와 연결되어, 더 나아가서는 서울 문화 생태계와 연결되어 재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 ■ 지하상가

서울시설공단산하의 지하도상가 : 총 27개도

중부/중로권 : 19개도  
 영등포권 : 3개도  
 강남권 : 5개도



서울 시설 관리공단 산하 총 27개 지하상가가 중부/종로권역 19개소, 영등포권역 3개소, 강남권역 5개소에 분포되어 있다. 지하상가는 현재 각 상가의 고유 업종 형성, 환경 향상 등을 통한 상권 발전 쪽으로 접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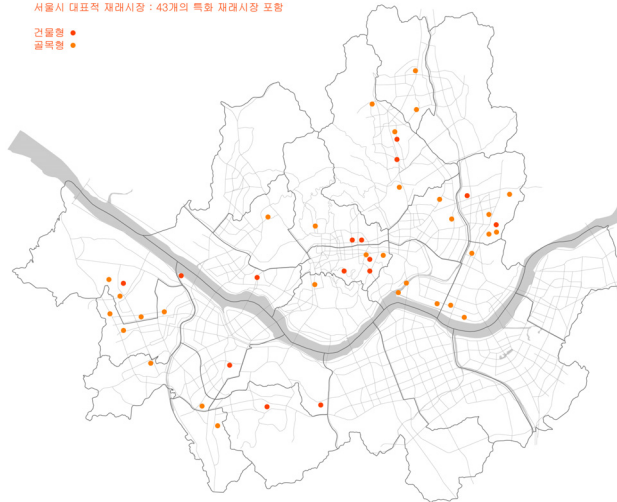
도시의 네트워크 면으로 보면, 지하상가는 주변의 지하철, 지하도 등과 연결되어 있는 전 도시의 인프라 망에 속해 있다는 점,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진 가용 면적이 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 산업, 문화 공간 등의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 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 그 영향력이 전 도시의 인프라를 타고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지하상가가 갖는 무한한 도시 공간적 가능성이라고 하겠다.



■ 재래시장 65)

서울시 대표적 재래시장 : 43개의 특화 재래시장 포함

- 간동명 ●
- 골목명 ●



6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문제점과 성과향상 방안' 참조

서울시에는 312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 중 112개가 무등록시장이다. 200개의 등록된 재래시장 중 30년 이상 된 시장이 44개, 20년 이상 된 시장이 116개, 10년 이상 된 시장이 40개이고, 형태면으로 보면 건물형이 177개, 골목형 73개, 혼합형이 62개이다. 서울시 재래시장의 51%인 160개 시장이 20년 이상된 것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고객편의 시설이 부족하며 쇼핑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이와 더불어 1996년 유통시장개방 후 대형할인점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과 같은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와 대형냉장고 보급 등에 의한 대량일괄구매와 같은 소비행태의 변화는 재래시장의 고객감소, 특히 젊은 층의 이용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들 재래시장 중에는 43개의 특화시장이 있다.<sup>66)</sup> 재래시장의 일반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특화된 시장의 경우 동종 산업의 집적, 노하우집적 자체가 문화코드로 발전가능하고, 또는 유사업종의 문화산업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대문 시장이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 동대문 운동장터의 디자인 콤플렉스는 동대문 시장이 가진 문화코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 통폐합에 따른 폐교 및 관공서 / 철도 및 군사시설 등

용산 마군 기지의 이전으로 생기는 공유지, 행정 수도 이전으로 생기는 관공서 건물들, 행정동/법정동 관리 중 생긴 동사무소였던 홍대 지역 복합 예술 문화 공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역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걸어 온 역사의 증거물들로서 사실상 도심에 남는 유일한 공공사업용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로의 환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의 문화 및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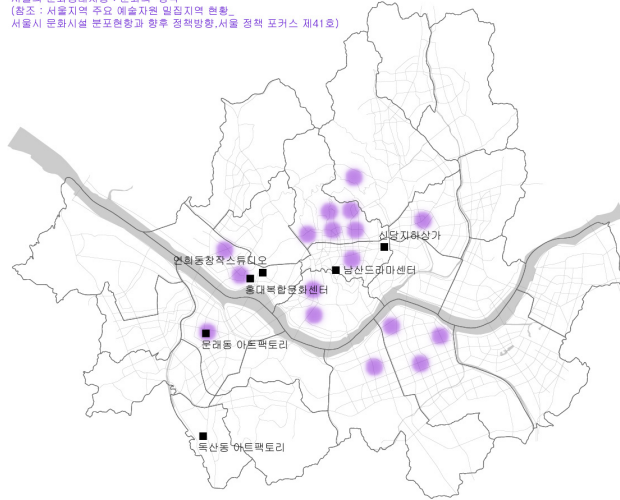
- 66)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송화골목시장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방산중앙재래시장  
 ◇금천구 ▲남문시장  
 ◇양천구 ▲목3동골목시장 ▲목4동골목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2동골목시장  
 ◇강북구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 ▲창동골목시장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종로구 ▲종각지하시장 ▲통인시장  
 ◇중구 ▲서울중앙시장 ▲삼익패션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뚝도시장 ▲도선동상점시장 ▲용답동상점시장 ▲중곡제일시장 ▲노론산골목시장 ▲자양골목시장  
 ◇중랑구 ▲우림시장 ▲동부골목시장 ▲동원골목시장  
 ◇영등포구 ▲영신시장 ▲영등포재래시장 ▲영등포제일시장 ▲남서울시장,  
 ◇관악구 ▲신림1동시장 ▲봉천11동시장 ▲신림4동시장 ▲신림8동시장 ▲신림본동시장  
 ◇송파구 ▲방이시장

거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으로 재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67) 서울의 문화예술생태적 맥락 67)

서울의 문화생태지형 : 문화의 '창작'  
 (참조 : 서울지역 주요 예술자원 밀집지역 현황,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서울 정책포커스 제41호)



<주요예술자원 밀집지역 현황>

서울의 문화생태지형도 : 문화의 '채류'  
 기존 채류관련 프로그램 시행지



<창작레지던시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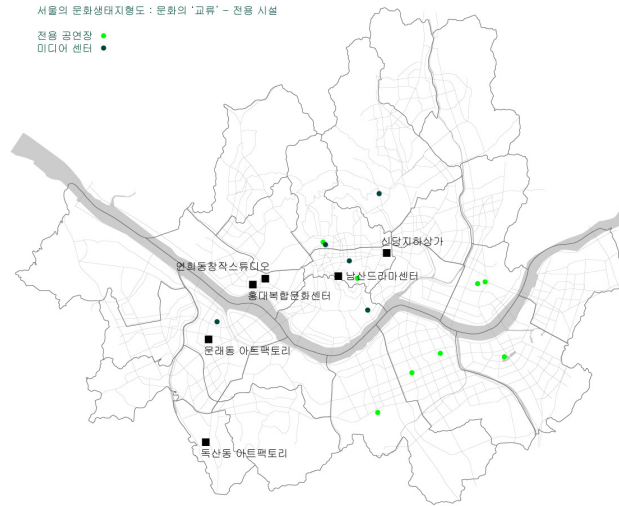
67) 서울정책포커스2007,9,3제41호,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지도참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참고

서울의 문화예술생태적인 지형, 즉 문화예술의 자원이 집적되어 창작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 체류까지를 포함하는 전문 창작 공간 지원시설의 분포, 다목적의 혹은 전문화된 발표와 향유 등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인프라의 분포와 아트팩토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각 사업지의 지역 문화 생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자, 그에 따라 서울의 문화예술생태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유기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아트팩토리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틀이다. 위의 두 지도는 서울의 문화예술자원의 집적지, 전문 창작 레지던시의 분포와 조성 중인 6개의 아트팩토리의 입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아트팩토리들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그 분포가 집적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고립된 도시 내의 점으로 보태지기 보다는, 1차적으로 근접한 전문예술자원 및 문화시설의 집적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근접한 생태계가 없는 문화예술비활성 지역의 경우 아트팩토리를 통하여 새로운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트팩토리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를 유도해서 창작환경의 활성화 기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 관련되어서는 인근의 문화 시설, 학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잠재적인 창작주체와 시민문화의 형성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의 문화생태지형도 : 문화의 '교류' - 일반시설  
 구민회관 / 문화회관 ●



**<구민회관/문화회관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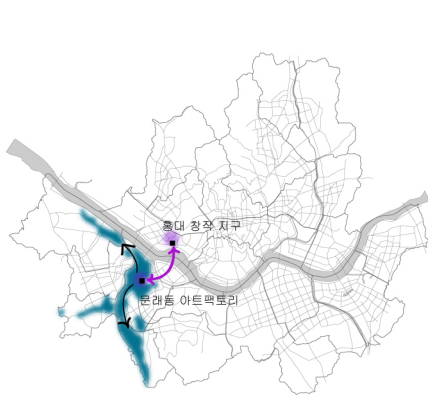
### <전용공연장/미디어센터 분포현황>

서울의 문화 예술 생태의 창작 주체는 전문예술인 뿐만이 아니라 창작의 의지를 가진 아마추어 예술인으로서의 일반 시민까지를 포함한다. 여러 서울의 문화 정책 중, 창작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아트팩토리 사업은 전문예술인에게는 전문예술의 창작을 지원하여 활성화한다는 의미이자, 다른 한편으로 일반 시민에게 지역 기반의 예술을 접하고 창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반시설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위의 두 지도는 두 가지 다른 위상의 시민이 접근가능한 문화예술기반시설의 분포를 보여준다. 상단의 지도에서 보듯 발표의 장이자, 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한 일반적인 문화 교류시설-구민회관, 문화회관은 서울시 전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하단의 전용 교류시설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고, 접근성도 떨어짐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기반시설로서 전용 교류의 시설은 보다 전문적인 시설, 설비가 갖추어진 공간들, 또는 특정 장르 전용발표공간들로서 드라마 센터, 전용 공연장, 전용 극장 등을 들 수 있다. 아트팩토리가 그 사용자로 전문 창작 주체와 일반 창작 주체인 시민을 모두 아우르게 되며, 또한 창작의 장이자, 발표의 장으로서 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라고 할 때, 프로그램뿐 아니라 그 물리적 위치상 두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중간 매개 단위로 위상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아트팩토리가 기존의 두 기반시설의 간극을 줄여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와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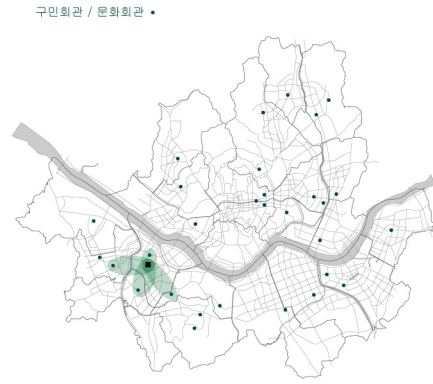
## 2 사업예정지별 지역공간분석

앞서 거론된 논제들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트팩토리의 지역적 특성, 도시 네트워크상의 위치와 역할을 들여다보고, 아트팩토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창작 기반 조성과 도시 재생-를 이루기 위해 각 사업지가 어떠한 지역관계, 도시 관계를 필요로 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 아트팩토리 - 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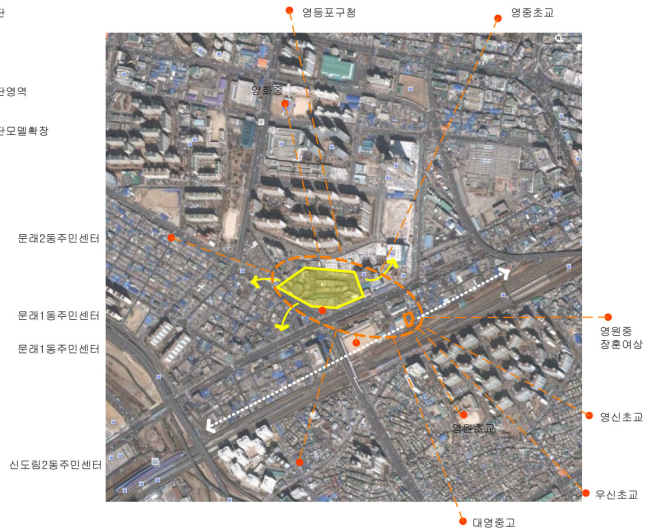


<주변 준공업 지역의 창작거점으로로서의 문래 아트팩토리>



<지역 문화, 창작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문래 아트팩토리>

- 문래 예술공동단
- 사업지
- 문래 예술공동단영역
- 문래 예술공동단모범확장



<문래 아트팩토리와 지역사회간의 문화협동체>

문래 예술 공단 지역은 예술창작, 교류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미술창작, 체류의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변 지역의 대부분은 준공업지로, 유흥산업지역에서 다른 용도로의 전이가 진행 중이며 주변의 사회적, 공간적 맥락이 불확정적이고 지역 사회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아트팩토리가 문래 지역에서 갖는 도시적인 의미는 2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트팩토리가 기존 예술 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문래를 서울 창작공간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래 예술 공단과 지역 사회와의 공생,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작업을 통하여 문래 예술 공단을 지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래를 서울 창작공간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트팩토리의 운영 프로그램과의 더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한편, 문래 예술 공단의 지속,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향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하나는 공단의 예술인들에 의한 작업, 다른 하나는 그와 병행되는 도시 작업이라고 하겠다. 예술인들에 의한 작업은 이미 일부 분 진행 중으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교육(Educ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조합어인 에듀테인먼트는 지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의 하나로 항상 대두되는 자녀 교육의 문제를 예술과 관련된 취미 활동 내지는 예술 교육과 연관시킨 개념으로,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들과의 간극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모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병행하여 도시 작업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도시 환경 정리 작업,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고유 건축의 모델 - Cultural Industrial Complex Prototype - 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다. 도시 환경 정리의 경우 아주 표면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가 갖는 거부감이 공단 지역의 지저분함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지역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특히 문래 예술 공단 입구에 위치한 모투리 식당 벽화, 로봇 설치물에 대한 지역 사회의 호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 환경 정리 작업은 또, 공단 예술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의 일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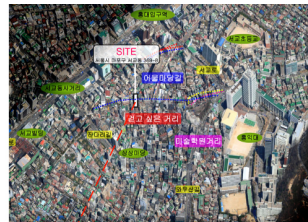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고유 건축의 모델을 찾는 작업은 도시 건축 생태계의 순환, 산업 유산의 재생 및 재해석, 지역의 산업 모델 확립 등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보인다. 기존에 나타나고 있는 철공소와 예술 창작의 공간적 공유를 바탕으로, 이를 거부하기보다 재해석의 시작점으로, 또 공간의 고부가가치 형성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찾아지는 모델은 문래뿐 아니라 다른 준공업지역, 유흥공간의 재생적 활용의 예로도 의미가 있다. 조나 토르토나에서 나타난 지역의 도시, 건축적 상황의 보존과 그에 따라 형성된 지역 공간의 아이덴티티, 경제적 환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홍대 지역에는 예술, 공연 관련 기존의 활성화된 지역 공동체가 존재한다. 61개의 음악관련 업체와 200여개의 클럽, 카페, 30여개의 영상 관련 업체와 14여개의 화랑 등 문화의 창작이 문화의 교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문화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 상황 안에서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이 가질 수 있는 도시적인 기능은 무엇보다도 산재해 있는 지역 공동체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됨으로써 문화 복합체로서의 지역 아이덴티티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창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홍대 지역의 네트워크와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창구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음악관련 61개소  
영상관련 31개소  
화랑 14개소  
연극관련 2개소  
무용관련 10개소  
클럽/카페 약200개소  
문화관련협회 1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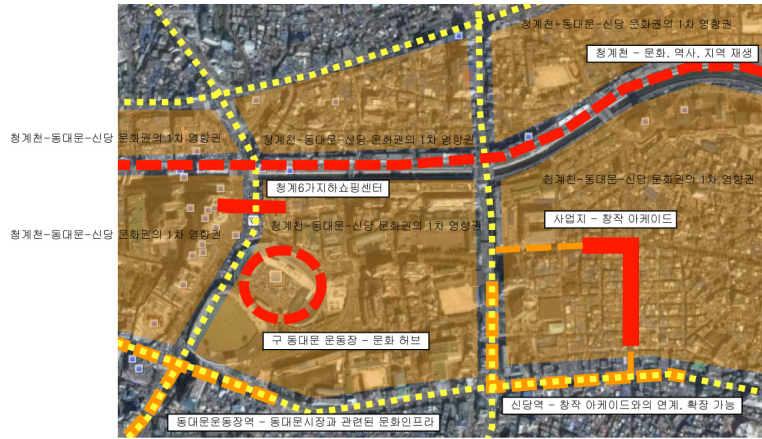
<홍대문화지구의 주요 거점들과 그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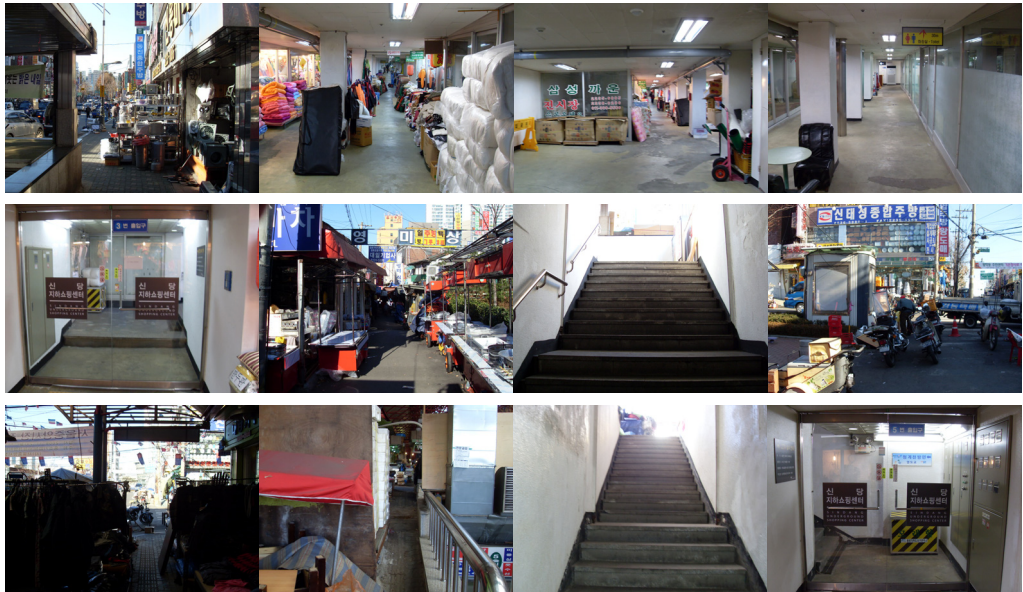
■아트팩토리 - 신당

신당동 지하상가는 서울 시설 공단이 관리하는 27개의 지하상가 중 하나로, 도심의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들로 이루어진 종로, 중구권 지하공간의 네트워크상에 위치한다. 공간의 성격상, 길, 연결, 네트워크의 성향이 강하고,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 또한 사용 공간에서 비롯된 '머뭇'과 함께 '통행'이 주로 이루어진다. 즉, 공간 자체가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폐쇄되고 내향적인 독립된 공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서울 전체 인프라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도시 네트워크 안에서 위치함을 이해하고, 신당 창작 아케이드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 창작의 전달, 확장, 또 기존 인프라 네트워크의 공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은 동대문-신당-청계천을 이루는 문화권의 창작 거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동대문 패션 지역, 구 동대문 운동장 터에 진행되는 문화 허브, 청계천 복구공사 후 형성된 도심 휴양 공간,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특화 지역 등 이미 주변에 문화 창작권이 주변의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들 인프라위에 얽혀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기존의 동대문-청계천 문화권은 문화의 교류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보다 폭넓은 문화 창작의 작업을 더하고, 모든 요소들이 기존의 인프라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 도심안의 독립적인 문화권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문화권이 위치한 지역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주변 인프라의 문화권화 : 청계천-동대문-신당 문화권>



■ 연희동 창작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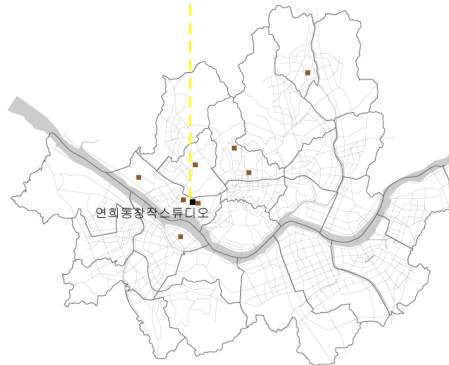


> 사업지

지역사회로부터 독립된  
창작스튜디오와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문화시설 병행



> 창작의 '체류' 네트워크 안의 연희 창작스튜디오



<연희창작스튜디오의 지역단위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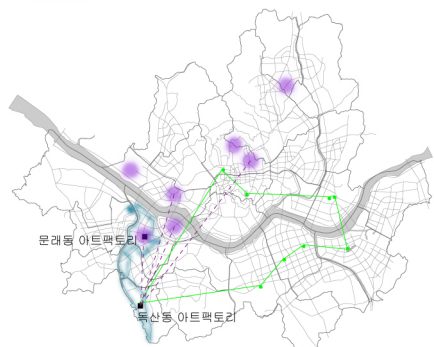
단일 건축물로서 주변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주변 활성화의 어려움을 가진 대표적 주변 비활성의 경우이다. 문학 장르에 특화된 집중 창작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되, 개별적 완결보다는 전체 도시의 유사 프로그램, 아트팩토리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통해 자체가 갖는 프로그램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장르 복합의 교류를 기획할 수 있다.

총 5개 동의 건물 중 외부에 위치한 1동을 지역 사회와의 교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시 네트워크상 뿐 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문화 영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 금천 아트팩토리

주요 창작 거점 ●  
전용 공연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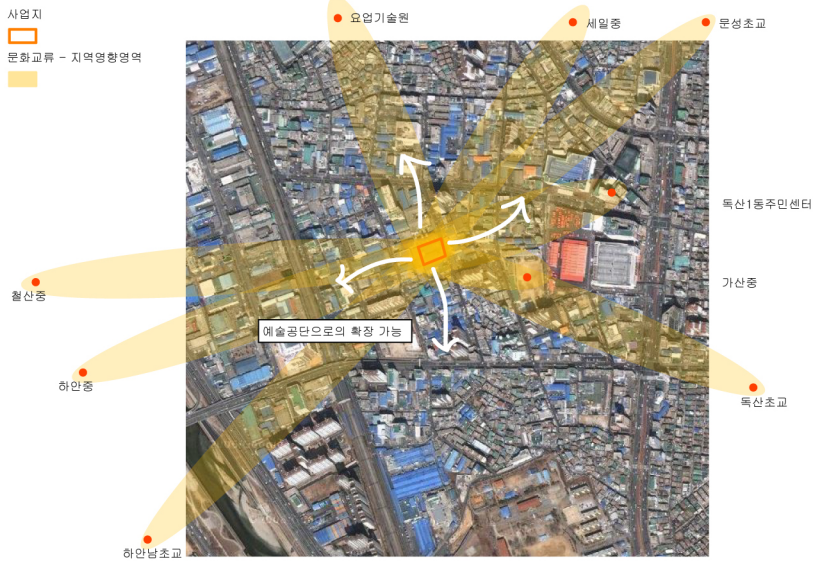
<주요 창작거점, 전문 교류 네트워크상의 금천 아트팩토리>

주민회관 / 문화회관 ●



<지역 문화, 창작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금천 아트팩토리>

주변은 근생 건물과 주거의 복합된 용도 지역으로 지역 자체가 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지역(문래)과 근접하다는 점, 조나 토르토나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기존 건축적, 도시적 조건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이 주변 활성화로의 진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는 주변 지역을 문화의 체류와 교류 중심의 구역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우선 도시 전체의 아트팩토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설의 특화를 통해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또, 주변 지역이 문화적으로 비활성 지역인 점을 감안, 지역사회의 창작,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로의 소통과 문화 확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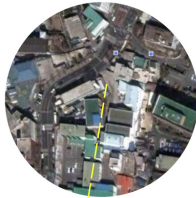
<금천 아트팩토리-지역문화공동체의 교류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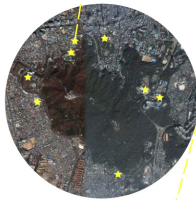
## ■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 남산드라마센터



> 남산 문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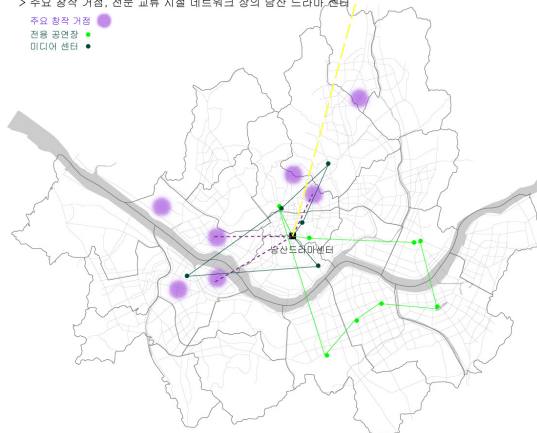
남산드라마센터  
동명예술센터대극장  
남산음악당 / 도서관  
독일문화원



남산한옥마을  
극원극장  
자유화관/자동차극장  
표회랑

> 주요 창작거점, 전문 교류 시설 네트워크 상의 남산 드라마센터

주요 창작 거점 ●  
전문 공연장 ●  
미디어 센터 ●



<주요 창작거점, 전문 교류시설 네트워크 상의 남산동랑예술센터창작공간>

단일 건축물로서 기존 도시상의 전문 시설 교류, 창작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남산동량예술센터 창작공간에 유치되는 고급 사양의 시설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 기존의 네트워크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하는 방향으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남산은 주위에 남산동량예술센터창작공간 순환 도로주변에 분포하는 남산 문화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단위의 남산 문화군 안에서도, 전체 도시의 네트워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문화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남산 문화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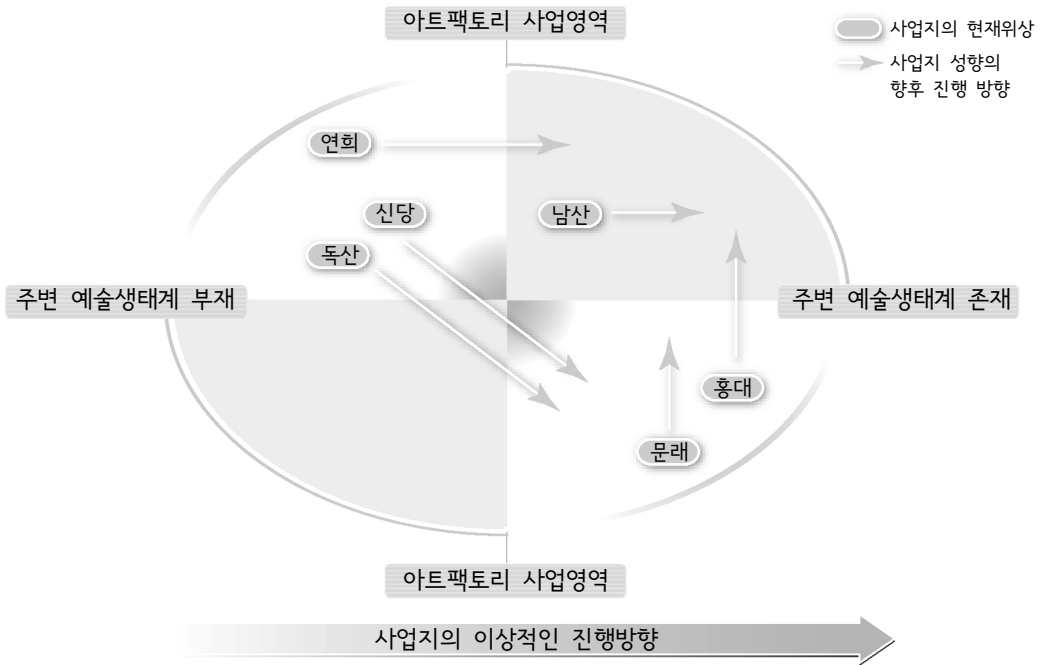
### 3 서울의 창작공간조성 시나리오

- 다양한 위계의 창작인프라거점과 그들이 엮는 문화예술네트워크

아트팩토리를 단힌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주체에게 열린 '도시 인프라'이자, 이를 통해 다층의 문화예술자원들을 연결해내는 네트워크의 거점이라고 본다면, 아트팩토리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성화, 도시 환경의 재생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적 작용이 가능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크게 3가지의 세부적 작용에 의해 얻어진다. 첫 번째는 기존 조성되어있는 문화 창작 지역을 보조하거나 그 성격을 강화하는 작용으로 아트팩토리-문래,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 남산동량예술센터창작공간의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존 조성되어있는 문화 창작 지역과의 연계, 상호 관계로부터 문화 영역의 확장과 전이를 유도하는 작용이다. 아트팩토리-독산의 경우 아트팩토리-문래로부터의 확장, 전이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다시 아트팩토리-독산 자체가 독자적으로 주변의 문화 창작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팩토리-신당은 그 문화 창작 행위가 도시 단위의 네트워크-다른 지역의 지하상가, 청계천등, 를 따라 문화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이 주는 세 번째 효과는 아트팩토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위계의 도시 문화예술자원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트팩토리-신당은 길의 연장으로서 근접한 문화권과, 아트팩토리-연희와 아트팩토리-문래는 레지던시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아트팩토리-문래와 홍대지역복합문화예술공간은 근접한 문화예술생태계의 창작주체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국내외의 더 넓은 창작 및 교류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아트팩토리-독산, 아트팩토리-문래 등은 근접한 구민회관, 문화회관, 학교 등의 공공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창작교육과 발표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트팩토리'의 조성전략은, 지역안의 관계에 기반을 두기도, 도시안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기도 하며, 외부의 자원들과 유연하게 연계가능한 창작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거점을 형성하는데 있다. 아트팩토리 전체의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추구하되, 유희공간을 자원화하는 상징성과 부합하는 예술-도시-삶 사이의 소통의 예술, 재생의 예술

을 지향한다. 이 방향은 각 사업지가 도시 안에서 갖는 다양한 기존의 기반 위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아트팩토리는 일률적인 운영의 방식을 갖기보다, 하나의 방향을 추구하는 다양한 운영해법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은 무엇보다도 전체 아트팩토리의 사업을 각각 동떨어진 점이 아닌 하나의 방향성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 각 창작 거점의 물리적 한계를 네트워크의 전체 내용으로 보완, 교류 할 수 있다는 점, 전체 도시의 문화창작생태계에 다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한 도시적,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조성되고 있는 여섯 아트팩토리가 각기 다른 입지조건에서 출발하여 네트워크에 기반한 교류를 통한 성장을 꾀하는 -연희와 남산, 기존 생태계의 내발적인 힘을 강화하여 도시네트워크 전체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문래, 홍대, 지역 창작주체발견과 적극적 연계를 도모하여 지역거점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독산, 신당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운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전체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동의 방향성을 갖고 지역에 기반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시각화 한 것이다.

**아트팩토리 사업영역**



**<아트팩토리 - 다양한 커, 위계의 창작공간과 그들 간의 네트워크>68)**

68) 위의 표는 아트팩토리가 도시의 다양한 위계를 가진 창작 공간 네트워크의 합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지들의 현재 위상을 표시해보고 그들의 분포를 이해하고 성장시나리오를 도식화 하기위해 작업되었다. 이 표는 또, 앞으로의 아트팩토리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단위에 고르게 분포되기 위한 지도이기도 하다.

### 3 | 창작기반시설로서의 공간기준 |

#### 1 사례조사 및 시사점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에 따른 다른 양상의 공간의 활용과 그 장소구축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세가지 사례는 규모와 그에 따르는 공간활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 ● 복합단지형 예술창작공간

위치		일본 가나자와	프랑스 파리
명칭		가나자와시민예술촌	Le 104
면적 (m2)		97,000	39,000 (연면적)
재건축 대지		방적공장	시립장례식장
공간 프로그램	창작	공방 (PIT1~5)	선정작가 아틀리에 아파트(작가레지던스) 귀리알가5번지 (아마추어예술가공간)
	창작지 원	가나자와 직능대학교	꼬마들의 집 (어린이교육공간) 문화기업양성소 (산학협력공간)
	교류 및 공용시설	공방 (발표장겸용, PIT2~5) 퍼포밍 스퀘어 사토야마의 집 (휴식공간) 렌카데이 (레스토랑)	전시장 다목적홀 (대여) 레스토랑, 상점, 카페

##### ● 네트워크형 예술창작공간

위치		일본 요코하마 (BankArt project)			
명칭		zaim (본관 및 별관)	BankArt1929 yokohama	BankArt studio nyk	steep slope studio
면적 (m2)		5,247	1,200	1,800	1,800
재건축 대지		1928 건축됨	1929년 은행건물	1953년 창고건물	-
공간 프로그램	창작	아티스트 레지던스 (임대)	-	아티스트 레지던스	공연예술을 위한 리허설 및 회의공간 아티스트 레지던스

위치		일본 요코하마 (BankArt project)			
공간 프로그램	창작 지원	문화예술기획조직 사무실	-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세미나, 교육, 컨퍼런스 등)
	교류 및 공용시설	다목적홀 (임대) 아카이브 홀	갤러리 홀	갤러리 홀 pub, 카페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창작주체의 설정을 직업예술가에 한정하지 않고 아마추어예술가,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폭넓고 전문적인 수준의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인프라라는 측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얼마전 문을 연 파리의 le 104는 24시간 개방된 전문 예술가의 창작공간과 시민의 어메니티공간, 예술교육, 예술 콘텐츠의 교류 및 향유, 기획사무공간 등등의 예술이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복합화된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근대화유산을 활용한 복수의 장소를 구축하는 네트워크형의 공간활용이라는 측면 등 여러면에서 아트팩토리와 유사한 사례로 요코하마의 creative city yokohama 의 마스터플랜 중 주요사업인 bank art 1929를 들 수 있다. 다만,뱅크아트 1929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근거리로 조성되는 반면 아트팩토리의 6개 개별 사업지는 서울의 곳곳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 ● 현재 조성 중인 아트팩토리 공간구성

명칭	독산동	문래동	홍대지역	신당동	연희동	남산
연면적 (m2)	3,041	2,820	551	5,057	1,766	2,909
재건축 대지	인쇄공장	제철소	서교동사무소	지하상가	시사편찬위원회	드라마센터
공간 프로그램	창작	체류형 창작스튜디오 공방형 공동작업장 공연연습장	-	작업실형 창작스튜디오 (갤러리형) 공동작업장	체류형 창작스튜디오 /문학분야	공연연습장
	창작지원	사무실	아티스트 호스텔 세미나실 사무실	프로젝트 기획공간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교육공간
	교류 및 공용시설	다목적홀 옥상정원	전시장 옥상정원	인포메이션홀 다목적홀 옥상정원	전시장	야외이벤트 공간 어린이도서관 (예정)

앞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나, le104의 사례는 개별사업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라기 보다 아트팩토리 전체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설정 및 구성에 참고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일본 혼슈(本州)의 중심부 동해에 맞닿은 인구 45만 명의 작은 도시 가나자와의 첫출발은 ‘문화의 보존’이다. 가나자와 시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보존조례를 제정했다. 게이샤거리로 불렸던 히가시차야거리는 일본 전통차와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고 옛 무사들이 활보하던 거리인 나가정 부케야시키도 다시 가꿨다. 보존은 단지 옛것을 되살리는 데 있지 않았다. 가나자와는 외부에서의 자본 유입에 목말라하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내발적 발전’ 모델을 택했다. 외부의 자본에 기대기보다는 지역이 가진 제조,유통 서비스 등의 전통적 산업을 보존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제적 효과를 지역 내에 남기기로 한 것이다. 가나자와시의 문화정책은 ‘전통과 첨단’의 대치라고 할 수 있다. 가나자와는 국악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특히 카가호쇼노오와 가나자와스바야시라는 가나자와시 무형문화재와 샤미센, 거문고, 큰북, 북, 대나무피리 등 국악 및 악기의 역사가 깊다. 시는 이러한 국악의 토양 위에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라는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목조건축과 기와지붕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시의 분위기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 유리돔 형식의 철도역을 건설하는 등 음악, 미술, 건축의 다양한 예술분야에 걸쳐 “전통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문화정책을 실현해가고 있다.

가나자와 시가 차근히 다음 단계로 추진한 것은 ‘문화의 생활화’였다. 일본 3대 정원의 하나로 꼽히는 겐로쿠엔은 에도시대의 대표적 정원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3만5000평 규모의 정원으로 가나자와 시 한복판에 있다. 겐로쿠엔은 새로 지어진 ‘21세기 미술관’과 맞닿아 명소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은 이러한 시의 정책이 발맞추어 1996년 10월에 오픈하였으며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타이쇼오 중기의 건물이었던 야마토방적공장이 폐쇄되면서 당초 건물을 전부 철거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의 가나자와 시장인 야마데타모쓰 시장이 창고를 시찰하고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창고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3년에 가나자와 시에서 약 97,000m2의 토지를 취득하고, 지금의 시민예술촌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이러한 창고 및 공장시설을 매입하여 상점거리와 같이 상업적이면서 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한 예가 있으나, 가나자와시는 이들과는 달리 예술문화의 거점으로 특히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요람에 따르면 그 설치목적은 <문화의 창조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민예술창조활동을 행하고, 시민이 부담없이 연극, 음악, 무용, 미술활동 등의 연습, 제작, 연수 및 성과를 발표하는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시

민문화의 충실한 향상과 풍부한 지역문화의 양성을 도모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특징이 아래와 같다.

-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가능한 시설
- 시설 이용금액은 평균 1700원 /시간
- 드라마, 뮤직, 미술 부분에 각 2명씩 시민디렉터를 위촉, 디렉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획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운영을 함께 돕는 자원봉사 스텝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운영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지역문화의 거점 (시민참가형 예술문화활동) : “시민이 활동하는 즐거움”

- 연습, 제작, 연수
- 어린이, 일반 시민대상의 육성사업
- 지역 예술 문화 활동의 정보수집,제공
- 문화 자원 봉사자의 육성

활기찬 예술활동의 거점 (감상형 예술문화사업) : “새로운 예술문화의 거점을 발견하는 즐거움”

- 연습성과의 발표
- 질높은 연극,음악, 무용공연
- 새로운 표현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전 개최

새로운 문화창조의 거점 (창조형 예술문화활동) : “뛰어난 예술작품과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장으로의 즐거움”

- 높은 예술성을 목표로 한 제작활동
- 프로지향자를 의도한 워크숍
- 실험적인 예술문화창조활동 전개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시설은 아래와 같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전체배치도>



- 사토야마의 집 | 가나자와시 외곽의 농가를 이축한 건물로,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의 유일한 일본식 공간이다. 다도, 꽃꽂이, 라쿠고(일본만담)등의 모임 활동이 이루어진다.
- 가나자와 직공대학교 | 목수, 기와지붕장인, 미장장인 등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술을 전승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자와시민예술촌과 동시에 오픈한 장인학교이다. 이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견장인으로, 낮에는 생업에 임하고 밤에는 보다 정교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곳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다. 관리동, 실습동, 창고의 3개시설로 이루어져있으며 회의실의 경우 예술단체들의 회의가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 렌카데이 | 붉은 벽돌의 건물로 친목, 휴식 등의 부담없는 만남을 위한 공간이다. 세련된 유럽식 이탈리아 요리 레스토랑

#### ■ 르썩까트르 | Le 104 (Le Centquatre)

프랑스 파리의 Le 104(르 썩까트르 Le Centquatre)가 2008년 10월 11일, 문을 열었다. Le104는 1873년에 지어진 옛 시립 장례식장을 개조한 37,000㎡의 공간으로, 기존의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보편적인 예술공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현재 진행되는 예술, 현재의 예술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한다.

Le 104가 자리잡은 파리19구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안정한 임시직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높아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지역의 총 주거면적 중 60%가 사회시설로 이곳의 주거 밀도는 파리 평균보다 약 2.5배 높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지는 이 지역은 편리한 상업지구, 문화, 예술관련 장소나 오락,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낙후된 지역은 도시 개발 대상으로 고민되었고, 결국 문화를 통해 파리 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Le 104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Le 104는 현대 창작의 모든 영역에서 창작과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자 건립되었다. 이곳의 초대 디렉터로 선임된 프레드릭 피바크(Frederic Fisbach)와 로베르 캄파렐라(Robert Cantarella)의 이력을 살펴보면 미술학교와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공연과 연극 연출을 담당했던 현장 전문가들이다.

옛 장례식장이 변모한 Le 104는 하늘을 가린 두 거리를 잇는 공간으로 이뤄졌는데, 공동 디렉터 캄파렐라가 규정하는 이곳은 "순환의 공간으로, 이상적으로, 우리는 이 통로를 이곳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고, 작가들이 작업하는 아틀리에와 다공질 도시(주변 지역의 붉은 벽돌 건물을 상징)의 경계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작업할 수 없다." 결국 앞의 질문을 찾아가는 장소로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 할 작가들과 예술을 담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간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자체 기획 전시, 행사 프로그램은 물론 이뤄지는 모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Le 104는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차지하는 위치, 예술을 생산하는 조건과 예술품 접근 방식 등

에 관한 질문을 함께 던질 수 있는 국제적 예술 장소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협력 관계를 맺은 곳은 독일 베를린 옛 전기 변압소에 들어선 예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 레디얼시스템 브이(Radialsystem V), 독일 에센 무용 스튜디오 팩트 졸페라인(Pact Zollverein), 이탈리아 로마 예술의 혁신을 고민하는 조네 아티베(Zone Attive -2008년 옛 도살장을 정비해 옮김), 스페인 마드리드 마타데로(Matadero) (옛 도살장 위치)등으로 각 기관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 협력 관계를 가질 국제기관들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개관 후, Le104는 매해 모든 영역의 예술 대학 학생들에게 입주 작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술관련 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 교육 방법에 관한 논의와 타 문화권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파트너십을 갖는다. 미국 L.A의 칼아트(CalArts) 예술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현재 파리 내 다른 예술 기관들과 공조할 수 있도록 접촉중이다.

특히 아트팩토리 공간조성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개관 전 선행 프로그램이다. Le 104 개관을 기다리면서 Le bis가 공사 현장 옆에 조성되어 여러 선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민과 친숙해질 기회를 다각도로 만들고, 새로운 기관의 탄생 홍보도 적극 담당했다. 우선 "공사 현장"이라는 주제로 미리 선정된 아틀리에 작가들에게 작업을 제안했다. 각각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자연스럽게 Le 104의 홍보 대사가 되거나 매개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구 거리로 나가 규칙적으로 1인 공연을 기획해서(Sebastien Barrier) 지역민을 직접 만나거나, 공사 현장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Robert Cantarella)해서 진행과정을 기록하거나, 19구 주민을 반 년 동안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거나(Mai Lucas), 공사 현장 내외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작업 활동을 한 작가(Stephane Couturier, Alain Bernardini)도 있었다. 또한 작가들을 Le 104 건립에도 적극 참여시켰는데 젊은 건축 디자인 그룹 Drop House은 Le 104가 개관한 후 17번째 아틀리에로 재탄생할 모빌 아틀리에 모형을 제작했고, Le 104의 로고 및 그래픽 디자인은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Experimental Jetset이 맡았다. 디자인 완성 전 그룹은 파티를 기획해서 처음 나온 디자인 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Le 104 입주 작가 중 한 명이 "수요일의 아틀리에(L'atelier du mercredi)"를 통해 지역 아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공사 진행 현장을 공개했는데, 안내원이 나와서 미리 신청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난 해, 2007년 12월 29, 30일에는 횡단("Traversee")라는 행사를 통해 공사 현장을 지역민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때 역시 다양한 예술 상황 속에서 관람객들은 Le 104와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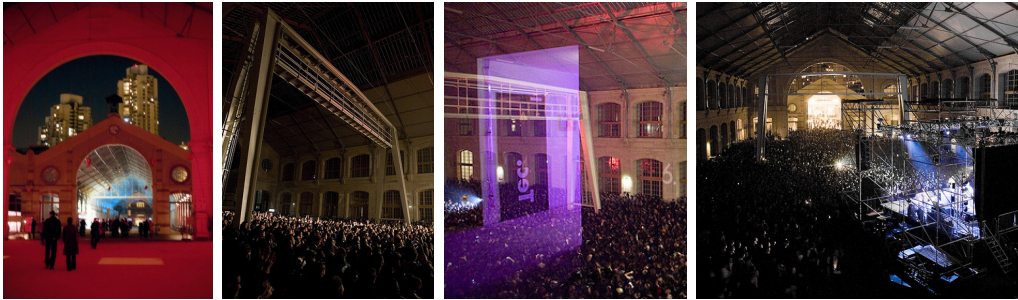
<Le 104 전경>

Le 104는 담아낼 예술의 분야만큼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총 면적은 26,000㎡의 중앙 홀을 포함 세 층에 걸쳐 37,000㎡이다. 이 안에는 주차장, 물품 보관소, 상업 공간(카페, 식당, 상점 포함), 아틀리에, 아파트, 양성소, 아마추어 공간 등이 지어진다. 대표적인 공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아틀리에 | 4,000㎡의 스튜디오는 16개의 아틀리에와 18개의 사무실로 나뉘는데, 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예술 분야가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창작 영역(의상, 디자인, 비평, 무용, 영화, 문학, 비주얼 아트, 조형 예술, 멀티미디어)이 작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특히 기존에 개인 위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에서 작가 그룹들이 공동 작업이나 워크숍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Le 104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선정된 작가(혹은 그룹)들은 아틀리에 발토 Atelier le Balto(조경), 미구엘 아즈킴르 Miguel Azguime(작곡), 세바스티앙 바리에 Sebastien Barrier(만담, 사설), 로랑 피 베르제 Laurent P. Berger(개념적 조형예술, 무대 장식), 씨릴 베르제 Cyril Berger(건축), Alain Bernardin(사진), 뵘상 에블레 Vencent Epplay(개념 음악), 쿠암 다바 Kouam Tawa(소설), 크리스토프 라모 에노스 Christophe Lamot Enos(시) 등으로 총 37명이다.
- 아파트 | 아파트는 작가 개인이나 그룹이 입주하게 될 레지던스를 말한다. 원룸부터 4개의 공간으로 설계된 곳에서 짧게는 한 달부터 일 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한 해에 약 30에서 35개의 프로젝트를 받는다.
- 꼬마들의 집 La Maison des petits | 작가 마타이 크라셋(Matali Crasset)이 디자인한 "꼬마들의 집"은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놀이와 예술을 통해 듣기, 말하기, 사교,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꼬마들의 집에서 마련하는 특별 행사나 아틀리에의 미술 교실은 물론, 특히 "푸른 집(Maisons vertes)"이라는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푸른 집"에서는 준비된 전문팀의 지원 하에 다양한 출신(다국적, 다문화)의 가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 교환을 통해 아이 교육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을 것이

다. 이 공간 안에 사용되는 예술 책, 기자재, 가구 등은 모두 작가들의 창작품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시각이나 신체 접촉으로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작품과 직접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꾸리알가 5번지 Le 5 rue Curial | 건물에서 커리얼 거리 쪽에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파리 19구 구청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곳은 주변 지역민들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며 아마추어 개인이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예술 실습장이 된다. 또한 입주 작가들이 아틀리에, 강의,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예술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협회 차원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개의 대규모 공간이 상징적인 금액으로 대여될 예정이다.
- 문화 기업 양성소 | 이곳은 문화나 산업분야에 기여하는 기업이 입주할 공간으로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신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 선정 기준은 제안한 프로젝트의 질과 아파트 입주 작가들 그리고 Le 104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정해진 약 10개의 업체는 2년에서 4년간 머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문화, 예술에 필요한 기술들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응용으로 이어갈 수 있다. 또 장르와 영역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이루며 수시로 기술 아이템과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을 통해 이 젊은 회사들은 기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창의성과 기술 개발은 문화 산업이나 일반 산업 발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시에 각각의 회사들은 자체 사업을 통해 확장할 수도 있겠다. 이 양성소는 응용되어 적용된 일종의 "산학협동" 체제(system)라고 이해된다.
- 대여 공간 | 기업체나 외부 행사를 위해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 마련되었다.(이곳은 자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활용 포함) 이것은 운영의 경제적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 간혹 대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용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아마도 개관 후에 실질적 경제 수입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이곳의 개관 목적이나 운영 방향이 상업성 추구는 아니지만 일 년 예산 1200만 유로 중 800만 유로는 파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0만 유로는 Le 104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공적 자금이나 기업의 후원을 다양한 형태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Le 104의 개관행사 전경>

125년의 역사를 가진 파리시립장례식장(SMPF)와 그 이후 Le 104가 조성까지 10년간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 2008.10.11      개관과 함께 1일 6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 트리키(Tricky)의 공연을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했으며 700명으로 예상한 공연에 5,000명의 인파가 몰림
- 2008              기존 공간인 파리시립장례식장의 역사를 다룬 다큐먼트 형식의 책이 Le 104의 프로젝트로 출판됨
- 2006.3-2007.6    2차공사시기. "공사 현장"이라는 주제로 미리 선정된 아틀리에 작가들은 작업을 시작함
- 2005.3-2006.2    1차공사시기. 구조를 보강하고 정화 및 청소를 시행함
- 2005              초대디렉터 선정. 약 1년에 걸쳐 인터뷰와 자격 검토가 있었음
- 2003              건축가 스튜디오 노벰브레(Novembre studio)에서 건축설계작업에 착수함. 장소성을 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함.
- 2001              파리는 파리시립장례식장 공간에 대한 재건축 프로젝트에 착수함
- 1998              파리시립장례식장 폐장
- 1995              파리는 부동산산업건물의 파사드와 창등의 요소를 보호해야할 문화유산으로 지정함
- 1905              파리시립장례식장 개장
- 1873              파리시립장례식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함

■ BankArt 1929

1853년 개항한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낡고 쇠퇴한 도시이미지를 벗고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1세기 미래의 항구도시'라는 뜻의 미나토미라이 사업을 실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후 '창조도시 요코하마'를 슬로건으로, 1백여곳의 지역자원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하고 Bankart1929와 요코하마트리엔날레로 대표되는 문화장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술 및 문화컨텐츠를 가꾸어 오고 있다. 30여년간 꾸준히 계획하고 실행해온 요코하마의 도시마케팅은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도심의 재생, 지역산업 육성, 시민들의 협력이라는 3박자를 기반으로 해서 낡고 쇠퇴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로 개선해 나갔다.



<BankArt1929 Yokohama (구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 BankART 1929의 개요와 취지

: BankArt1929 프로젝트는 1929년에 원래 은행건물로 지어진 구 제일은행과 구 후지은행 건물을 예술문화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것으로 요코하마 도심부에 남아있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예술 관광진흥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도심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던 중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민과의 협동과 예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들의(Art NPOs) 아이디어, 활동력, 창조성을 활용한 실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도심부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예술활용 실험사업'으로 BankART1929라는 이름으로 2003년도부터 실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창조적인 도시센터 (Creative City Center)'사업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민, 비영리민간단체들,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 시설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 요코하마 도심 역사적 건축물 활용실험사업 - Creative City Center

: 이 사업의 운영이념은 첫째, 새로운 요코하마 문화를 창조하고 발신하며,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로 사업운영을 행하며, 셋째, 산업 및 마찌즈쿠리에의 전개를 지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업의 진행방안은 우선 사업제안 및 이를 실시하는 단체를 모집하고 사업운영단체에 의한 사업을 개시하며 실험기간으로는 2006년 3월

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실험사업추진위원회는 실험기간 중의 사업운영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의 전개 등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도심부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예술 활용 실험사업 추진위원회

: 실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문화 예술에 관한 구체적 운영사업의 실험을 행하는 단체(사업운영단체)의 선정, 사업운영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책의 검토 및 사업 평가를 행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근거법령은 '도심부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예술 활용 실험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요강'이며, 설치시기는 2003년 11월 6일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요코하마시를 설계했던 도시설계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 Art NPO에 의한 역사적 건축물의 운영실험

- Creative City Center사업 및 사업운영단체 결정

: 칸나이지구에 위치하는 역사적 건축물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 구 요코하마은행 본점 별관, 구 후지은행 요코하마 지점, 야스다원 은행 요코하마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제안 실천하는 단체 사업운영단체를 2003년 10월부터 모집하여 절차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2003년 10월에 모집요강을 배포하고 두 번의 심사를 통해 사업운영단체를 선정하였다. 도심부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예술활용 실험사업 추진위원회에 의한 심사 결과 응모한 24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운영실험기간은 2004년 2월~2006년 3월말까지로 약 2년이며 위원회 선정 결과 'ST 스포트 요코하마가 주체가 되고 'YCCC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운영단체로써 선정되었다. 심사기관은 도심부 역사적 건축물의 문화 예술활용 실험사업 추진위원회이다. 선정된 단체를 살펴보면 'ST 스포트 요코하마 (1987년 설립)'는 요코하마 ST빌딩내의 예술공간인 ST 스포트를 거점으로 연극, contemporary dance 를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사업의 기획운영 예술가의 육성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YCCC프로젝트(1984년 설립)'는 PH스튜디오, 히로코에 의한 연합단체로써 그중에서 PH스튜디오는 미술가, 사진가, 건축가에 의한 단체로 전람회, 가구제작, 건축설계, 미술전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부 록

- BankArt1929 요코하마의 공간구성

지하1층

-1929 갤러리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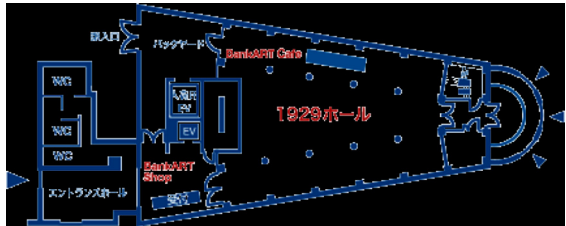
1층

-1929 HALL / 넓이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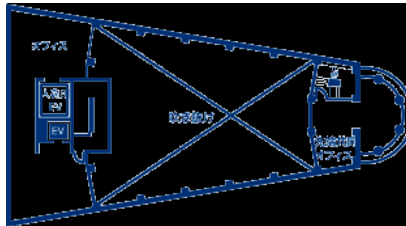
층고 7m

-1929 Shop

-1929 Cafe



2층



3층

-1929 SPACE / 넓이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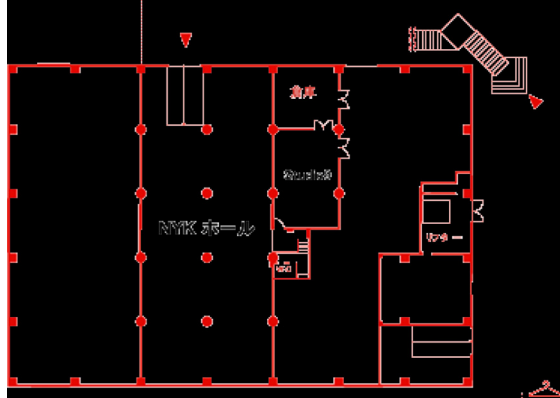
층고 3.4m



• BankArt1929 NYK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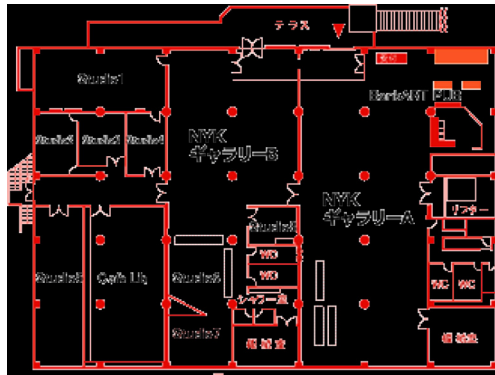
1층

- NYK HALL / 넓이 360㎡,  
층고 5m



2층

- NYK Gallery A / 넓이 360㎡,  
층고 4.5m
- NYK Gallery B / 넓이 200㎡,  
층고 4.5m
- studio 1-9 / 넓이 20-60㎡
- BankArt Pub
- Cafe Lib



## 2 공간구성기준<sup>69)</sup>

아트팩토리를 다양한 창작주체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창작기반시설과 행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문예술가의 창작공간지원으로서의 창작공간조성과는 차별화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트팩토리의 공간자원은 개인에게 할당된 작업공간이 아닌 평면/입체를 포괄하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의 기획, 연습, 제작 등 창작 과정상 필요한 공간 및 설비 그리고 그를 통한 교류와 소통에 필요한 공용 공간 및 체류시설의 지원까지 넓고도 전문적인 스펙트럼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공간자원은 전체 아트팩토리 네트워크상에서 개별 사업지의 맥락에 대응하여

69)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간수요 현장조사” 참조

분배하거나 특화하되, 통합관리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간수요 현장조사는 아트팩토리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연구의 일환으로써 실시되었으며,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각 분야의 전문예술가/단체 및 기 조성된 창작공간의 공간수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예술/공연예술/문학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는 다시 창작공간/ 창작 및 창작지원공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각 분야별 전문예술가/단체 및 기 조성된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사용공간의 간단한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였다. 특히 현장조사 내용 중 인터뷰를 통해 전문예술가를 주요 사용주체로 하는 창작/창작지원/교류공간의 구성은 단순히 공간의 형태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 (공간운영 목적 및 방법, 사용주체의 선정 기준, 일반인 공개여부 등)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다.

각 도표의 기준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운영을 통해 업데이트 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초안으로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아트팩토리 운영에 적용할 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최종확인된 안으로 결정해야한다.

	창작					창작지원	교류 및 공용시설
	작가전용		공동작업장 (연습/제작/발표겸용)				
	작업실형	레지던스형	미디어형	공방형	공연		
주요실 구성	구상공간 작업공간	구상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	프린트/스캔실 mac실 영상제작/편집실 shooting studio	목공실 응접실 판화실 도자실 염색/건조실 야외작업장	공연 연습장	프로젝트기획공간 교육실 사무실 아카이브/자료실/도서관 창고 개방형 주방/라운지	창고 다목적홀 (컨퍼런스 /공연, 발표) 전시장
프로 그램	전문 창작	●	●	●	●	●	●
	시민 참여 창작	-	-	-	●	●	●
	향유	○	○	-	○	○	●

위 도표는 공간을 창작-창작지원-교류및 공용시설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1. 주요 실 구성의 예 2. 각 실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른 프로그램 개입의 적극성여부를 기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창작공간-공동작업장-목공실의 경우 전문예술가와 시민의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향유활동(오픈스튜디오 혹은 공방의 작업 공간 자체를 활용한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미디어형 공동작업장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전문장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한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운영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트팩토리 사업의 특성상 각 지역별 공간 조성의 목적 및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을 구성하는 각 실의 종류 및 규모는 위 도표에 기입된 내용 중 일부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의 기준 또한 다양할 수 있겠으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비중에 따라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예술				공예				건축/ 디자인	문학	공연예술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도자	금속	목공	섬유			음악	연극	무용
기획	구성공간 (에스키스, 스케치단계) 및 회의공간: 개인 및 단체 등 규모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책상/의자+인터넷+전기+간단한 주방설비 + 오디오/비디오장비												
연습 /제작	층고/넓이가 확보되며 장기간 작업 가능한 제작공간	암실 및 라이트 셋 등의 전문 장비	시물레이션이 가능한 어두운 공간 및 제작 관촬 기기, 독자적 lab실	물레, 가마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	방음이 확실 하고 개인 별로 제작 공간 나뉘	전문 장비, 장비 관리 가능한 전문 테크 니션	염색, 건조 등의 장비와 공간	적정 사양의 컴퓨터 환경과 mock-up 가능한 공간 및 장비	자유로운 발상과 회의가 가능한 모임공간. 주방 등 장기회의 위한 설비	방음이 확실 하고 제작 물에 대한 리뷰가 가능한 장비 구비	방음이 확실 하고 제작 물에 대한 리뷰가 가능한 장비 구비	고무판 바닥, 유리벽 1면, 기등의 최소화. 공연 규모 별로 다양한 실규모 조성 가능	
	작업자공간 판화실, 프린트/스캔실, mac실	영상 전문 lab실 shooting studio	가마실	캐스팅 /용접실	목공실	염색/ 건조실	lab실 모델링실 프린트/스캔실	컴퓨터 프린트/스캔실	실제 무대에서의 리허설이 가능한 공간 (오디오/영상 /조명가능)	환풍/환기 용이할 것			방음이 잘 될 것
발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교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갤러리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하게 연계되는 활동이 가능한 공간 +설치에 소요되는 기기 및 도구의 대여 가능한 시스템								복합장르 예술발표가 가능한 유연한 성격의 프로젝트 발표공간 +기본적 조명/음향 /무대시설 +자유로운 객석시스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일반인 리뷰가 이루어지는 운영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장치있으면 좋음 (레일,가변벽 등)			
post production	결과물의 사진 촬영이 가능한 규모가 확보된 스튜디오 (자연광을 차단하고 조명시설 구비) 결과물을 일정기간 보관가능한 임대형 창고								결과물의 post-production 가능한 영상편집실 의상/무대소품 일정기간 보관가능한 임대형창고				
결과물의 유통공간 (아트샵, 북/DVD 스토어)													

위 도표는 공간을 각 분야별 전문예술가의 공간수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예술창작활동을 ‘기획, 연습 및 제작(pre-production)-발표(production)-발표 후 작업(post-production)’의 단계로 나누어 각 특성을 기입한 것이다. 도표의 내용 중 특이할 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1. 같은 시각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이라 할지라도 평면, 입체와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축작업의 경우 공간의 크기는 물론이고 작업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의 양 및 시간대 등이 사진, 영상작업과 확연히 차이가 남으로써 요구되는 환경의 특징이 있다.
2. 문학 분야의 창작결과물의 경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복합장르(음악공연, 연극, 전시, 세미나 등)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발표공간이 필요하다.
3.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창작 전후에 소요되는 재료, 도구에서부터 결과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물건의 보관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창고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주요 수혜자가 될 전문예술가의 창작공간은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재료, 도구, 설비 및 장비 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협업 형태, 주요 창작시간대 및 실제 창작시간의 양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되었을 때 공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예술창작의 각 분야 및 단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나, 위 도표는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기타 제요소 (실제 이용자의 설정에 따른 상세사항 및 실제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추가사항 등)를 충분히 고려한 후 적용해야 한다.

## 4 | 아트팩토리 건축의 주안점 |

### 1 유희시설 자원화로서 아트팩토리 건축의 주안점

‘유희시설’이라는 아트팩토리의 도시적 입지는 서울의 급격한 도시구조변화 속에서 더 이상 그 이전의 용도로는 쓰임이 다하여 재발견되고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낡은 장소’ 혹은 ‘느린 장소’ 들이다. 서울의 도시화 과정은 대단히 압축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산업유산, 근대화유산, 등등의 ‘유희시설’은 견고한 건축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팩토리 사업의 중요한 도시적인 의미는 이들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발견하여, 시민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지역의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장소로 구

축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환기시킨다는데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장소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도시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례에서 언급한 파리의 le104가 장소조성의 초기부터 계획을 맡은 건축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관 1년 전부터 공사 중인 사이트 주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로고와 실내외 주요공간의 계획을 유망한 건축가와 아티스트에게 일임하여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작주체들의 창의성을 장소조성의 전 단계에서 활용하고, 공사 중인 사이트를 ‘횡단’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장소의 변화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장소를 시민에게 ‘인사’ 시켰던 바를 상기하고 싶다. 이처럼 유희공간의 재발견, 도시기억의 재구성의 과정을 창의의 주체들을 결집시키는 동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는 통합과 소통, 재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아트팩토리사업의 상징성을 지역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때 건축계획 및 장소구축에 있어 건축가, 예술가 등 창의적인 주체의 개입, 통합아이덴티티의 마스터플랜은 필수적이다.

공간조성의 체크리스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건물의 보존 혹은 전략적 개조라는 측면에서 장소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개조 시에 초기건축비에서 나아가 건물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외장마감 계획, 단열계획에 있어 에너지절감 및 녹색빌딩을 지향하는 친환경계획을 수립한다.
3. 전문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의 설비는 마감재, 조명계획, 공조계획, 음향계획 등을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 추후 사용자의 자유로운 공간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5.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수용할 수 있는 내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6. 장소조성의 과정, 아이덴티티 수립의 과정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관 프로젝트의 기획을 건축과 동시에 진행하며, 이를 로고 및 싸인 등의 건축그래픽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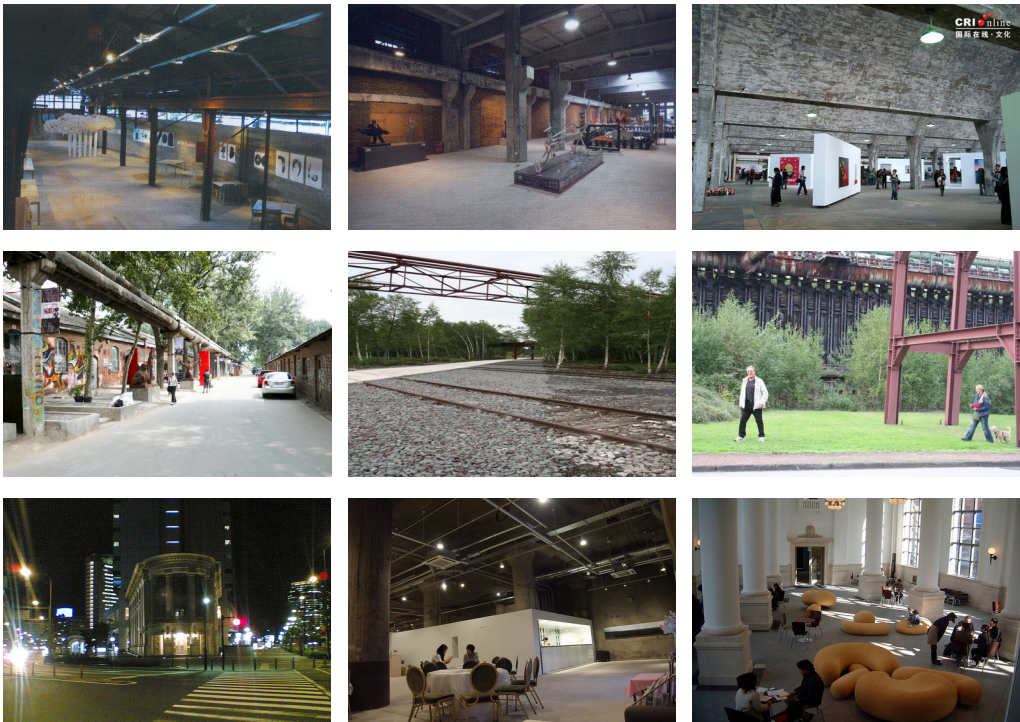
## 2 보존에서 전략적 개조에 이르는 재생건축의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재생과 재활용의 가치를 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구조와 마감재를 통한 보존 계획 : 건축물, 외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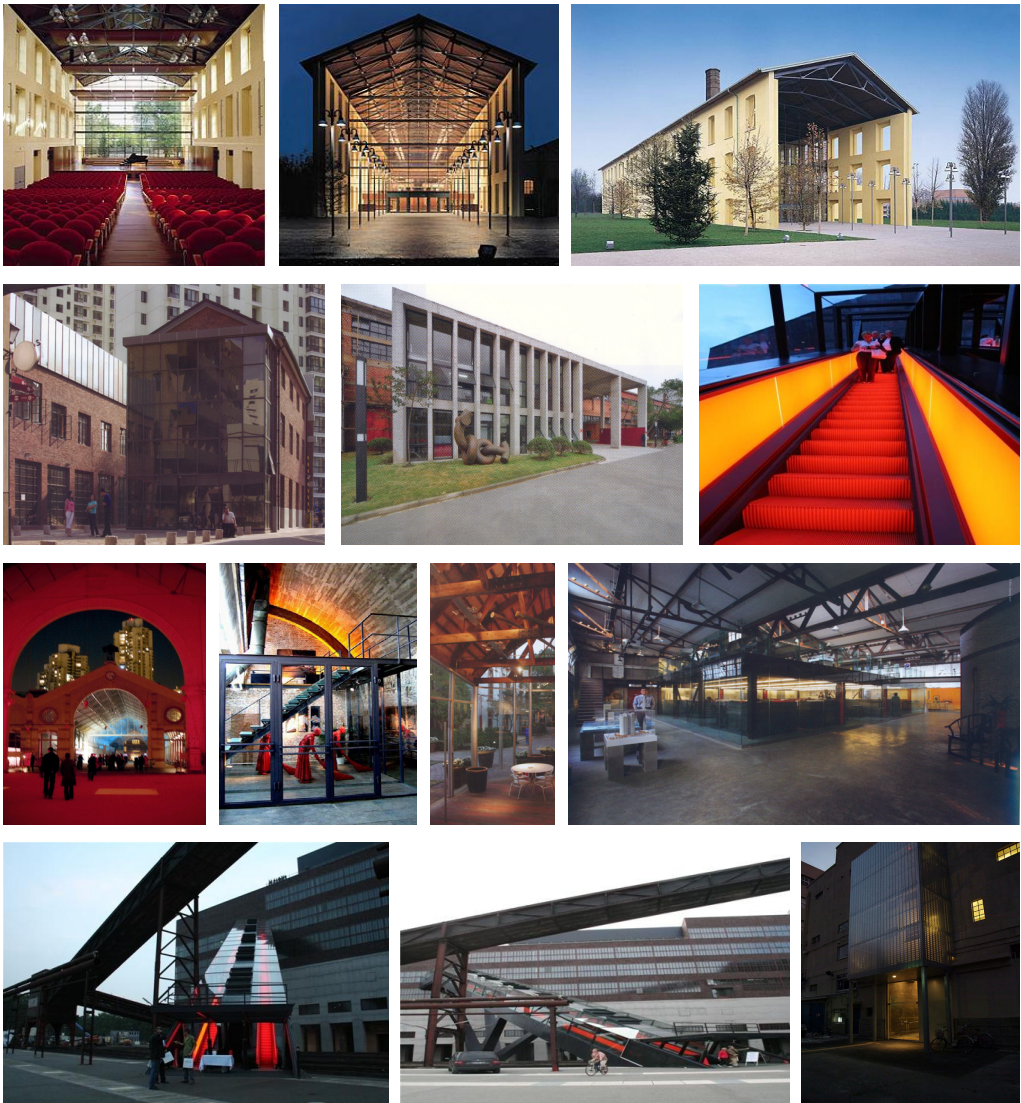
건축물의 구조 및 마감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은 기존 공간의 장소성과 맥락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리노베이션 방식이다. 구조 및 마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 보강 및 환경정화 작업(기존 용도에 의해 오염된 토양 등의 재생)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 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열, 방음 등을 위한 보강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시각적인 연속성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익숙한 곳이 새로운 장소로 바뀌는 것에 대한 호기심, 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자부심과 지역의 정체성을 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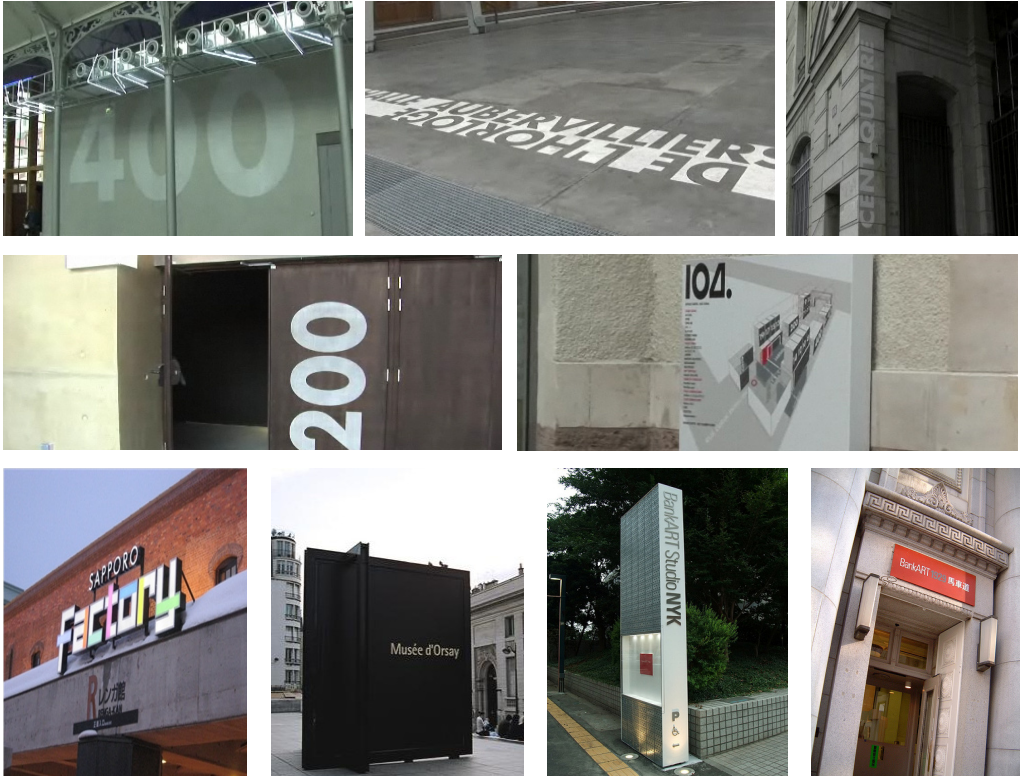
## ● 전략적 개조에 의한 현대적 재해석 : 파사드, 진입공간, 실내공간

기존 구조 및 마감재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 재료 및 구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리노베이션 방식은 물성의 비교를 통해 공간의 시간성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시간성을 가진 다양한 소재 및 질감의 체험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친근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유희 공간의 구조물은 지나간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 특성은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었을 때 그 안에 새로이 담길 프로그램과 공공의 기억을 다른 곳에는 없는 유일한 그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이다.



● 통합 브랜딩 작업

건축계획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건축그래픽계획이다. 그래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간의 재질과 규모, 진입동선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두 가지 작업이 동일한 컨셉 아래 계획되어야 한다.



## 5 | 나가며 |

아트팩토리의 공간맥락연구와 공간조성전략을 도시-건물-디테일까지 각기 다른 스케일에서 살펴보았다.

도시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아트팩토리의 강점이 있는 동시에 위험성이 있다. 그 동시성을 어떻게 사업의 상승효과와 연계하는가, 어떤 운영의 시스템으로 그 공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그 다양함과 차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인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트팩토리 사업이 도시적인 임팩트를 갖고, 각 개별지점이 인접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아트팩토리’는 물리적 장소가 아닌 예술-도시-삶의 통합과 소통, 재생을 주제로 하는 예술활동-프로젝트,을 지원하여 전체문화예술생태계의 새로운 활성화의 기제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서울의 창작공간조성 시나리오에서 기술했듯이, 아트팩토리는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운영의 해법이자 도시적 해법들의 합이다. 즉, 아트팩토리의 물리적 기반, 개별의 아트팩토리는 창작인프라로서, 각각의 입지에 고유한 재발견된 장소의 아우라를 가지며, 고유한 운영주체의 설정, 기능의 설정으로 차별화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하되, 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도시적인 임팩트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따로, 또 같이 하는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분산시킴으로서, 개별적으로는 접근성면, 규모면에서 약화될 수 있는 아트팩토리들을 함께 견인하여 그 차별성을 전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이용하도록 한다.

개별의 장소조성에 그 방점을 둘 때 아트팩토리는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자칫 구심점 없이 분산되어 도시적 임팩트를 갖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유희 공간을 활용한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고유한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가진 다양한 도시공간들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또한 잠재력 있는 서울의 창작에너지를 이런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통해 집약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트팩토리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적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도전적 기회가 될 것이다.

## 별첨

## 공간수요 현장조사

## 1 |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아트팩토리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연구의 일환으로써 실시되었으며,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각 분야의 전문예술가의 창작공간에 대한 방문조사와 기 조성된 창작공간의 현황조사를 통해 공간수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예술/공연예술/문학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는 다시 창작 공간/ 창작 및 창작 지원 공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며 각 주체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간단한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였다.

기본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내용
2. 공간 소재지
3. 공간수요
4. 임대료
5. 공간규모
6. 개조여부
7. 필요설비 및 장비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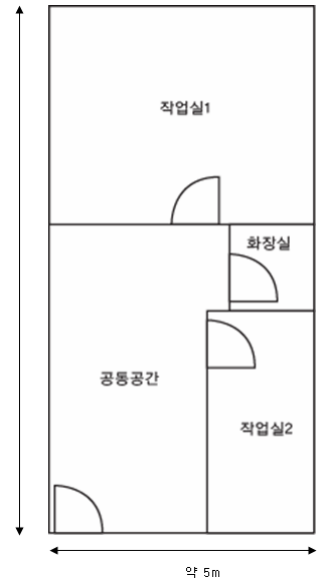
특히 현장조사 내용 중 인터뷰를 통해 전문예술가/단체를 주요 사용주체로 하는 창작/창작지원/교류공간의 구성은 단순히 공간의 형태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공간운영 목적 및 방법, 사용주체의 선정 기준, 일반인 공개여부 등)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다.

## 2 | 시각예술분야 |

### 1 창작 공간

#### ● 평면

- 작업내용 : 평면
- 활동공간 : 동대문구 이문동
- 공간수요 : 동료와 공동 작업 및 생활(2인)
- 임대료 : 500/25만원
- 공간규모 : 방2, 부엌 및 식당, 화장실 (총 약15평)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환기, 창고, access
- 필요장비 : 없음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동료와 함께, 지하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광이 되는 작은 공간, 채광이 되지 않는 큰 공간이라는 장단점이 있는 두 공간이 있고 부엌겸 공용공간,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택지하라 층고가 낮은 단점이 있고, 지하라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나 임대료가 싼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더 원하는 공간이 있다면요?

: 무엇보다 지상이고 채광이 잘되는 곳이 좋겠지요. 계단이 별로 없어 접근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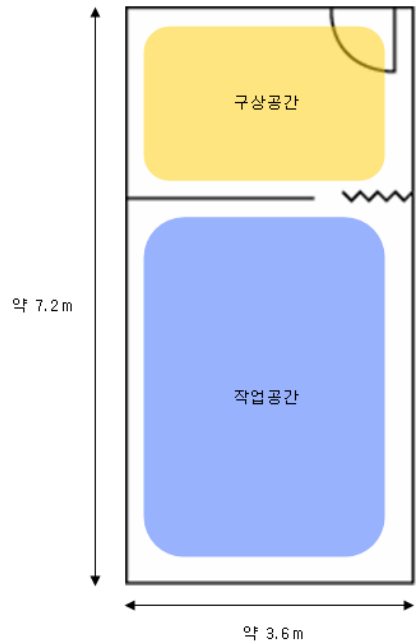
복도나 문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이다보니 방음이 중요한데, 24시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밤중에 소리를 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지나치게 생활소음이 많지 않아 균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 입체 및 사진

- 작업내용 : 입체 (설치)
- 활동공간 : 종로구 창성동 지하작업실 (동료와 공동임대)
- 공간수요 : 작가2인
- 임대료 : 1000/40만원
- 공간규모 : 약 7.8평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환기, 창고
- 필요장비 : 컴프레서 등 전문 목공장비

- 작업내용 : 사진
- 활동공간 : 종로구 창성동 지하작업실 (동료와 공동임대)
- 공간수요 : 작가2인
- 임대료 : 1000/ 40만원
- 공간규모 : 약 7.8평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제습(지하의 경우), 환기, 창고
- 필요장비 : 드럼스캐너, 대형플로터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원래 신문저장고였던 곳을 임대한 것으로, 지하이지만 층고가 높아 좋습니다.

특히 겹문으로 되어 있어, 환기를 할 경우 바깥문을 열고 안쪽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안 전/사생활의 문제없이 환기가 가능하여 좋습니다. 원래 공간의 구획이 되어 있었고, 바닥이 턱이 없어 작업실로 좋습니다.

■ 불편한 점은?

: 지하라 습한 점이 작업에 좋지 않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춥습니다.

■ 개조사항이 있으신가요?

: 벽에 칠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 아트팩토리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다면, 제안하시고 싶은 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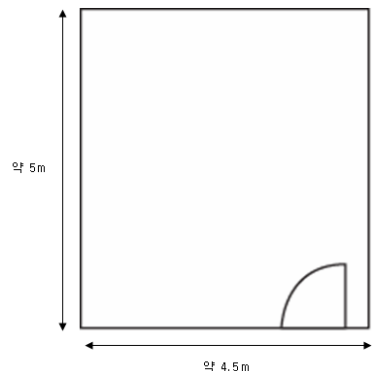
: 전문장비를 구비한 공간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각 지점이 장르별로 특화되어 전문장비를 갖춘 공방형태가 된다면 훌륭합니다. 작업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별 장비를 갖춘 곳이 베를린 곳곳에 위치하고 전문기술자가 고용되어있습니다.

: 레지던시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단점, 즉 일년이라는 애매한 기간 제시에서 탈피해 1. 프로젝트 단기대여(약 3개월) 2. 작업용 장기대여(2년이상)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할 경우 매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제작과 전시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 DVD플레이어, 빔프로젝터 같은 장비입니다. 회원등록제로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영상

- 작업내용 : 영상+평면
- 활동공간 : 서대문구 대현동
- 공간수요 : 동료와 공간 공유(3인)
- 임대료 : 없음 (대학원 작업실)
- 공간규모 : 개인별 약2평 / 빈 공간에 칸막이로 구분
- 개조여부 : 각공간 사이의 파티션
- 필요설비/공간 : 환기, 창고, 아카이브, 암실, 감광실
- 필요장비 : 각종 공구 및 영상장비 대여





■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가 아니므로 운영에 용이하고 함께 작업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편한 의자, 책상, 이젤, 보조책상, 캐비닛이 기본공간요소입니다.

공간의 규모는 큰 캔버스를 똑바로 세우고, 눕히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재료의 특성상 환풍,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채광이 잘 되어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더 원하는 점이 있다면요?

: 전문장비 및 기본도구가 구비된 곳(전기관련, 공구, 바늘실, 용접 정도), 그리고 암실(빛이 안 드는 어두운 공간으로, 영상작업의 시연이 가능한 곳), 자료열람이 가능한 아카이브가 절실합니다. 적어도 5-6m의 층고에 자연광이 들지 않고 조절 가능한 인공조명장치가 있는 곳으로 50-100평 규모는 되어야 대형작품을 한 화면에 담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칼라 교체 가능한 백드롭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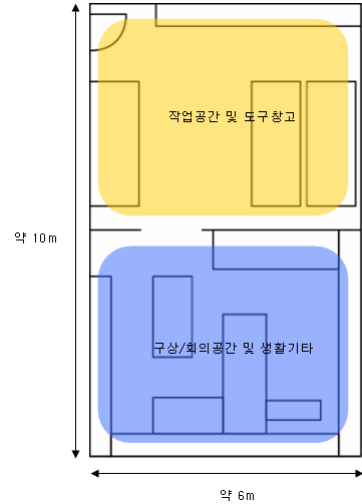
그밖에 판화실이 유용 할 텐데, 보통 감광실이라고 합니다.

■ 주변 인프라는 어떤가요?

: 화방, 갤러리(유통의 장소), 영상제작실, 액자가게, 사진현상소 등이 주변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 인프라구축이 아닌 지역성 구축에 관한 의견입니다.

## ● 디자인

- 작업내용 : 디자인
- 활동공간 : 문래동
- 공간수요 : 작가5인 및 외부작가(장비사용가능)
- 공간규모 : 약 18평
- 개조여부 : 없음 / 마감재만 드러내고 사용
- 필요설비/공간 : 창고, 도서관,  
스튜디오로 사용 가능한 빈 공간
- 필요장비 : 각종 전문장비



### ■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각자의 작업공간 + 공동의 작업공간 + 공용공간(부엌 등)

### ■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요?

: 도서관, 목욕탕/빨래방,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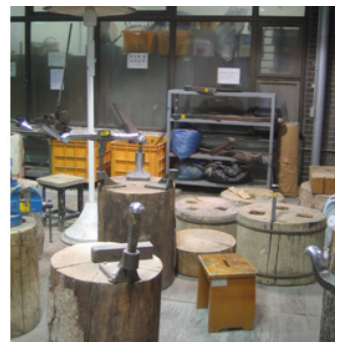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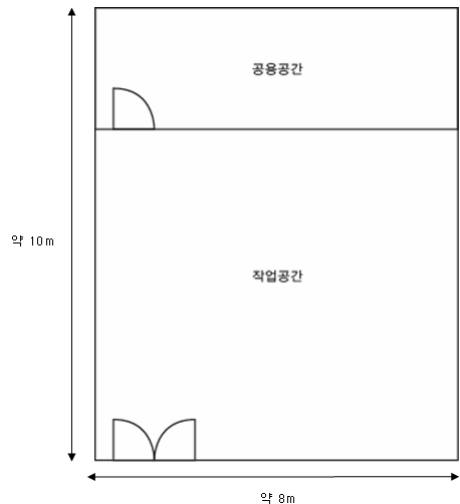
- : 고품질의 작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빈공간도 가능)
- : 큰 규모의 공방 (행사나 프로젝트 진행 가능한 규모)
- : 이동식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
- :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

■ 문래동 아트팩토리를 상상한다면?

: 점유공간이 최소화 되어 유동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 다수의 예술가가 사용가능한 공동 작업공간의 요구가 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사회에도 존재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예비예술가들의 체험도 가능하면 좋겠다. 정기적인 어떤 행사가 있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금속공예

- 작업내용 : 금속공예
- 활동공간 : 관악구 신림동
- 공간수요 : 동료 5인
- 임대료 : 없음 (대학원 작업실)
- 공간규모 : 약 25평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약 5-6명의 동기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텍스트작업이 가능한 공용공간이 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작업 및 공동 작업 공간입니다. 한 명당 하나의 작업책상이 있고, 그 밖에 함께 사용하는 공동설비 및 장비가 있습니다.

■ 작업과 관련된 공간의 특징이 있다면요?

: 금속의 작업특성상 외부로 분출되는 소음이 많아 방음이 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광 및 환기가 좋아야 합니다. 각종 화학물질들을 잘 배출시키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말입니다.

● 도자공예

- 작업내용 : 도자공예
- 활동공간 : 중랑구 면목동
- 공간수요 : 1인
- 임대료 : 미공개
- 공간규모 : 약 30평 (아파트상가건물 2층)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대형야외가마, 작업진열대 (건조 및 보관)
- 필요장비 : 창고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상가 2층으로 집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일반상가건물로 가마는 소규모 가능한 소형 전기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이라 문구, 슈퍼 등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시설이 있어 야간에 불안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쉬운 점은요?

: 무거운 재료이동이 용이한 리프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기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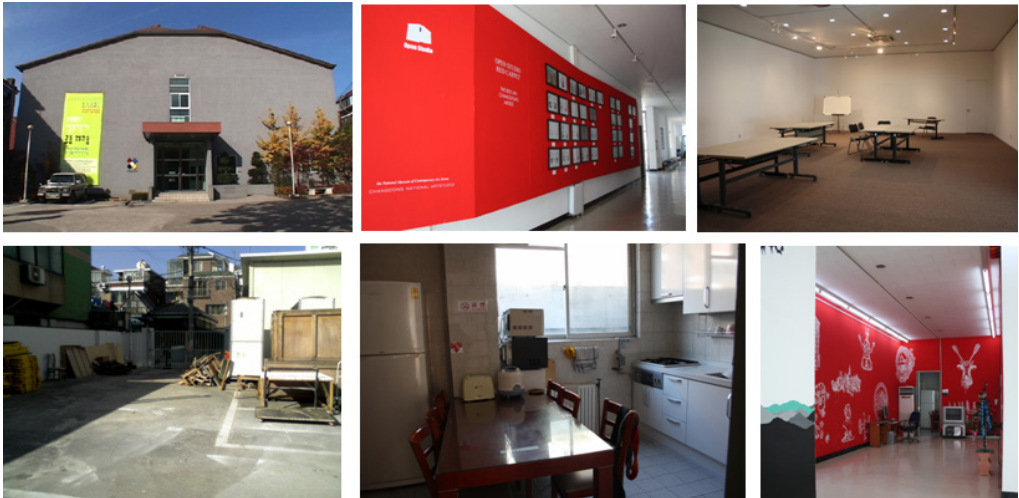
■ 아트팩토리라는 곳이 생긴다면?

: 무엇보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의 공동가마가 필요합니다.  
스케줄을 같이 짜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필수적이겠지요.

## 2 창작 및 창작지원/교류공간

### ●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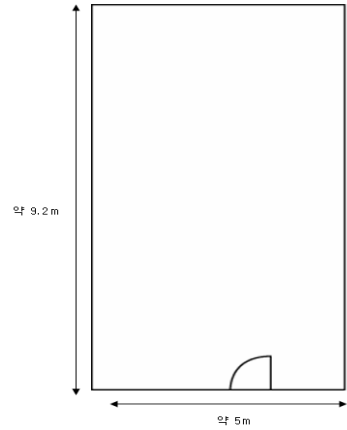
- 내용 : 시각예술 레지던시
- 활동공간 : 도봉구 창동
- 공간수요 : 일반인/ 예술가
- 공간구성 : 작업공간, 다목적실, 사무실, 경비실



<스튜디오 전경 및 각종 공간>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주공간의 기본유형>



<예술가 레지던스 공간>

■ 이 곳은 어떤 곳인가요?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현대작가 입주 레지던스 시설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운영되며, 3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 현재 14개의 스튜디오에 작가가 입주 중인 상태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이 그다지 없어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체 시설의 특징과 운영 형태는요?

: 층고가 매우 높은 편이다. 입주 작가 스튜디오, 라운지 및 공동취사장, 화장실 및 샤워실(세탁기), 다목적실(갤러리 및 세미나실로 사용), 사무 공간 등이 있다. 스튜디오의 경우 각 실마다 전화, TV, 인터넷선이 들어간다.

: 높은 층고에 비해 문 폭이 좁아 입체작품이 들고날 수 없다.

: 최초 공사비에서 냉난방비용이 대폭 삭감되어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을 구비 못했다. 2,3차 개보수로 시설을 보완했다. 특히 작가스튜디오의 경우 층고가 높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 비용이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고양스튜디오의 경우 각 실마다 온돌침상을 짜주었다. 매우 호응이 좋았다. 만약 다음 스튜디오를 또 오픈한다면, 2층 침상으로 구성하여 1층은 수납/2층은 침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각 실에 넣어준다면 좋겠다.

: 세탁과 건조 가능한 세탁실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현재 장애인화장실에 세탁기 넣음)

: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는 것, 그리고 해외작가를 위해 큰 저울을 구비한 점이 특이사항

: 복도 천정에 전기 판넬과 와이어프레임을 다 달았다. 복도 갤러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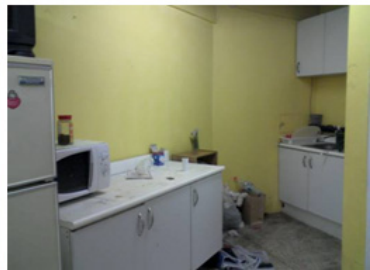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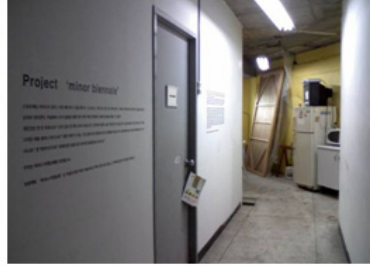
- : 야외작업장이 있으나 주변이 주택가이므로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 (소음공해)
- : 현재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아래 갤러리와 세미나실을 함께 사용하지만, 지역사회와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된다면 세미나실이 반드시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사 때마다 책상과 의자를 넣다 빼다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다.
- :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한다.
- : 각 방마다 전력량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미디어작업 등의 경우 감안)
- : 세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실크 천, 사진작업 등은 들여오지 못하고 있음)
- : 방마다 방음이 잘 되어야 합니다. 결국 주거공간과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 🔗 썸지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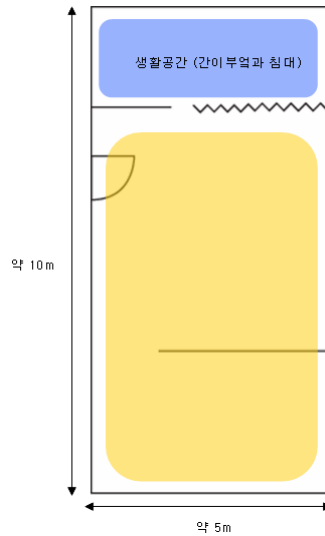
- 내용 : 시각예술 전문 갤러리 및 레지던시
- 활동공간 : 마포구 창전동
- 공간수요 : 일반인/ 예술가
- 공간규모 : 7개층
- 공간구성 : 스튜디오, 갤러리, 아트샵, 학예실, 아카이브 공연실, 공연기획실



<예술가 레지던스 공간>



<기타 각종 공간>



<쌘지작가 레지던시공간의 기본유형>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일반 빌딩 1채로 약 1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3개층이 레지던스로 운영되는데, 각 실의 크기가 다 다르고 1년/3개월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입주합니다. 실의 크기는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만, 착한 분께서는 큰 작업 작가에게 본인이 뽑힌 좋은 공간을 양보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오픈스튜디오 형식의 공개전시를 합니다.

■ 레지던스 공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작가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전문가로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큐레이터를 통해 맨투맨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야말로 ‘소개’를 해주는 것이지요.

■ 시각예술분야 기획공간의 최근 화두가 무엇인가요?

: 팬찮은 전시장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현재 팬찮은 전시장들이 조금씩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 이 공간에서 좀 더 채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샤워실, 주방, 냉난방시설, 작가들이 간단한 단체 미팅할 수 있는 휴게공간, 공동공작실 (기본적인 목공, 철공 할 수 있고 기자재가 구비된 곳)이 필요합니다. 작가마다 공간을 구획하는 특징이 다르므로, 이동 조립 가능한 파티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은 언제나 높고 크게!

■ 작업실 조성 시 중요한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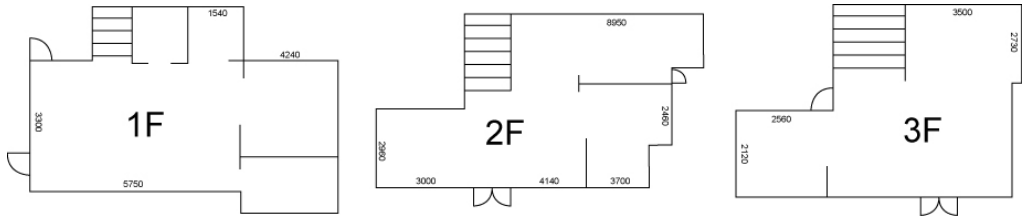
: 숙식과 작업공간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에 들어 화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갤러리헛

- 내용 : 시각예술 전문 갤러리 및 레지던스
- 활동공간 : 마포구 서교동
- 공간수요 : 일반인/ 예술가
- 공간규모 : 3개층

- 임대료 : 5000/250~300만원
- 공간구성 : 스튜디오, 갤러리, 학예실, 야외작업장



■ 현재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임대한 것으로 건물주와 상의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층고는 천장을 까니 2800-3000정도가 가능합니다. 벽은 벽돌+콘크리트, 천장은 목공+조명레일, 바닥은 장판입니다. 저희는 그림을 행일할 때 벽을 그냥 뚫는데 아마 보통갤러리는 와이어레일이 필요하겠죠? 지하는 임대작업실, 1층은 갤러리, 2층은 오피스+회의실+갤러리입니다. 지하의 작업실은 처음에는 레지던시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 12만원에 대여하고 거의 비공개적으로 작가들이 릴레이식 입주를 합니다. 입체작업은 외부작업장에서 가능하고, 주차는 1대가 가능합니다. 주로 드로잉이나 에스키스를 이 곳에

서 진행하시고 사진작업경우 별도 암실을 임대하여 제작하십니다. 갤러리는 벽상태가 자유로워 실험적인 시도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가끔 전시와 퍼포먼스 혹은 공연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차별성입니다. 다만 공간이 커서 청소가 어렵고 온풍이 잘 돌지 않아 가스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에로사항?! 주택을 개조하여 생긴 단점입니다.

■ 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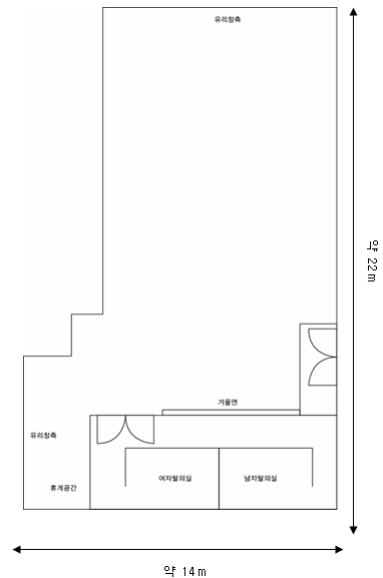
: 주변에 갤러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맴이 생기고, 교류가 활발하도록 말이지요. 워낙 인터넷주문이 잘되니 프린트 등의 생산 인프라시설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덜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발표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3 | 공연예술분야 |

1 | 창작공간

● 총무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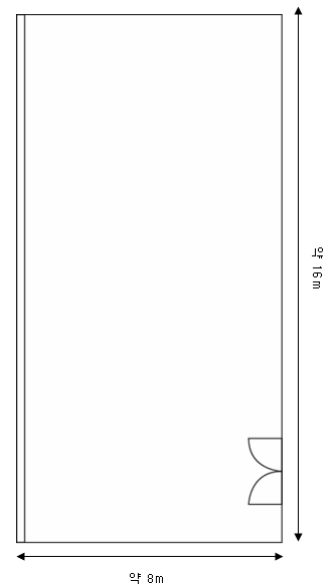
- 이름 : 총무아트홀 대 연습실
- 내용 : 공연예술
- 활동공간 : 중구 신당동
- 공간수요 : 공연장과 연계 대관 / 외부대형공연자  
한번에 약 30-40명 + staff 수용가능
- 대관료 : 22만원/4시간
- 공간규모 : 약 73 평 (240㎡), 층고 약4200
- 개조여부 : 창고를 락커로 용도 변경함
- 공간설비 : 마루 바닥, 중앙공조(냉난방 및 환기)  
이중문 (방음용 극장문)
- 장비 : 음향(tape/CD/DVD/스피커), 피아노
- 가구 : 테이블 10ea, 의자 50ea, 지휘자용 의자1ea,  
휴게용 소파, 정수기, 보면대, 공기청정기,  
옷걸이, 이동식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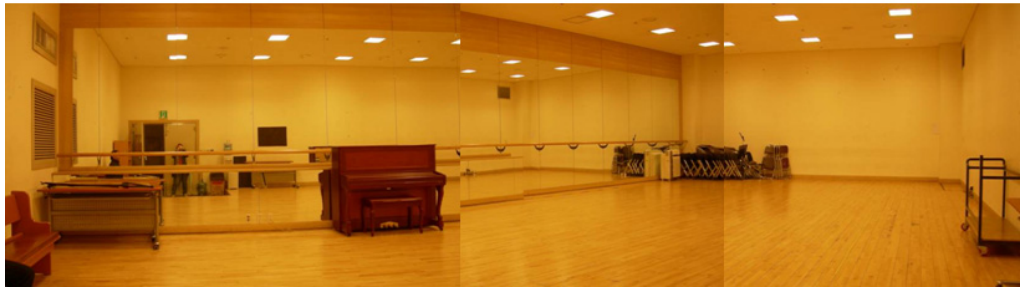


- 공간구성 : 분장 및 탈의실 (락카)
- 기타 :청소를 해줌, 주차, 샤워시설 가능, 인터넷가능



- 이름 : 충무아트홀 소연습실
- 내용 : 공연예술
- 활동공간 : 중구 신당동
- 공간수요 : 공연장과 연계 대관 / 외부대형공연자  
한번에 약 20명 + staff 수용가능
- 대관료 : 11만원/4시간
- 공간규모 : 약 39 평 (128m<sup>2</sup>), 층고 약4000
- 개조여부 : 없음
- 공간설비 : 마루바닥, 중앙공조(냉난방 및 환기)  
이중문 (방음용 극장문)
- 장비 : 음향(tape/CD/DVD/스피커), 피아노
- 가구 : 테이블 10ea, 의자 50ea, 지휘자용 의자1ea,  
휴게용 소파, 정수기, 보면대,  
공기청정기, 옷걸이, 이동식 bar
- 공간구성 : 분장 및 탈의실 (락카)
- 기타 :청소를 해줌, 주차, 샤워시설 가능, 인터넷가능





■ 공간을 소개해주세요

: 대연습실과 소연습실이 있어 규모별로 임대합니다. 저희 공연장을 대관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외부공연자도 가능합니다. 건물내의 스포츠센터의 샤워시설과 주차장을 추가로 무료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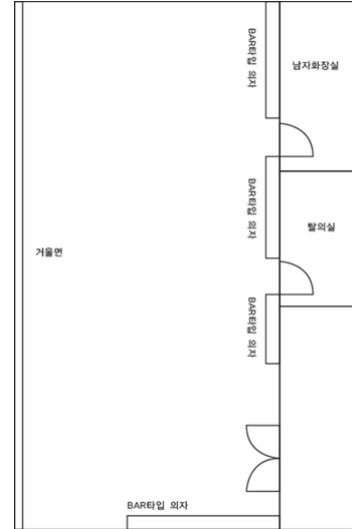
연습실에는 탈의실(락카)이 있고 신발장, 정수기, 책상, 의자, 지휘자용 의자, 보면대, 음향장비,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을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청소를 해드리고 스케줄을 미리 짜서 중앙시스템에서 공조(환기 및 냉난방)을 실시합니다. 공연하시는 분들은 공조가 매우 중요하십니다.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고 움직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앙공조가 되지만, 별도의 공기청정기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장점이 있고 문은 당연히 극장에서 쓰는 이중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음은 문제없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제공해드립니다.

## ● 대학로연습실

- 이름 : 대학로연습실(서울문화재단운영)
- 작업내용 : 개인연습, 사물놀이, 탭댄스,  
밴드를 제외한 공연예술
- 활동공간 : 종로구 동숭동
- 공간수요 : 각종 공연단체
- 임대료 : 15000-28000원/4시간
- 공간규모 : 20평/35평/55평, 층고 약2700
- 공간설비 : 마루바닥, 중앙공조(냉난방 및 환기)  
이중문 (방음용 극장문), 층간방음설비
- 장비 : 음향(tape/CD/DVD/스피커), 피아노
- 가구 : 테이블 , 의자 , TV, 휴게용 소파,  
정수기, 보면대, 공기청정기, 옷걸이, 이동식 bar
- 공간구성 : 분장 및 탈의실 (락카)
- 기타: 청소,주차, 샤워시설, 인터넷 불가, 생수 별도구입



기본 유형



### ■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 이 곳은 소규모의 공연단체들을 위한 연습실입니다. 중/대규모의 공연은 남산창작센터로 가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타임에서 2개월까지 단기/장기임대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운영하시면서 공간에 아쉬움이 있다면?

: 지하라서 나쁜 점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하이지만 중간에 테라스 형태의 공간이 있어 환기가 가능하고 공조시설을 다 구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층고가 낮아서 무대세트가 들어올 경우, 의상이 큰 경우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규모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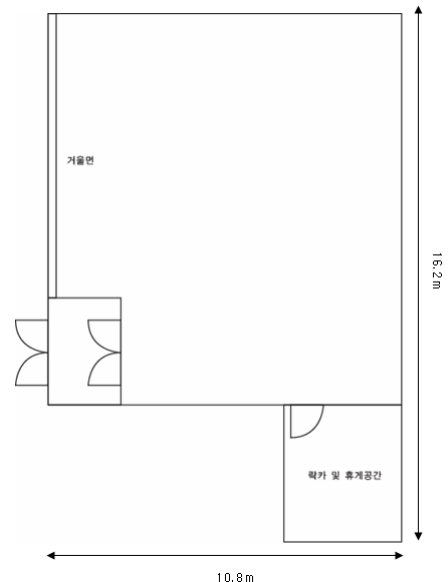
그리고 직각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무대와 같은 느낌으로 리허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무대에 가깝게 조성해야하죠. 같은 층의 소음은 커버 가능하지만, 층간의 소음이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탭댄스, 사물놀이, 공연밴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요?

: 생각보다 책상과 의자가 많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리딩이나 오디션을 할 경우 30명 이상 의자가 필요할 경우 있습니다. 피아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락커에 의상, 소품, 악기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서울공연예술종합연습실

- 이름 : 서울공연예술종합연습실  
(서울연극협회 운영)
- 작업내용 : 공연예술
- 활동공간 : 종로구 동숭동
- 공간수요 : 각종 공연단체
- 임대료 : 4-10만원/4시간
- 공간규모 : 45평, 층고 3000
- 공간설비 : 마루바닥,  
중앙공조(냉난방 및 환기)  
이중문 (방음용 극장문),  
층간방음설비
- 장비 : 음향(tape/CD/DVD/스피커), 피아노
- 가구 : 테이블 , 의자 , TV, 정수기, 보면대,  
공기청정기, 옷걸이, 이동식 bar
- 공간구성 : 분장 및 탈의용 휴게실(락카)
- 기타 : 청소,주차, 인터넷





■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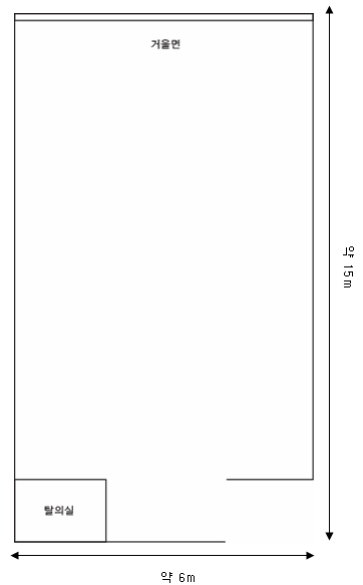
: 기존 연습실에 비해 2층이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는 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 샤워시설이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 일반대여연습실

- 이름 : 미기재 (상업용 일반대여연습실)
- 작업내용 : 공연예술
- 활동공간 : 종로구 동숭동
- 공간수요 : 각종 공연단체
- 공간설비 : 장판바닥, 중앙공조(냉난방 및 환기)
- 장비 : 음향(tape/CD/DVD/스피커), 피아노
- 가구 : 테이블, 의자, TV, 정수기, 보면대, 공기청정기, 옷걸이, 이동식 bar
- 공간구성 : 분장 및 탈의용 휴게실(락카)
- 기타 : 청소,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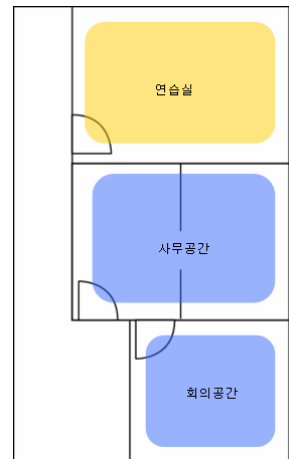




## 2 창작 및 창작지원/교류공간

### ● 경계 없는 예술센터

- 이름 : 경계없는 예술센터
- 작업내용 : 거리극
- 활동공간 : 문래동
- 공간수요 : 고정 약6인 + 초대단원
- 임대료 : 월세30만원
- 공간규모 : 약 30평
- 개조여부 : 없음 (외벽 페인트칠 마감만 새로)



■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상주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습실도 공연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지 않고 청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워낙 싸서 입주하게 되었고, 개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칠을 새로 한 정도입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복도를 창고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 문래 아트팩토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공연장으로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동식 객석이 있다면, 연습실과 발표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기기(프로젝터, 조명) 등이 구비된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층고 확보입니다. 녹음실, 대형제작실, 창고등 지원공간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항상 무대장치나 의상을 보관하지 못할 경우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척 아쉽습니다. 잘 보관하고 혹은 대여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좋겠어요

● 한국무용단 비움

- 이름 : 한국무용단 비움
- 작업내용 : 한국무용
- 활동공간 : 서초동
- 공간수요 : 고정 약5인 + 초대무용수
- 임대료 : 고정공간 없음
- 공간규모 : 상동
- 필요설비/공간 : 기본적인 규모 확보 (층고 확보 및 기동최소화, 팀 규모별 연습실), 고무판 바닥 마감, 오디오/비디오 시설, 거울벽 1면, 탈의실, 영상 투사 가능한 벽과 프로젝터, 가변벽, 이동식bar
- 필요장비 : 특별히 없음

■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 5-10인의 유동적 인원이 공연을 하며 지냅니다.  
연습실은 대여하거나, 졸업한 학교시설을 몰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습실 대여비가 매우 비쌉니다.

■ 대여시 연습실 환경조건에 대해 고려하시는 사항은?

: 고무판이 깔려있으면 좋지만, 마룻바닥이 많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시설이 있어 배경음악 뿐 아니라 연습한 것을 녹화하여 review할 수 있을 것  
거울은 1면만 있어야 합니다. 많으면 어지러워요.  
탈의실이 있어야 하고, 층고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기본 4~5m는 되어야 합니다. 이동식 bar가 있어야겠지요.  
요즘은 공연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영상을 쏘며 연습할 수 있는 벽과 프로젝터가 연습실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변벽이 있으면 용이합니다.

■ 그 중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 넓은 평수, 기동이 없을 것, 고무판, 높을 것

■ 아트팩토리에 대해 상상한다면?

: 3개월정도의 연습기간이 일반적이는데, 이때 단기합숙이 가능한 공간이 연습실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공연을 위해 준비하는 세트, 소도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단기임대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벽, 의상, 방염천 같은 비싼 도구들이 창고가 없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회의실같은 기획공간과 포스트 프로덕션이 가능한 편집실이 있으면 좋지요.  
그 곳에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디자이너, 영상작업하시는 분, 음악(작곡/편집)가, 조명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다른 무용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4 | 문학분야 |

### ● 문지문화원 사이

- 내용 :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장르예술
- 활동공간 : 마포구 동교동
- 공간수요 : 일반인
- 공간규모 : 2개층 (각층 약 75평)
- 공간구성 : 강의실, 세미나실, 갤러리, 사무실, 회의실
- 장비 : 음향/영상(빔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 VTR 등)



### ■ 어떤 일을 하세요?

: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학관은 창작자를 위한 공간인 것이 비해 저희는 대중적인 공간입니다. 특수한 것을 지향한다기보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합니다. 정기적인 아카데미 이외에 비정기적인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영화, 문학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문학동인페스티벌의 경우 낭독과 함께 퍼포먼스를, 희곡동인의 경우 실제 극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화감독과의 토크, 혹은 영화감상회도 진행합니다.

■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간적 수요는요? 그리고 문학은 대중과 어떻게 만나죠?

: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은 ‘무대’입니다. 문학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복합체로써의 문화를 지향하므로 다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기본적인 무대 (스태이지, 음향, 조명)가 유용합니다. 최근 북콘서트, 문학콘서트라는 유형의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예입니다. 반드시 show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speech, presentation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한데 페차쿠차night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워크숍 장소로써의 간단한 공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매체를 직접 생산하는 형식은 공방의 형태를 빌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대관 및 기획전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학은 음악 뿐 아니라 미술분야와도 밀접하여 실제로 두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예술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학의 발표형태도 따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 공연의 형태로 말이지요.

● 싱글레어

- 작업내용 : 잡지 출간 및 문학을 기반으로 한 전시 및 공연
- 활동공간 : 홍대인근
- 공간수요 : 고정 약5인 + 각 월별 필자
- 임대료 : 1000-70
- 공간규모 : 약 15평
- 개조여부 : 없음
- 필요설비/공간 : 주방, 편한 분위기
- 필요장비 : 특별히 없음

■ 어떤 일을 하시나요?

: 한 달에 한번씩 10년간 정기적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시, 공연 등을 비정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기획 등의 회의가 있을때 말입니다.

: 사무실 공간보다는 카페를 회의장소로 선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지요. 한번 만나면 약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생각보다 딱히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고 이야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면 됩니다.

■ 공간에 대한 바람을 말해주세요.

: 유연하게 발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대의 경우 음악은 클럽, 전시는 기존 갤러리 형태가 대부분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클럽음악보다는 좀더 밝고 말랑한 음악회를 열고, 기존갤러리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사진이나 그림전을 엽니다.

이럴 경우 대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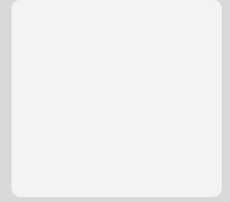
■ 문학관련 공간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 유통공간이 시급합니다. 다양성을 무기로 자라나는 인디문화는 소규모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유통경로가 필요합니다. 소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매니저가 필요하구요. 일종의 문화 배급처인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형태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창고에 대한 아이디어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산한 제작물들을 소규모 작업실에서는 보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시스템이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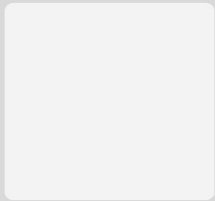
■ 아트팩토리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무엇보다 이런 사업으로 소수의 예술가가 자신만의 생산을 하는 지원체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됐으면!





# 참고문헌





### ● 단행본

- 『광고, 커뮤니케이션, 문화마케팅』, 최용호 외, 인간사랑, 2005.
-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박성봉 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대학 교회 박물관의 브랜드 마케팅 스토리: 소비문화시대 비영리 기관의 브랜딩 전략』, 제임스 트위첼, 김앤김복스, 2007.
- 『도심재생을 통한 현대 공공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이주영, 정재용, 한국도시설계학, 2007.
- 『마케팅 PR』, 정해동,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4.
-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보니타 콜브, 김영사, 2004.
- 『문화예술마케팅』, F.콜버트, 태학사, 2005.
- 『문화예술 정책론』, 이흥재, 박영사, 2005.
-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서울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라도삼, 이호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문화예술홍보론』, 임연철,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7.
- 『문화정책학』, 고토 가즈코 외, 시유시, 2004.
- 『문화콘텐츠 마케팅: 공연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명천 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6.
-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양건열, 김성원 공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부천시 문화공간 활성화방안 연구』, 부천문화재단, 2002.
-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 생활권 문화창작공간으로서의 문화의집 강화방안』,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2006.
- 『서울시 문예지원 방향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 양건열 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박영정 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예술경영과 문화정책』,이토오 야스오 외, 역사넷, 2002.
-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양건열 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7.
- 『전석매진』,필립 코틀러, 김영사, 2007.
-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서헌제, 정병운,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김민주 외, 미래의 창, 2005.
-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 시책』,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0.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비영리 PR』,캐스린 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 논문

- 『구도심 재생을 고려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변항기, 조종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허운선,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조형예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도시문화마케팅 해외사례 연구』, 오동훈, 권구황, 국토계획: v.42 n.5(통권 158호), 2007.
- 『도시마케팅 전략에 있어 디자인 혁신이 도시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계천 복원사례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6.
-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의 성능기준 도출 연구』,조성태, 김성엽, 장주은, 강동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회』,2008.
- 『도시 재생과 미술 문화 공간 설립에 관한 연구』,서동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방안』,서원희, 이현희, 강준모, 황기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회』,2008.
- 『도시문화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김동진,박종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05.
-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이보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2007.

- 「미국 샌프란시스코 YBG 재생지역의 고령친화 디자인 특성」,황근영, 허윤경, 윤혜경,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권14호』,2008.
- 「산업유산(産業遺産)의 재활용방법 탐색」,강동진,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3.
- 「선진공업도시의 지역재생정책에 관한 연구」,신동호, 『국토계획』v.43 n.2 (통권 162호), 2008.
- 「왜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인가: 창작환경 기반 조성으로서의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의 당위성과 방향」,박신의, 2005.
- 「이태리볼로냐의 용도쇠퇴 기계공장건물 재생사례연구」,황선혜, 김다해, 김혜연, 윤혜경, 이연숙,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통권14호』,2008.
- 「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현식,서동희, 『인천발전연구원』,2004.
- 「지하도상가 광장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 의식에 관한 연구」, 이효창, 하미경,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4 n.4』,2008.
- 「지역의 문화생산 활동과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_‘홍대앞’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이석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2003.
- 「장소 마케팅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_서울홍대지역 클럽문화를 사례로」,이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2003.
-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은정, 박연곤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호』, 2004.
- 「한국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최관호,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 기 타

- “노는 땅에서 놀기;유희 공간의 문화적 활용,” 류제홍 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7.
- “버려진 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 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 안태호, 컬처뉴스, 2008.
- “산업유산을 활용한 창조클러스터 형성과 창조산업의 전개,” Simon Evans, 『산업유산과 지역재생 국제 심포지엄』,2008.

- “세 도시 이야기,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문화생태계 엿보기,” 서울문화포럼, 제4차 정책세미나, 2008.
- “세 도시 이야기, 유럽 주요도시의 문화생태계 엿보기,” 서울문화포럼, 제 5차 정책세미나, 2008.
- “아시아 공동제작 사례 조사 : 아시아아트플렉스 아시아 공동제작 다큐멘터링,”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2007.
- “아시아 공연예술 지원기관 및 공연예술 레지던스 기관 현황 : 아시아 아트플렉스-아시아 공연예술 기초 실태조사(1),”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 “아시아 아트플렉스 운영조직화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최인기 외,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 “아트팩토리 사업,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작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문화연대 월례포럼 7월호, 2008.
- “영국 창조 클러스터 국제회의 참가 영국 출장기,” 김해보, 2006.
- “왜 대안공간을 묻는가 : 대안공간의 과거와 한국미술의 미래,” 짬스페이스, 2008.
- “전국 미술 창작실 네트워크의 현황과 전망,” 김윤환,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추진위원회, 2006.
- “지역발전 매개체로서의 지역공간 공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30호, 1999.
- “한국의 대안공간 실태 연구,” 이동연 외, 문화사회연구소, 2007.

### ● 참고문헌

- 김강, 『삶과 예술의 실험실 \_ squat』, 문화과학사, 2008.
- 김규원, 『당인리 화력발전소 문화공간조성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김성달,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양수, 『문래동 타령』, 『바람도 휴식이 그리울 것이다』, 서울: 푸른숲, 1997.
- 다원예술매개공간, 『다원예술매개공간2007』, 2007.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6.
- 문화연대, 『독립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정책』, 2000.  
『독립예술문화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 미술인회의,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사업성과 보고서』, 2006.
- 라도삼,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서울정책포커스』, 41호, 2007.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아트팩토리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2008. 12. 1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문화벤티집적시설 조성방안』, 20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영등포 근대 100년사』, 서울, 2004.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심포지엄 자료집, 『아시아 대안문화센터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 2003.
-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시각예술정책포럼 <예술가 창작환경조성>, 2006.
- 이정욱,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적 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정홍, 『영등포의 공업지역 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2002.
-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북 및 국제교류소위원회, 『산업시설물에서 예술공장으로\_예술공간의 재창출과 문화행동』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 허운선, 『국내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Fabrice Lextrait, Nouveaux Territoires de l'Art, Sujet/Objet, Paris, 2005.

● 기타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국사 연표

Le Petit Robert , Dictionnaires le Robert, Paris, 2003.

● 언론기사

경향신문, 1990 ~ 2008년.

동아일보, 1945 ~ 2008년.

세계일보, 1990 ~2008년.

자유신문, 1951년.

한겨레, 1990 ~ 2008년.

한겨레21, 2002년 11월 7일, “홍대 앞, 이태원을 따라가다”, 제433호

● 웹사이트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www.artstudio.or.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네오룩, <http://neolook.net/mm06/060909e.html>

다원예술매개공간 홈페이지, <http://www.daospace.net/>

문지문화원 사이 홈페이지, <http://www.saii.or.kr>

상상마당 홈페이지, <http://www.sangsangmadang.com>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seoulfringe.net>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ydp.go.kr>

클럽문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clubculture.or.kr>

<http://www.dwds.de>

### ● 논문 외 전문잡지

- <문화예술창조도시를 향한 요코하마의 문화예술관광에 의한 도심재생>, 오민근, 서울대 경관보전및개발연구소  
 맹완호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의 교류>, 서울문화포럼, 2008  
 라도삼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과 향후정책방향>, 서울정책포커스 제41호,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2007  
 김찬동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문제점과 성과향상 방안>, 서울연구포커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CARTA, MAURIZIO CULTURAL IDENTITY AS THE SECOND PERSPECTIVE OF LOCAL DEVELOPMENT>, "URBANISTICA", NO.114, INU 2000

### ●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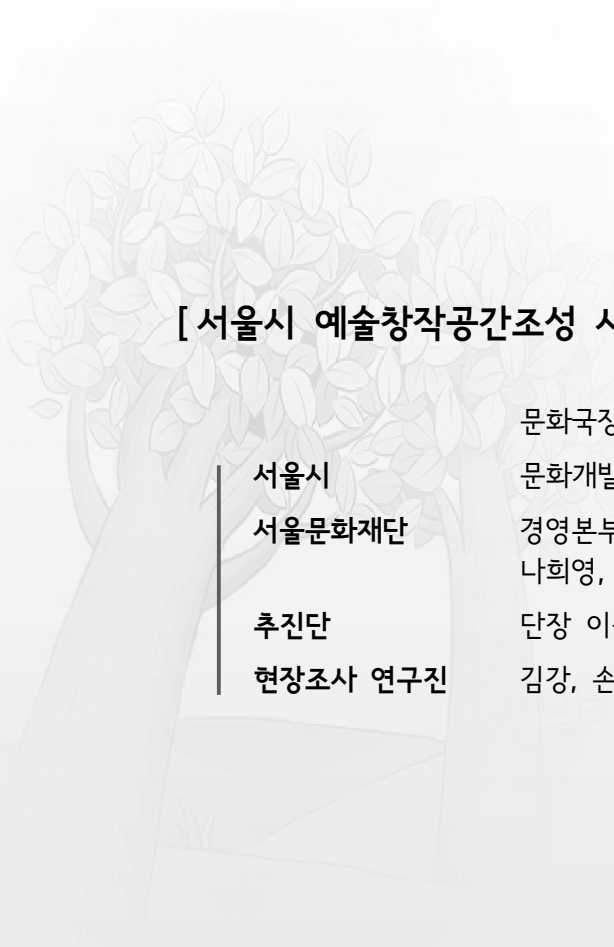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 2000  
 BETTIOL, MARCO & MICELLI, STEFANO <DESIGN E CREATIVITA' NEL MADE IN ITALY>, BRNO MONDADORI, 2005  
 CARTA, MAURIZIO <NEXT CITY: CULTURAL CITY>, MELTENI, 2004  
 COGNETTI, COGNETTI <IN UNA GOCCIA>, POLIPRESS, 2007  
 MELA, ALFREDO <SOCIOLOGIA DELLE CITTA'>, CAROCCI EDITORE, 2006  
 MORANDI, CORINNA <MILANO: LA GRANDE TRASFORMAZIONE URBANA>, MARSILIO, 2005  
 REDAELLI, DANILLO <RILIEVO URBANO E AMBIENTALE>, LIBRERIA CLUP, 2005  
 SAHLINS, MARSHALL <OUR CREATIVE DIVERSITY>, UNESCO

### ● 기타 아티클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요람>,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2006  
 문화정책워크숍 자료집-노는 땅에서 놀기-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사)민예총

● 웹사이트

서울시설공단 [www.sisul.or.kr](http://www.sisul.or.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ww.sdi.re.kr](http://www.sdi.re.kr)  
서울특별시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서울시 GIS 포털시스템 <http://gis.seoul.go.kr>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www.cct.go.kr](http://www.cct.go.kr)  
Municipality of Milan [www.comune.milano.it](http://www.comune.milano.it)  
BASEB [www.zona.com](http://www.zona.com)  
TORTONA [www.zonatortona.com](http://www.zonatortona.com)  
SUPER STUDIO GROUP [www.superstudiogroup.com](http://www.superstudiogroup.com)  
Le 104 [www.104.fr](http://www.104.fr)



## [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 참가자 명단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추진단

현장조사 연구진

문화국장 권혁소, 문화정책과장 김성수

문화개발팀장 임종현, 황차호, 김경용, 현진숙

경영본부장 오진이, 창작공간조성 TFT 팀장 김해보,  
나희영, 이상임, 조예인

단장 이선철, 전문위원 김윤환, 조재원

김강, 손민아, 송수연, 권범철, 정소익, 한지인, 박재희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보다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ww.sfac.or.kr](http://www.sfac.or.kr)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기획** : 창작공간조성TFT

**발행일** : 2009년 1월 31일

디자인 및 인쇄 : 이니디자인 (☎ 885.1250) [www.yesini.com](http://www.yesini.com)

본 자료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